

CHANEL
CULTURE FUND

ACCELERATING IDEAS ADVANCING CULTURE

LEARN MORE AT CHANEL.COM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icket Catalogue 2026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6-15 October 2026



GENESIS GV90 NEOLUN



■ 구입문의 및 고객센터 080-700-6000 ■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 GV90 Neolun (AWD, 4인, 24인치): 복합 3.0km/kWh(도심 3.0km/kWh, 고속도로 2.9km/kWh) | CO₂배출량: 0g/2m 1회 충전 주행 거리: 복합 432km | 충전기 전력선인 용량: 703V/75.7Ah | 공차중량: 3,460kg | (5등급) ▶ GV90 Neolun (AWD, 6인, 24인치): 복합 3.2km/kWh(도심 3.3km/kWh, 고속도로 3.1km/kWh) | CO₂배출량: 0g/2m 1회 충전 주행 거리: 복합 460km | 충전기 전력선인 용량: 703V/75.7Ah | 공차중량: 3,355kg | (5등급) ※위 전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전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전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고효율 배터리가 탑재되는 전기차의 특성상 내연기관 모델 대비 중량이 증가하므로, 국내 가계의 주차장 규격 고려 시 가계의 주차장 주차가 불가 할 수 있습니다. ※급속충,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마십시오. ※정속주행을 합니다. ■ 제네시스는 지점/대리점의 카마스터를 통해서만 판매하며, 전국 어느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문화예술로 쌓아온 59년 부산은 행복합니다

문화로 웃음을 키웠습니다
예술로 일상을 빛냈습니다

부산의 행복이 문화예술로
더 커질 때까지
지난 59년처럼, 멈추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BNK가 함께하겠습니다

BNK 부산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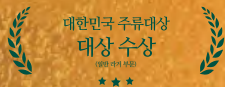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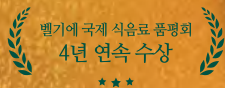
(이 광고는 생생형 시로 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부산은행



이런 스무스는 오직 한맥뿐

부드러움의 기준을 또 한 번 높였다



한맥
엑스트라
크리미


끝까지 끝내주는 AI

네이버 AI탭

NAVER

더 알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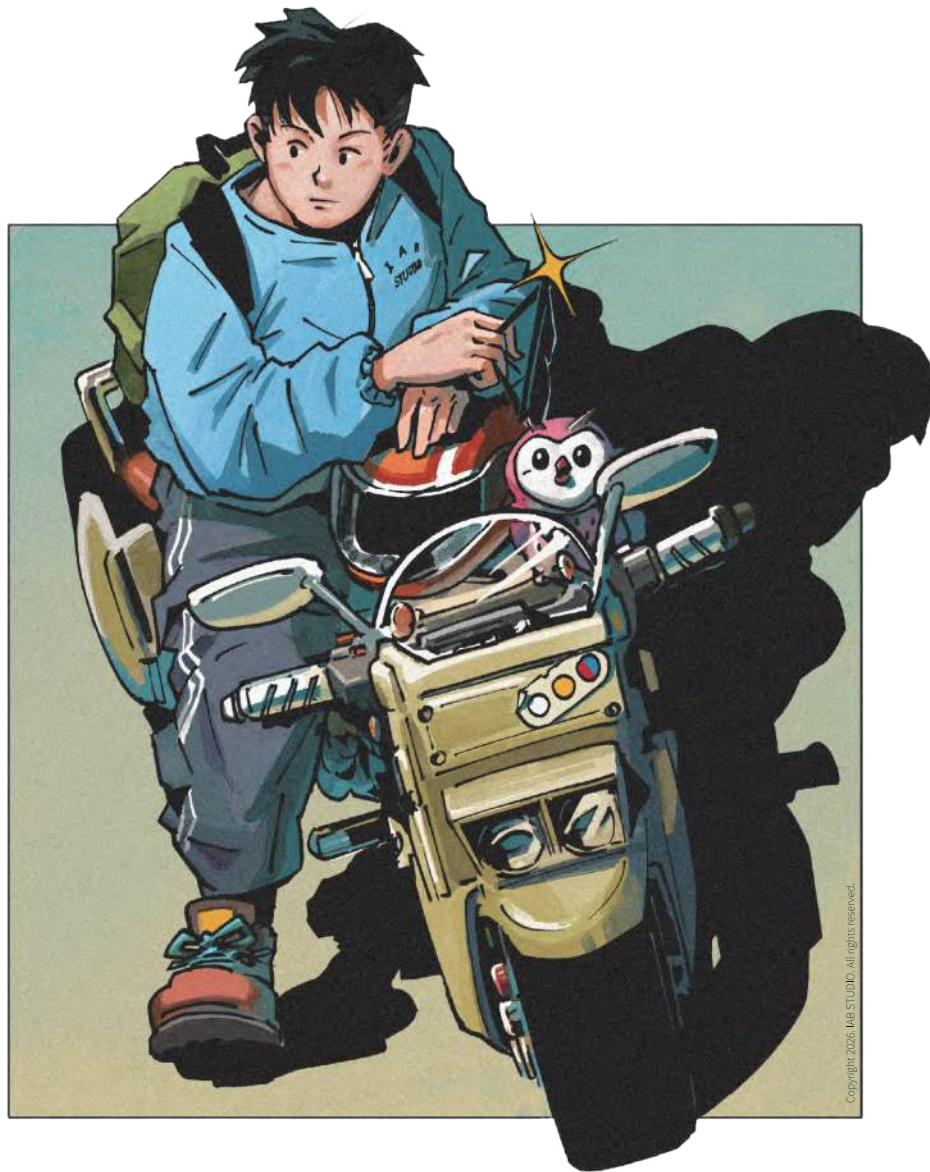
WIN YOUR DAY
PARADISE
CASINO BUSAN

여행의 모든 것.
Trip.com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중심 한국거래소

국제금융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부산,
바로 이곳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Copyright 2016 IAB STUDIO. All rights reserved.

I A B
STUDIO
ESTABLISHED
2013



FOR 20 YEARS, CREATING THE NEXT WAVE OF K-CULTURE

칸영화제 단편 경쟁부문에 진출한 'THE DREAM IS A SNAIL'부터,
한국뮤지컬어워즈 작품상 수상 후 해외 무대에 오른 뮤지컬 '홍련',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음악인에 빛나는 Z세대 록스타 '한로로'까지.

CJ문화재단은 20년간 음악, 영화, 뮤지컬 분야의 젊은 창작자들을 지원하며
K-컬처의 다음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cj.cultural.foundation



영화부터 도서·신문·공연·전시·체육시설까지

영화 같은 순간,
문득! 떠오르는 문화생활 혜택

문득

[문화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



문화체육관광부

KCISA 한국문화정보원



영화진흥위원회

K-무비의 변화와
도약을 함께하는 파트너



koreanfilmcouncil_kofic



KoreanFilmCouncil



kofic_pr



성장과 균형



도전과 성과



공정과 확산



책임과 신뢰

영화의전당
15주년

15years with you

Major Sponsors



Gold Sponsors



Diamond Sponsor



31s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6-15 October 2026

Presenting Sponsors

Screening Schedule 상영일정표

Ratings 등급

- ALL** All / 전체관람가
- 12** Under 12 not admitted / 12세이상관람가
- 15** Under 15 not admitted / 15세이상관람가
- 19** Under 19 not admitted / 청소년관람불가
- GV** Guest Visit / 게스트와의 만남
- +** Goodwill Donation / 정겨운 나눔

Subtitles 자막

- KE** Korean Subtitles + English Subtitles or Dialogue
한글자막 + 영어자막 또는 대사
- KH** Korean Subtitles + Non-English Dialogue without English Subtitles
한글자막 또는 대사 + 영어자막 없는 비영어대사
- KK** Korean Subtitles + Korean Dialogue
시청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및 자막해설 제공
- NO** No Dialogue / 대사없음
- [UM]** (Unmarked) English Subtitles + Korean Dialogue
영어자막 + 한국어대사

Notice 안내

- 티켓 카탈로그는 2026년 9월 10일자로 발간되었습니다. 9월 10일 이후 상영 변동 사항은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 www.biff.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게스트와의 만남은 사전 고지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The Ticket Catalogue was printed off on Sep 10th.
Please check our website periodically for changes after Sep 10th.
- Guest Visit i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evious notice.

Inquiry / 문의 **Tel. 1666-9177**

Information 일정표 보는 법

Time	Code	Ratings	Subtitles	Page
18:00~	001	12	KE	40
상영시간	상영코드	등급	자막	페이지

Opening and Closing Ceremony 개폐막식 및 상영작 정보

Opening Ceremony 개막식/개막작

BT 18:00~21:20 001
장소 영화의전당 루프씨어터 일시 2026년 10월 6일 18:00
개막작 <낮과 밤은 서로에게>
Where Busan Cinema Center Roof Theater
When Oct 6, 2026 at 18:00
Opening Film The Table: Day and Night

Closing Ceremony 폐막식/부산 아워드 수상작 상영

BT 18:00 002
장소 영화의전당 루프씨어터 일시 2026년 10월 15일 18:00
폐막작 <부산 아워드 수상작>
Where Busan Cinema Center Roof Theater
When Oct 15, 2026 at 18:00
Closing Film Winner of the Busan Award

P&I(Press&Industry) Screening / P&I(프레스&인더스트리) 스크리닝

- 영화제 게스트와 프레스를 위한 상영입니다. 레드, 블루, 옐로우 배지 소지자에 한해 선착순 입장 가능합니다. (출입증 소지자는 입장 불가)
- P&I(Press&Industry) Screenings are reserved for festival guests and press. Entry is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for Red, Blue, and Yellow badge holders only. (Excludes Pass holders)

Theaters 극장

- B1** Busan Cinema Center Roof Theater / 영화의전당 루프씨어터
- BH** Busan Cinema Center Haneulyeon Theatre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 B1** Busan Cinema Center Cinema 1 / 영화의전당 중극장
- B2** Busan Cinema Center Cinema 2 / 영화의전당 소극장
- B3** Busan Cinema Center Cinematheque /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 BH** Busan Cinema Center Indiplus / 영화의전당 인디플러스
- C1** CGV Centum City 1 / CGV센텀시티 1관
- C2** CGV Centum City 2 / CGV센텀시티 2관
- C3** CGV Centum City 3 / CGV센텀시티 3관
- C4** CGV Centum City 4 / CGV센텀시티 4관
- C5** CGV Centum City 5 / CGV센텀시티 5관
- C6** CGV Centum City 6 / CGV센텀시티 6관
- C7** CGV Centum City 7 / CGV센텀시티 7관
- CX** CGV Centum City IMAX / CGV센텀시티 IMAX관
- L2** LOTTE CINEMA Centum City 2 /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2관
- L3** LOTTE CINEMA Centum City 3 /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3관
- L4** LOTTE CINEMA Centum City 4 /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4관
- L5** LOTTE CINEMA Centum City 5 /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5관
- L6** LOTTE CINEMA Centum City 6 /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6관
- L7** LOTTE CINEMA Centum City 7 /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7관
- L8** LOTTE CINEMA Centum City 8 /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8관
- L9** LOTTE CINEMA Centum City 9 /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9관
- L10** LOTTE CINEMA Centum City 10 /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10관
- K1** KOFIC Theater / 영화진흥위원회 표준시사실
- SH** Sohyang Theatre Woori Bank Hall / 소향씨어터 우리은행홀
- BCO**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Open Hall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공개홀
- M1** MEGABOX Busan Theater 1 / 메가박스 부산극장 1관
- M2** MEGABOX Busan Theater 2 / 메가박스 부산극장 2관
- M3** MEGABOX Busan Theater 3 / 메가박스 부산극장 3관
- M4** MEGABOX Busan Theater 4 / 메가박스 부산극장 4관
- CSS** Catholic Center Space 101.1 / 가톨릭센터 공간 101.1

6 TUE		1	2	3	4
BT	Roof Theater 루프씨어터				18:00~21:20 001 15 KE GV 80' 43 The Table: Day and Night 낮과 밤은 서로에게 (가막작+가막작)
7 WED		1	2	3	4
BT	Roof Theater 루프씨어터				20:00~21:40 003 ALL KE KE GV 100' 60, 162 Look Back 룩백
BH	Haneulyeon Theatre 하늘연극장	09:20~11:09 004 12 KE KE ♣ 109' 104 In My Father's Room 아버지의 방	12:20~14:39 005 12 KE KE GV 138' 53 Satoko Always 사토코는 언제나	16:30~18:45 006 12 KE KE GV 135' 48 The First Taste of Loneliness 처음 만난 외로움	20:40~22:02 007 12 KE KE GV 82' 47 The Day After Sunday 일요일 다음날
B1	Cinema 1 중극장	08:40~10:55 008 15 KE KE GV 135' 109 You, Like a Star 그대, 별처럼	12:30~13:42 009 ALL KE 72' 165, 177 Angel's Egg 천사의 알	15:30~17:23 010 12 KE KE GV 113' 187 Bus Stop + Flesh Impact 버스정류장+플래시 임팩트	19:30~21:17 011 12 KE KE GV 107' 60, 185 It's My Time 우리 할머니는 쿤누왕
B2	Cinema 2 소극장	10:00~11:39 012 15 KE KE 99' 131 Skintown 스킨타운	12:30~14:25 013 12 KE GV 115' 117 The World Before 것세계	16:00~17:27 014 12 KE KE GV 87' 105 In Winter 겨울 이야기	20:00~22:14 015 15 KE KE 134' 120 Clarissa 그날 밤, 클라리스에게
B3	Cinemathèque 시네마테크	09:20~11:07 016 12 KE KE ♣ 107' 79 Tender Loving Care 텐더 러빙케어	13:00~14:30 017 ALL KE 90' 126 Iron Boy 아이언 보이	16:30~18:03 018 15 KE KE 93' 122 The Fire Within You 매리 크리스마스, 영마	19:00~20:52 021 15 KE KE GV 112' 73 Mother Mary 마더 메리
C1	CGV 1		12:00~13:52 022 15 KE GV 112' 175 Whale Hunting 고래사냥	15:30~17:29 023 19 KE GV 119' 174 A Fine, Windy Day 바람불어 좋은날	
C2	CGV 2		11:30~13:04 024 19 KE GV 124' 175 White Badge 하얀전령	15:00~16:48 025 15 KE GV 108' 173 Chil-su and Mars-su 칠수와 만수	18:20~20:25 026 15 KE KE GV 125' 174 Gagman 개그맨
C3	CGV 3		12:20~14:46 027 15 KE KE 146' 69 Ford 피오르	16:00~17:30 028 15 KE KE 90' 139 Sad Gitz 세드 길즈	19:00~20:40 029 15 KE KE GV 100' 100 Filipiana 필리피나나
C4	CGV 4		12:00~13:59 030 15 KE KE 118' 98 The Burning Giants 불타는 거인들	16:00~17:50 031 12 KE KE GV 110' 159 Union Town 유니온 타운: 뉴욕을 달리는 사람들	19:20~21:01 032 12 KE KE 101' 109 Will You Still Be My Friend 내 친구로 남아줄래?
C5	CGV 5	09:00~10:53 033 15 KE KE 113' 179 MEMORIES 메모리즈	12:00~13:00 034 15 KE KE GV 60' 178, 182 Kakurenbo+Shiranui 숨바꼭질+시라누이	15:40~17:40 035 15 KE KE GV 120' 99 Diary of a Mad Old Man 미친 노인인 일기	19:20~21:17 036 15 KE KE GV 117' 182 We Are Aliens 우리는 외계인
C6	CGV 6	09:00~10:23 037 15 KE KE GV 83' 166 The Chain of Roses 장미의 사슬	12:20~14:00 038 12 KE KE GV 100' 81 zizi	16:00~17:35 039 12 KE KE GV 95' 103 Happily Ever After 오래오래 행복하게	19:40~21:21 040 15 KE GV 101' 113, 168 Sapiens 사피엔스
CX	CGV IMAX	09:30~12:06 019 15 KE GV 156' 115 HQPZ 호프		15:00~17:44 020 19 KE GV 164' 77 Possible Love 가능한 사랑	

Busan Cinema Center
영화의전당

CGV Centum City
CGV센텀시티

L2	LOTTE 2	12:00~13:30 041 ALL KE ♣ 90' 78 Red Rocks 붉은 바위에 아이들이 있다	14:30~16:19 042 15 KE KE 109' 66 Bucking Fastard 버킹 패스타드	17:30~19:30 043 15 KE KE 120' 104 Hearing 조용히 귀 기울이면
L3	LOTTE 3	10:00~11:20 044 15 KE KE 80' 103 Heard to Heard 노에는 눈	12:20~13:59 045 12 KE GV ♣ 99' 116 Ugly Duckling Ms. Maeng 수능, 출제의 비밀	19:00~20:39 047 12 KE KE ♣ 99' 159 Time and Tide 도르는 세월
L4	LOTTE 4	09:40~12:02 048 19 KE GV 142' 171 Dead-End Job 끝말바	13:40~15:30 049 12 KE GV ♣ 110' 115 SINNER 서벌	20:40~22:35 051 19 KE KE 115' 123 Gentle Monster 젠스 몬스터
L5	LOTTE 5	10:20~11:54 052 15 KE KE 94' 67 The Diary of a Chambermaid 리두 주대의 어느 하녀의 일기	13:00~14:12 053 12 KE GV 72' 75 Nowhere to Lay My Eyes 눈 돌다가 없네	19:00~20:50 055 ALL KE KE GV 110' 74 Nagi Nobis 나기 노트
L6	LOTTE 6	10:00~11:46 056 15 KE KE ♣ 106' 114 Final Interview 최종면접	13:30~15:48 057 19 KE GV 138' 170 The Blue Road 푸른길	20:20~22:27 059 15 KE KE 127' 67 Owari! 장영이
L7	LOTTE 7		13:20~15:28 060 15 KE KE 128' 102 A Girl Unknown 무명소녀	19:20~20:38 062 12 KE KE GV 78' 144, 145 Asian Short Film Competition 1 아시아단편 경쟁 1
KT	KOFIC Theater 표준시선	09:30~10:48 063 ALL KE 78' 183 The White Snake Enchantress 백사선	12:00~14:00 064 15 KE KE GV 120' 134 Bedford Park 베드포드 파크	19:10~21:27 066 15 KE KE GV ♣ 137' 101 Four Seasons in Java 자바의 사계절
BCM	Open Hall 공극장		12:00~13:44 067 15 KE KE 104' 106 No Good Man 좋은 남자는 없다	18:00~20:21 069 12 KE KE 141' 96 9 Temples to Heaven 천국으로 가는 아홉 사원

KOFIC
영화진흥위원회

BCM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P&I(Press & Industry) Screenings

BD	Indieplus 인디플러스	13:00~15:18 12 KE KE 138' 53 Satoko Always 사토코는 언제나	17:10~19:25 12 KE KE 135' 48 The First Taste of Loneliness 처음 만난 외로움	21:20~22:42 12 KE KE 82' 47 The Day After Sunday 일요일 다음날
C7	CGV 7	11:00~12:37 15 KE KE 97' 86 Selv 셀비		20:30~21:58 15 KE KE 88' 85 Dead End 데드 엔드

P&I

8 THU		1	2	3	4	5
Busan Cinema Center 영화의전당	BT	Roof Theater 루프シア터			20:00~22:00 070 12 KE GV 120 161 In the Clear Moonlit Dust 이슬다운 초저녁달	
	BH	Haneulyeon Theatre 하늘연극장	09:00~11:26 071 15 KE 146 69 Fjord 파르크	13:10~14:43 072 15 KE GV 93 55 Shaving 면도	16:40~18:16 073 15 KE GV 96 50 IBUKU 마이마더	23:59~04:58 075 15 KE GV 299 113, 168, 166, 163, 169 Midnight Passion 1 이드나잇패션 1
	B1	Cinema 1 중극장	09:00~11:11 076 12 KE 131 130 Sense and Sensibility 이성과 감성	09:00~14:30 077 15 KE GV 93 55 Shaving 면도	14:50~17:05 742 15 KE GV 135 189 Melancholia 멜랑콜리아	22:20~23:57 079 15 KE GV 97 124 The Man I Love 내가 사랑하는 남자
	B2	Cinema 2 소극장	08:40~10:30 080 12 KE GV 110 159 Union Town 위온 타운: 뉴욕을 달리는 사람들	12:30~13:50 081 ALL KE GV 110 74 Nag Notes 나기노트	15:30~17:54 082 19 GV 144 190 The Handmaiden 아가씨	22:00~23:39 083 15 KE 99 131 Skintown 스킨타운
	B3	Cinematheque 시네마테크	09:00~10:22 084 12 KE GV 82 47 The Day After Sunday 일요일 다음날	12:30~14:15 085 12 KE GV 135 48 The First Taste of Loneliness 처음 만난 외로움	15:50~17:32 086 15 KE 102 121 Everybody Digs Bill Evans 내가 사랑한 빌 에번스	22:30~00:05 088 15 KE 95 131 Too Many Beasts 짐승이 너무 많아
CGV Centum City CGV센텀시티	C1	CGV 1	09:40~11:21 094 15 KE 101 158 Rehearsals for a Revolution 리허설 포레블루션	12:40~14:35 095 19 KE 115 123 Gentle Monster 젠틀 몬스터	15:40~18:05 096 15 KE 145 127 La Gadviva 라 그라디바	
	C2	CGV 2	09:20~11:25 097 15 GV 125 174 Gagman 개그맨	13:30~14:59 098 19 GV 119 174 A Fine, Windy Day 바람불어 좋은날	16:30~18:34 099 19 GV 124 175 White Badge 하얀전령	20:10~22:02 100 15 GV 112 175 Whale Hunting 고래사냥
	C3	CGV 3	09:40~11:21 101 15 KE 101 118 Ben'mina 베나미나	12:40~14:30 102 12 KK 110 112 Cattle Run 장가네	15:40~17:37 103 15 KE GV 117 99 Dhana 다라, 물러감	19:40~22:10 104 15 KE KK 157 186, 185 Sandiwara +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산디와라+헤브리앨 에이브리웨어 올앳원스
	C4	CGV 4	09:20~11:20 105 15 KE 120 130 Salvation 구원은 없다	12:20~14:13 106 15 KE GV 113 150 Revolving Lanterns 나뭇잎은태어난 곳에서 죽는다	16:00~17:35 107 12 KE GV 95 108 The Soul Whisperer 소울 위스퍼러	20:00~21:49 108 15 KE GV 109 97 Big Little Things 나의 사소한 모든 것들
	C5	CGV 5	9:00~11:12 109 15 KE GV 132 139 Titanic Ocean 타이타닉 오션	12:50~14:29 110 15 KE GV 98 191 Three Colours: Blue 세 가지 색 : 블루	16:30~19:01 111 19 KE GV 151 71 Let Us Through, Dear Ancestors 마더카린 포	20:30~22:17 112 12 KE 107 60, 185 It's My Time 우리 할머니는 쿼텟왕
LOTTE CINEMA Centum City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C6	CGV 6	09:00~10:52 114 15 KV 112 66 Bitter Christmas 비터 크리스마스	11:50~13:50 115 15 KE GV 120 134 Bedford Park 베드포드 파크	15:40~17:06 116 15 KE GV 86 136 Pia - Once Upon A Future 옛날 옛적, 미래에	18:40~20:10 117 15 KE GV 90 139 Sad Girlz 세드 걸즈
	CX	CGV IMAX	09:00~11:44 089 19 GV 164 77 Possible Love 가능한 사랑	13:20~14:42 090 15 KE 82 69 Fatherland 파더랜드	15:40~17:47 091 15 KE 127 67 Conward 강영이	22:00~23:12 113 12 KE 72 75 Nowhere to Lay My Eyes 온 돌래가 없네
	L2	LOTTE 2	09:20~11:02 119 15 KE 102 123 A Good Little Soldier 코믹 작전의 카탈라	12:30~14:00 120 15 KE GV 120 104 Hearing 조용히 귀 기울이면	15:50~18:07 121 15 KE ♠ 137 101 Four Seasons in Java 자바의 사계절	22:30~23:28 093 15 KE 127 81 Welcome to Doll's House 웰컴 투 돌라 하우스
	L3	LOTTE 3	09:00~10:30 123 ALL KE ♠ 90 78 Red Rocks 붉은 바위에 아이들이 있다	11:30~13:38 124 15 KE 128 102 A Girl Unknown 무명소년	14:40~16:15 125 15 KE GV 95 97 About an Intimate Matter 사적인 일애 관하여	21:50~23:50 136 12 KE GV 95 103 Happily Ever After 외아씨래 행복하게
	L4	LOTTE 4	09:00~10:57 128 15 KE GV 117 182 We Are Aliens 우리는 왜인	12:30~14:16 129 15 GV ♠ 106 114 Final Interview 최종면접	15:50~17:29 130 12 GV ♠ 99 116 Ugly Duckling Ms. Meeng 우글, 올빼미의 비밀	21:30~23:14 142 15 KE 104 128 A Place to Heal 15/18
KOFIC 영화진흥위원회	L5	LOTTE 5	09:00~10:59 133 12 KE 119 71 A Long Winter 긴 겨울	12:00~14:01 134 15 KE 121 129 Queen at Sea 영미의 바다	14:50~16:48 135 12 GV ♠ 118 116 Still Shining 여전히 찬란하게	20:30~21:50 150 15 KE 80 68 Dust 더스트
	L6	LOTTE 6	09:40~11:13 138 15 KE 93 124 Goodbye Cruel World 굿바이, 이별의 잔잔한 세상	12:20~14:02 139 12 GV 102 113, 163 The Sorry Generation 세대유감	15:40~17:36 140 15 KE 116 80 Wild Horse Nine 와일드 홀스 나인	18:30~20:05 136 12 KE GV 95 103 Happily Ever After 외아씨래 행복하게
	L7	LOTTE 7	10:00~12:15 143 15 KE 135 109 You Like a Star 그대, 별처럼	13:20~15:41 144 12 KE 141 96 9 Temples to Heaven 천궁으로 가는 이틀사흘	16:40~18:33 145 15 KE 113 127 La Perra 라페라	21:30~23:14 142 15 KE 104 128 A Place to Heal 15/18
	L9	LOTTE 9	11:00~12:25 147 12 KE 85 79 Thanks for Coming 왜서나고맷다는 거장의 인사	14:00~16:00 148 19 KE 120 68 The Echo Chamber 에코 챔버	17:00~18:55 149 15 KE 115 75 Orange-Flavoured Wedding 오렌지맛 웨딩	20:00~21:18 146 12 KE GV 78 145 Asian Short Film Competition 2 아시아 단편 경쟁 2
	KT	KOFIC Theater 표준시사실	08:40~10:23 151 15 KE 103 70 It Will Happen Tonight 오늘 밤, 사랑은 일어난다	11:20~13:00 152 12 KE GV 100 81 지 지	14:20~16:38 157 19 KE 138 170 The Blue Road 푸른길	18:00~19:48 153 15 KE GV 108 188 The Star-Faced Cat: Way of Asura 스타페이스 캣: 수라도
SOHYANG 소향씨아극회	SH	Woori Bank Hall 우리은행홀	09:00~10:23 155 ALL KE 83 179 The King and the Mockingbird 왕과 새	11:20~12:40 156 15 GV 80 43 The Table: Day and Night 낮과 밤은 서로에게	14:20~16:38 157 19 KE 138 170 The Blue Road 푸른길	18:20~20:27 158 15 KE GV 127 101 The Gate of Murder 살인의 문
	BCM	Open Hall 광화문	10:00~11:20 159 15 KE 80 103 Head to Head 눈에는 눈	12:20~14:07 160 15 KE 107 106 Lovers in the Blue Night 블루 나이트의 연인들	15:20~17:35 161 15 KE 135 108 Spirit Guardians: The Last Secret Of The First Emperor 수조천사: 황제의 마지막 비밀	19:00~20:48 162 15 KE 108 100 Elephants in the Fog 안개 속의 코끼리
	P&I(Press & Industry) Screenings					
	P&I	Indieplus 인디플러스	10:20~11:48 15 KE 88 82 1982 1982	13:50~15:25 15 KE 93 55 Shaving 면도	17:20~18:56 15 KE 96 50 IBUKU 마이마더	19:40~21:18 15 98 93 Nothing Has Happened Yet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C7	CGV 7		11:30~13:03 12 KE 93 83 After the Song 노래가 끝나고 후	15:30~17:05 15 KE 95 86 Hia 히아	18:10~20:19 15 KE 129 84 Bua 부아
커뮤니티비프 Community BIFF 커뮤니티비프 커뮤니티비프는 일부 상영작만 영어 자막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비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Community BIFF provides English subtitles for selected screenings only. For detailed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Community BIFF website.)						
MEGABOX Busan Theater 메가박스 부산극장	M1	MEGABOX 1			15:30~16:58 901 12 EVENT 88 205 Stop Making Sense 스탑 메이킹 센스	19:30~21:19 902 19 Commentary 109 203 Walkiki Brothers 와이키키 브라더스
	M2	MEGABOX 2		14:00~15:06 903 12 GV 66 205 1976 vs 2026: Conversation with 20-year-old Cinephiles 1976 vs 2026 : 스무살 시네필과의 대화		19:00~20:56 904 15 GV 116 203 How to Use Guys with Secret Tips 남자사용설명서
	M3	MEGABOX 3			15:00~16:48 905 12 GV 108 204 The Mutation 사람의 탄생	19:00~20:44 906 12 GV 104 204 Dear Juhhee 주희에게
	M4	MEGABOX 4	10:30~12:20 907 ALL GV 110 206 Filmmaking Project 1 영화만들기 프로젝트 1		15:00~16:00 908 ALL GV 60 206 Filmmaking Project 2 영화만들기 프로젝트 2	18:30~20:24 909 19 TALK 114 205 TAMPORO 탐보로

	9 FEB	1	2	3	4	5
Busan Cinema Center 영화의전당	BT	Roof Theater 루프씨어터			20:00~21:55 163 15 KE GV 115' 163, 169 The Spiral 스팔리얼	
	BH	Hanuleyeon Theatre 하늘연극장	09:20~10:35 164 ALL KE GV 75' 181 A New Dawn 파리스 그만이 밝는 날에	12:10~14:28 165 19 KE GV 138' 59 Dora 도라	16:20~18:01 738 15 15 GV 101' 61 PARADISE LOST 실낙원	23:59~05:31 168 15 KE GV 332' 167, 168 Midnight Passion 2 미드나잇 패션 2
	B1	Cinema 1 중극장	09:00~10:31 169 12 KE 91' 125 In Waves 우리, 파도처럼	11:30~13:03 170 19 KE GV 93' 191 Mad Max 매드 맥스	15:00~16:36 171 15 KE GV 96' 121 Deep Blue 딥 블루	18:10~20:10 172 19 KE GV 120' 68 The Echo Chamber 에코 챔버
	B2	Cinema 2 소극장	09:00~11:38 174 15 KE 158' 137 A Man of His Time 노트르 달미에	12:30~14:07 175 15 KE GV 97' 86 Selvi 셀비	15:40~17:13 176 12 KE GV 93' 83 After the Song 노래가 끝난 후	18:50~20:50 177 15 KE GV 120' 84 The Cord 랙
	B3	Cinematheque 시네마테크	09:00~10:33 179 15 KE GV 93' 55 Shaving 면도	12:10~14:28 180 12 KE GV 138' 53 Satoko Always 사토코는 언제나	15:00~17:36 181 15 KE GV 96' 50 IBUKU 미야마타	19:10~20:49 182 ALL GV 99' 51 Long Long Night 긴긴밤
	C1	CGV 1	09:40~11:59 189 15 KE 139' 80 The Unknown 알노운	13:00~14:57 190 15 KE GV 117' 147 AGARH 조원의 아이트	16:30~17:55 191 15 KE GV 85' 152 88th 58번째	19:30~21:00 192 15 KE GV 90' 147 ACROSS: Anatomy of the Forgotten War 어크로스: 전쟁은 어떻게 잊혀지는가
	C2	CGV 2	09:40~11:47 193 12 GV 127 157 A Life of an Artist: Kwon Jinkyu 권진규: 예술가의 일생	13:30~15:10 194 12 GV 100' 157 Kim Yun Shin Punishes In 김윤신은 미술품에 없다	16:40~18:20 195 12 KE GV 100' 153 Anyeong, Stellar 언녕, 스텔라	20:40~22:08 196 15 KE 88' 169 Welcome to Dolly's House 웰컴 투 돌리 하우스
	C3	CGV 3	09:00~10:42 197 12 KK GV 102' 113, 163 The Sorry Generation 세대유감	12:10~14:08 198 12 GV ♣ 118' 116 Still Shining 여전히 찬란하게	15:40~17:37 199 15 KE GV 117' 99 Diana 디아, 블랑강	19:20~20:43 200 12 KE GV 83' 102 Gu Sh 아이기, 아이기
	C4	CGV 4	09:00~10:58 202 15 KE 118' 98 The Burning Giants 불타는 거인들	12:30~14:23 203 15 KE GV 113' 150 Revolving Lanterns 나뭇는 태어난 곳에서 죽는다	16:00~17:40 204 12 GV 100' 151 A Woman Dancing on the Waves 파도 위에서 춤추는 여자	19:20~20:49 205 15 KE 83' 166 The Chain of Rosess 장미의 사슬
	C5	CGV 5	09:20~11:20 206 15 KE GV 120' 104 Hearing 조용히 귀 기울이면	13:00~14:25 207 12 GV 85' 94 Some Detective 모종의 탐정	16:00~17:35 208 15 GV 95' 89 BALER 베일러	19:10~20:34 209 15 GV 84' 91 Earbug 귀벌레
	C6	CGV 6	09:00~10:52 211 15 KV 112' 66 Bitter Christmas 비터 크리스마스	11:50~14:02 212 15 KE GV 132' 139 Titanic Ocean 타이타닉 오션	15:40~17:24 213 15 KE GV 104' 140 What Belongs to Others 타인에게 속한 것들	19:00~20:50 214 15 KE GV 110' 138 The Meltdown 멜트다운
LOTTE CINEMA Centum City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CX	CGV IMAX	09:20~10:59 386 12 KE 99' 128 Pressure 프레스	12:00~14:02 185 15 KE 122' 120 Club Kid 클럽 키드	15:00~17:21 186 15 KE 141' 72 Minoaur 미노타우로스	18:20~20:07 187 ALL KE GV 107' 180 Metropolis 메트로폴리스
	L2	LOTTE 2	09:40~11:23 216 15 KE ♣ 103' 153 Baby Jackfruit Baby Guava 베이비 잭프루트 베이비 구아바	13:10~14:29 217 15 KE GV 79' 148 Dreams of the Wild Oaks 야생 나무의 꿈	16:00~17:27 218 12 KE GV 87' 105 In Winter 겨울 이야기	19:10~20:31 219 15 KE GV 81' 105 Khonya 코리야
	L3	LOTTE 3	09:20~10:58 220 15 KE 98' 93 Nothing Has Happened Yet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12:40~14:42 221 12 GV 122' 93 Not for You 당신을 위한 것은 아닌	16:20~17:32 222 12 GV 72' 75 Nowhere to Lay My Eyes 눈 돌다가 없네	19:10~20:21 223 12 GV 71' 92 The Flower 화국사
	L4	LOTTE 4	09:00~10:20 225 15 KE 80' 43 The Table: Day and Night 낮과 밤은 서로에게	11:50~14:12 226 19 GV 142' 171 Dead-End Job 끝없는	15:50~17:40 227 12 GV 110' 112 Cattle Run 장가네	19:10~21:01 228 12 GV 111' 148 Can I Talk to You? 지금 얘기해도 돼요?
	L5	LOTTE 5	09:00~10:35 230 15 KE 95' 131 Too Many Beasts 짐승이 너무 많아	12:10~13:59 231 15 KE GV 109' 97 Big Little Things 너의 사소한 모든 일들	15:30~17:11 232 15 GV 101' 113, 168 Sapiens 사피엔스	18:50~20:28 233 ALL KE GV ♣ 98' 107 Not a Hero 영웅은 아니지만
	L6	LOTTE 6	09:00~10:14 235 12 GV 74' 143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2 한국 단편 경쟁 2	12:00~13:55 236 12 GV 115' 117 The World Before 첫세계	15:30~17:09 237 15 KE GV 99' 124 The Guest 초대받지 않은 손님	18:40~21:11 238 15 KE 151' 171 The Remained Empress 제온 황후
	L7	LOTTE 7	10:20~12:10 240 12 ♣ 110' 115 SINNER 처벌	13:10~14:56 241 15 ♣ 106' 114 Final Interview 최종면접	16:20~17:39 242 15 KE 78' 107 Promised Spaces 약속된 공간	19:00~20:14 243 15 GV 74' 150 Soundweave 소리그물
	L8	LOTTE 8		12:20~13:43 244 12 KE 83' 156 Homesick 홈시크: 바다의 끝에서	14:50~16:01 245 15 KE 71' 146 771 Days 771일 후	17:00~18:53 246 15 KE 113' 127 La Perra 라 페라
	L9	LOTTE 9	11:00~12:41 247 15 KE 101' 158 Rehearsals for a Revolution 리허설 포 레볼루션	13:40~15:55 248 15 KE 135' 109 You, Like a Star 그대, 별처럼	17:30~19:14 249 15 KE 104' 106 No Good Men 좋은 남자는 없다	20:00~21:34 250 15 KE 94' 129 Rose 로즈
	L10	LOTTE 10		11:20~13:04 251 15 KE 104' 128 A Place to Heal 15/18	14:00~16:31 252 19 KE 151' 71 Let Us Through, Dear Ancestors 마마카리안 포	17:30~19:34 253 19 KE 124' 122 Everytime 에브리타임
KOFIC 영화진흥위원회	KT	KOFIC Theater 표준씨어터	10:00~12:17 254 15 KE GV ♣ 137' 101 Four Seasons in Java 자바의 사계절		18:00~19:49 255 15 KE 109' 188 M (4K Remastering) M (4K 리마스터링)	
	SH	SOHYANG 소영씨어터	10:00~11:52 256 15 KE 112' 73 Mother Mary 마더 메리	12:50~15:15 257 15 KE 145' 127 La Gradiva 라 그라디바	19:40~21:34 259 15 KE 114' 76 Paper Tiger 페이퍼 타이거	
	BCM	BCM 부산영화제작소	10:00~12:07 260 15 KE 127 101 The Gate of Murder 살인의 문	13:20~14:40 261 15 KE 80' 103 Head to Head 눈에는 눈	18:20~20:07 263 12 KE 107 60, 185 It's My Time 우리 할머니는 쿼텟왕	
P&I(Press & Industry) Screenings						
P&I	BD	Indieplus 인디플러스	10:40~12:29 15 KE 09' 88 Zogsoul 짐작사실	13:20~15:40 15 140' 94 Space 스페이스	20:40~22:53 12 KE 133' 52 Midday Meal 오후와 책	
	C7	CGV 7	09:40~12:01 15 KE 141' 83 Birds in the Dark 어둠 속의 새들	13:00~14:11 12 71' 92 The Flower 화국사	18:00~19:46 15 KE 106' 87 Slumber 미술	21:40~23:40 15 KE 120' 84 The Cord 랙

커뮤니티비프 Community BIFF 커뮤니티비프는 일부 상영작에만 영어 자막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비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Community BIFF provides English subtitles for selected screenings only. For detailed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Community BIFF website.)						
MEGABOX Busan Theater 메가박스 부산극장	M1	MEGABOX 1	14:00~16:00 910 12 GV 120' 203 200 Pounds Beauty 미녀는 괴로워		19:00~20:32 911 19 Commentary 92' 203 The City of Violence 폭배	
	M2	MEGABOX 2	11:00~13:00 912 12 SUBTITLE 120' 204 Back to the Future 백 투더 퓨처	15:00~17:29 913 12 TALK 149' 204 CONTACT 콘택트	19:30~21:15 914 12 TALK 105' 204 The Adjustment Bureau 키퍼러	
	M3	MEGABOX 3	13:00~14:45 915 15 EVENT 105' 203 Inside Llewyn Davis 인사이드 르윈		18:00~19:05 916 15 GV 65' 205 We Are All Trying Here 모두가 자신의 무자형과 싸우고 있다	
	M4	MEGABOX 4	11:00~13:01 917 12 KK TALK 121' 205 Conclave 콘클라베	15:00~16:37 918 12 GV 97' 203 [The Films Passed by Audience] Shorts [관객이 카운트 오프한] 단편 영상	19:00~20:09 919 12 GV 69' 203 Don't Go Back 고백하지마	

10 SAT		1	2	3	4	5
Busan Cinema Center 영화의전당	BT	Roof Theater 루프시어터			20:00-21:54 325 12 KE GV 114' 164	The Violinist 바이올리니스트
	BH	Haneulyeon Theatre 하늘연극장	08:20-10:51 265 15 KE GV 151' 171	12:30-13:57 266 15 KE GV 87' 49	16:00-18:24 267 12 KE GV 144' 45	23:59-04:05 268 19 KE GV 246' 126, 166, 169, 185, 177 Midnight Passion 3미드나잇패션 3
	B1	Cinema 1 중극장	10:00-11:33 273 15 KE GV 93' 122	13:10-14:56 271 15 KE GV 105' 65	16:30-18:27 270 15 KE GV 117' 59	20:20-22:07 272 ALL KE GV 107' 180
	B2	Cinema 2 소극장	09:30-10:57 296 15 KE GV 87' 135	12:30-13:58 274 15 KE GV 88' 85	15:30-17:22 275 12 KE GV 112' 85	22:20-23:54 277 15 KE 94' 67
	B3	Cinematheque 시네마테크	09:00-10:41 739 15 GV 101' 61	12:20-14:33 279 12 KE GV 133' 52	15:40-17:01 289 15 KE GV 81' 155	18:50-20:50 281 15 KE 120' 186
	C1	CGV 1	PARADISE LOST 설복원	Midday Meal 뽕과 책	Dust 더스트	Reign of Assassins 검무강호
CGV Centum City CGV센텀시티	C2	CGV 2	09:40-10:59 292 15 KE 79' 148	12:40-14:23 293 15 KE GV 103' 153	15:30-17:22 275 12 KE GV 112' 85	18:50-20:50 281 15 KE 120' 186
	C3	CGV 3	Dreams of the Wild Oaks 야생 참나무의 꿈	Baby Jackfruit Baby Guava 베이비 잭프루트 베이비 구아바	Homesick 홈리스: 바다의 끝에서	The Diary of a Chambermaid 라두 주더의 어느 하녀의 일기
	C4	CGV 4	09:00-10:55 288 15 KE 115' 75	12:00-14:21 297 15 KE GV 141' 83	16:00-17:46 298 15 KE GV 106' 87	21:40-23:22 282 15 KE 107' 121
	C5	CGV 5	Orange-Flavoured Wedding 오렌지 맛 웨딩	Birds in the Dark 어둠 속의 새들	Somber 미움	Everybody Digs Bill Evans 나기사황학빌예انس
	C6	CGV 6	09:20-10:37 301 15 KE 77' 149	12:10-13:21 302 15 KE GV 71' 146	15:40-17:01 289 15 KE GV 81' 155	22:20-23:36 291 15 KE 96' 50
	CX	CGV IMAX	Recovery 리커버리	771 Days 771일 후	Colors of White Rock 화이트 록의 색깔	IBUKI 마이머리
LOTTE CINEMA Centum City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L2	LOTTE 2	The Meltdown 멜트다운	09:40-10:59 292 15 KE GV 110' 138	12:30-14:49 307 15 KE GV 139' 90	15:40-17:01 289 15 KE GV 81' 155
	L3	LOTTE 3	La Bola Negra 블랙 볼	09:00-11:35 311 15 KE 155' 137	12:30-14:28 312 19 KE GV 118' 138	16:00-17:47 313 15 KE GV 107' 135
	L4	LOTTE 4	09:00-10:57 283 15 KE 117' 188	13:00-14:47 284 19 KE GV 107' 78	16:20-18:35 285 15 KE 135' 85	19:30-21:30 286 19 KE GV 120' 68
	L5	LOTTE 5	Cold War 1994 콜드 워 1994	Roma Elastica 로마 엘라스티카	The Beloved 애밀리아, 사랑을 기억하다	The Echo Chamber 에코 챔버
			09:20-11:35 316 15 KE GV 135' 108	13:30-15:11 317 12 KE GV 101' 109	16:50-18:16 318 ALL KE GV 86' 98	20:00-21:35 319 12 KE GV 95' 108
			Spirit Guardians: The Last Secret Of The First Emperor 수종천사: 황제의 마지막 비밀	Will You Still Be My Friend 내 친구로 남아줄래?	Birds on Ice 빙판 위의 새들	The Soul Whisperer 소울 위스퍼러
LOTTE CINEMA Centum City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L6	LOTTE 6	09:20-10:38 335 12 KE GV 78' 142	13:40-14:56 336 12 KE GV 76' 143	16:40-17:55 337 ALL KE GV 75' 181	19:30-21:18 338 15 KE GV 108' 100
	L7	LOTTE 7	Still Shining 여전히 찬란하게	12:40-14:20 340 12 KE GV 100' 151	A New Dawn 파리스 그라이 밝은 날에	Elephants in the Fog 안개 속의 코끼리
	L8	LOTTE 8	10:30-12:23 343 15 KE 113' 127	13:30-15:03 344 12 KE 93' 83	16:00-17:57 322 ALL KE GV 117' 95	Beyond Love's Horizon 사랑의 지평선 너머로
	L9	LOTTE 9	La Perra 라페라	13:20-14:54 348 15 KE 94' 129	16:00-17:57 341 15 KE 117' 147	18:40-20:27 328 15 KE GV 107' 106
	L10	LOTTE 10	11:00-12:25 351 15 KE 85' 154	14:00-15:55 352 12 115' 117	17:00-18:29 353 12 KE 89' 158	Lovers in the Blue Night 블루 나이트의 연인들
			Birds of War 전쟁의 새들	The World Before 전세계	Our Wish, Our Colors 바람의 색깔	Lovers in the Blue Night 블루 나이트의 연인들
KOFIC 영화진흥위원회	KT	KOFIC Theater 표준시어선				19:00-21:31 346 19 KE 151' 71
SOHYANG 소향씨어터	SH	Woori Bank Hall 우리은행홀	10:00-12:04 356 19 KE 124' 122	13:10-14:57 357 12 KE 107' 79	16:20-18:16 358 15 KE 116' 80	19:20-20:47 359 19 KE 87' 177
BCM 부산영화재단비엔날레	BCM	Open Hall 공개홀	10:00-11:18 360 15 KE GV 78' 107		16:30-19:00 150' 199, 201	20:30-22:01 361 12 KE 91' 125

P&I(Press & Industry) Screenings

B&I 인디플러스	BD	Indieplus 인디플러스	10:20-11:55 115 95' 89	12:50-14:26 96' 92	15:20-17:17 ALL 117' 95	18:20-20:39 115 139' 90	21:30-23:32 122 122' 93
CGV 7	C7	CGV 7	BALER 배임러	FULL MOON 풀문	Things Left at the Theater 극장에 두고 온 것들	The Birds 새	Not for You 당신을 위한 것은 아님
			14:50-16:17 115 KE 87' 49	17:20-19:44 122 144' 45	17:20-19:44 122 144' 45	21:10-22:47 12 KE 97' 56	
			Hilld 힐를	Hilld 힐를	Beach Frictions 그날의 태주	silver express 솔바 익스프레스	

커뮤니티비프 Community BIFF 커뮤니티비프는 일부 상영작에만 영어 자막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비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Community BIFF provides English subtitles for selected screenings only. For detailed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Community BIFF website.)

M1	MEGABOX 1	10:00-12:05 920 122 TALK 125' 203	14:00-17:37 921 19 TALK 217' 204	16:00-17:55 922 19 TALK 217' 204	18:00-20:14 925 15 67' 74' 203	20:00-21:12 922 ALL GV 72' 205	22:00-23:32 923 19 TALK 217' 204
M2	MEGABOX 2	11:00-13:01 923 ALL TALK 121' 203	The Cinephiles Strike Back 1 블라인드스트라이크 1	15:00-16:03 924 12 KE 63' 203	[The World of Tae-hwa, The Face of Tae-goo] Shorts [태화의 세계, 태화의 얼굴] 단편 상영	Catholic Center Space 101.1 가톨릭센터 공간 101.1	
M3	MEGABOX 3	11:00-12:59 926 12 GV 119' 204	Hallian 환란	14:30-16:28 927 12 KE 118' 204	[Three Impressions of Ae-sim KANG] Shorts [배우 강애심의 세 가지 인상] 단편 상영		23:00-04:39 932 19 EVENT 339' 205
M4	MEGABOX 4	The World of Love 세계의 주인	The Age of Adaline 아델라인: 영원진 시간	13:00-14:52 929 12 TALK 112' 203	Once We Were Us 만약에 우리		Happy-Go-Lucky Night 워싱턴가
					20:00-21:24 931 12 TALK 84' 203		

11 SUN		1	2	3	4	5
BT	Roof Theater 루프시어터				20:00~22:09 362 15 GV 129 161 Inherit 인헤리트	
BH	Haneulyeon Theatre 하늘극장	09:40~11:17 363 15 KE 97 72 The Man I Love 내가 사랑하는 남자	12:20~14:28 364 12 KE KE 6V 128 46 Between Two Lovers 비트윈 투 러버스	16:20~18:12 365 12 KE KE 6V 112 57 To Be Ordinary 평범하기 위하여	20:10~22:23 366 15 KE 6V 133 54 The Sea Speaks His Name 바다에 새겨진 이름	
B1	Cinema 1 중극장	09:00~10:36 367 15 KE KE 6V 96 121 Deep Blue 딥 블루	12:10~13:57 368 19 KE KE 6V 107 78 Roma Basitica 로마 엘라스티카	15:30~17:03 369 15 KE KE 6V 93 122 The Fire Within 유 메리 크리스마스. 영마	18:40~20:46 370 19 KE KE 6V 126 132 Women Unknown 마리가 뒤에서	22:20~00:38 371 12 KE 138 53 Satoko Always 사토코는 언제나
B2	Cinema 2 소극장	09:20~11:30 372 19 KE 100 125 I Rarely Wake Up Dreaming 올라와 물레호: 난 졸처럼 꿈에서 깨어나지 않지	12:40~14:29 373 15 KE KE 6V 109 88 Zogsool 잠취사다	16:00~17:30 374 15 KE KE 6V 90 87 There Will Be Snow 다시 눈이 올거야	19:00~20:28 375 15 KE KE 6V 88 82 Welcome to Dolly's House 웰컴 투 돌리 하우스	22:00~23:28 376 15 KE 88 169 Welcome to Dolly's House 웰컴 투 돌리 하우스
B3	Cinematheque 시네마테크	09:00~11:04 377 19 KE 124 122 Everytime 에브리타임	12:00~13:37 378 12 KE KE 6V 97 56 silver express 실버 익스프레스	15:10~16:37 379 15 KE KE 6V 87 49 Hilol 힐롤	18:10~20:34 380 12 GV 144 45 Beach Fictions 그날의 해변	22:10~23:25 381 ALL KE 75 181 A New Dawn 파리스 그린이 밝은 날에
C1	CGV 1	09:40~11:16 387 15 KE 96 50 IBUKU 마이 머리	12:10~14:30 388 15 KE 140 76 Parallel Tales 파라렐 테일즈: 데칼로그	15:20~16:56 389 15 KE KE 6V 96 155 From Dawn to Dawn 새벽에서 다시 새벽으로	18:30~19:51 390 15 KE KE 6V 81 105 Khoriya 코리야	21:30~23:43 391 12 KE 133 52 Midday Meal 오후 좌식
C2	CGV 2	10:00~11:33 392 15 KE 93 124 Goodbye Cruel World 굿바이, 이별의 찬란한 세상	12:40~14:34 393 12 KE KE 6V 114 164 The Violinist 바이올리니스트	16:20~18:20 394 15 KE KE 6V 120 84 The Coni 콘샬	20:00~21:37 395 15 KE KE 6V 97 86 Selvi 셀비	
C3	CGV 3	09:20~11:03 396 15 KE 103 180 MIND GAME 머인드 게임	12:20~13:46 397 ALL KE KE 6V 86 98 Birds on Ice 빙판 위의 새들	15:20~16:49 398 12 KK KE 6V 89 158 Our Wish, Our Colors 바람의 빛깔	18:20~19:40 399 15 KE KE 6V 80 68 Dust 더스트	21:20~22:55 400 15 KE 95 89 BALER 배럴러
C4	CGV 4	09:20~11:11 401 12 KE 111 148 Can I Talk to You? 지금 얘기해도 돼요?	12:50~14:04 402 15 KE 6V 74 150 Soundweave 소리그물	15:40~17:37 403 15 KE KE 6V 117 147 AGAAR 초원의 야기트	20:20~20:39 404 15 KE KE 6V 79 148 Dreams of the Wild Oaks 야생 참나무의 꿈	22:10~23:46 405 ALL KE 96 90 Beyond Love's Horizon 사랑의 지평선 너머로
C5	CGV 5	09:00~10:48 406 15 KE KE 108 100 Elephants in the Fog 안개 속의 코끼리	12:20~14:17 407 ALL KE 6V 117 95 Things I Left at the Theater 극장에 두고 온 것들	15:50~17:28 408 15 KE 38 93 Nothing Has Happened Yet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19:00~21:02 409 12 KE 122 93 Not for You 당신을 위한 것은 아닌	22:30~00:04 410 15 KE 94 67 The Diary of a Chambermaid 라두 주제의 어느 하녀의 일기
C6	CGV 6	09:00~10:48 411 15 KE 108 119 Campeón Gabacho 기보초 챔피언	11:40~13:07 412 15 KE KE 6V 87 135 A Day in the Life of Jo: Chapter Phaedra 조의 하루: 페드라와 겐타	14:40~17:18 413 15 KE KE 6V 158 137 A Man of His Time 노트르담의 남자	18:50~20:16 414 19 KE KE 6V 86 126, 166 Jim Queen 짐 퀸	22:00~00:21 415 15 KE 141 72 Minotaur 미노타우로스
CX	CGV IMAX	09:20~11:19 382 12 KE 119 77 Ray Gun 레이 건	12:10~13:55 383 15 KE KE 6V 105 65 Back to Buenos Aires 벡 투 부에노스아이레스	15:30~17:56 384 15 KE 146 69 Fjord 피오르	19:00~20:38 385 15 KE KE 6V 98 167 L'Auroe 불장쾌	22:10~23:52 184 15 KE 102 123 A Good Little Soldier 요람 적영 카를라
L2	LOTTE 2	09:00~10:45 416 ALL KE 105 156 Gabin 시골 소년 기행과 황폐한 10년	11:40~13:11 417 15 KE KE 6V 91 136 Eclipse 이클립스	14:50~16:13 418 12 KE KE 6V 83 102 Gu Shi 아가시, 아가시	17:50~20:05 419 15 KE KE 6V 135 108 Spirit Guardians: The Last Secret Of The First Emperor 수호정사: 황제의 마지막 비밀	22:00~00:15 420 12 KE 135 48 The First Taste of Loneliness 처음 만난 외로움
L3	LOTTE 3	09:00~10:36 421 ALL KE 96 92 FULL MOON 풀문	12:10~13:34 422 15 KE 6V 84 91 Earbun 귀발레	15:10~16:35 423 12 KE KE 6V 85 94 Some Detective 모험의 탐정	18:10~20:29 424 15 KE 139 90 The Birds 새	22:10~23:59 425 15 KE 109 188 M (4K Remastering) M (4K 리마스터링)
L4	LOTTE 4	09:00~10:33 426 12 KE KE 93 83 After the Song 노래가 끝난 후	12:20~13:38 427 12 KE 6V 78 142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1 한국 단편 경쟁 1	15:30~16:44 428 12 KE 6V 74 143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2 한국 단편 경쟁 2	18:40~19:56 429 12 KE 76 143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3 한국 단편 경쟁 3	21:40~23:34 430 ALL KE 114 70 From Inside Out - The Architecture of Peter Zumthor 페터 Zumthor by 빌 밴더스, 3D
L5	LOTTE 5	09:20~11:01 431 15 KE 101 158 Rehearsals for a Revolution 리허설 포 레볼루션	12:30~14:07 432 12 KE 6V 127 157 A Life of an Artist: Kwun Jinkyu 관진규: 예술가의 일생	15:50~17:11 433 15 KE KE 6V 81 155 Colors of White Rock 화이트 록의 색깔	19:00~20:43 434 15 KE KE 6V 103 153 Baby Jackfruit Baby Guava 베비 잭프루트 베비 구아바	22:20~23:50 435 ALL KE 90 78 Red Rocks 붉은 바위에 아이들이 있다
Busan Cinema Center 영화의전당		CGV Centum City CGV센텀시티				LOTTE CINEMA Centum City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LOTTE Cinema Centum City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L6	LOTTE 6	09:20~11:18 436 19 KE KE 118 138 Oasis 오아시스	13:00~14:28 437 15 KE KE 6V 88 85 Dead End 데드 엔드	16:00~17:26 438 15 KE KE 6V 86 136 Ria - Once Upon A Future 옛날 옛적, 미래에	19:00~20:49 439 12 KE KE 6V 109 104 In My Father's Room 아버지의 방
	L7	LOTTE 7	10:00~11:30 441 15 KE KE 9V 139 Sad Girlz 세드 걸즈	13:10~15:02 442 15 KE 112 154 The Best Days 청춘길	16:10~17:27 443 15 KE 6V 77 149 Recovery 리커버리	19:10~20:21 444 15 KE KE 6V 71 146 771 Days 771일 후
	L8	LOTTE 8	10:30~12:37 445 15 KE 127 101 The Gate of Murder 살인의 문	13:30~15:10 446 12 100 151 A Woman Dancing on the Waves 파도 위에서 춤추는 여자	16:00~18:21 447 15 KE 141 83 Birds in the Dark 어둠 속의 새들	19:30~21:30 448 15 KE 120 104 Hearing 조용히 귀 기울이면
	L9	LOTTE 9	10:20~11:45 449 12 KE 85 79 Thanks for Coming 와줘서 고맙다는 거장의 인사	12:40~14:12 450 15 KE 92 74 My Wife Ores 어느 날, 아내가 물었다	16:40~18:32 451 15 KE 112 66 Bitter Christmas 비터 크리스마스	20:00~22:07 452 12 KE 127 81 Yellow Letter's 멜로우 레터스
	L10	LOTTE 10	11:20~12:58 453 ALL KE 98 107 Not a Hero 영웅은 아니지만	14:20~15:45 454 15 KE 85 152 58th 58번째	17:20~18:48 455 12 KE 88 149 On the Road with Abbas Kiarostami 온로드: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20:00~21:40 456 12 100 157 Kim Yun Shin Punches In 김운신은 미술관에 있다
KOFIC 영화진흥위원회	KT	KOFIC Theater 표준시어실				19:00~20:39 457 15 KE KE 6V 99 131 Skintown 스킨타운
SOHYANG 소향시어터	SH	Woori Bank Hall 우리은행홀	10:00~11:49 458 15 KE 109 66 Bucking fastard 버킹 패스트아드	13:00~15:02 459 ALL KE 122 181 Phoenix 2772 (Space Firebird) 불새 2772 사람의 코스타르노	16:10~18:45 460 15 KE 155 137 La Bola Negra 블랙 볼	19:50~21:33 461 15 KE 103 70 It Will Happen Tonight 오늘 밤, 사랑은 올아난다
BCM 부산시영지대시어터	BCM	Open Hall 공개홀	10:00~11:48 462 15 KE 108 168 The Scar-Faced Cat: Way of Asura 스카페이스 캣: 수로노	13:00~15:09 463 15 KE 129 84 Bua 부아	16:20~17:53 464 15 KE 93 55 Shaving 면도	19:00~20:35 465 12 KE 95 108 The Soul Whisperer 소울 위스퍼러
P&I(Press & Industry) Screenings						
P&I	BD	Indieplus 인디플러스	10:00~11:46 122 106 91 Cosmic Traco 우주의 흔적	13:00~15:08 122 KE 128 46 Between Two Lovers 비트윈 투 러버스	17:00~18:52 122 KE 112 57 To Be Ordinary 평범하기 위하여	20:50~23:03 15 KE 133 54 The Sea Speaks His Name 바다에 새겨진 이름
	C7	CGV 7		12:00~13:24 155 84 91 Earbun 귀발레	15:00~16:36 ALL KE 96 90 Beyond Love's Horizon 사랑의 지평선 너머로	

커뮤니티비프 Community BIFF (커뮤니티비프는 일부 상업영화와 영어 자막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비프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Community BIFF provides English subtitles for selected screenings only. For detailed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Community BIFF website.)						
M1	MEGABOX 1	Epiphany 기담	10:30~12:12 933 15 KE 102 203		15:00~19:12 934 19 TALK 252 204 The Cinephiles Strike Back 2 블랙리스트파 2	
M2	MEGABOX 2	DRIVE 드라이브	10:30~11:53 935 12 KE 83 203	14:00~15:31 936 12 KE 91 205 Super Disco 슈퍼 디스코	19:00~20:12 937 15 KE 72 205 New Angle on Genre Shorts 장르 영화의 새로운 얼굴	
M3	MEGABOX 3	Nouvelle Vague 누벨바그	11:00~12:46 938 12 TALK 106 205	14:30~16:05 939 15 TALK 95 203 Punch-Drunk Love 펀치 드랑크 러브	18:00~19:46 940 12 KE 106 203 Concerning My Daughter 딸에 대하여	
M4	MEGABOX 4	Once 쥘스	11:00~12:26 941 ALL EVENT 86 203		15:00~17:02 942 ALL KE 6V 122 203 The Hill of Secrets 비밀의 언덕	

12 MON		1	2	3	4
Busan Cinema Center 영화의전당	BT 루프씨어터				20:00~21:58 466 ALL KE GV 118' 58, 160 All About Corinne 내일은 이름이 있다
	BH 하늘극장	10:00~12:00 467 15 KE 120' 99 Diary of a Mad Old Man 미친 노인네의 일기	13:00~14:43 468 15 KE 103' 70 It Will Happen Tonight 오늘 밤, 사랑은 일어나다	16:00~18:01 469 15 KE 121' 129 Queen at Sea 열마리의 바다	19:00~21:11 470 12 KE 131' 130 Sense and Sensibility 이상과 감성
	B1 중극장	09:40~12:56 471 12 KE 136' 64 All of a Sudden 갑자기 별가가 약해진다	09:40~12:56 471 12 KE 136' 64 All of a Sudden 갑자기 별가가 약해진다	14:00~16:38 472 15 KE GV 158' 137 A Man of His Time 노트르담 살해	18:30~20:27 473 15 KE GV 117' 59 A Girl's Story 그 소녀의 기억
	B2 소극장	10:00~11:22 474 15 KE 82' 69 Fatherland 파더랜드	12:20~14:06 475 15 KE GV 106' 87 Slumber 미몽	15:40~17:49 476 15 KE GV 129' 84 Bua 부아	19:20~21:41 477 15 KE GV 141' 83 Birds in the Dark 어둠 속의 새들
	B3 시네마테크	09:40~11:48 478 12 KE 128' 46 Between Two Lovers 비트윈 투 러버스	12:40~14:22 479 15 KE 102' 121 Everybody Digs Bill Evans 내가 사랑한 빌 에번스	15:20~17:33 480 15 KE GV 133' 54 The Sea Speaks His Name 바다에 새겨진 이름	19:10~21:02 481 12 KE GV 112' 57 To Be Ordinary 평범하기 위하여
CGV Centum City CGV센텀시티	C1 CGV 1	09:20~11:00 486 12 100' 153 Amyeong, Stellar 인생, 스텔라		15:30~17:00 487 15 KE GV 90' 147 ACHOSS: Anatomy of the Forgotten War 아크로스: 전쟁은 어떻게 잊혀졌는가	19:00~20:48 488 15 108' 173 Chi-su and Men-su 칠수와 만수
	C2 CGV 2	09:40~11:19 489 12 KE ♣ 100' 159 Time and Tide 흐르는 세월	12:40~14:31 490 12 111' 148 Can I Talk to You? 지금 얘기해도 돼요?	15:40~17:27 491 12 GV 107' 173 Festival 축제	20:00~21:18 492 12 KE GV 78' 144,145 Asian Short Film Competition 1 아시아 단편 경쟁 1
	C3 CGV 3	10:00~11:52 493 12 KE 112' 85 Hindama: Ball of Fire 환상의 불꽃	13:00~15:18 494 19 KK 138' 59 Dora 도라	17:00~18:35 495 15 KK GV 95' 89 BALER 베일러	21:00~22:30 496 15 KE GV 90' 87 There Will Be Show 다미 눈이 올거야
	C4 CGV 4		12:40~14:21 497 12 KE GV 101' 109 Will You Still Be My Friend 내 친구로 남아줄래?	16:00~17:46 498 12 GV 106' 91 Cosmic Tracs 우주의 흔적	19:20~20:55 499 15 KE GV 95' 86 Ria 리아
	C5 CGV 5	09:20~11:41 500 12 KE GV 141' 96 9 Temples to Heaven 천국으로 가는 아홉 사원	13:20~14:31 501 12 GV 71' 92 The Flower 꽃국사	16:20~18:40 502 15 GV 140' 94 Space 스페이스	20:20~21:56 503 ALL GV 96' 90 Beyond Love's Horizon 사랑의 지평선 너머로
LOTTE CINEMA Centum City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C6 CGV 6	09:40~11:10 504 ALL KE 90' 126 Iron Boy 아이언 보이	12:40~14:38 505 19 KE 118' 138 Oasis 오아시스	15:40~17:30 506 12 110' 112 Cattle Run 장가네	19:00~21:00 507 15 KE 120' 134 Bedford Park 베드포드파크
	CX CGV IMAX	09:40~11:10 482 ALL KE ♣ 90' 78 Red Rocks 붉은 바위에 아이들이 있다	12:40~14:17 483 15 KE 97' 72 The Man I Love 내가 사랑하는 남자	15:40~17:27 484 15 KE 107' 119 By Any Means 바이 애니 민즈: 자비는 없다	18:40~20:59 485 15 KE 139' 80 The Unknown 언노운
	L2 LOTTE 2	09:40~11:40 508 15 KE 120' 84 The Card 카툰	12:40~14:34 509 15 KE 114' 76 Paper Tiger 페이퍼 타이거	15:30~17:36 510 15 KE GV 126' 167 Red Thread 붉은 실	19:20~21:09 511 15 KE GV 109' 88 Zagsool 잠취사다
	L3 LOTTE 3	09:20~11:053 512 12 KE 93' 83 After the Song 노래가 끝난 후	12:20~14:28 515 15 KE 128' 102 A Girl Unknown 무명소녀	15:40~17:42 514 12 KE 122' 93 Not for You 당신을 위한 것은 아닌	19:20~20:58 515 15 GV 98' 93 Nothing Has Happened Yet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L4 LOTTE 4	09:40~12:11 516 15 151' 171 The Remained Empress 재혼 황후	13:10~14:40 517 15 KE 90' 132 Viva Carmen 비바 카르멘	15:40~17:24 518 15 KE GV 104' 140 What Belongs to Others 타인에게 속한 것들	19:20~21:07 519 15 KE GV 107' 135 Black Church Bay 블랙 처치 베이

L5	LOTTE 5	09:40~11:05 520 15 KE 85' 154 Birds of War 전쟁의 새들	12:10~13:33 521 12 KE GV 83' 156 Homesick 홈시크: 바다의 끝에서	15:20~17:12 522 15 KE GV 112' 154 The Best Days 청춘길일	19:00~20:29 523 12 GV ♣ 89' 158 Our Wish Our Colors바람의 꽃잎
L6	LOTTE 6	10:00~11:23 524 ALL KE 83' 179 The King and the Mockingbird 왕과 새	12:40~14:34 525 ALL KE 114' 70 From Inside Out - The Architecture of Paer Zumthor 페터 Zum토르 by 빌 헨더스, 3D	15:30~17:10 526 19 KE 100' 125 I Rarely Wake Up Dreaming 올라와 올래호: 난 출저림 꿈에서 깨어나지 않지	19:00~20:28 527 12 KE GV 88' 149 On the Road with Abbas Kiarostami 온 더 로드: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L7	LOTTE 7	10:00~12:24 528 12 144' 45 Beach Fictions 그날의 태수	13:40~14:58 529 12 78' 142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1 한국 단편 경쟁 1	16:20~17:36 530 12 76' 143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3 한국 단편 경쟁 3	18:40~20:27 531 15 KE 107' 106 Lovers in the Blue Night 블루 나이트의 연인들
L8	LOTTE 8	10:40~12:55 532 15 KE 135' 65 The Beloved 에밀리아, 사랑을 기다려다	14:10~15:24 533 12 74' 143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2 한국 단편 경쟁 2	16:30~18:47 534 15 KE ♣ 137' 101 Four Seasons in Java 자바의 사계절	19:40~21:03 535 12 KE 83' 102 Gu Shi 이야기, 이야기
L9	LOTTE 9	10:20~12:10 077 12 KE 110' 178 ghost - end of night 고스트 - 밤의 끝	13:10~15:41 537 19 KE 151' 71 Let Us Through, Dear Ancestors 아미카란 포	17:00~18:22 538 12 KE 82' 47 The Day After Sunday 일요일다음날	19:20~21:01 539 15 101' 113, 168 Sapiens 사피엔스
L10	LOTTE 10		12:00~14:07 540 12 127' 157 A Life of an Artist: Kwon Jirkyu 권진규: 예술가의 인생	15:20~16:34 541 15 74' 150 Soundweave 소리그물	17:40~18:57 542 15 77' 149 Recovery 라커버리
KT	KOFIC Theater 표준시사실	09:20~11:38 545 19 138' 170 The Blue Road 푸른길	12:40~14:08 546 15 KE GV 88' 82 1982 1982	16:00~17:58 545 15 KE GV 118' 98 The Burning Giants 불타는 거인들	19:40~21:49 546 15 GV 129' 161 Inherit 인헤리트
SH	Woori Bank Hall 우리은행홀		12:00~14:02 547 15 KE 122' 120 Club Kid 클럽카드	15:20~17:19 548 12 KE 119' 77 Ray Gum 레이 건	18:30~20:26 549 15 KE 116' 80 Wild Horse Nine 와일드 호스 나인
BCM	Open Hall 공돌	10:00~11:27 550 15 KE 87' 49 Hilo 힐로	12:40~13:58 551 15 KE 78' 107 Promised Spaces 약속된 공간	15:00~16:48 552 15 KE 108' 100 Elephants in the Fog 안개 속의 코끼리	18:00~19:35 553 12 KE 95' 103 Happily Ever After 오래오래 행복하게

13 TUE		1	2	3	4
Busan Cinema Center 영화의전당	BT 루프씨어터				20:00~21:42 554 12 KE 102 113 KE 102 113, 163 The Sorry Generation 세대유감
	BH 하늘극장	10:00~11:26 555 19 KE 86 126, 166 Jim Queen 진 퀸		16:00~17:39 557 119 KE 99 51 Long Long Night 긴긴밤	19:00~20:53 558 15 KE 113 179 MEMORIES 메모리즈
	B1 중극장	10:00~11:33 559 15 KE 93 124 Goodbye Cruel World 굿바이, 이별의 잔인한 세상		16:20~18:39 561 15 KE 139 80 The Unknown 언노운	19:30~21:56 562 15 KE 146 69 Ford 파오르
	B2 소극장	10:20~12:40 563 15 KE 140 76 Parallel Tales 파라렐 테일즈: 데칼로그		17:00~18:31 565 15 KE 91 136 Eclipse 이클립스	19:30~21:06 566 15 KE KE 96 155 From Dawn to Dawn 새벽에서 다시 새벽으로
	B3 시나미테크	10:40~12:23 567 15 KE 103 180 MIND GAME 마인드 게임		16:00~17:47 569 15 KE KE 107 106 Lovers in the Blue Night 블루 나이트의 연인들	19:20~21:28 570 12 KE KE 128 46 Between Two Lovers 비트윈 투 러버스
CGV Centum City CGV센텀시티	C1 CGV 1	10:00~11:35 574 15 KE 95 86 Ria 리아		16:20~17:36 576 12 KE 120 130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3 한국 단편 경쟁 3	19:00~20:38 577 15 KE 98 93 Nothing Has Happened 'yer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C2 CGV 2	10:20~11:48 578 15 KE 88 85 Dead End 데드 엔드		16:20~18:17 580 15 KE 117 99 Dhara 다라, 흘러감	19:30~20:48 581 12 KE KE 78 145 Asian Short Film Competition 2 아시아 단편 경쟁 2
	C3 CGV 3	10:00~12:18 582 19 KE 138 59 Dora 도라		17:20~18:56 584 11 KE KE KE 96 90 Beyond Love's Horizon 사랑의 지평선 너머로	20:30~22:30 585 15 KE KE 120 134 Bedford Park 베드포드파크
	C4 CGV 4	10:20~12:17 586 11 KE KE 117 95 Things I Left at the Theater 극장에 두고 온 것들		17:30~18:02 588 15 KE KE 92 74 My Wife Cries 어느 날, 아내가 울었다	20:00~22:21 589 12 KE KE KE 141 96 9 Temples to Heaven 천국으로 가는 아홉 사원
	C5 CGV 5	10:40~11:40 590 15 KE 60 178, 182 Kakurenbo + Shiranui 숨바꼭질 + 시라누이		16:40~18:29 592 12 KE KE 109 104 In My Father's Room 아버지의 방	19:40~20:51 593 12 KE KE 71 92 The Flower 꽃복사
	C6 CGV 6	10:20~12:04 594 15 KE 104 128 A Place to Heal 15/18		16:00~17:50 596 12 KE KE KE 110 178 ghost - end of night 고스트 - 밤의 끝	20:00~21:39 597 15 KE KE KE 99 131 Skirtown 스커타운
	CX CGV IMAX	10:00~12:36 571 15 KE 156 115 HOPE 호프		14:40~15:55 572 11 KE KE 75 181 A New Dawn 파리스 그림이 밝는 날에	17:00~20:16 573 12 KE KE 196 64 All of a Sudden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다

L2	LOTTE 2	10:20~12:29 598 15 KE 129 84 Blue 북아	13:30~15:09 599 12 KE KE 99 128 Pressure 프레셔	16:10~18:11 600 15 KE 121 129 Queen at Sea 섬마의 바다	19:10~20:40 601 15 KE KE 90 87 There Will Be Show 다시 눈이 올거야
L3	LOTTE 3		13:00~15:20 602 15 KE KE 140 94 Space 스페이스	17:00~18:25 603 12 KE KE 85 94 Some Detective 모종의 탐정	20:00~21:46 604 12 KE KE 106 91 Cosmic Trace 우주의 흔적
L4	LOTTE 4	10:20~12:06 605 15 KE 106 114 Final Interview 최종인터뷰	13:20~15:04 606 19 KE 164 77 Possible Love 가능한 사랑	17:20~18:50 607 15 KE KE 90 132 Viva Carmen 비바 카르멘	19:50~21:27 621 12 KE KE 97 56 silver express 실버 익스프레스
L5	LOTTE 5	10:00~12:14 609 15 KE 134 120 Clarissa 그람 밤, 클라리스에게	13:20~15:45 610 15 KE 145 127 La Gradio 라 그라디바	16:50~18:57 611 15 KE 127 67 Coward 겁쟁이	20:00~21:45 612 15 KE KE 105 65 Back to Buenos Aires 백 투 부에노스아이레스
L6	LOTTE 6	09:40~11:53 613 15 KE 133 73 Moulin 장 물랭	13:00~15:21 614 15 KE 141 72 Minotaur 미노타우로스	16:40~18:38 615 12 KE 118 116 Still Shining 여전히 찬란하게	19:40~21:27 616 15 KE KE 107 119 By Any Means 바이 애니 민즈: 자라는 없다
L7	LOTTE 7	09:40~11:15 617 15 KE 95 89 BALER 베일러	12:20~14:42 618 19 KE 142 171 Dead-End Job 끝없는	15:50~17:08 619 15 KE KE KE 78 107 Promised Spaces 약속된 공간	19:00~20:41 620 15 KE KE 101 118 Ben'imana 베니마나
L8	LOTTE 8		12:40~14:30 622 15 KE 110 138 The Meltdown 멜트다운	15:40~17:28 623 15 KE 108 119 Captain Gatacho 기바츠 캡틴	18:40~20:29 624 15 KE KE 109 88 Zogssoo 잠쥬서다
L9	LOTTE 9	09:40~11:21 740 15 KE 101 61 PARADISE LOST 낙낙원	12:40~14:11 626 12 KE KE 91 125 In Waves 우리, 파도처럼	15:20~16:59 627 15 KE KE 99 124 The Guest 초대받지 않은 손님	18:00~19:44 628 15 KE KE 104 106 No Good Men 좋은 남자는 없다
L10	LOTTE 10	10:20~12:06 629 15 KE 106 87 Slumber 미몽	13:20~14:38 630 12 KE 112 142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1 한국 단편 경쟁 1	15:40~17:07 631 15 KE KE 87 49 Hilo 힐로	18:10~20:02 632 12 KE KE 112 57 To Be Ordinary 평범하기 위하여
KOTIC 영화진흥위원회	KOTIC Theater 표준시사실	10:00~12:06 633 15 KE 126 167 Red Thread 붉은 실	13:10~15:05 634 12 KE 115 117 The World Before 전세계	16:10~18:02 635 12 KE KE KE 112 85 Hinotama: Ball of Fire 환상의 불뿔	19:40~21:53 636 15 KE KE 133 54 The Sea Speaks His Name 바다에 새겨진 이름
SOHYANG 소향씨어터	Woori Bank Hall 우리은행홀		12:00~13:52 637 15 KE 112 73 Mother Mary 마더메리	15:00~16:47 638 12 KE KE 107 79 Tender Loving Care 텐더 러빙 케어	18:00~19:55 639 15 KE KE 115 75 Orange-Flavoured Wedding 오렌지 맛 웨딩
BCM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Open Hall 공개홀	10:20~11:59 640 12 KE KE 99 159 Time and Tide 호르는 세월	13:00~15:15 641 15 KE 135 108 Spirit Guardians: The Last Secret Of The First Emperor 수호신사: 황제의 마지막 비밀	16:30~18:07 642 15 KE KE 97 86 Selv 셀바	19:20~20:48 643 15 KE KE 88 82 1982 1982

14. WED		1	2	3	4
Busan Cinema Center 영화의전당	BT 루프씨어터				20:00-21:58 644 ALL KE 118' 162 Just an Illusion 그저 환상일 뿐
	BH Hanuleyeon Theatre 하늘의극장	10:00-11:50 645 12 KE 110' 159 Union Town 위니온 타운: 뉴욕을 달리는 사람들	13:00-14:31 646 12 KE 91' 125 In Waves 우리, 파도처럼	15:30-18:14 737 19 KE 164' 77 Possible Love 가능한 사랑	19:30-21:26 647 15 KE 116' 80 Wild Horse Nine 와일드 호스 나인
	B1 Cinema 1 중극장	10:00-11:57 648 15 KE 4 117' 59 A Girl's Story 그 소녀의 기억	13:00-14:30 649 15 KE 90' 139 Sad Girlz 세드 걸즈	15:30-17:17 650 19 KE 107' 78 Roma Elastica 로마 엘라스티카	18:30-20:48 651 19 KE 5V 138' 59 Dora 도라
	B2 Cinema 2 소극장	09:40-11:06 652 15 KE 86' 136 Fda - Once Upon A Future 옛날 옛적, 미래에	12:00-14:13 653 15 KE 133' 54 The Sea Speaks His Name 바다에 새겨진 이름		19:00-21:00 120' BAFA 2026 Graduation Ceremony & Short Film Screening BAFA 2026 수료식 및 단편영화상영
	B3 Cinematheque 시네마테크	10:20-12:35 654 12 KE 135' 48 The First Taste of Loneliness 처음 만난 외로움	13:30-15:36 655 19 KE 126' 132 Woman Unknown 마리아가 뭐야	16:40-18:24 656 15 KE 104' 140 What Belongs to Others 타인에게 속한 것들	19:30-21:06 657 15 KE 96' 121 Deep Blue 딥 블루
	C1 CGV 1	10:00-11:44 669 15 KE 84' 91 Earbng 귀발레	12:00-13:45 662 ALL KE 105' 156 Gabin 시골 소년 기행과 함께한 10년	15:00-16:46 663 12 12 106' 91 Cosmic Trace 우주의 흔적	18:00-19:36 664 15 KE 96' 155 From Dawn to Dawn 새벽에서 다시 새벽으로
CGV Centum City CGV 센텀시티	C2 CGV 2	10:00-12:21 665 15 KE 141' 83 Birds in the Dark 어둠 속의 새들	13:40-15:01 666 15 KE 81' 105 Khorya 코리아	16:20-17:47 667 12 KE 87' 105 In Winter 겨울 이야기	19:40-21:15 668 15 KE 95' 97 About an Intimate Matter 사적인 일에 관하여
	C3 CGV 3	10:00-11:54 669 15 KE 84' 91 Earbng 귀발레	13:40-14:26 670 ALL KE 4 86' 98 Birds on Ice 빙판 위의 새들	16:00-17:49 671 15 KE 109' 97 Big Little Things 나의 사소한 모든 일들	19:00-21:00 672 15 KE 120' 84 The Cord 랩줄
	C4 CGV 4	10:20-12:09 673 15 KE 109' 88 Zogsoul 잠차사드	13:20-14:40 674 15 KE 80' 88 Dust 더스트	17:20-18:59 675 12 KE 99' 128 Pressure 프레스어	20:00-21:37 676 15 KE 97' 86 Selv 셀비
	C5 CGV 5		12:40-14:40 677 19 KE 120' 68 The Echo Chamber 에코 챔버	16:00-17:47 678 15 KE 107' 135 Black Church Bay 블랙처치 베이	19:00-20:12 679 12 72' 75 Nowhere to Lay My Eyes 눈돌데가 없네
	C6 CGV 6	10:00-12:07 680 15 KE 127' 101 The Gate of Murder 살인의 문	13:00-15:15 681 15 KE 135' 109 You, Like a Star, 그대, 별처럼	16:40-18:40 682 15 KE 120' 99 Diary of a Mad Old Man 미친 노인일 열기	19:40-21:30 683 12 KE 5V 110' 178 ghost - end of night 고스트 - 밤의 끝
	CX CGV IMAX	10:00-11:57 658 15 KE 117' 182 We Are Aliens 우리는 외계인	13:40-15:07 659 15 KE 87' 135 A Day in the Life of Jo: Chapter Phaedra 조의 하루: 페드라 챕터	16:20-18:32 660 15 KE 132' 139 Titanic Ocean 타이타닉 오션	19:40-21:20 661 19 KE 100' 125 I Rarely Wake Up Dreaming 올라와 들려온: 난 잠서림 꿈에서 깨어나지 않지
LOTTE CINEMA Centum City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L2 LOTTE 2	09:40-11:59 684 15 139' 90 The Birds 새	13:00-14:23 685 15 KE 83' 166 The Chain of Roses 장미의 사슬	15:30-17:24 686 15 KE 114' 76 Paper Tiger 페이퍼 타이거	18:30-20:11 687 12 KE 101' 109 Will You Still Be My Friend 내 친구로 남아줄래?
	L3 LOTTE 3	09:20-11:31 688 12 KE 131' 130 Sense and Sensibility 이상과 감성	12:40-14:20 689 12 KE 100' 81 zi zi	15:20-17:28 690 15 KE 128' 102 A Girl Unknown 우영소녀	18:30-20:22 691 12 KE 112' 85 Hindiana: Ball of Fire 환상의 불꽃
	L4 LOTTE 4	09:40-11:30 692 12 4 110' 115 SINNER 자벌	12:30-14:09 693 12 4 99' 116 Ugly Duckling Ms. Maeng 수동, 출제의 비밀	15:10-17:12 694 15 KE 122' 120 Club Kid 클럽 키드	18:20-19:54 695 15 KE 94' 129 Rose 로즈
	L5 LOTTE 5	10:20-11:50 696 15 KE 90' 87 There Will Be Snow 다시 눈이 올 거야	13:00-14:38 697 15 KE 98' 167 L'Aure 불청객	15:40-17:39 698 12 KE 119' 71 A Long Winter 긴 겨울	18:40-20:15 699 15 KE 95' 131 Too Many Beasts 짐승이 너무 많아
	L6 LOTTE 6	10:20-11:53 700 15 KE 93' 55 Shaving 면도	13:00-15:24 701 12 144' 45 Beach Fictions 그날의 태주	16:30-18:12 702 15 KE 102' 123 A Good Little Soldier 모범 직원 카를라	19:20-20:59 703 ALL 99' 51 Long Long Night 긴잠

L7 LOTTE 7	10:00-11:36 704 ALL 96' 90 Beyond Love's Horizon 사랑의 지평선 너머로	12:40-13:51 705 12 71' 92 The Flower 학과사	15:00-17:13 706 12 KE 133' 52 Midday Meal 병과 책	18:20-19:48 707 15 KE 88' 85 Dead End 데드 엔드
L8 LOTTE 8	10:00-11:36 706 ALL 96' 92 FULL MOON 풀문	12:50-15:10 709 15 140' 94 Space 스페이스	16:10-17:28 710 15 KE 78' 107 Promised Spaces 약속된 공간	18:40-20:08 711 15 KE 88' 169 Welcome to Dolly's House 웰컴 투 돌리 하우스
L9 LOTTE 9	09:40-11:42 712 12 122' 93 Not for You 당신을 위한 것은 아닌	12:50-14:47 713 ALL 117' 95 Things I Left at the Theater 극장에 두고 온 것들	15:50-17:10 714 15 KE 80' 103 Head to Head 눈에는 눈	18:10-20:03 715 15 KE 113' 127 La Perra 라 페라
L10 LOTTE 10	10:20-12:12 716 12 KE 112' 57 To Be Ordinary 평범하기 위하여	13:20-15:06 717 15 KE 106' 87 Slumber 미몽	16:10-17:38 718 15 KE 88' 82 1982 1982	18:40-20:21 741 15 101' 61 PARADISE LOST 실낙원
KT KOFIC 영화진흥위원회	10:00-12:08 720 12 KE 128' 46 Between Two Lovers 비틀윈 투 러버스		16:20-18:38 722 12 KE 138' 53 Satoko Always 사토코는 언제나	19:40-21:17 723 12 KE 97' 56 silver express 실버 익스프레스
SH Woori Bank Hall 우리은행홀			12:20-14:20 724 12 KE 120' 161 In the Clear Moonlit Dusk 아름다운 초저녁달	18:20-20:19 726 12 KE 119' 77 Ray Gunn 레이 건
BCM Open Hall 공개홀	10:40-12:05 727 12 85' 94 Some Detective 모종의 탐정		13:20-15:51 728 19 KE 151' 71 Let Us Through, Dear Ancestors 아가씨들 포	19:40-21:15 730 15 KE 95' 86 Ria 리아

15 THU		1	2	3	4
Busan Cinema Center 영화의전당	BT 루프씨어터				18:00-22:00 002 15 240' Ocing Ceremony + The Winner of the Busan Award Screening 패미식 + 부산 아워드 수상작 상영
	B1 Cinema 1 중극장	10:00-12:40 731 160' The Winner of Flash Forward Audience Award 플래시 포워드 관객상 수상작			
	B2 Cinema 2 소극장	10:20-12:50 733 150' The Winner of Songwon Vision Audience Award - Korea 송원비전 관객상 - 한국 수상작			
	B3 Cinematheque 시네마테크	10:20-12:30 735 130' The Winner of Busan Cinephile Award 부산시네필상 수상작			

CGV*



스크린을 넘어 영화 속으로

영화에 맛을 더하다

SCREENX

SCREENX는 양쪽 벽면까지 스크린으로 확장된 세계 최초의 멀티 프로젝션 상영관입니다. 정면을 넘어 양옆으로 펼쳐지는 스크린이 관객을 둘러싸며, 마치 영화 속 공간에 들어온 듯한 몰입을 완성합니다. 오직 극장에서만 가능한 프리미엄 관람 경험을 SCREENX에서 만나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비짓부산 페스티벌 시월
홈페이지 확인!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bt 부산관광공사

Congratulations!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최를 축하합니다.

목차	Contents	
상영일정표	Screening Schedule	015
티켓 안내	Tickets	036
개막작	Opening Film	043
경쟁	Competition	044
갈라 프레젠테이션	Gala Presentation	058
아이콘	Icons	064
비전	Vision	082
- 아시아	- Asia	
- 한국	- Korea	
아시아영화의 창	A Window on Asian Cinema	096
한국영화의 오늘	Korean Cinema Today	112
- 스페셜 프리미어	- Special Premiere	
- 파노라마	- Panorama	
월드 시네마	World Cinema	118
플래시 포워드	Flash Forward	134
와이드 앵글	Wide Angle	142
- 한국 단편 경쟁	-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 아시아 단편 경쟁	- Asian Short Film Competition	
- 다큐멘터리 경쟁	- Documentary Competition	
-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 Documentary Showcase	
오픈 시네마	Open Cinema	160
미드나잇 패션	Midnight Passion	165
온 스크린	On Screen	170
특별기획 프로그램	Special Program in Focus	172
- 아름다운 시절, 안성기	- Those Beautiful Years, Ahn Sung-ki	
- 일본 애니메이션 특별전: 광기의 걸작, 전율의 기대작 12+1	- Japanese Animation Special: Masterpieces of Madness, Exhilarating Prospects 12+1	
- 모든 시간 모든 곳의 양자경	- Everything Everywhere All for Michelle	
특별 상영	Special Screenings	187
프로그램 이벤트	Program Event	192
포럼 비프	Forum BIFF	198
커뮤니티비프	Community BIFF	202
동네방네비프	BIFF Everywhere	206
작품별 색인	Index of Films	208

티켓 구매

구분	위치		운영기간	운영시간		결제수단
				오픈	마감	
온라인	부산국제영화제 홈페이지 (biff.kr)		9.17-10.15	24시간		신용카드 체크카드 간편결제
BIFF 매표소	영화의전당	야외매표소	10.6-10.15	8:30	20:30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시네마운틴 6층	10.7-10.15	8:30		
	CGV센텀시티 7층		10.7-10.14	첫 상영 시작 전 30분	마지막 상영 시작 후 15분	
	롯데시네마 센텀시티 8층					
	영화진흥위원회 2층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1층					
	소향씨어터 우리은행홀		10.8-10.14			
	메가박스 부산극장 4층		10.8-10.11	9:30	20:00	

* 각 상영관 BIFF 매표소 운영시간은 해당 상영관 상영 일정에 맞춰 운영됩니다.
※ 단, 8시 30분 이전 오픈의 경우: 종이티켓 발권 및 할인권종 인증만 가능,
현장 티켓 예매는 8시 30분부터 가능

티켓 가격

구분	개막식·폐막식	일반 상영작 / 씨네 클래스	액터스 하우스 / 마스터 클래스	미드나잇 패션
가격	30,000원	10,000원	15,000원	20,000원

예매·발권
유의사항

- 모든 일반 좌석은 온라인으로 판매합니다.
※ 온라인 예매로 매진되지 않거나 취소표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화제 기간에 BIFF 매표소에서 티켓 예매가 가능합니다.
※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상영작별 일부 좌석을 BIFF 매표소에서 판매합니다.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창구 이용불가)
- 종이티켓이 필요하신 경우 BIFF 매표소에서 모바일티켓 제시 후 발권 가능합니다.
- 예매자 과실로 종이티켓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발권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취소 및 환불

- 상영 시작 **60분 전까지** 취소·환불이 가능합니다.
- 종이티켓으로 발권한 경우 BIFF 매표소에서 실물 티켓 반납 후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합니다.
- 상영코드별 최대 2매까지** 예매 가능하며, 1매 단위로 **부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단, 프로모션 예매권과 신용·체크카드로 복합 결제한 경우 전체 취소만 가능합니다.)
- 예매 취소 시 시청 시점에 따라 발생하는 취소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처리됩니다.
- 취소 수수료**

취소일	취소 수수료
상영일 기준 6일 전까지	취소 수수료 없음
상영일 기준 5일 전~3일 전	티켓 1장당 1,000원 (개·폐막식 3,000원) ※ 예매 당일 취소 수수료 없음
상영일 기준 2일 전~상영 시작 60분 전	티켓 1장당 3,000원 (개·폐막식 9,000원) ※ 예매 당일 취소 시에도 수수료 발생

※ 영화제 사정으로 상영 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경우는 수수료 없이 취소·환불이 가능합니다.

상영관
운영 규정

- 정시 상영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상영 시작 15분 이후부터는 입장이 제한**됩니다.
상영 시작 후 입장하는 경우 예매한 좌석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영관 입장은 상영 시작 15분 전부터 가능합니다.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스태프 및 자원봉사자의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 상영관 입장 시 티켓(모바일티켓/종이티켓)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티켓 캡처본 및 예매 완료 알림(알림톡, 문자, 이메일 등)으로는 상영관 입장이 불가합니다.
- '청소년관람불가' 등급의 상영작은 보호자가 동반하더라도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관람할 수 없습니다.
(단,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 만 4세 미만의 어린이는 보호자가 동반하여도 입장이 불가합니다.
- 상영관 내부에는 주류 및 외부 음식 반입이 불가합니다.
※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영화진흥위원회 표조시사실, 소향씨어터 우리은행홀,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공개홀은 생수만 반입 가능합니다.
- 상영 중 좌석 이동은 불가**하며, 재입장은 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트레일러와 엔딩 크레딧을 포함하여 영화 상영 중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 게스트와의 만남(GV)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촬영이 가능합니다.

분실물 안내

영화제 기간에 습득한 물품은 가장 가까운 안내데스크에서 보관합니다.
소지품을 분실하셨을 경우 가까운 안내데스크를 방문하시거나 콜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창구 안내

- 영화제 기간 동안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오프라인 창구를 운영합니다.
- 위치: 모든 BIFF 매표소
 - 이용 대상: 만 65세 이상(1961년생 이상), 장애인
※ 신분증 또는 복지카드 지참 필수
 - 예매 가능한 상영작: 당일 및 익일 일반 상영작
※ 개·폐막식, 액터스 하우스, 마스터 클래스 등 유료 이벤트 제외
 - 유의사항
- 운영 기간은 각 상영관별 BIFF 매표소 운영 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0월 6일 개막일의 경우, 아외매표소에서 익일 일반 상영작만 예매 가능합니다.
-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 커뮤니티비프 상영작은 메가박스 부산극장 4층 매표소에서만 예매 가능합니다.

문의

- 콜센터: 1666-9177** - 운영기간: 2026.9.7(월)-10.23(금)
- 이메일: cs@biff.kr** - 운영시간: 영화제 기간 9:00-20:30
영화제 기간 외 10:00-17:00
(점심시간 12:00-13:30)
※ 영화제 기간 외 주말 및 공휴일 미운영



성희롱 예방
부산국제영화제는 성희롱·성폭력을 반대합니다.

[성희롱·성폭력 상담]

- 영화·영상산업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상담 신고: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 1855-0511

Ticketing Information

Price

Notice on Reservations and Issuance

Cancellation and Refunds

Type	Place		Period	Operating Hours		Payment	
				Open	Close		
Online	BIFF website (biff.kr)		9.17-10.15	24 Hours		Credit Card Debit Card	
BIFF Ticket Box	Busan Cinema Center	BIFF Outdoor Ticket Box	10.6-10.15	8:30	20:30	Credit Card Debit Card Cash	
		Cine Mountain 6F	10.7-10.15	8:30	30 minutes before the first screening 15 minutes after the last screening starts		
	CGV Centum City 7F		10.7-10.14				
	LOTTE CINEMA Centum City 8F						
	Korean Film Council 2F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1F						
	Sohyang Theatre Woori Bank Hall		10.8-10.14				9:30
	MEGABOX Busan Theater 4F		10.8-10.11				

* BIFF Ticket Box operating hours may vary according to each venue's screening schedule.
※ If open before 8:30 AM, only paper ticket printing and discount verification are available. On-site ticket purchases are available from 8:30 AM.

Type	Opening & Closing Ceremony	General Screening / Cine Class	Actors' House / Master Class	Midnight Passion
Price	30,000 KRW	10,000 KRW	15,000 KRW	20,000 KRW

- Ticket purchases for all standard seats are available online at the BIFF website.
※ For the seats that are not sold out online or have been cancelled can be booked at the BIFF Ticket Box during the festival.
※ For digitally excluded audiences, we operate the BIFF Ticket Box with a limited number of seats per film. (This service is available only to eligible users.)
- To receive your paper ticket, please present your mobile ticket at the BIFF Ticket Box.
- Lost or damaged tickets **will not be reissued or refunded.**

- Cancellations are accepted **up to 60 minutes before screening.**
- Printed tickets must be returned to the BIFF Ticket Box for cancellation.
- Reservations are possible for **up to two tickets per screening code** and **partial cancellation** is allowed per ticket. (For combined payments with promotional vouchers and credit or debit cards, only full cancellation is possible.)
- For cancellations, refunds will be issued minus any applicable fees based on the time of cancellation.
- **Cancellation fees are as follows:**

Cancellation Date	Cancellation Fee
6+ days before screening	Free
5 to 3 days before screening	1,000 KRW (3,000 KRW for Opening/Closing Ceremonies) ※ Free if cancelled on the day of purchase
2 days to 60 minutes before screening	3,000 KRW (9,000 KRW for Opening/Closing Ceremonies) ※ No same-day exemption

※ In the case of screening schedule changes or cancellations announced by BIFF, full refunds will be offered without any fees.

Theater Regulations

- As a rule, each screening begins on schedule. **Entry is allowed until 15 minutes after the screening starts.**
Please note that once a screening begins, reserved seats may not be guaranteed.
- Admission to the theater is available 15 minutes before the screening begins.
It is subject to change depending on the situation on-site. Please follow the guidance of the staff and volunteers.
- You must present a valid ticket (mobile or paper) at the theater entrance. Screenshots of mobile tickets or reservation confirmation messages (such as emails or text messages) will not be accepted and bearers will not be allowed to enter.
- Ticket holders under 19 are not permitted to enter screenings rated “Restricted (19+),” even when accompanied by a guardian. Those who turn 19 during the calendar year are exempt.
- Children under 4 are not allowed to enter even if they are accompanied by their guardian.
- Alcoholic beverages or food purchased outside the Cinema are not allowed.
※ Only bottled water is allowed in the Busan Cinema Center Haneulyeon Theatre, the KOFIC Theater, Sohyang Theatre Woori Bank Hall, and Busan Community Media Center Open Hall.
- **Changing seats during the screening is not allowed.** Please refrain from re-entering the theater once the screening has begun.
- All photography and video recordings are strictly forbidden, including during the trailers and the ending credits.
※ In the case of Guest Visits or other events held in the theater, you may take photos following guidance from staff.

Lost-and-Found

Lost items will be stored at the nearest BIFF Information Desk to where they were found.
If you have lost an item, please visit the nearest Information Desk or contact the Call Center.

Service Desks For Digitally Excluded Audiences

- We operate a ticketing service center during the festival for audiences who have barriers to accessing the internet and engaging online.**
- Location: All BIFF Ticket Box
 - Eligible Users: Seniors aged 65 and over (born in 1961 or earlier), persons with disabilities
※ ID or Disability card required
 - Screenings Available for Purchase: Same-day & Next-day general screenings
※ Excludes paid events such as the Opening & Closing Ceremonies, Actors’ House, Master Class.
 - Notice
 - Operating hours vary by location; please check the BIFF Ticket Box schedule for each venue.
 - On the Opening day, October 6, only tickets for Next-day general screenings are available at the BIFF Outdoor Ticket Box of Busan Cinema Center.
 - Available tickets are limited, for which we seek your understanding.
 - Community BIFF screenings can only be booked at the MEGABOX Busan Theater 4F Ticket Box.

Inquiries

- **Call Center: 1666-9177** - Period of Operation: Sep. 7(Mon)-Oct. 23(Fri), 2026
- **E-mail: cs@biff.kr** - Hours of Operation: During the Festival 9:00-20:30
Off-Festival Period 10:00-17:00
(Break Time 12:00-13:30)
※ Closed on weekends and public holidays outside the festival period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opposes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violence counseling]

- The Center for Gender Equality in Korean Film “DeunDeun”: 1855-0511

프로그램 섹션

Program Sections

경쟁 한 해 제작된 아시아영화 가운데 뛰어난 미학적 성취를 이룬 작품을 모아 선보인다.	Competition This section celebrates outstanding Asian films from the year, recognizing exceptional aesthetic accomplishments.
갈라 프레젠테이션 거장 감독의 신작 또는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화제작 가운데 감독이나 배우가 영화를 직접 소개하고 관객과의 만남을 갖는다.	Gala Presentation Influential filmmakers and actors present their films in Busan to celebrate their artistic achievements and engage with the audience.
아이콘 동시대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신작을 소개한다.	Icons A showcase of the latest works by contemporary iconic filmmakers from around the world.
비전 뛰어난 작품성과 독창적 비전을 지닌 한국과 아시아의 독립 영화 최신작을 선보인다.	Vision A curated selection of groundbreaking independent films of the year from Korea and Asia, offering a glimpse into the future of Korean and Asian cinema.
아시아영화의 창 아시아의 중견감독들과 신인감독들의 다양한 시각과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화제작을 소개한다. 최근 아시아영화의 주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A Window on Asian Cinema Experience the diverse styles and visions of Asian cinema through masterful works from acclaimed auteurs and emerging talents, capturing the spirit of contemporary Asian filmmaking.
한국영화의 오늘 - 스페셜 프리미어 특별한 대중적 매력과 위상을 지닌 동시대 한국 주류 상업 영화의 최신작 및 대표작을 프리미어로 상영한다.	Korean Cinema Today - Special Premiere A showcase of exclusive premieres featuring Korea's latest and most anticipated Korean commercial releases, films that capture special popular appeal and significance.
한국영화의 오늘 - 파노라마 동시대 한국영화의 역량과 흐름을 만끽할 수 있는 그해의 다양한 대표작 및 최신작을 선보인다.	Korean Cinema Today - Panorama An introduction to an array of the most significant and popular Korean films of the year, from commercial blockbusters to arthouse gems.

월드 시네마 비아시아권 중견 작가들과 신인 감독들의 신작 및 유수 국제 영화제 수상작을 포함하여 한 해 세계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한다.	World Cinema A panoramic view of the year in global cinema, featuring new works from established directors and emerging talents outside Asia and award-winning films from prestigious international festivals.
플래시 포워드 독창적인 영화 세계를 선보인 비아시아권 신인 감독들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을 소개하는 부문으로, 관객 투표를 통해 플래시 포워드 관객상을 수여한다.	Flash Forward A platform for innovative and original first and second features by emerging non-Asian filmmakers. The winner of the Flash Forward Audience Award is selected by the audience.
와이드 앵글 영화의 시선을 넓혀 색다르고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모아 선보인다.	Wide Angle A section dedicated to outstanding short films and documentaries that expand cinematic horizons through bold, distinctive perspectives.
오픈 시네마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신작 및 국제적인 관심을 모은 화제작을 영화의전당 루프씨어터에서 상영한다.	Open Cinema Experience acclaimed new releases and international sensations that blend artistic excellence with broad appeal, screened under the stars at Busan's hallmark Roof Theater.
미드나잇 패션 작품성과 오락성을 겸비한 호러, 스릴러, 액션, SF 등 장르 영화의 신작들을 심야에 상영한다.	Midnight Passion A selection of genre films—from horror and thriller to action and sci-fi—that are certain to keep devoted fans awake throughout the night.
온 스크린 영화의 확장된 흐름과 가치를 포괄하는, 그해의 최신 드라마 시리즈 기대작을 상영한다.	On Screen An exploration of cinema's expanding horizons through screenings of the year's most anticipated drama series.
특별기획 프로그램 그해의 주제에 따라 주목할 만한 영화인이나 영화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Special Program in Focus A themed section illuminating the work of notable filmmakers or examining significant trends in contemporary cinema.

UNI FRANCE

All the accents of creativity

Creative — Daring — Socially committed — Poetic — Innovative — Universal

Explore French films & TV programmes in all their diversity

UNIFRANCE.ORG



@: My French Stories / Unifrance

Opening Film 개막작

The Table: Day and Night | 낮과 밤은 서로에게



WP

Korea | 2026 | 80min | DCP | color

001 Oct 06 / 20:00 / BT **156** Oct 08 / 11:20 / SH **225** Oct 09 / 09:00 / L4

324 Oct 10 / 22:40 / L3

장편 <최악의 하루> (2016), <더 테이블> (2016), <아무도 없는 곳> (2021), <조제> (2020) 등을 만들었고 올니버스 영화 <더 킬러스> (2024)에 참여했으며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페르소나> (2019) 중 <밤을 걷다>를 연출했다. 현재 <흐린 창문 너머의 누군가> (2026)의 개봉을 준비 중이다.

Kim Jong-kwan has made feature films such as *Worst Woman* (2016), *The Table* (2016), *Shades of the Heart* (2021), and *Josée* (2020), participated in the omnibus film *The Killers* (2024), and directed *Walking at Night*, one of the segments in the Netflix original film *Persona* (2019). He is currently preparing for the release of *Frosted Window* (2026).

다른 시간대 같은 카페에 머문 유진(김민하)과 현오(주종혁)의 잠깐의 마주침, 중학교 시절 친구인 상미(한선화)와 영민(장률)의 느닷없는 재회, 웹소설 작가 혜진(심은경)과 영화감독 동남(이희준)의 불꽃 튀는 첫 만남, 아이돌 준비생 나경(전소영)과 연인 중수(김동휘)의 애뜻한 한순간까지. <낮과 밤은 서로에게>는 여름에서 가을 사이, 하나의 카페에서 네 쌍의 남녀가 나누는 유쾌하고 담백하며 사랑스러운 대화의 영화다. 불특정 다수가 머물다 떠나는 카페라는 장소 특성을 살리고, 인물 고유의 서사, 캐릭터, 분위기, 뉘앙스를 경쾌한 호흡과 시려 깊은 시선으로 섬세히 그렸다. <최악의 하루> (2016), <더 테이블> (2016), <조제> (2020) 등을 통해 고유의 영화 형식과 양식, 감성과 시선을 거듭 시도하고 확장한 김종관 감독의 화심의 작품이다. 집요하리만치 성실히 탐색해 온 영화적 관심, 스타일, 시선, 세계가 극점에 달했다. 과도한 설정이나 과격한 전개 없이, 관계의 진동을 훌륭히 풀어낸다. 김민하, 주종혁, 한선화, 장률, 심은경, 이희준, 전소영, 김동휘 등 출중한 배우들의 연기 앙상블 또한 흠잡을 데 없다. 쟁쟁한 배우들을 한데 모아낸 건 전적으로 연출가의 탁월한 역량이지 이 영화의 가치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다. (정지혜)

From the brief encounter between Yoo-jin (Kim Min-ha) and Hyeon-oh (Joo Jong-hyuk), who find themselves at the same café at different times, to the sudden reunion of middle-school friends Sang-mi (Han Sun-hwa) and Young-min (Chang Ryul); from the electric first meeting of web novelist Hye-jin (Shim Eun-kyung) and film director Dong-nam (Lee Hee-jun) to the tender moment shared by idol trainee Na-kyung (Jeon So-young) and her boyfriend Jong-su (Kim Dong-hwi) - *The Table: Day and Night* is a film of delightful, unpretentious, and lovely conversations shared by four couples at a single café, somewhere between summer and autumn. Making full use of the café as a space where strangers come and go, the film delicately renders each character's narrative, personality, mood, and nuance with a light rhythm and a thoughtful gaze. This is a defining work from director Kim Jong-kwan, who has continually experimented with and expanded his distinctive cinematic language through films such as *Worst Woman* (2016), *The Table* (2016), and *Josée* (2020). The cinematic concerns, style, perspective, and world he has pursued with unwavering dedication reach their culmination here. Without excessive contrivance or dramatic turns, the film beautifully captures the subtle tremors of human relationships. The ensemble performances of its outstanding cast - Kim Min-ha, Joo Jong-hyuk, Han Sun-hwa, Chang Ryul, Shim Eun-kyung, Lee Hee-jun, Jeon So-young, and Kim Dong-hwi - are equally flawless. That such a formidable cast has come together is a testament to the director's exceptional skill and clear evidence of the film's worth. (JEONG Jihye)



KIM Jong-kwan
김종관

Competition | 경쟁

 뉴 커런츠상 후보작 New Currents Award Nominees

 WP World Premiere

 IP International Premiere

2025년에 신설된 경쟁부문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았다. 첫 해의 뜨거운 관심과 성과에 힘입어 올해는 출품작들의 수준과 층위가 비약적으로 높아지고 두터워졌다. 그중 최종 13편의 작품을 선정했다. 동시대 아시아 영화를 대표하는 작품들이라 말할 수 있겠다.

한국의 비범한 신예 감독 임하연의 <그날의 태주>는 캐릭터와 구조를 자유자재로 구현하며 마법 같은 장면들을 연출해낸다.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조감독 출신으로 극영화 <여명>과 다큐 <책 종이 가위>로 부산영화제에 초청된 바 있는 실력파 일본 감독 히로세 나나코는 유명 배우들 나가사와 마사미, 에모토 타스쿠, 이시바시 시즈카와 함께 섬세한 삼각관계 드라마 <비트윈 투 러버스>를 완성해낸다. 또 다른 일본의 주목할 만한 신인감독 가토 다쿠아는 <일요일 다음날>에서 일본의 대표적인 연기파 배우 쿠로키 하루와 함께 밀도 높은 불안과 긴장의 심리 드라마를 선보인다. 첫 작품 <푸춘산의 삶>으로 칸 비평가주간 폐막작에 선정되며 세계적인 관심을 모은 바 있는 구유는 삼부작의 마지막 작품 <처음 만난 외로움>에서 중국의 연기파 배우 저우원신의 훌륭한 연기와 함께 여전히 아름다운 영상미를 보여준다. 우즈베키스탄의 감독 보티르 압두라흐마노프는 <힐롤>에서 신중한 소재와 힘 있는 장면들을 통하여 중앙아시아 영화의 지력을 보여준다. 동명의 유명 창작 동화를 원작으로 한 한국 감독 염규복의 애니메이션 <긴긴밤>은 뛰어난 시각적 구성과 절절한 정서의 힘으로 깊은 감동을 자아낸다. 세계 영화사의 페이지에 이름을 남긴, 이란의 국민감독 마지드 마지디는 그의 대표작 <천국의 아이들>에 버금갈 만한 역설과 감동의 이야기인 <빵과 책>으로 삶의 역설과 지속을 찬란하게 노래한다. 인도네시아의 주목할 만한 감독 에디 카호노는 국민 배우 크리스틴 하킴의 놀라운 연기와 함께 어떤 원초적 이미지와 정서를 뛰어난게 구현해낸다. 재능 넘치는 일본의 중견 감독 오카타 슈이치는 <사토코는 언제나>에서 대중 영화를 예술영화의 경지로 끌어 올리고 예술 영화를 대중 영화의 지대로 확장하며 유쾌하면서도 성찰적인 시도를 완수해낸다. 인도네시아의 감독 요셉 앙기 노엔은 다재다능한 배우 레자 라히디안과 함께 인도네시아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대형 역사극을 선보인다. 한국의 김정훈 감독은 <연도>에서 한적한 장소와 밀폐된 공간 그리고 공포에 휩싸이는 인물형들을 밀도 높게 묘사하며 오늘날 한국 장르 영화가 도달한 뛰어난 수준을 보여준다. 일본의 신예 감독 다나카 미키는 무성애자라는 소재를 선택, 사랑의 방법이 온전히 몇 가지로 한정될 수만은 없다는 그 당연한 사실을 감각적 영상으로 전한다. 마지막으로, 대만의 감독 리원찬은 삶의 희망과 냉혹함을 유려하게 교차해내며 대만의 가족 영화 전통이 오랫동안 지켜온 그 성찰적 사선과 풍경을 뚜렷하고도 현대적으로 이어낸다. (정한석)

Now in its second edition since its launch in 2025, the Competition section has grown remarkably in both quality and depth, building on the enthusiastic response and success of its inaugural year. From this year's submissions, 13 films have been selected for the final lineup—works that can rightfully be said to represent contemporary Asian cinema.

South Korea's extraordinary emerging director Lim Hayeon demonstrates remarkable command of character and structure, conjuring magical sequences in *Beach Fictions*. Hirose Nanako, a former assistant director to Koreeda Hirokazu and whose fiction feature *His Lost Name* and documentary *Book-Paper-Scissors* were invited to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delivers the delicately rendered love-triangle drama *Between Two Lovers* with acclaimed actors Nagasawa Masami, Emoto Tasuku, and Ishibashi Shizuka. Another notable emerging Japanese director, Kato Takuya, presents a psychological drama charged with anxiety and tension in *The Day After Sunday*, featuring acclaimed Japanese actor Kuroki Haru. Gu You, who drew international attention when his debut feature *Dwelling in the Fuchun Mountains* was selected as the closing film of Cannes Critics' Week, completes his trilogy with *The First Taste of Loneliness*, once again displaying his beautiful visual style, complemented by an outstanding performance from acclaimed Chinese actor Zhou Xun. Uzbek director Botir Abdurakhmanov demonstrates the strength of Central Asian cinema in *Hilol* through sensitive subject matter and powerful scenes. Korean director Youm Kyubock's animated feature *Long Long Night*, based on the acclaimed children's book of the same name, is deeply moving in its outstanding visual composition and profound emotional resonance. Iran's celebrated national filmmaker Majid Majidi, whose name has earned a place in the history of world cinema, offers in *Midday Meal* a story of paradox and emotion worthy of his masterpiece *Children of Heaven*, brilliantly celebrating the paradoxes and continuity of life. Notable Indonesian director Eddie Cahyono, together with celebrated actor Christine Hakim in a remarkable performance, vividly evokes primal imagery and emotions. Japan's talented mid-career director Okita Shuichi, in *Satoko Always*, elevates commercial movie to the realm of art film while extending art cinema into the territory of popular film, achieving something both playful and reflective. Indonesian director Yosep Anggi Noen, together with versatile actor Reza Rahadian, presents a sweeping historical epic spanning modern Indonesian history. Korea's Kim Jung-hoon of *Shaving* vividly portrays isolated settings, enclosed spaces, and characters gripped by fear, demonstrating the remarkable level of craftsmanship contemporary Korean genre cinema has achieved. Emerging Japanese director Tanaka Miki takes asexuality as her subject, using sensuous imagery to convey the simple truth that the way to love unfolds in different shapes. Finally, Taiwanese director Lee Yun Chan gracefully interweaves the hope and harshness of life, carrying forward—with warmth and a contemporary sensibility—the reflective gaze and dignity long upheld by the tradition of Taiwanese family cinema. (JUNG Hanseok)

Competition 경쟁

Beach Fictions | 그날의 태주



WP

Korea | 2026 | 144min | DCP | color

267 Oct 10 / 16:00 / BH **380** Oct 11 / 18:10 / B3 **528** Oct 12 / 10:00 / L7

701 Oct 14 / 13:00 / L6

LIM Hayeon

임하연

1998년 인천 출생. 성균관대학교 철학과와 영상 학과를 졸업한 후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연출을 공부했다. 단편 <빈티지 러브> (2024), <갈비뼈> (2024)를 연출했으며, 각각 대만단편영화제, 전주국제영화제, 미장센단편영화제 등에서 상영되었다.

Lim Hayeon was born in Incheon in 1998. She studied philosophy and film, television, and multimedia at Sungkyunkwan University before pursuing film directing at the Korean Academy of Film Arts. She has directed short films including *Vintage Love* (2024) and *The Rib* (2024), which have been screened at the Great Short Film Festival,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Mise-en-scène Short Film Festival.

영문도 모른 채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수군래고 소문에 시달리던 태주(박한솔)는 도망치듯 기차에 오른다. 우연히 만난 소설가 이휘(예수정)는 태주를 두고 자신이 쓰는 소설 속 주인공을 닮았다 한다. 해변에 도착한 태주는 거리의 마술사 만혁(김우겸)을 만나고, 이휘가 알려준 웅한 사주 집에 들르고, 게스트 하우스에서 난생처음 보는 사람들과 얼마간 시간을 보낸다. <그날의 태주>는 말간 얼굴, 해사한 기운, 보드라운 속에 막강한 이야기꾼의 면모와 장악력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놀라운 데뷔작이다. 전연과 소문, 나이가 픽션과 이야기라는 건, 모름지기 진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생물처럼 살아 움직여 제멋대로 나이기는 게 아니냐? 최초의 말에 아내 살이 붙고 변형되는, 바로 그 이야기의 속성이다 말로 이 영화에 모종의 마스터리, 오리무중의 삼연, 묘연한 행방, 불확실한 질문으로 남아내내 맴돈다. 같은 장소, 동일 인물들이 두 번에 걸쳐 영화적 시간을 살아내면, 비슷하나 분명 달라진 감정 상태와 결단의 순간과 마주할 것이다. 과연 이것은 누구의 어떤 이야기일까. 청량한 해변, 안온한 빛이 이 세계를 감싸면, 영화적 순간, 영화라는 마법과 금세 만날 것이다. 공기와 물기를 한껏 머금은 박한솔, 김우겸의 생각이 반짝인다. (정지혜)

Tae-ju (Park Hansol), tormented by whispers and rumors swirling around her for reasons she doesn't understand, boards a train as if fleeing. On the train, she happens to meet novelist Ewha (Ye Sujeong), who tells Tae-ju she resembles the protagonist of a novel she's writing. Arriving at the beach, Tae-ju meets a street magician named Manhyuk (Kim Wookyum), visits a fortune-teller recommended by Ewha, and spends some time with complete strangers at a guesthouse. *Beach Fictions* is a remarkable debut whose lucid, radiant, and gentle surface belies the formidable instincts and command of a powerful storyteller. Don't hearsay and rumor—and, by extension, fiction and storytelling—take on lives of their own, indifferent to truth or falsehood, moving wherever they please? It is precisely this nature of storytelling—where an initial telling quickly takes on flesh and changes shape—that lingers throughout the film as a kind of mystery, an unfathomable abyss, an unknown destination, an uncertain question. When the same people in the same place live through cinematic time twice over, they encounter emotional states and moments of decision that are similar yet unmistakably different. Whose story is this, exactly, and what kind of story is it? When the luminous beach and gentle light envelop this world, we soon encounter a cinematic moment and the magic of cinema itself. Park Hansol and Kim Wookyum shimmer with a vitality that causes the air and moisture around them to come alive. (JEONG Jihye)

Director LIM Hayeon **Producer** PARK Hyunsuk **Cast** PARK Hansol, KIM Wookyum, YE Sujeong **Screenplay** LIM Hayeon

Cinematography PARK Sinuk **Production Design** KIM Jinhee **Editor** LIM Hayeon **Music** LEE Wonhong

Between Two Lovers | 비트윈 투 러버스



© 2026 K2 Pictures

WP
APM 2023 선정작

Japan | 2026 | 128min | DCP | color
364 Oct 11 / 12:20 / BH **478** Oct 12 / 09:40 / B3 **570** Oct 13 / 19:20 / B3
720 Oct 14 / 10:00 / KT

HIROSE Nanako
히로세 나나코

부산국제영화제 뉴 커런츠 부문에서 월드프리미어로 상영한 장편 <여명> (2018)으로 데뷔하여 민스크, 팜스프링스, 멜버른 등의 영화제에서 주목 받았다. 이후 장편 다큐멘터리 <책 종이 가위> (2019)를 만들어 부산국제영화제, 도쿄필맥스 등에서 상영했으며, 도쿄필맥스 경쟁 부문 특별언급을 받았다.

Hirose Nanako made her debut with the feature film *His Lost Name* (2018), which had its world premiere in the New Currents section of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gained recognition at film festivals such as Minsk, Palm Springs, and Melbourne. She subsequently directed the feature documentary *Book-Paper-Scissors* (2019), which was screened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okyo FILMeX, and received a Special Mention in the Tokyo FILMeX Competition section.

호평받은 데뷔작 <여명> (2018)과 다큐멘터리 <책 종이 가위> (2019)에 이어 히로세 나나코 감독이 선보이는 도발적인 신작. 그림책 작가 우타(나가사와 마사미)와 편집자이자 연인인 준나(이시바시 시즈카) 사이를 오가며 아슬아슬한 이중생활을 태연하게 이어간다. 타협 없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던 우타는 두 연인이 동시에 아이를 원하자 갑작스러운 딜레마에 직면한다. 이에 파격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세 사람이 함께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 터무니없이 이기적인 해법으로 출발한 이 관계는 가족과 친밀함, 타협과 이해의 경계를 끊임없이 재정립하며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가라성 같은 주연 배우들의 압도적인 연기와 정제된 영상미를 바탕으로, <비트윈 투 러버스>는 비전통적 가구 형태라는 시의성 있는 소재를 세련된 완성도와 가감 없는 사실주의로 풀어낸다. 감독은 인물들의 결핍을 무디게 다듬는 대신, 그들이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자기보존 본능을 과감하게 파고든다. 어느 한쪽의 편도 들 수 없는 인물들의 민낯을 통해, 영화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묻고, 지극히 동시대적인 관계의 초상을 제시한다. (박가연)

In Hirose Nanako's provocative follow-up to her acclaimed debut *His Lost Name* (2018) and documentary *Book-Paper-Scissors* (2019), picture book author Uta (Nagasawa Masami) leads a delicate double life, comfortably navigating parallel relationships with her husband, Morio (Emoto Tasuku), and her editor and lover, Junna (Ishibashi Shizuka). Guided by an uncompromising free spirit and a desire for an unburdened life, Uta faces a sudden dilemma when both partners want a child. In response, she proposes a radical alternative: a domestic life shared by all three. What begins as an outrageously selfish solution gradually evolves into an unexpected, shifting dynamic among three people forced to renegotiate the boundaries of family, intimacy, and compromise. Anchored by commanding performances from a stellar lead cast and elevated by refined visual composition, *Between Two Lovers* approaches the topical territory of non-traditional cohabitation with polished production and unflinching realism. Hirose refuses to smooth over her characters' sharpest edges, leaning boldly into their flawed, uncomfortable self-preservation rather than offering clean answers. The result is a candid, deeply contemporary portrait of modern relationships—one that challenges audience sympathies while asking what it truly takes to live alongside the ones we love. (Karen PARK)

Director HIROSE Nanako **Assistant Director** OHINATA Jun, KAMIURA Yuna **Executive Producer** KII Muneyuki **Producer** KOIDE Daiju
Cast NAGASAWA Masami, EMOTO Tasuku, ISHIBASHI Shizuka **Cinematography** HUNG-I Yao **Production Design** SUGIMOTO Ryo
Sound USUI Masaru **Music** HIMI

The Day After Sunday | 일요일 다음날



© 2026 "The day after sunday" Film Partners

WP

Japan/France | 2026 | 82min | DCP | color
007 Oct 07 / 20:40 / BH **084** Oct 08 / 09:00 / B3 **224** Oct 09 / 22:00 / L3
538 Oct 12 / 17:00 / L9

KATO Takuya
가토 다쿠야

1993년 일본 출생. 17세부터 TV와 라디오 대본을 쓰기 시작했고 이탈리아로 건너가 영화 연출을 공부했다. 귀국 후 극단 다쿠미를 설립해 약 20편의 무대 작품을 쓰고 연출했다. <우리들은 어른> (2022)으로 장편 데뷔한 후 <흐트러지다> (2023)를 연출했으며 요코하마영화제에서 모리타 요시미츠 메모리얼 신인 감독상을 수상했다. <일요일 다음날>은 세 번째 장편 연출작이다.

Takuya Kato was born in Japan in 1993. He began writing scripts for television and radio at the age of 17, then moved to Italy to study film directing. After returning to Japan, he founded the Takumi Theatre Company, for which he has written and directed around twenty stage productions. He made his feature directorial debut with *Grown-ups* (2022), followed by *Fly On* (2023), for which he received the Yoshimitsu Morita Memorial New Director Award at the Yokohama Film Festival. *The Day After Sunday* is his third feature film.

가족과 함께 리조트 호텔에서 여행을 떠난 마이(쿠로키 하루)와 남편 고이치(히시모토 아쓰시). 산전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마이는 신경이 점점 예민해지지만, 고이치는 이런 상황을 외면하기 급급하다. 엇갈린 태도 속에 감춰져 있던 부부의 긴장은 결국 견디기 힘든 갈등으로 폭발한다. <우리들은 어른> (2022)과 <흐트러지다> (2023)에 이은 가토 다쿠야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일요일 다음날>은 치밀한 연출과 정교한 영상미를 통해 그가 동시대 일본 영화계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주목할 만한 젊은 감독 중 한 명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영화는 밀폐된 공간과 무대극을 연상시키는 절제된 대사를 통해 현대 가족 내면에 지리한 정서적 단절을 드러낸다. 식민한 분위기의 리조트 호텔은 단순한 배경을 넘어 부부가 느끼는 실존적 불안을 증폭시키는 또 하나의 주역으로 기능한다. '침묵 속에서 고통받는 여성'이라는 일본 영화의 전통적 주제를 다루면서도, 감독은 단순한 해법에 기대지 않고, 가정의 균열과 그 안에서 위태롭게 흔들리는 여성을 냉정하고 날카로운 사선으로 파고든다. 쿠로키 하루의 섬세하고 깊이 있는 연기와 등골 서늘한 열린 결말은 영화가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목직한 담론과 논쟁을 남길 것이다. (박가연)

The Day After Sunday follows Mai (Kuroki Haru) and her husband Koichi (Hashimoto Atsushi) during a family hotel retreat. Awaiting prenatal screening results, Mai's mounting anxiety collides with Koichi's passive avoidance, escalating hidden spousal tension into unbearable friction. Marking director Kato Takuya's third feature following *Grown-ups* (2022) and *Fly On* (2023), this film further refines his distinct visual and dramatic precision, proving him to be one of contemporary Japanese cinema's most compelling young auteurs. The film deploys deliberate spatial composition and stage-oriented, naturalistic dialogue to expose emotional disconnection within the contemporary family structure. Rather than a mere backdrop, the hotel functions as a primary protagonist—its sterile atmosphere magnifying the couple's existential dread. While confronting familiar Japanese cinematic themes of silent female plight, Kato avoids easy resolutions and constructs a cold, razor-sharp exploration of domestic fracture and female vulnerability. Anchored by Kuroki's deeply nuanced performance, the film culminates in a hauntingly open ending. By refusing to offer neat closure, Kato delivers a blood-freezing, highly disquieting marital portrait that will inevitably divide audiences and force vital, lingering discussions long after the final frame. (Karen PARK)

Director KATO Takuya **Executive Producer** YAMAUCHI Manabu, HANDA Masahiro **Producer** IMAI Takafumi, ANAN Fumitake, JIMBO Yuka
Co-Producer SAWADA Masa **Cast** KUROKI Haru, HASHIMOTO Atsushi, FURUTACHI Kanji, YOSHIDA Yoh **Cinematography** KIZU Toshihiko
Music Frédéric D. OBERLAND (FOUDRE!), Romain BARBOT (FOUDRE!), Paul RÉGIMBEAU (FOUDRE!)

The First Taste of Loneliness | 처음 만난 외로움



© Hangzhou Shanshui Films Co., Ltd.

WP

China | 2026 | 135min | DCP | color

006 Oct 07 / 16:30 / BH 085 Oct 08 / 12:00 / B3 420 Oct 11 / 22:00 / L2

654 Oct 14 / 10:20 / B3

GU You

구유

장편 데뷔작 <푸춘산의 삶> (2019)이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폐막작으로 상영되었고, 2020년 『카이에 뒤 시네마』와 2021년 『키네마 준보』 올해의 영화 10편에 선정됐다. 두 번째 장편 <드웰링 바이 더 웨스트 레이크> (2023)는 도쿄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되었으며, 역대 최연소 수상자로 구로사와 이카리야상을 받았다. 이후 베이징영화제 개막작으로 상영되었다. <처음 만난 외로움>은 구유 감독의 산수영화 3부작의 세 번째 작품이다.

Gu You's feature debut, *Dwelling in the Fuchun Mountains* (2019), screened as the closing film of Critics' Week at the Cannes Film Festival and was named one of the Top Ten Films of the Year by both *Cahiers du Cinéma* (2020) and *Kinema Junpo* (2021). His second feature, *Dwelling by the West Lake* (2023), was invited to the Main Competition of the Toky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here he received the Akira Kurosawa Award as its youngest-ever recipient, and the film went on to screen as the opening film of the Beijing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First Taste of Loneliness* is the third installment in Gu You's 'Shanshui Film' trilogy.

아버지의 죽음으로 오프닝 씬을 연 영화는 이어 항저우 강이 풍경을 가로질러 모녀 삼 대가 살고 있는 오래된 아파트로 향한다. 20분이 넘는 롱테이크로 촬영된 두 번째 씬은 아버지가 떠난 집의 곳곳을 찬찬히 공들여 비추면서 그가 남긴 흔적들을 찾아낸다. 그리고 남편/아버지/할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견디고 매워가는 이들의 일상을 조용히 담아낸다. 루나(Luna), 자양 위에(江月), 문(Moon)이라는 각각의 이름은 모두 '달'을 의미하며 이는 유예의 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했다는 "모든 강에는 달이 있다"는 말과 조응한다. 각각의 강에 각자의 달을 품고 사는 모녀 삼 대의 이야기는 저마다의 외로움과 치유의 길을 따라간다. <푸춘산의 삶>과 <초목인간>에 이어 <처음 만난 외로움>으로 산수영화 3부작을 완성한 구유 감독은 고래에다 히로카즈 감독과의 협업으로 유명한 미키야 타카모토 촬영감독을 만나, 물 흐르듯 유려한 카메라 워킹으로 강과 산과 도시를 가로지르는 풍경 속에 인물들의 시공간을 포개놓는다. 중국을 대표하는 배우 저우원의 섬세하고 우아한 연기가 그 풍경 속에서 더욱 깊은 울림을 만든다. (박선영)

The film opens with the death of a father, then moves across the Qiantang River to an old apartment where three generations of women live together. The second scene, filmed in a long take lasting over twenty minutes, meticulously observes the inside of the home the father has left behind, discovering the traces of his presence. The camera quietly captures the lives of the three women as they grieve the loss of the husband, father, and grandfather in their own ways. Their names - Luna, Jiang Yue, and Moon - all evoke the moon, echoing what Yue's father often said when he was alive: "A moon for every river." The story of these three women, each carrying a moon in her own river, follows their paths of loneliness and healing. Gu You completes his Landscape trilogy with this film, after *Dwelling in the Fuchun Mountain* and *Dwelling by the West Lake*. He layers the characters' lives across the scenery of rivers, mountains, and cities through fluid and graceful camerawork by cinematographer Mikiya Takimoto, known for his collaborations with Koreeda Hirokazu. Within these landscapes, the delicate and elegant performance of acclaimed Chinese actor Zhou Xun creates an even deeper resonance. (PARK Sunyoung)

Director GU You **Executive Producer** DU Kexin **Producer** SHAN Zuolong, DU Kexin **Cast** ZHOU Xun, XI Meijuan, WANG Shengdi

Screenplay YANG Yikun, GU You **Cinematography** TAKIMOTO Mikiya **Production Design** ZHOU Xingyu **Editor** LIU Xinzhu

Sound LI Danfeng **Music** Sylvian WANG **Costume Designer** SU Chao

Hilol | 힐롤



WP

Uzbekistan | 2026 | 87min | DCP | color

266 Oct 10 / 12:30 / BH 379 Oct 11 / 15:10 / B3 550 Oct 12 / 10:00 / BCM

631 Oct 13 / 15:40 / L10

Botir ABDURAKHMANOV

보티르 압두라흐마노프

1992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출생. 우즈베키스탄 국립예술문화대학교에서 영화연출을 전공했다. 단편 극영화 <마마> (2017), <발론> (2021)을 비롯한 다수의 단편 및 다큐멘터리 작품을 연출했으며 여러 국제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힐롤>은 첫 장편 연출작이다.

Born in Samarkand, Uzbekistan in 1992. Abdurakhmanov studied Film Directing at the Institute of Arts and Culture of Uzbekistan. He has directed numerous short fiction and documentary films, including *Mama* (2017) and *Ballon* (2021), which have screened at vari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Hilol* is his feature directorial debut.

힐롤은 가만히 숫자를 센다. 창틀에 거꾸로 매달려서도, 두려움이 치밀어 오를 때도,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뒤에 또 숫자를 센다. 힐롤에게 숫자를 세는 행위는 억눌린 감정과 욕망이 분출되는 것을 통제하는 방식이면서, 역설적으로 그것이 자신 안에 살아있음을 깨닫는 행위이기도 하다. 스물셋의 힐롤은 아버지에게 '이들'처럼 키워졌다. 태어나면서 엄마를 여린 힐롤은 한때 태권도 챔피언이었으나 이제는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제각기 문제적 삶을 살고 있는 언니들은 힐롤을 결혼시키려고 하고, 오래 전의 친구 다니요르를 우연히 다시 만난 힐롤은 자신도 모를 어떤 감정에 동요한다. 거칠고도 거침없는 카메라가 여딘가를 향해 계속 떠나는 길 위의 힐롤을 뒤쫓다가, 훌쩍 뒤로 물러서서 길을 잃은 듯 멈춰 선 힐롤을 익스트림 롱 쇼트로 잡아내는 장면들이 교차되면서 영화의 독특한 리듬을 만든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힐롤'이 남성 이름인 것과 동시에 '힐롤라'라는 여성 이름의 애칭이며, 아직 떠오르지 않은 '초승달'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이 영화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이자, 영화 이후 힐롤의 삶을 상상하게 하는 메타포가 된다. 우즈베키스탄의 주목할 만한 신인 감독의 등장이다. (박선영)

Hilol quietly counts. She counts while hanging upside down from a window frame, when fear wells up inside, and after realizing for the first time what she wants and does not want. Counting is a way for her to keep her pent-up emotions and desire from erupting, but paradoxically it also allows her to recognize that they are still alive within her. At twenty-three, Hilol has been raised by her father like a son. Her mother died when she was born, and though she was once a Taekwondo champion, she now has little to do other than caring for her father at home. Her older sisters, each struggling with problems of their own, try to arrange marriage for Hilol. Then, she runs into her childhood friend Doniyor by chance, which stirs feelings she does not quite understand. The rough, bold camera follows Hilol as she keeps setting off toward somewhere, only to pull back and capture her standing still as though lost, in an extreme long shot. The interplay between these contrasting shots creates the film's distinct rhythm. In Uzbekistan, 'Hilol' is both a masculine name and a diminutive of the feminine name Hilola, and it also means 'crescent moon.' This makes the name a key to understand the film, as well as a metaphor that invites audiences to imagine Hilol's life after the film ends. *Hilol* marks the arrival of a notable new voice in Uzbek cinema. (PARK Sunyoung)

Director Botir ABDURAKHMANOV **Assistant Director** Khabibulla KHASANOV **Producer** Khurshid ALIKHODJAEV

Cast Nargiza BAKAYEVA, Alisher YULDASHEV, Asliddin AMRULLAYEV **Screenplay** Botir ABDURAKHMANOV **Cinematography** Diyor ISMATOV

Production Design Shamshetdin IBRAYIMOV **Editor** Jasurbek TUROBKHUJA **Sound** Anvar FAYZ **Music** Maryam PULATOVA

IBUKU | 마이 마더



WP
APM 2015 선정작

Indonesia/Japan | 2026 | 96min | DCP | color
073 Oct 08 / 16:40 / BH **181** Oct 09 / 16:00 / B3 **291** Oct 10 / 22:00 / C1
387 Oct 11 / 09:40 / C1

Eddie CAHYONO

에디 카호노

인도네시아예술대학 영상매체예술학부를 졸업했다. 장편 <시티> (2014)로 인도네시아영화제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으며 로테르담영화제, 텔루라이드 영화제, 싱가포르영화제 등에 초청됐다. 이후 <브로토 부인의 호스텔> (2021)를 연출했고, <내 몸의 기억들> (2018), <마운틴 송> (2019) 등의 작품에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했다. <마이 마더>는 네 번째 장편 연출작이다.

Eddie Cahyono graduated from the Faculty of Recording Media Arts at the Indonesian Institute of the Arts. His feature film *Siti* (2014) received the Citra Award for Best Film and was screened at numerous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including Rotterdam, Telluride, and Singapore. He went on to direct *Mrs. Broto's Hostel* (2021) and served as an executive producer on *Memories of My Body* (2018) and *Mountain Song* (2019). *IBUKU* is his fourth feature film.

수미아티(크리스틴 하킴)는 젊은 시절 인기 있는 자틸란 무용수였으나 지금은 홀로 남겨진 미망인이다. 남편은 도박에 빠져 빚만 남기고 자살했고, 그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외동딸 스리(아유시타)를 강제로 혼인시켜야 했다. 하지만 술에 취해 가정폭력을 일삼는 사위로부터 딸을 끝내 보호해 주지 못했고, 스리는 도피하듯 고국을 떠나 이주노동자가 된다. 그곳에서 고용주의 학대에 시달리던 스리는 살인을 저질러 사형을 선고받는다. 딸의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수미아티는 주변의 무시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딸을 직접 만나러 가겠다는 절박한 결심을 한다. 에디 카호노 감독의 네 번째 장편 <마이 마더>는 전작에 이어 그가 나고 자란 족자카르타의 가족 서사, 특히 억압받는 여성들의 삶을 깊이 있게 탐구한다. 가부장제와 경제적 붕괴 속에서 희생과 저항을 감내해야 했던 여성들의 고통은 이번 작품에서 한층 더 깊어진 심리적 여정으로 확장된다. 극심한 가뭄에 매마른 자연환경은 인물들의 황폐해진 내면과 트라우마의 투영장이자 역설적인 도피처로 기능한다.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방치된 채 선택권 없이 삶의 덧에 갇혀버린 여성들에게 지금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비극의 연쇄를 끊어내기 위한 화해와 용서가 아닐까. (박성호)

Sumiati (Christine Hakim) was once a popular Jatilan dancer in her youth, but now she lives alone as a widow. After her husband was ruined by gambling and took his own life, leaving her with nothing but his debts, Sumiati is forced to marry off her only daughter Sri (Ayushita) to help pay them off. But she cannot protect Sri from an abusive, alcoholic son-in-law, and Sri flees the country to become a migrant worker abroad. There, subjected to abuse by her employer, she commits murder and is sentenced to death. When news of her daughter's tragic fate reaches her, Sumiati makes the desperate decision to go and see her in person, defying the indifference and objections of those around her. Eddie Cahyono's fourth feature, *IBUKU*, once again turns to the family narratives of his native Yogyakarta. As in his earlier work, he explores in even greater depth the lives of women living under oppression. The suffering of women forced to endure sacrifice and resistance amid patriarchal and economic collapse unfolds here into a profound psychological journey. The land, parched by relentless drought, becomes both a mirror for the characters' devastated inner lives and trauma, and a paradoxical refuge from them. For women neglected by society and community alike, trapped with no way out in the snares of their own lives, might what they truly need now be reconciliation and forgiveness? Is this the only way to break this chain of tragedy? (PARK Sungho)

Director Eddie CAHYONO **Executive Producer** Aris NUGRAHA, Zunan FARID **Producer** Tika BRAVANI, YAMAGUCHI Shin

Cast Christine HAKIM, Ayushita NUGRAHA, Landung SIMATUPANG **Cinematography** Muhammad FIRDAUS, ICS **Editor** Greg ARYA

Music Krisna PURNA

Long Long Night | 긴긴밤



Korea | 2026 | 99min | DCP | color
074 Oct 08 / 20:30 / BH **182** Oct 09 / 19:10 / B3 **557** Oct 13 / 16:00 / BH
703 Oct 14 / 19:20 / L6

YOUM Kyubock

염규복

삼성전자, BMW, 캐논 등 글로벌 브랜드 광고를 연출했으며 '메리츠 걱정인형 캠페인' (2011)과 '신협 어부바 캠페인' (2019) 등 기업 브랜드 캐릭터의 디자인과 연출을 총괄했다. 광고 업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올해의 광고상 그랑프리, 서울영상광고제 작품상 등을 수상했다. 2017년에는 동화 『구육구육』, 『고룡고룡』, 『하악하악』 시리즈를 출간하며 동화 작가로서도 데뷔했다. <긴긴밤>은 첫 번째 장편 영화 연출작이다.

Youm Kyubock has directed commercials for global brands such as Samsung, BMW, and Canon, and has overseen character design and advertising campaigns for various brands, including the Meritz Worry Doll Campaign (2011) and the National Credit Union Federation of Korea's Eobuba (Lifelong Support) Campaign (2019). His work in television advertising earned him the Grand Prix at the Advertisement of the Year Awards and the Best Work Prize at the Seoul Creative Festival among others. In 2017, he made his debut as a children's book author with a series of three books, *googgoog, goronggorong*, and *haackhaack*. *Long Long Night* is his feature directorial debut.

Director YOUM Kyubok **Executive Producer** JEONG Kyunghae **Co-Producer** KIM Sangyoun

Cast Suzy, PARK Kiwook, KIM Gyuna, UM Sanghyun, SO Junghwan, JEON Taeyeol

코끼리 무리 속에서 자란 흰바위코뿔소 노든. 인간들의 탐욕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모두 잃었다. 그런 그의 곁에 버려진 알 하나가 있다. 노든은 혼자라는 절망과 고립의 긴긴밤을 보내면서도 작다작은 이 알을 품기를 포기하지 않는다. 마침내 세상 밖으로 나온 아기 펭귄 '나.' 코뿔소와 펭귄, 전혀 다른 존재이자 각자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됐는지는 알 길 없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하고 절대적이며 친밀하고 다정한 우정과 사랑의 존재라는 점은 확실하다. 이제 이들은 펭귄이 살아갈 바다를 찾아 긴긴밤을 보낼 것이다. 염규복 감독의 데뷔작 <긴긴밤>은 문학동네어린이문학상 대상에 빛나는 원작 동화의 막강한 힘과 가능성을 정확히 발견하고, 명치가 시큰하고 저릿해질 정도로 탄탄한 감성적 축조와 놀라운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주는 빼어난 애니메이션이다. 노든과 '나'의 소박하지만 장대하고, 연약하지만 용감하며, 활기차지만 사려 깊은 긴긴 여정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사랑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저자 놀라움 따름이다. 모험의 길에서 만나는 각기 다른 개성의 동물들, 경의와 외포의 대상인 자연의 변화무쌍한 순간들은 커다란 정서적 공감과 울림으로 공명한다.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가'가 아니라, '누구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타인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완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긴긴밤>의 귀한 질문 앞에서, 오래도록 깊이 느끼고 흐느껴 울 것이다. (정지혜)

Norden, a White Boulder Rhinoceros raised among a herd of elephants, has lost every family member and friend he loved to human greed. Beside him lies an abandoned egg. Through the long, long night of despair and isolation, Norden never gives up on cradling this tiny egg. At last, baby penguin 'I' emerges into the world. A rhinoceros and a penguin: utterly different beings, with no way of knowing how each came to be in this world, yet what is certain is that, to each other, they are singular and irreplaceable sources of friendship, love, intimacy, and tenderness. Now the two of them will spend a long, long night searching for the sea where the penguin can live. Director Youm Kyubock's debut feature *Long Long Night* is an outstanding animation that keenly recognizes the immense power and potential of its source material - a children's novel that won the Munhakdongne Children's Literature Award grand prize - and displays such assured emotional storytelling and extraordinary technical craftsmanship that it leaves a tight, tingling ache in the chest. It is simply astonishing that just accompanying Norden and 'I' on their long journey - humble yet grand, fragile yet brave, lively yet thoughtful - can bring such incomparable love and comfort. The vividly distinctive animals they encounter on their journey and the ever-changing face of nature that inspires both reverence and awe, resonates with profound emotional power. Faced with the precious questions posed by *Long Long Night* - 'not where or how we were born, but with whom and how we will live, and how we can journey alongside others while remaining fully ourselves' - we cannot help but feel deeply and weep for a long time to come. (JEONG Jihye)

Midday Meal | 빵과 책



© Marzi Majidi

WP

Iran | 2026 | 133min | DCP | color
167 Oct 09 / 20:00 / BH **279** Oct 10 / 12:20 / B3 **391** Oct 11 / 21:30 / C1
706 Oct 14 / 15:00 / L7

Majid MAJIDI

마지드 마지디

1959년 이란 테헤란 출생. 칸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된 장편 <바둑>(1992)으로 데뷔하였다. 이후 이란 영화 최초로 아카데미 시상식 외국어영화상 후보에 오른 <천국의 아이들>(1997), <천국의 향기>(1999), <바란>(2001), <참새들의 합창>(2008) 등을 연출했으며 베를린, 베네치아, 산세바스티안, 몬트리올 등 세계 주요 국제 영화제에 초청되어 상영 및 수상했다. 최근작 <태양의 아이들>(2020)은 베니스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됐으며, 주연 배우 루홀라 자마니가 신인배우상을 받았다.

Majid Majidi was born in Tehran, Iran, in 1959. He made his directorial debut with the feature film *Baduk* (1992), which was invited to the Critics' Week at Cannes. He went on to direct *Children of Heaven* (1997), the first Iranian film to be nominated for an Academy Award for Best Foreign Language Film, followed by *The Color of Paradise* (1999), *Baran* (2001), *The Song of Sparrows* (2008), and many more. His work has been presented and awarded at major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including Berlin, Venice, San Sebastián, and Montréal. *Sun Children* (2020), one of his recent films, competed at the Venic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here its lead actor, Rouhollah Zamani, received the Marcello Mastroianni Award.

세상의 끝 메마른 악지 마을에 술란은 유일한 교사다. 박봉을 버텨온 임시직 생활 끝에 정교사가 되어 어머니와 함께 번듯한 집에 살고 싶다는 소박한 꿈을 품는다. 하지만 학교 급식을 지원해 오던 독지기의 부고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급식이 멈추면 학생 태반은 학교에 오지 않게 되고 폐교는 피할 수 없다. 교육청은 수업을 계속하라는 지시만 내릴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 절박한 술란은 월세 보증금을 빼서 학교로 거처를 옮기며 낮에는 교사로, 밤에는 석유 밀수꾼으로 위태로운 이중생활을 시작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믿고 지켜봐 주는 어머니가 있다. 이란의 가장 마지드 마지디 감독의 <빵과 책>은 세상을 날것처럼 보여주면서도 말로 쉽게 표현하기 힘든 다층적인 감정들을 담아내는 그의 연출력을 잘 드러낸다. 인물의 감정에 밀착해 달리는 카메라라는 때로는 정적인 시선으로 감정을 극적으로 끌어올린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술란의 선택은 순수한 선의가 동기일까 선의로 포장한 비열한 계산일 뿐일까. 영화의 시간은 현실의 한 단면을 투사할 뿐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오늘의 양심이 어디까지 뿌리내릴 수 있을지는 관객의 몫으로 남는다. (박성호)

In a parched badland village that looks like the end of the world, Solan is the only teacher. After years of enduring the poorly paid temporary job, he holds one modest dream - to become a full-time teacher and to live in a proper house with his mother. But everything begins to unravel with the death of the benefactor who had funded the school's meal program. If the meals stop, most of the students will stop coming, and the school's closure becomes inevitable. The education office offers no real help, only an order to keep the classes running. Desperate, Solan withdraws his rental deposit, moves into the school, and begins a precarious double life as a teacher by day, and oil smuggler by night. And through it all, his mother stays by his side, quietly trusting him. In *Midday Meal*, Iranian master Majid Majidi shows this world with unflinching rawness, and his direction reveals a gift for capturing layered emotions that resist easy words. His camera runs close to the characters' emotions, then falls still at key moments, heightening the drama through that very stillness. Do Solan's ends justify the means? Are choices driven by pure goodwill, or are they nothing more than self-interest masquerading as virtue? Within its own running time, the film can only project a single facet of reality, but how far today's conscience might take root for generations to come is left to the audience. (PARK Sungho)

Director Majid MAJIDI **Producer** Majid MAJIDI, Amir BANAN **Cast** Mohammad RAHIMI, Kheyri ZAKERI, Rahim BAKHSH PIRA, Heybatmorad DAMANI
Writer Majid MAJIDI, Houman BEHMANESH **Director of Photography** Houman BEHMANESH **Set Design** Mohammadreza MIRZAMOHAMMADI
Editor Mahyar BEHMANESH **Sound Design & Mixing** Mohammadreza DELPAK **Composer** Ramin KOUSHA

Satoko Always | 사토코는 언제나



© 2026 "Satoko Always" Film Partners

IP

Japan | 2026 | 138min | DCP | color
005 Oct 07 / 12:20 / BH **180** Oct 09 / 12:10 / B3 **371** Oct 11 / 22:20 / B1
722 Oct 14 / 16:20 / KT

OKITA Shuichi

오키타 슈이치

1977년 일본 사이타마현 출생의 영화감독이자 각본가. 여러 독립 단편 영화를 연출한 후 <이웃집 세상>(2006)으로 장편 데뷔했다. 이후 <남국의 해프>(2009)로 평단과 흥행 모두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주목받기 시작했고, 2012년작 <택미구리와 비>(2012)는 도쿄영화제 심사위원특별상과 두바이영화제 3관왕을 차지했다. 주요 연출작으로 <요노스케 이야기>(2013), <모리의 정원>(2018), <나는 내대로 혼자서 간다>(2020) 등이 있다.

Okita Shuichi was born in Saitama Prefecture, Japan, in 1977 and is a film director and screenwriter. After directing several independent short films, he made his feature film debut with *What a Wonderful World* (2006). He subsequently gained widespread recognition and both critical and commercial success with *The Chef of South Polar* (2009). His 2012 film *The Woodsman and the Rain* (2012) won the Special Jury Prize at the Toky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three awards at the Dubai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is major directorial works include *A Story of Yonosuke* (2013), *Mori, the Artist's Habitat* (2018), and *Ora, Ora Be Goin' Alone* (2020).

"누구나 책 한 권쯤은 쓸 수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인생 이야기다." 오키타 슈이치 감독은 <사토코는 언제나>에서 이 소박한 전제로부터 출발해 여성으로서의 삶과 창작에 눈을 뜨는 과정, 그리고 인연의 유대를 따뜻하고 섬세하게 엮어낸다. 영화는 서로 다른 인생의 시기를 지나는 세 여성을 조명한다. 첫사랑의 애절한 아픔을 겪는 열다섯 살 중학생 사토코(히메노 카쉌), 불륜 관계에서 헤어날 수 없는 서른다섯 살 영화 홍보 담당자 사토코(아리무라 카스미), 그리고 자녀를 다 키운 뒤 잊고 있던 자신을 되찾아가는 칠다섯 살 주부 사토코(이시다 히카리). 아무런 접점이 없던 세 사람은 뜻밖의 계기로 저마다 펜을 들게 되고, 각자의 사연을 써 내려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삶은 어느새 신기하리만치 교차하기 시작한다. 오키타 슈이치 감독 특유의 스타일 그대로, <사토코는 언제나>는 달콤하고 씩씩한 삶의 순간들을 섬세한 완결조절 속에 담아낸다. 138분이라는 제법 긴 러닝타임에도 영화는 흐름을 잃지 않는다. 오히려 관객에게 잠시 걸음을 늦추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미처 말하지 못했던 저마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도록 이끈다. 나이나 처지에 상관없이 자기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기에 너무 늦은 때도, 너무 이른 때도 없다는 다정한 위로를 건넨다. (박가연)

"They say anyone can write at least one book—the story of their own life." In *Satoko Always*, acclaimed director Okita Shuichi takes this gentle premise and crafts a deeply moving, beautifully woven tapestry of womanhood, creative awakening, and human connection. The film follows three women at different stages of life: 15-year-old junior high student Satoko (Himeno Kashun), experiencing the tender ache of first love; 35-year-old film publicist Satoko (Arimura Kasumi), navigating the stagnant waters of an extramarital affair; and 55-year-old housewife Satoko (Ishida Hikari), reclaiming her identity after raising her children. Though their paths seem miles apart, unexpected events spur each woman to pick up a pen—and as their individual narratives unfold, their lives begin to subtly, magically intertwine. True to Okita's signature style, the film captures the delicate balance of life's bitter and sweet moments. Across its 138-minute runtime, *Satoko Always* never loses momentum. Instead, it invites us to slow down, reflect, and honor our own unspoken histories. Warm, bittersweet, and undeniably resonant, this film is a testament to the idea that no matter your age or circumstance, it is never too late—or too early—to become the author of your own story. (Karen PARK)

Director OKITA Shuichi **Producer** TSUTSUMI Ryuhei, SATO Miyuki, KUBOTA Suguru, TANAKA Yuya
Cast ARIMURA Kasumi, ISHIDA Hikari, HIMENO Kashun **Screenplay** OKITA Shuichi **Cinematography** ASHIZAWA Akiko **Editor** OZAKI Masaya
Sound YAMAMOTO Takaaki **Music** SHIBATA Satoko

The Sea Speaks His Name | 바다에 새겨진 이름



WP

Indonesia | 2026 | 133min | DCP | color
366 Oct 11 / 20:10 / BH **480** Oct 12 / 15:20 / B3 **636** Oct 13 / 19:40 / KT
653 Oct 14 / 12:00 / B2

Yosep Anggi NOEN

요셉 앙기 노엔

1983년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 출생의 영화감독이자 각본가, 프로듀서. 2007년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영화아카데미를 수료하였다. 장편 데뷔작 <아주 특별한 여행> (2012)으로 벤틀버영화제 용호상 특별언급을 받았다. 이후 연출작 <솔로, 고독> (2016)은 로카르노영화제 현재의감독 경쟁, <가스퍼의 24시간> (2023)은 부산국제영화제에 초청되어 상영했다.

Yosep Anggi Noen is an Indonesian director, screenwriter, and producer. Born in Yogyakarta in 1983, he completed the Asian Film Academy program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is debut feature, *Peculiar Vacation and Other Illnesses* (2012), received a Special Mention from the jury of the Dragons and Tigers Award at the Vancouver International Film Festival. His subsequent film *Solo, Solitude* (2016) was selected for the Filmmakers of the Present competition at the Locarno Film Festival, while *24 Hours with Gaspar* (2023) was screened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1991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수십 년간의 독재정권 하에 놓인 인도네시아. 고전부터 금서까지 탐독하던 대학생 라웃(레자 라하디안)은 키난(디안 사스트로와르도요)의 토론 모임에 발을 들이며 국가폭력과 사회 모순에 본격적으로 눈을 뜨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국과 필리핀의 민주화운동에 자극을 받아 학생운동에 뛰어들다. 그는 중산층 가정에서의 인락한 일상을 뒤로한 채 행동하는 지성을 꿈꾸며 목숨을 건 저항을 택한다. 그러나 조여오는 감시망에 동료들이 하나둘 체포되고 은신 중이던 라웃 역시 사복경찰에 붙잡혀 실종된다. 남겨진 가족들은 서슬 퍼런 공포 속에서도 진실과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살아남은 이들은 살아남았다는 지극한 좌절감과 의문 속에서 방황한다. 인도네시아의 저명한 작가 레일라 S. 추도리의 2017년 베스트셀러 소설을 스크린에 옮긴 <바다에 새겨진 이름>은 90년대 강제 실종 사건 피해자들의 비극과 남겨진 이들의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생생하게 드러낸다. 데뷔작 <아주 특별한 여행> (2012)으로 출발해 독창적인 영화 세계를 일궈온 요셉 앙기 노엔 감독은 <솔로, 고독> (2016)에 이어 다시 한번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개인의 운명과 희생을 조망하며 시네아스트로서의 묵직한 시대적 부채 의식을 증명한다. (박성호)

Indonesia in 1991, gripped by a dictatorship already decades old, with no end in sight. Laut (Reza Rahadian), a university student who devours everything from the classics to banned books, steps into a discussion group led by Kinan (Dian Sastrowardoyo) and begins to awaken to state violence and the injustices in society. Inspired by the pro-democracy movements in South Korea and the Philippines, he throws himself into the student movement. Leaving behind the comforts of a middle-class home, he dreams of becoming an intellectual of action and chooses a resistance that could cost him his life. But as the net of surveillance tightens, his comrades are arrested one by one, and Laut, in hiding, is seized by plainclothes police and disappears. The family left behind refuses to let go of truth and hope even under a menacing climate of fear, while the survivors are left to wander in agonizing guilt and doubt over having been spared. Adapted from the 2017 bestselling novel by acclaimed Indonesian author Leila S. Chudori, *The Sea Speaks His Name* vividly captures the tragedy of the victims of enforced disappearances in the 1990s and the indelible trauma left behind. Director Yosep Anggi Noen has built a singular cinematic world since his 2012 debut *Peculiar Vacation and Other Illnesses*. After *Solo, Solitude* (2016) he once again turns his lens to an individual's fate and sacrifice caught in history's whirlwind, affirming once more his weighty sense of duty to his era as a cineaste. (PARK Sungho)

Director Yosep Anggi NOEN **Producer** Gita FARA, Budi SETYARSO, Leila S. CHUDORI **Cast** Reza RAHADIAN, Yunita SIREGAR, Eva CELJA
Cinematography Batara GOEMPAR **Production Design** Ahmad ZULKARNAEN **Editor** Dinda AMANDA **Sound** Akritchalerm KALAYANAMITR
Music Ofel OBAJA **Costume Designer** Retno Ratih DAMAYANTI

Shaving | 면도



WP

Korea | 2026 | 93min | DCP | color
072 Oct 08 / 13:10 / BH **179** Oct 09 / 09:00 / B3 **464** Oct 11 / 16:20 / BCM
700 Oct 14 / 10:20 / L6

KIM Jung-hoon

김정훈

1982년생. 서울대 재학 중 영화동아리 '알라성'에 들어가 영화를 찍기 시작했다. 홍기선 감독의 <야텐 살인사건> (2009)의 연출부로 활동한 후 한국영화 아카데미에 입학해 첫 장편 <들개> (2013)를 만들었고 도쿄영화제에 초청되었다. <면도>는 두 번째 장편 연출작이다.

Kim Jung-hoon was born in 1982. He began making film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s a member of the film club Yala Shang. He worked in the directing department on *Where the Truth Lies* (2009), directed by Hong Ki-seon, before enrolling at the Korean Academy of Film Arts. His feature debut, *Tinker Ticker* (2013), was invited to the Toky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Shaving* is his second feature film.

공포 소설을 쓰는 작가 수연(노정의)은 신작의 결말을 쓰지 못한 채 불안한 나날을 보낸다. 연휴를 맞아 애인 신지(카사마츠 쇼)가 찾아오고, 둘은 인적 드문 시골 저택에 머물며 오붓한 시간을 꿈꾼다. 하지만, 낯은 면도기를 쓰다가 얼굴에 상처를 입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신지는 무지막지하게 돌변한다. 연인의 사랑스러운 얼굴은 온데간데없고 기묘하게 일그러지고 흉측하게 뒤틀린 채 광기로 폭발하는 알 수 없는 얼굴. 이때부터 <면도>는 종잡을 수 없는 힘으로 마구 내달린다. 면도를 기폭제 삼아 수연의 트라우마로 얼룩진 과거, 가카스로 억누르고 억제해 온 내면의 두려움이 일순간 터져 나오고 신지의 분노 역시 동시에 폭발한다. 이 폭주하는 광기의 근원에는 연인이니 사람이니 하는 이름의 악질적 구속과 지배가 자리하며, 신지의 변신은 바로 이 잔혹한 폭력에 정확하게 기생한다. 장편 데뷔작 <들개> (2013)로 세상을 향한 울분으로 가득 찬 청춘들의 내면을 그린 김정훈 감독이 13년 만에 내놓는 야심 찬 신작이다. 심리, 공포, 미스터리 장르가 뒤범벅돼 만들어 내는 쾌감이 상당하다. 여[에]자신의 삶을 되찾고자 하는 한 여성의 목숨을 건 결단이 있다. 연약해 보이나 과단성 있는 수연을 노정의가 믿음직스럽게 그렸고, 카사마츠 쇼는 기묘한 늑안으로 영화에 긴장감을 한껏 불어넣으며, 변요한이 공포의 카타란 한 축을 확실히 잡고 간다. (정자혜)

Suyeon (Roh Jeong-eui), a horror novelist struggling to finish her latest work, spends her days consumed by anxiety. During the holidays, her boyfriend Shinji (Kasamatsu Show) comes to visit, and the two hope to enjoy some quiet time together at a secluded house in the countryside. But the moment Shinji cuts his face with an old razor, he undergoes a terrifying transformation. His once-lovely face is gone, replaced by something unrecognizable - strangely warped, hideously twisted, and exploding with madness. From this point on, *Shaving* hurtles forward with an untamable force. With the act of shaving as a catalyst, Suyeon's traumatic past and the fears she has barely managed to suppress erupt all at once, as Shinji's rage explodes alongside them. At the root of this runaway madness lie the vicious possessiveness and domination exercised in the name of love, and Shinji's transformation feeds on this cruel violence. This is director Kim Jung-hoon's ambitious new work, arriving thirteen years after his feature debut *Tinker Ticker* (2013), which portrayed the inner lives of youths seething with rage at the world. The heady mix of psychological drama, horror, and mystery delivers a considerable thrill. Woven through it all is one woman's life-or-death resolve to reclaim her own life. Roh Jeong-eui convincingly portrays Suyeon, who appears fragile yet proves decisive; Kasamatsu Show infuses the film with tension through an eerily nuanced performance; and Byun Yo-han anchors another major dimension of the film's horror. (JEONG Jihye)

Director KIM Jung-hoon **Assistant Director** BAE Woncheon **Supervising Producer** LEE Hannah, LEE Chanhee **Producer** HAN Heesung
Cast ROH Jeong-eui, KASAMATSU Show, BYUN Yo-han, SHIN Ryu-jin **Screenplay** HONG Seoung-yoon, ROH Dohyeon
Cinematography JUNG Grim **Editor** PARK Junghwan **Music** DPR

silver express | 실버 익스프레스



© "SILVER EXPRESS" Film Partners



WP

Japan | 2026 | 97min | DCP | color

268 Oct 10 / 20:30 / BH 378 Oct 11 / 12:00 / B3 621 Oct 13 / 19:50 / L4

723 Oct 14 / 19:40 / KT

TANAKA Miki

다나카 미키

1993년 도쿄 출생. 주오대학교에서 근현대문학을 공부하며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시나리오센터와 뉴시네마워크숍에서 각본과 영화 제작을 익혔다. <도쿄 사바나> (2024), <블루 앰버> (2025) 등 다수의 단편을 만들었으며 <진저 보이> (2024)로 칸영화제 라 시네프 3등상을 수상했다.

Born in Tokyo in 1993. She studied modern and contemporary literature at Chuo University, where she began writing novels, and later trained in screenwriting at the Scenario Center and in filmmaking basics at the New Cinema Workshop. She has directed numerous short films, including *Tokyo Savannah* (2024) and *Blue Amber* (2025), and received the 3rd Prize of the La Cinef Section at the Cannes Film Festival for *Ginger Boy* (2024).

단편 <진저 보이>로 호평받은 다나카 미키 감독이 첫 장편 <실버 익스프레스>를 통해 현대인의 사랑과 유대 관계를 조망하고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치에리(오카모토 유이)는 타인에게 연애 감정이나 성적 끌림을 느껴본 적 없는 젊은 여성이다. 연애가 당연시되는 세상에서 늘 이방인과 같은 소외감을 느끼던 그녀는 연애 감정을 느끼지 않는 쇼야(쿠리하라 하야토)를 만나면서 비로소 마음 둘 곳을 찾는다. 그러나 치에리가 무성애자인 반면 무로맨틱인 쇼야에게는 육체적 욕망이 있기에, 이들이 누리던 평온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다. 감독은 진솔한 영상으로 자신만의 연출 세계를 선명하게 펼쳐 보인다.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를 바탕으로 치에리의 내면을 놀라울 만큼 섬세하게 포착하고, 고립감과 안도감, 두 사람 사이에 사서히 번지는 미묘한 갈등을 서정적인 이미지로 풀어낸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특유의 감각적인 '타치'다. 분위기와 인물의 미묘한 결, 가공되지 않은 정서의 울림을 놓치지 않는 예민한 시선이 오래도록 여운을 남긴다. 신예 오카모토 유이의 인상적인 연기와 <해피엔드> (2024)로 주목받은 쿠리하라 하야토의 존재감이 어우러져, 영화는 무성애와 무로맨틱의 세계를 색다른 관점으로 파헤치는 인물 탐구극이자, 신인 감독의 독창적인 미학을 또렷이 각인시킨다. (박가연)

Following her acclaimed short *Ginger Boy*, director Tanaka Miki returns with *silver express*, a quiet and deeply empathetic exploration of modern intimacy. The story follows Chieri (Okamoto Yui), a young woman who has never experienced romantic or sexual attraction. Feeling perpetually out of place in a world obsessed with romance, her isolation finally lifts when she meets Shoya (Kurihara Hayato). Also lacking romantic feelings, Shoya offers Chieri a rare sense of understanding. However, their sanctuary begins to unravel over a fundamental difference: while Chieri is asexual, Shoya is aromantic and experiences physical longing that Chieri cannot reciprocate. Tanaka shines behind the camera, cementing her reputation as a director with a rare visual sincerity. Elevating her strong cast, she captures Chieri's internal landscape with remarkable delicacy, translating complex emotional states—isolation, relief, and quiet friction—into atmospheric visual poetry. What lingers most is Tanaka's distinctive directorial 'touch'—a subtle, sensitive approach to filmmaking that prioritizes mood, character texture, and raw emotional resonance. Driven by Okamoto's compelling debut and Kurihara's grounded charisma, *silver express* is a contemplative character study that offers a uniquely nuanced lens into asexual and aromantic experiences, marking another stylish showcase of Tanaka's undeniable artistic vision. (Karen PARK)

Director TANAKA Miki **Executive Producer** WADA Arihiro, SUZUKI Satoru **Producer** NAOI Takatoshi, AKIYAMA Tomonori, FUJII Koji

Co-Producer KATO Tsuyoshi **Cast** OKAMOTO Yui, KURIHARA Hayato, NAKAMURA Riho, YAMAWAKI Tatsuya **Screenplay** TANAKA Miki

Cinematography TATSUTOMI Kohei **Music** SOHTA Kazutoshi

To Be Ordinary | 평범하기 위하여



WP

Taiwan | 2026 | 112min | DCP | color

365 Oct 11 / 16:20 / BH 481 Oct 12 / 19:10 / B3 632 Oct 13 / 18:10 / L10

716 Oct 14 / 10:20 / L10

LEE Yun Chan

리원찬

대만의 연출자이자 각본가로 30여 년간 영화 및 방송계에서 활동했다. 직접 각본을 쓰고 연출한 첫 단편 <산비한 세탁기> (2004)는 부산국제영화제 와이드앵글에서 상영됐으며, 금마장 최우수단편 영화상을 수상했다. 지금까지 세 편의 장편 영화를 연출했으며 장편 데뷔작 <인어공주와 구두> (2005)로 부산국제영화제와 도쿄영화제 등에 초청되었다. 그 외 연출작으로 디즈니+ 시리즈 '타이베이 여성들' (2022)이 있다.

Lee Yun Chan is a Taiwanese director and screenwriter who has worked in the film and broadcasting industry for over 30 years. Her first self-written and directed short film, *The Magical Washing Machine* (2004), screened in the Wide Angle section of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won the Golden Horse Award for Best Short Film. She has directed three feature films to date, making her feature debut with *The Shoe Fairy* (2005), which was invited to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Tokyo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nd other festivals. Her other directorial work includes the Disney+ series *Women in Taipei* (2022).

한밤중에 아르바이트를 마친 뒤,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위지에는 교통사고를 당한다. 대학생이자 웹디자인이너인 위지에게는 3년째 실직 중인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와는 거의 말을 섞지 않고 자식들에게만 집중하는 어머니, 이제 막 사춘기를 시작하는 여동생이 있다. 사고 가해자인 은퇴한 노인은 자신의 집을 위지에게 양도하고, 치료비와 생활비를 매달 지급하며 보상의 책임을 다하고자 하지만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린다. 한편, 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위태로웠던 위지에게 가족들은 다시 따뜻한 저녁을 나눠 먹는 '식구'가 되어가고, 위지에는 또래의 재활치료를 이한을 만나 마음을 나누기 시작한다. 그러나 잠시의 '평범한' 행복은 오래 가지 않는다. 2005년 장편 데뷔작 <인어공주와 구두>로 뉴 커런츠에 초청되었던 리원찬 감독이 목격한 장편영화와 함께 돌아왔다. 이번에는 한층 더 냉정한 현실 인식을 통해 인생의 아이러니를 그려내며, 그럼에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사연을 차곡차곡 쌓아 밀도 있는 서사를 엮어냈다. 리원찬 감독은 관조와 연민 사이, 그 미묘한 거리를 잃지 않는 균형감 있는 연출로 또 하나의 기억할 만한 대만의 가족드라마를 완성했다. (박선영)

Late one night, Yu Jie heads home from his part-time job on a motorcycle when he ends up in a car accident. A college student and web designer, he has a father who has been unemployed for three year's a mother who barely speaks to her husband and devotes herself entirely to their children, and a younger sister just entering adolescence. The elderly man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transfers ownership of his house to Yu Jie and pays his medical and living expenses each month to make amends, but he is still plagued with guilt. Meanwhile, Yu Jie's family, once on the verge of financial and emotional collapse, gradually becomes a family again, eating dinner together. Around the same time, Yu Jie also grows close to his physical therapist Yi-han. Yet this 'ordinary' happiness is only momentary. Lee Yun Chan, whose debut feature *The Shoe Fairy* was selected for BIFF New Currents in 2005, returns with a weighty drama film. Portraying the ironies of life through a colder look at reality, she weaves a dense narrative by layering the stories of people who must live on despite everything. Maintaining a careful balance between contemplation and sympathy, Lee completes another memorable family drama from Taiwan. (PARK Sun Young)

Director LEE Yun Chan **Producer** LIN inch, Alvin CHANG **Cast** Weber YANG, CHANG Shih Ying, LIANG Hsiu Shen

Screenplay LEE Yun Chan, Ginger WANG **Cinematography** LEE Ming **Production Design** LAI Yung Kun **Editor** TU Su Ling

Sound CHOU Cheng **Music** Cicada

Gala Presentation

갈라 프레젠테이션

거장 감독의 신작 또는 세계적으로 주목 받는 화제작 가운데 감독이나 배우가 영화를 직접 소개하고 관객과의 만남을 갖는다.

Influential filmmakers and actors present their films in Busan to celebrate their artistic achievements and engage with the audience.



만약 그들이 없다면 영화 속 거리는 텅 비어버릴 것이다. 사무실과 슈퍼마켓은 인적 없이 황량하고, 스크린은 생기를 잃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눈에 띄어선 안 된다. 스타의 빛을 가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로 엑스트라다. 그중에서도 배우의 꿈을 끝내 놓지 못한 코린은 오늘도 촬영장 구석에서 스포트라이트를 기다린다. 그리고 이 무명 배우를 연기하는 이가 다름 아닌 이자벨 위페르라는 사실이야말로 <내일은 이름이 있다>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근사한 농담이다. 100편이 넘는 필모그래피를 지닌 이 살아 있는 전설은, 눈빛 하나와 침묵 한 조각만으로도 좌절과 열망 사이를 오가는 코린 역을 눈부시게 완성해 낸다. 『콜 마이 에이전트』의 마르코피투시 감독은 특유의 따뜻한 유머로 영화계의 이면을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상드린 카베를랑과 다이앤 크루거는 극 중 자기 자신을 연기하며 유쾌한 앙상블을 빚어낸다. <내일은 이름이 있다>는 이 가을, 극장을 웃음과 감동으로 가득 채울 다채이빈가운 초대장이다. (서승희)

If they weren't there, the streets in movies would be empty. Offices and supermarkets would stand empty and desolate, and the screen itself would lose its vitality. And yet they must never stand out - never cast a shadow over the stars. They are the extras. Among them, Corinne, who has never let go of her dream of becoming an actress, still waits in a corner of the set for her moment in the spotlight. And the fact that this nameless extra is played by none other than Isabelle Huppert is the most delightful joke *All About Corinne* has to offer. With more than 100 films to her name, this living legend brings Corinne - caught between frustration and longing - brilliantly to life with nothing more than a look or a moment of silence. With his signature warmth and humor, director Marc Fitoussi of *Call My Agent!* casts a perceptive eye on the less glamorous side of the film industry, while Sandrine Kiberrlain and Diane Kruger play themselves, rounding out a delightful ensemble. This autumn, *All About Corinne* arrives as a most welcome invitation, promising to fill the theater with laughter and heartfelt emotion. (SEO Seunghee)

All About Corinne

내일은 이름이 있다

France/Belgium | 2026 | 118min | DCP | color
Director **Marc FITOUSSI** 마르크 피투시

토론토영화제 갈라프레젠테이션

466 Oct 12 / 20:00 / BT **560** Oct 13 / 12:30 / 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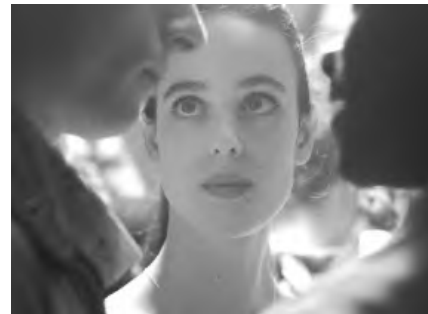
Dora

도라

Korea/France/Luxembourg/Japan | 2026 | 138min | DCP | color
Director **July JUNG** 정주리

칸영화제 감독주간. APM 2014 선정작

165 Oct 09 / 12:10 / BH **494** Oct 12 / 13:00 / C3
582 Oct 13 / 10:00 / C3 **651** Oct 14 / 18:30 / B1



A Girl's Story

그 소녀의 기억

France | 2026 | 117min | DCP | color
Director **Judith GODRÈCHE** 주디트 고드레슈

270 Oct 10 / 16:30 / B1 **473** Oct 12 / 18:30 / B1
648 Oct 14 / 10:00 / B1

열여덟 도라(김도연)는 극심한 심인성 피부질환을 앓아 학교도 못 가고 부모와 남해의 여름 별장을 찾았다. 그곳에서 아빠 상훈(최원영)의 제자인 화가 연수(송새벽), 그의 일본인 아내 나미(안도 사쿠라), 그들의 쌍둥이 자녀들과 시간을 보낸다. 모든 게 텅 비어 보이는 미지의 도라는 상황과 감정의 변화를 피부로 느끼고, 피부로 표현하는 듯 극심한 발진과 호전을 거듭한다. 도라의 상태는 가족한 저주처럼 느껴져 외면하고 싶지만, 이상하게도 자꾸만 눈길이 간다. 그런 도라는 유방암을 앓은 나미에게 마음이 움직인다. 정주리 감독의 <도라>는 아픔과 비밀을 품은 압도적 캐릭터 도라를 통해 기이한 육양의 발생과 역동을 그린다. 육체와 정신의 이격, 고통에서 발화하고 발견하는 기이한 희열과 쾌감, 성장과 퇴행, 요동과 침잠이 한 인물 안에, 영화에 마구 뒤섞여 기묘한 에너지가 된다. 신예 김도연이 훌륭히 제 몫을 감당하고, 탁월한 안도 사쿠라가 맞받아치며 격정이 휘몰아친다. (정지혜)

Eighteen-year-old Dora (Kim Doyeon), unable to attend school because of a severe psychogenic skin condition, has come with her parents to a summer house in Namhae. There, she spends time with Yeon-su (Song Saebyeok), a painter who studied under her father Sang-hun (Choi Wonyoung), Yeon-su's Japanese wife Nami (Ando Sakura), and their twin children. Dora, an enigmatic figure who seems hollowed out from within, appears to feel every shift in circumstance and emotion through her skin, and to express it through her skin as well, as her severe rashes repeatedly flare up and subside. Dora's condition feels like a cruel curse, something one might want to look away from - and yet, strangely, one's eyes keep being drawn back to her. Dora, in turn, finds herself drawn to Nami, who has battled breast cancer. Director July Jung's *Dora* traces the emergence and dynamics of strange desire through its striking central character, Dora, who harbors both pain and secrets. The estrangement between body and mind; the strange ecstasy and pleasure sparked by and discovered in pain; growth and regression; surging and sinking - all are thrown together within a single character and within the film itself, generating a peculiar energy. Newcomer Kim Doyeon more than holds her own, while the superb Ando Sakura matches her intensity, sending waves of passion surging through the film. (JEONG Jihye)

시간 사인회를 위해 고향을 방문한 아니 에르노가 불현듯 과거의 기억을 떠올린다. 1958년 여름, 열여덟의 아니(테스 바르텔레미)는 여름 캠프에 어린 학생들의 지도자로 참여한다. 지도자 간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힐 때 즈음 아니는 H(빅토르 보넬)와의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하길 바란다. 그러나 H는 거듭 본인의 약혼자를 언급하며 아니를 유죄 상대로 여길 뿐이다. 단편 <Moi aussi> (2024)에서 성폭력 피해와 저변의 구조적 문제를 다룬 주디트 고드레슈 감독이 아니 에르노의 소설 『여자아이 기억』을 경유해 문제의식을 확장한다. 극 중 중년에 접어들어 아니 에르노는 제3자의 시선으로 자신의 10대 시절을 상기한다. 성별에 따른 권력관계, 그 안에 내재된 폭력을 쫓되 여성을 대상화하지 않고 주체적인 인물로 묘사한 점이 눈에 띈다. 배우이자 감독의 딸인 테스 바르텔레미가 몽상가였던 아니가 변화하는 과정을 설득력 있게 전한다. 애정과 우정에 갈급했던 한 소녀의 성장과 그 시절의 경험이 훗날 한 작가의 세계로 이어지는 궤적을 섬세하게 엮어낸 작품이다. (조현나)

Annie Ernaux, visiting her hometown for a signing to mark her new release, is suddenly struck by memories of her past. In the summer of 1958, eighteen-year-old Annie (Tess Barthélemy) joins a summer camp as a counselor to young children. As feelings grow tangled among the counselors, Annie hopes her relationship with H (Victor Bonnell) will blossom into romance. But H, repeatedly invoking his own fiancée, treats her as nothing more than a diversion. Director Judith Godrèche, who examined sexual assault and the structural issues beneath it in her short film *Moi aussi*, broadens that same inquiry here by way of Annie Ernaux's novel *A Girl's Story*. In the film, a middle-aged Annie Ernaux looks back on her teenage years as a third-person observer of herself. What stands out is how the film addresses gendered power dynamics and the violence embedded within them, while still portraying its heroine as an agent of her own story rather than an object. Tess Barthélemy, the director's own daughter, delivers a persuasive performance charting the transformation of a once dreamy, wide-eyed Annie. The film delicately weaves together the growth of a girl starved for love and friendship with the trajectory by which that period would later become the making of a writer. (CHO Hyunna)



It's My Time

우리 할머니는 큐브왕

China | 2026 | 107min | DCP | color
Director **BAI Xue** 바이 슈에

토론토영화제 갈라프레젠테이션

011 Oct 07 / 19:30 / B1 **112** Oct 08 / 20:30 / C5
263 Oct 09 / 18:20 / BCM

43.25경. 정육면체의 매직큐브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형상의 수다. <우리 할머니는 큐브왕>은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뚫고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야 하는 매직큐브를 소재로 하는 영화다. 많은 스포츠 영화가 그러하듯이, 자신이 진짜 이기거나 풀어야 하는 문제는 경기장이 아닌 바로 삶 속에, 그리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법이다. 자오(양자경)는 사기 혐의로 집을 잃고 양로원에서 생활한다. 그런 그녀에게 한때 매직큐브 세계 챔피언이었지만 지금은 야시장에서 변변찮은 볼거리를 선보이며 살아가는 청년 우유웨이(가) 나타난다. 자오는 그에게서 매직큐브의 모든 것을 하나씩 배워간다. 그녀의 큐브 실력은 알려줄장차며 어려운 난제를 하나씩 풀어가지만, 정작 풀어야 할 자신의 문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매직 큐브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난제를 풀아가는 게임이다. 삶의 난제가 풀리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그 어떤 문제도 풀 수 없다. 이 자명하면서도 묵직한 삶의 이치를 건네는 것, 그것이 양자경의 손에 걸이 아닌 큐브가 놓인 이유다. (안시환)

43.25 quintillion. That is the number of possible configurations of a Rubik's Cube. *It's My Time* is a film about a puzzle where one must find a single configuration among those countless possibilities. As in many sports films, the real game one must win, or the real problem one must solve, is not on the field but in life itself - and within oneself. Zhao (Michelle Yeoh) lives in a nursing home after losing her home over allegations of fraud. There, she meets Youwei, a former Rubik's Cube world champion who is now reduced to performing modest tricks at night markets. Zhao enlists his help to learn everything about the Rubik's Cube, and her skills improve by leaps and bounds as she solves one difficult puzzle after another, but the problems in her own life prove far more difficult to resolve. The Rubik's Cube is a game, in which solving difficult puzzles requires constant adjustment due to continually changing configurations. Life's problems are much the same. Unless we change ourselves, no problem can be solved. This is the obvious yet weighty truth about life that the film tells us - and why the object in Michelle Yeoh's hands is a Rubik's Cube, not a sword. (AHN Sihwan)



Look Back

룩백

Japan | 2025 | 100min | DCP | color
Director **KOREEDA Hirokazu** 고레에다 히로카즈

베니스영화제 경쟁

003 Oct 07 / 20:00 / BT

뛰어난 재능과 자부심으로 학교 신문에 실릴 4컷 만화를 쓱쓱 그려내던 시골 소녀 후지노는 학교조차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코모토의 압도적인 그림 실력에 깊은 충격을 받는다. 만화에 대한 열정 하나로 교감을 나누게 된 두 사람은 둘도 없는 동반자가 되어 함께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 예기치 못한 삶의 갈림길을 마주한다.

가장 고려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후지모토 타츠키의 만화『룩백』을 실사화한 작품으로, 신에 데구치 나츠키와 마키타 아즈가 호흡을 맞춰 애틋한 서사를 완성했다. 원작 특유의 정서를 정교하게 살려낸 공간 연출, 그리고 아날로그 펜션에서 펜타블렛으로 옮겨가는 시간의 궤적은 작품에 현실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특히 후반부 클라이맥스에서 펼쳐지는 평행세계 연출은 원작 이상의 감동과 압도적인 잔상을 남긴다. 찬란했던 우정과 창작의 기쁨, 그리고 다양한 아별의 아픔을 보듬는 섬세하고 묵직한 성장의 기록. (박가인)

Fujino, a countryside girl who effortlessly sketched four-panel mangas for the school newspaper with brilliant talent and pride, is deeply shaken by the overwhelming drawing skills of Kyomoto, a shut-in recluse who doesn't even attend school. Connected solely by their shared passion for manga, the two become irreplaceable companions running toward their dreams together, only to face unexpected crossroads in life. In this live-action adaptation of Fujimoto Tatsuki's manga *Look Back*, master director Koreeda Hirokazu teams up with rising stars Deguchi Natsuki and Makita Aju to craft an aching narrative. The spatial direction, delicately preserving the distinct sensibility of the original work, along with the passage of time captured in the transition from analog pen lines to graphics tablets, breathes realistic vitality into the film. In particular, the parallel-world sequence in the climactic second half leaves an overwhelming afterimage and emotional resonance that surpasses the original. It stands as a delicate, weighty coming-of-age chronicle that embraces radiant friendship, the joy of creation, and the bittersweet pain of tender parting. (Karen PARK)



PARADISE LOST

실낙원

Korea | 2026 | 101min | DCP | color
Director **YEON Sang-ho** 연상호

토론토영화제 스페셜프레젠테이션

738 Oct 9 / 16:20 / BH **739** Oct 10 / 09:00 / B3
740 Oct 13 / 09:40 / L9 **741** Oct 14 / 18:40 / L10

열세 명의 아이를 태운 스쿨버스가 감쪽같이 사라졌다. 실종 7일 만에 탄광촌 창고 지하에서 몇몇 아이들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고, 수색은 이내 중단된다. 이 사건으로 아들 선우의 생사조차 모른 채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된 소영(김현주). 9년 후, 소영은 증강현실 프로그램 '낙원의 아이들'로 매일 선우와 만나는데, 그런 소영 앞에 홀쭉 자란, 자신이 아는 선우와는 너무도 다른 낯선 선우(배현성)가 나타났다. <실낙원>은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에 올라탄 인간의 다면적 얼굴, 타협 없는 욕망을 장르적 세계로 기민하게 그려온 연상호의 짜임새 있는 심리 스릴러물이다. 가상과 현실 사이에서 무엇이 진짜인가, 진정성이라는 가치는 있는가, 그 사이에서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믿을 것인가. 이 아픈 질문을 끝끝내 외면하지 않고, 소영은 제 식의 행동으로, 결단으로 답해 올 것이다. (정지혜)

A school bus carrying thirteen children vanishes without a trace. Seven days later, several of the children are found dead in the basement of a warehouse in a mining town, and the search is soon called off. The incident leaves So-young (Kim Hyun-joo) living in anguish, not even knowing whether her son Sun-woo is alive or dead. Nine years later, So-young meets Sun-woo every day through an augmented reality program called 'Children of Paradise'. Then a grown-up Sun-woo (Bae Hyeon-seong) appears before her—a stranger utterly unlike the son she knows. *PARADISE LOST* is a tightly constructed psychological thriller from Yeon Sang-ho. Through his genre works, Yeon has deftly explored the multifaceted faces of people caught up in the immense forces that move the world, as well as their uncompromising desires. Between the virtual and the real, what is genuine? Does authenticity have any meaning? What, how, and how much can we believe? Refusing to turn away from these painful questions, So-young ultimately answers them in her own way, through her actions and decisions. (JEONG Jihye)



○ ○ ○ ● europe!
● ○ ● ● voices of
○ ● ○ ● women+
● ○ ○ ○ in film ▶

▶ empowering women
identifying filmmakers

▶ featuring pioneering
talents from Europe

▶ stimulating exchanges
with Busan audiences and
the Asian film industry

europe! voices of
women+ in film a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 a label
by EFP (European Film
Promotion) and BIFF.

EFP (European Film Promotion) is an international network of film promotion institutes from 37 countries from throughout Europe, each representing their national films and talent abroad. Under the EFP flag, these organisations team up to jointly promote the diversity and spirit of European cinema and talent at key film festivals and markets, in particular outside of Europe, with the slogan:

films. talent. spirit.
europe!

europe! voices of women+ in film a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26

In partnership with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oth Cineuropa and EFP are honoured to share the compelling narratives crafted by women+ filmmakers in Europe with audiences in Busan – and to help amplify their voices on the international stage.

The following films are part of this year's BIFF programme:

**A DAY IN THE LIFE
OF JO: CHAPTER
PHAEDRA**
by Jacqueline
Lentzou
Greece, Germany,
France
2026

A GIRL'S STORY
by Judith Godrèche
France
2026

BIRDS OF WAR
by Janay Boulous,
Abd Alkader Habak
United Kingdom,
Syria, Lebanon
2026

EVERYTIME
by Sandra Wollner
Austria, Germany
2026

**FÖA – ONCE UPON
A FUTURE**
by Margherita Ferrari
Italy
2026

GENTLE MONSTER
by Marie Kreutzer
Austria, Germany,
France
2026

**I RARELY WAKE UP
DREAMING**
by Isabelle Stever
Germany, Ukraine
2026

LA GRADIVA
by Marine Atlan
France, Italy
2026

MY WIFE CRIES
by Angela Schanelec
Germany, France
2026

NO GOOD MEN
by Shahrbanoo
Sadat
Germany, Norway,
France, Denmark,
Afghanistan
2026

**REHEARSALS FOR
A REVOLUTION**
by Pegah
Ahangarani
Czech Republic,
Spain
2026

TITANIC OCEAN
by Konstantina
Kotzamani
Greece, Germany,
Romania, Japan,
Spain, France
2026

TOO MANY BEASTS
by Sarah Arnold
France
2026

WOMAN UNKNOWN
by May el-Toukhy
Denmark, Sweden,
Latvia
2026

Icons

아이콘

동시대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신작을 소개한다.

A showcase of the latest works by contemporary iconic filmmakers from around the world.



현대 일본영화의 최전선에 있는 하마구치 류스케의 신작이자, 79회 칸영화제 여우주연상 수상작이다. 또한 하마구치가 처음으로 해외 공동제작을 통해 프랑스 제작진, 배우와 함께 만든 영화기도 하다. 일본의 철학자 미야노 마키코와 인류학자 이소노 마호가 죽음을 앞두고 나눈 편지를 묶은 서간집 『우연의 질병, 필연의 죽음』을 원작으로 삼은 영화로, ‘편지’라는 논픽션의 언어가 ‘영화’라는 픽션의 형식으로 승화된 작품이다. 파리 교외에서 요양원을 관리하고 있는 마리루는 ‘휴머니티드’라는 새로운 돌봄 철학을 도입하려 하지만 현실적 난관들에 가로막힌다. 우연히 만난 일본인 연극 연출가 마리는 마리루와 급속도로 가까워지며 암 투병 사실을 털어놓고, 둘은 서로의 문제를 공유하며 친구가 된다. 우리는 타인과 어떻게 연대하고 또 이해할 수 있을까? 언제나 하마구치의 화두였던 이 문제는,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다>에 이르러 언어나 국가를 초월하는 영역으로 확장된다. 특히 프랑스어와 일본어를 오가는 대사들은 하마구치 특유의 독창적인 대사 연출을 통해 매우 창조적인 소리-언어 음악이 된다. (구형준)

The latest film from Hamaguchi Ryusuke, at the forefront of contemporary Japanese cinema, won Best Actress at the 79th Cannes Film Festival. It is also Hamaguchi's first international co-production, made with a French cast and crew. Based on *When Life Suddenly Takes a Turn: Twenty Letters Between a Philosopher with Terminal Cancer and a Medical Anthropologist*, a collection of letters exchanged between Japanese philosopher Miyano Makiko and anthropologist Isono Maho as one faced impending death, the film transforms the nonfiction language of 'letters' into the fictional form of 'cinema.' Marie-Lou, who runs a nursing home outside Paris, tries to introduce a new care philosophy called 'Humanitude,' but faces practical obstacles. Mari, a Japanese theater director she meets by chance, quickly grows close to Marie-Lou and confides in her about her cancer. They become friends, sharing their struggles. How can we stand in solidarity with and truly understand others? This question, always central to Hamaguchi's work, expands in *All of a Sudden* beyond language and nationality. In particular, the dialogue shifting between French and Japanese becomes, through Hamaguchi's distinctive direction, an extraordinarily creative interplay of sound, language, and music. (GOO Hyeon Jun)

All of a Sudden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다

France/Japan/Germany/Belgium | 2026 | 196min | DCP | color
Director **HAMAGUCHI Ryusuke** 하마구치 류스케

칸영화제 여우주연상

349 Oct 10 / 16:00 / L9 **471** Oct 12 / 09:40 / B1
573 Oct 13 / 17:00 / CX



Back to Buenos Aires

백 투 부에노스아이레스

Italy/Brazil | 2026 | 105min | DCP | color
Director **Marco BECHIS** 마르코 베키스

베니스영화제 경쟁

271 Oct 10 / 13:10 / B1 **383** Oct 11 / 12:10 / CX
612 Oct 13 / 20:00 / L5

<가라지 올림포> (1999) 이후 마르코 베키스 감독은 다시 한번 아르헨티나 군사독재의 어두운 시절로 돌아간다. 30년 전 이탈리아로 망명한 의사 마리아노 게리는 자신을 납치했던 전직 군인들의 재판에서 증언하기 위해 부에노스아이레스로 돌아온다. 이제 그는 법정에 선 가해자뿐 아니라 생존자로서의 죄책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청춘을 사로잡았던 유령들과 마주해야 한다. 실제로 독재정권을 경험한 감독은 고문 장면을 직접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그날의 공포와 상처를 집요하게 응시한다. 아드리아노 지안니니의 강렬한 연기는 절대 아물지 않은 내면의 상처를 고스란히 담아낸다. '더러운 전쟁'(Guerra Sucia)'이라 불린 시대에 대한 내밀한 증언이자 고백인 <백 투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독재가 인간의 영혼에 남긴 상흔을 깊이 파고드는 올해의 가장 강렬한 걸작이다. (서승희)

Following *Garage Olimpo* (1999), director Marco Bechis returns once again to the dark era of Argentina's military dictatorship. Mariano, a physician who went into exile in Italy thirty years ago, returns to Buenos Aires to testify at the trial of the former military officers who kidnapped him. Now, he must confront not only the perpetrators standing in court, but also the survivor's guilt he has carried for decades and, above all, the ghosts that haunted his youth. Having experienced the dictatorship firsthand, the director relentlessly gazes upon the terror and trauma of those days Without explicitly showing torture scenes, Adriano Giannini's compelling performance vividly embodies an inner wound that has never truly healed. Serving as both an intimate testimony and a confession of the era known as the "Dirty War" (Guerra Sucia), *Back to Buenos Aires* is one of the year's most powerful masterpieces, delving deep into the indelible scars left by the dictatorship upon the human soul. (SEO Seunghye)



The Beloved

에밀리아, 사랑을 기억하다

Spain/France | 2026 | 135min | DCP | color
Director **Rodrigo SOROGOYEN** 로드리고 소로고옌

칸영화제 경쟁

285 Oct 10 / 16:20 / CX **532** Oct 12 / 10:40 / L8

스릴러 <더 비스트> (2022) 이후 로드리고 소로고옌 감독은 방향을 전환해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깊이 파고드는, 복잡하고도 섬세한 멜로드라마를 완성했다. 하비에르 바르뎀은 13년의 공백 끝에 딸 에밀리아와 마주하기 위해 신작의 주연을 딸에게 제안하는 유명 영화감독 에스테반을 연기한다. 소로고옌 감독은 촬영장에 공포 정치를 펼치는 자기중심적인 영화감독과 오래전 가정을 버린 아버지와 대면해야 하는 젊은 여성의 초상을 동시에 그려낸다. 무엇보다 하비에르 바르뎀과 빅토리아 루엔고, 두 위대한 배우의 대결이아말로 이 영화의 심장이다. <에밀리아, 사랑을 기억하다>는 전능한 창작자라는 신화를 해체하는 동시에 영화가 만들어지는 현장을 놀라울 만큼 사실적으로 포착한다. 무려 18분 동안 단 한 번의 끊김도 없이 휘몰아치는 부녀간의 오프닝 대화 씬은 잉마르 베리만의 걸작을 방불케 하는, 압도적이고 잊을 수 없는 올해의 시퀀스다. (서승희)

Following his thriller *The Beasts* (2022), Rodrigo Sorogoyen changes course to craft a complex and delicate melodrama delving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a father and daughter. Javier Bardem plays Esteban, a renowned film director who, after a 13-year estrangement, offers the lead role in his new film to his daughter Emilia in an effort to reconnect. Sorogoyen simultaneously portrays an egocentric film director who rules the set through a reign of terror and a young woman forced to confront the father who abandoned her family long ago. Above all, the duel between two exceptional actors - Javier Bardem and Victoria Luengo - is the very heartbeat of the film. *The Beloved* deconstructs the myth of the omnipotent artist while capturing the reality of filmmaking with astonishing authenticity. The unbroken 18-minute dialogue in the opening is reminiscent of Ingmar Bergman's masterpieces, standing out as one of the most intense and unforgettable sequences of the year. (SEO Seunghye)



Bitter Christmas

비터 크리스마스

Spain | 2026 | 112min | DCP | color

Director **Pedro ALMODÓVAR** 페드로 알모도바르

칸영화제 경쟁

114 Oct 08 / 09:00 / C6	211 Oct 09 / 09:00 / C6
451 Oct 11 / 16:40 / L9	

* 본 상영작은 스페인어 음성에 한국어 자막만 제공되며, 영어 자막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This film is in Spanish with Korean subtitles only. English subtitles are not available.

<페인 앤 글로리> (2019)가 노년에 접어들어 감독의 육체적 고통과 유년의 기억을 나란히 조영했다면, 알모도바르는 <비터 크리스마스>에서 그 자전적 궤적을 한층 더 깊숙이 파고든다. 이야기는 가까운 이들의 삶을 소재로 시나리오를 집필 중인 영화감독 '라울'의 창작 여정을 따라간다. 예술을 위해 타인의 사적인 삶을 끌어들이는 것일까? 알모도바르는 이 근본적인 질문을 중심에 두고, 예술과 삶이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는 또 한 편의 눈부신 멜로드라마를 완성했다. 극 중 두 감독인 라울과 엘사는 알모도바르의 알터 에고(본신)다. 알모도바르는 창작을 향한 불안과 자기중심성, 그리고 고독에 대한 두려움을 어느 때보다 솔직하게 고백한다. 아울러 멕시코 가수 차벨라 바르가스의 음악이나 데이비드 호크니의 햇살 가득한 회화처럼, 자신이 오랫동안 사랑해 온 예술적 영감을 작품 구석구석에 촘촘히 새겨 넣는다. 하지만 알모도바르에게 최고의 영감은 언제나 배우들이다. 바르바라 레니, <에밀리아, 사랑을 기억하다>의 빅토리아 루앵고, 그리고 아이타나 산체스 히혼. 이 세 뮤즈의 열연은 영화를 감정의 정점으로 끌어올리며 <비터 크리스마스>라는 또 하나의 걸작을 완성한다. (서승희)

If *Pain and Glory* (2019) juxtaposed the physical suffering of an aging filmmaker with memories of his childhood, *Bitter Christmas* sees Almodóvar delve even deeper into autobiographical territory. The story follows the creative journey of Raúl, a filmmaker who draws on the lives of those close to him for his screenplays. How far can one go in drawing on another person's private life for the sake of art? With this fundamental question at its core, Almodóvar crafts another dazzling melodrama in which art and life mirror one another. The film's two directors, Raúl and Elsa, are Almodóvar's alter egos. Almodóvar lays bare, more candidly than ever, his creative anxieties, self-centeredness, and fear of loneliness. He also fills the screen with artistic inspirations he has long cherished, from the music of Mexican singer Chavela Vargas to David Hockney's sun-drenched paintings. But for Almodóvar, the greatest inspiration has always been his actors. Barbara Lennie, Victoria Luengo of *The Beloved* and Aitana Sánchez-Gijón. The powerful performances of these three muses bring the film to its emotional peak, making *Bitter Christmas* yet another Almodóvar masterpiece. (SEO Seunghye)



Bucking Fastard

버킹 패스타드

United States/Ireland | 2026 | 109min | DCP | color

Director **Werner HERZOG** 베르너 헤어초크

베니스영화제 경쟁

042 Oct 07 / 14:30 / L2	458 Oct 11 / 10:00 / SH
725 Oct 14 / 15:20 / SH	

둘이자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인 진(케이트 마라)과 조앤(루니 마라), 같은 몸짓으로, 같은 말을 내뱉으며, 같은 남자 멀로니(올랜도 블룸)를 사랑하는 이들을 실제 자매인 두 배우가 처음으로 함께 연기했다. 둘만의 동기화된 리듬이 세계의 질서와 부딪히고, 기묘한 풍문을 좇듯 자매의 행각을 서술하던 영화는 자연과 노동의 감각 속에서 새로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비춘다. 그리고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가능하기 어려운 깊숙한 곳으로 진입한다. 순정과 기행, 숭고함과 우스움이 뒤얹힌 여정을 따르다 보면, 영화 속 괴이함이 두 인물의 것인지 혹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상의 것인지 쉬이 단정할 수 없다. 헤어초크는 불가해한 동사성과 미묘한 어긋남을 동력 삼아 이야기를 밀어붙인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릴지라도. (함윤정)

Two who are one, and one who is two—Jean (Kate Mara) and Joan (Rooney Mara). Moving with the same gestures, uttering the same words, and loving the same man in the form of Mulroney (Orlando Bloom), they are played by real-life sisters appearing together for the first time. Their synchronized rhythm collides with the order of the world. The film, which at first narrates the sisters' exploits as if chasing some strange rumor, turns its gaze to their new lives amid the sensory world of nature and labor. From there it moves into depths where the boundary between reality and fantasy grows hard to discern. Following a journey where devotion and eccentricity, sublimity and absurdity, are tangled together, it becomes difficult to say with certainty whether the strangeness in the film belongs to the two characters or to a world that cannot accept them. Herzog drives the story forward, propelled by inexplicable simultaneity and subtle dissonance, towards whatever may await at the end. (HAM Yoonjeong)



Coward

겁쟁이

Belgium/France/Netherlands | 2026 | 127min | DCP | color

Director **Lukas DHONT** 뤼카스 돈트

칸영화제 남우주연상

059 Oct 07 / 20:20 / L6	091 Oct 08 / 15:40 / CX
611 Oct 13 / 16:50 / L5	



The Diary of a Chambermaid

라두 주데의 어느 하녀의 일기

France/Romania | 2026 | 94min | DCP | color

Director **Radu JUDE** 라두 주데

칸영화제 감독주관

052 Oct 07 / 10:20 / L5	277 Oct 10 / 22:20 / B2
410 Oct 11 / 22:30 / C5	

1916년 제1차 세계대전, 농촌 출신의 젊은 병사 피에르(에마누엘 마키아)가 전선에 새로 배치된다. 의욕적이던 초반과 달리 전쟁의 참혹함을 마주한 피에르는 갈수록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부상으로 후방 보급부대에 할류하면서 피에르는 공연팀의 프란시스(발렌틴 캠페뉴)와 가까워지고 둘 사이에 조금씩 애정이 깃든다. 뤼카스 돈트 감독이 <클로즈>에서 사회적 규범에 억눌려 정체성을 감춘 소년을 등장시켰다면, <겁쟁이>에선 가장 극단적인 남성성을 요구하는 전쟁터를 배경으로 두 군인의 관계를 관찰한다. 피에르와 프란시스는 전쟁과 무대라는 비밀상적인 공간에서만 역설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영화는 여러 인물을 통해 폭력을 수행하는 것만이 진정한 용기인지, 이를 거부한 자를 겁쟁이로 치부하는 것이 옳은지 반복해 질문한다. 피에르와 프란시스를 통해 영화가 제시하는 용기의 의미는 끝내 하나로 수렴하지 않는다. (조현나)

In 1916, during World War I, Pierre (Emmanuel Macchia), a young soldier from a rural background, is newly deployed to the front. Unlike his eager, spirited early days, he grows increasingly haunted by trauma as he faces the sheer horror of war. Wounded and transferred to a rear supply unit, Pierre grows *close* to Francis (Valentin Campagne) of a performance troupe, and affection slowly takes root between them. Where director Lukas Dhont's *Close* portrayed a boy who suppressed his identity under social norms, *Coward* observes the bond between two soldiers set against a battlefield that demands the most extreme masculinity. It is only within the extraordinary spaces of war and the stage that Pierre and Francis can, paradoxically, express their love. Through its characters, the film repeatedly asks whether performing violence is the only true form of courage, and whether it is right to brand those who refuse to do so as cowards. Through Pierre and Francis, the meaning of courage the film offers never settles into a single answer. (CHO Hyunna)

미르보의 그 유명한 소설은 수많은 영화화됐다. 주데는 르누아르, 부뉴엘이 보란 듯이 원작의 과감한 변주를 꾀했다. 영화는 세 부분 - 이주 노동자가 가사 노동하는 모습, 그녀가 고용자의 제안으로 참여하는 미르보의 연극 라하설, 그녀가 떠난 루마니아의 가족 - 을 병렬한다. '같은 유럽연합 소속이지만 프랑스와 루마니아의 편이한 상황, 도착적인 연극과 타락한 현실 사이의 모호한 경계'를 바라보는 주데의 의중을 알아맞히는 일은 쉬우면서도 어렵다. 노동 여성의 착취, 부르주아의 부패, 지식인의 위선, 자유주의의 허위, 일상의 계급주의를 두루 비판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주데는 이전의 신랄한 공격 대신 은근한 미소로 칼을 겨누다. 그는 샤브롤의 <의식> (1995)을 재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의외의 엔딩을 대하는 느낌은 보는 자의 위치에 따라 다를지도 모른다. (이용철)

Mirbeau's famous novel has been adapted for the screen countless times. Undaunted by the versions of Renoir and Buñuel before him, Jude boldly reworks the original in his own way. The film runs three strands in parallel: a migrant worker performing domestic labor, her participation - at her employer's suggestion - in a rehearsal of Mirbeau's play, and the family she left behind in Romania. It is both easy and difficult to pin down Jude's intentions as he considers, 'the starkly different conditions of France and Romania despite their shared membership in the European Union, and the blurred boundary between a perverse play and a corrupt reality.' He clearly takes aim at the exploitation of working women, bourgeois corruption, intellectual hypocrisy, the false promises of liberalism, and the class prejudice embedded in everyday life - yet this time, Jude trades his earlier caustic attacks for a blade wielded with a quiet smile. He does not restage Chabrol's *La Cérémonie* (1995). And so how one takes its unexpected ending may well depend on where the viewer is standing. (LEE Yong Cheol)



Dust

더스트

Taiwan/Spain | 2026 | 80min | DCP | color
Director **TSAI Ming-liang** 차이잉량

베니스영화제 경쟁

150 Oct 08 / 20:30 / L9	280 Oct 10 / 16:00 / B3
399 Oct 11 / 18:20 / C3	674 Oct 14 / 13:20 / C4

차이잉량의 <행자> 시리즈 열한 번째 작품인 <더스트>는 『금강경』의 “여래란 어디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며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래라 하는 것이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시작한다. 이 구절은 시리즈를 마주하는 관객에게 차이잉량이 건네는 충고이자 자기 다짐이다. 만약 당신이, 붉은색 승려복의 승려, 세계 각지의 장소를 배경으로 하는 극도로 절제된 움직임으로서의 느린 걸음, 불속 등장하는 얼굴들의 클로즈업, 그리고 이것들을 담아내는 차이잉량의 영화적 스타일에 주목하고, 또한 이 시리즈가 선행적 시간을 체험 가능하게 한다는 등의 상투적 해석을 쫓으려 한다면, 당신은 눈앞의 여래를 기어아 놓치고 말 것이라는 충고. 또는 그 규정으로 자신의 영화를 구속하지 않겠다는 자기 다짐. ‘먼저’라는 제목은 “티끌이란 티끌이 아니기에 그 이름을 티끌이라 한다.”라는 『금강경』의 한 구절을 상기시킨다. 즉, <행자> 시리즈는 그에 대한 규정들로 환원될 수 없기에 <행자> 시리즈라 불릴 수 있다는 것 (안시환)

The 11th installment in Tsai Ming-liang's 'Walker' series, *Dust* begins with a passage from the *Diamond Sutra*: "The Tathāgata (Thus-come One) has no place from whence he comes, and no place to go. Therefore he is called 'Thus-come.'"
This is both a bit of advice Tsai offers to the audience about to watch the series as well as a reminder to himself. A warning that you will end up losing track of the 'Thus-come One' before your eyes if you focus on Tsai's cinematic style, capturing a monk in red robes, the extremely restrained movement of his slow steps against backdrops of places around the world, and the sudden close-ups of faces, and follow the conventional interpretation of the series as an experience of time. Or perhaps it is his own resolution not to confine his films within such definitions. The title 'Dust' recalls another quote from the *Diamond Sutra*: "...dust is not really dust. Therefore it is called dust." In other words, the 'Walker' series cannot be reduced to the definitions imposed upon it, and precisely because of that it can be called the 'Walker' series. (AHN Sihwan)



The Echo Chamber

에코 체임버

Italy | 2026 | 120min | DCP | color
Director **Andrea PALLAORO** 안드레아 팔라오로

베니스영화제 경쟁

148 Oct 08 / 14:00 / L9	172 Oct 09 / 18:10 / B1
286 Oct 10 / 19:30 / CX	677 Oct 14 / 12:40 / C5

비극적인 데뷔작과 비교해, 팔라오로의 근작들은 빛을 향하고 있다. 상황에 어울리는 음악을 잘 선택하는 그는 신작의 인트로에 일렉트로닉 사운드 『Gosh』를 배치했다. 이건 음악가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우선 강렬한 출연진이 이목을 끈다. 아트하우스와 대중영화의 아이콘인 루카 마라벨리, 알리시아 비칸데르는 물론, 유럽에서 활동을 재개한 수잔 서랜돈이 특히 반갑다. 팔라오로는 근래 들어 살롯 램플링, 패트리시아 클락슨 등의 명연기자화 작업했는데, 이번 작품에선 서랜돈이 목작한 존재감을 발휘한다. 영화의 바탕은 베르톨루치의 유고로서, 그가 의도한 대로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실내극을 충실히 재현했다. 악물중독인 음악 프로듀서, 물리치료사, 노장 여가수가 고급 아파트를 들어가고 나가며서의 메아리로 채워지는 모습은 어찌면 <중경삼림>의 심리드라마처럼 보인다. (이용철)

Compared to his tragic debut feature, Pallaoro's recent work has been turning towards the light. A director with a keen ear for choosing music that fits the moment, he opens his new film with the electronic track *Gosh* - fitting, since this is a story about a musician. What first catches the eye is the striking cast. Alongside Luca Marinelli and Alicia Vikander, icons of both arthouse and mainstream cinemas, it's especially welcome to see Susan Sarandon, who has resumed working in Europe. In recent years, Pallaoro has worked with such formidable actors as Charlotte Rampling and Patricia Clarkson, and here Sarandon brings a commanding presence to the film. The film is based on a work left behind by Bertolucci after his death, and faithfully realizes, as he had intended, a chamber drama unfolding within a confined space. As a drug-addicted music producer, a physical therapist, and a veteran singer move in and out of a luxury apartment, becoming echoes of one another, the result is something like a psychological drama in the vein of *Chungking Express*. (LEE Yong-cheol)



Fatherland

파더랜드

Poland/Germany/Italy/France | 2026 | 82min | DCP | b&w
Director **Paweł PAWLIKOWSKI** 파벨 파블리코프스키

칸영화제 감독상

090 Oct 08 / 13:20 / CX	287 Oct 10 / 23:00 / CX
474 Oct 12 / 10:00 / B2	



Fjord

피오르

Romania/France/Norway/Denmark/Finland/Sweden | 2026 | 146min | DCP | color
Director **Cristian MUNGIU** 크리스티안 문쥬

칸영화제 황금종려상

027 Oct 07 / 12:20 / C3	071 Oct 08 / 09:00 / BH
384 Oct 11 / 15:30 / CX	562 Oct 13 / 19:30 / B1

8년 만에 칸에 복귀한 파블리코프스키는 두 번째 감독상을 받았다. <파더랜드>는 전후의 시간과 기억을 다룬 비공식적인 3부작의 마침표다. 1949년, 토마스 만이 분단된 조국을 방문한다. 제목대로 아버지로서의 만과 독일이라는 땅에 대한 이야기다. 서독과 동독을 방문하는 만은 '하나의 선한 독일, 인간애, 삶과 사랑'을 연설하지만, 나날 땅의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연사는 공허한 울림이다. 한편, 그 시기에 아들 클라우스 자살한다. 드러나지 않지만, 억압된 성정체성의 아버지, 그것을 숨겨려는 딸, 공개적인 동성애자인 아들의 관계는 영화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다. 만년의 만은, 희망과 재건이 낯선 땅의 비애와 용서받지 못한 아들의 애도 사이에 놓인다. 전작에 이어 엔딩에 바흐가 다시 배치됐다. 믿음의 붕괴에 면한 인간을 위로하는 바흐와 신의 손길에 울음이 타져 나온다. 기적의 80분이다. (이용철)

Returning to Cannes after eight years, Paweł Pawlikowski took home his second Best Director award. *Fatherland* marks the conclusion of his unofficial trilogy exploring post-war time and memory. In 1949, Thomas Mann visits his divided homeland. True to its title, the film is a story about Mann as a father and about the land of Germany itself. Visiting both West and East Germany, Mann gives speeches advocating for, "one good Germany, humanity, life, and love," yet his idealistic rhetoric rings hollow to the people of a fractured nation. Meanwhile, around the same time, his son Klaus commits suicide. Though unreveal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ather whose sexual identity is suppressed, the daughter striving to conceal it, and the openly gay son cast a dark shadow across the film. In his twilight years, Mann stands caught between the sorrow of a land striving for hope and reconstruction, and the mourning of an unforgiven son. Following the director's previous work, Bach is once again featured in the ending. Bach's music, acting as a divine touch comforting a man confronted with the collapse of faith, brings forth an outpouring of tears. It is a miraculous 80 minutes. (LEE Yong Cheol)

루마니아 출신 이민자이자 근본주의 기독교 신자인 미하이(세바스티안 스탠)와 노르웨이인 리스벳(레네테 레인스벨) 부부는 다섯 아이를 데리고 노르웨이 서부의 작은 마을 피오르로 이주한다. 어느 날 교사가 만발의 몸에서 명 자국을 발견하자, 아동복지국은 다섯 아이 모두를 위탁 보호 조치한다. 2015년 실제 보드나리우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크리스티안 문쥬 감독은 이 비극을 단순한 선악 구도로 치환하지 않는다. 부모의 유무죄를 선불리 단정하지 않고 그들이 카프카적 굴레에 갇혀가는 모습을 담담히 응시하며, 특유의 자적인 시선으로 진보적 시스템과 전통적 가치가 충돌하는 지점을 예리하게 포착한다. 롱테이크와 대사를 다루는 거장다운 연출력을 바탕으로, 감독은 관객의 신념마저 뒤흔드는 정교한 사회·사법 시스템력을 완성한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그의 말에 귀 기울이는 노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피오르>는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상기시킨다. (서승희)

Mihai (Sebastian Stan), a Romanian immigrant and Christian fundamentalist, and his Norwegian wife, Lisbet (Renate Reinsve), move to a small fjord village in western Norway with their five children. One day, after a teacher discovers bruises on their eldest daughter's body, Child Welfare Services place all five children into foster care. Inspired by the real-life 2015 Bodnariu case, director Cristian Mungiu refuses to reduce this tragedy to a simplistic dichotomy of good versus evil. Without rushing to declare the parents' guilt or innocence, he calmly observes them becoming ensnared in a Kafkaesque trap, sharply capturing the clash between a progressive system and traditional values through his signature intellectual gaze. Backed by masterful direction of long takes and dialogue, Mungiu crafts a socio-legal thriller that shakes even the audience's own convictions. *Fjord* quietly yet relentlessly reminds us that understanding others ultimately begins with the effort to listen to their voices. (SEO Seunghee)



From Inside Out - The Architecture of Peter Zumthor

페터 Zumthor by 빔 벤더스, 3D

Germany/Switzerland | 2026 | 114min | DCP | color
Director **Wim WENDERS** 빔 벤더스

베니스영화제 비경쟁

141 Oct 08 / 18:30 / L6 **430** Oct 11 / 21:40 / L4
525 Oct 12 / 12:40 / L6

뉴저먼시네마의 상징인 두 팔손 노장의 영화가 올해 베니스영화제에 선보인다. 기념비적인 3D 다큐멘터리를 만든 헤어초크가 브래드 피트가 제작한 벤더스의 신작 3D 다큐에 등장한 것도 이채롭다. 현대 건축의 대가 Zumthor에 대한 다큐는 (진행 중인 건축물, 미완 프로젝트를 포함해) 열여섯 건축물을 찾아간다. 과거와 현재의 Zumthor의 설명을 통해 근원과 기원, 철학, 역사, 자연, 시와 이야기를 조망하는 자리다. 앞서 두 예술가의 3D 다큐멘터리를 내놓았던 벤더스는 '몰입형 다큐멘터리'를 더 넓은 공간으로 확장했다. 공간을 보고, 거닐고, 살고, 존재하는 체험의 영화다. 그는 공간을 창조하는 특권을 지녔음에도 "집은 사람들에게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 사람들의 손길이 닿은 자취를 보는 것만큼 기분 좋은 건 없다."고 말한다. 천천히 진행되는 프로젝트처럼 느리게 걷는 그를 흠모하고 애정하게 하는 다큐다. (이용철)

Two octogenarian masters and icons of the New German Cinema bring their film to this year's Venice Film Festival. It is also intriguing that Werner Herzog, who made a landmark 3D documentary, appears in this latest 3D documentary by Wim Wenders, produced by Brad Pitt. This documentary on Peter Zumthor, a master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visits 16 of his projects, including works still under construction and unfinished projects. Through Zumthor's past and present reflections, it explores sources and origins, as well as philosophy, history, nature, poetry, and stories. Having previously made a 3D documentary about the two artists, Wenders expands his 'immersive documentary' to a larger spatial realm. This film is an experience of looking at, walking through, living in, and simply existing within space. Despite the privilege of being able to create space, Zumthor says, "Houses should be made by people. There is nothing more pleasurable than seeing traces left by people's touch." Like a project unfolding in a slow pace, he walks slowly through this documentary, and the audience cannot help but admire and grow fond of him. (LEE Yong Cheol)



It Will Happen Tonight

오늘 밤, 사랑은 일어난다

Italy/France/Spain | 2026 | 103min | DCP | color
Director **Nanni MORETTI** 난니 모레티

베니스영화제 경쟁

151 Oct 08 / 08:40 / KT **461** Oct 11 / 19:50 / SH
468 Oct 12 / 13:00 / BH

"나는 너를 기다릴게, 네가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그런데 언젠가는 이루어질까?"

난니 모레티 신작의 로그라인이다. 이스라엘 작가 에슈콜 네보의 소설집 『Hungry Heart』를 느슨하게 각색한 <오늘 밤, 사랑은 일어난다>에서 프랑스 배우 루이 가렐과 자스민 트린카가 주연을 맡았으며, 모레티 감독 자신도 카메라로 얼굴을 비춘다.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무려 아홉 차례나 초청받았던 감독이 이번엔 칸을 마다하고 베니스를 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올해 초부터 화제를 모은 영화다. 관객들은 그 이유를 스크린 위에서 직접 확인하게 될 것이다. 영화는 현대인의 관계와 불안, 삶의 취약함을 조용히 응시하며, 고요하지만 뜨거운 결음으로 어딘가를 향해 나아간다. 다시 서로를 마주 보는 두 사람이 있을, 그 밤을 향해, 잊을 해픈 투나잇.

"I'll wait for you as long as you want. But will it happen sooner or later?"

This is the logline for Nanni Moretti's latest film. Loosely adapted from Israeli writer Eshkol Nevo's short story collection *Hungry Heart*, the film stars French actor Louis Garrel and Jasmine Trinca, with Moretti himself making a cameo appearance. The mere fact that the director whose films have been selected for the Cannes competition an astonishing nine times chose Venice over Cannes this time has generated buzz since early this year. Audiences will get to see the reason for themselves on screen. The film quietly contemplates the relationships, anxieties, and fragility of contemporary life, moving forward - calmly yet ardently - toward somewhere: toward the night when two people will face each other once again. It will happen tonight.



Let Us Through, Dear Ancestors

마키라란 포

Philippines | 2026 | 151min | DCP | b&w
Director **Lav DIAZ** 라브 디아즈

베니스영화제 비경쟁

111 Oct 08 / 16:30 / C5 **252** Oct 09 / 14:00 / L10
346 Oct 10 / 19:00 / L8 **537** Oct 12 / 13:10 / L9
728 Oct 14 / 13:20 / BCM

1617년 스페인 식민 치하의 필리핀. 엔시오 신부는 폭력적 통치와 성적 착취를 일삼고, 원주민의 토속 신앙을 미개한 것으로 치부하며 가톨릭 개종을 강요한다. 그는 아들 동생에게 교회 건축용 대리석 운송을 명령하고, 이들 일행은 악명 높은 약탈자 바리바리의 위협을 피해 50km가 넘는 험난한 길을 지나야 한다. 엔시오가 세우려는 교회는 송고한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원주민의 피와 강제 노역으로 일룩진 폭력의 증거다. 전작 <마젤란> (2025)에서 식민주의의 신화적 기원을 뒤흔든 라브 디아즈는, 이번 영화에서 토지-노동-종교를 통해 식민 질서가 구축되는 미시적 물적 토대를 파고든다. '지나가겠습니다'라는 뜻의 타갈로그어 원제 Makikiraan Po는 차단된 역사와 공동체로 향하는 통로를 요청하는 절박한 호소다. 영화는 서구적 질서 뒤에 감춰진 폭력의 기억과 유령을 소환해 지워진 역사의 아카이브를 재구축하려는 감독 특유의 격렬한 저항이자 성찰의 기록이다. (강동호)

The Philippines under Spanish colonial rule in 1617. Father Enciso rules with violence, indulges in sexual exploitation, dismisses the indigenous people's folk beliefs as savage, and forces them to convert to Catholicism. He orders his son Dungwen to transport blocks of marble for the construction of a church, and Dungwen and others must travel over 50 kilometers along a perilous route to evade the notorious robber Baribari. The church Father Enciso seeks to build is not a sacred symbol of salvation but evidence of violence, stained with the blood and forced labor of the indigenous people. Lav Diaz, who had shaken the mythical origins of colonialism in his previous film *Magellan* (2025), turns to the micro-level material foundations through which colonial order is established - land, labor, and religion. The original Tagalog title, 'Makikiraan Po' meaning 'let us through,' is a desperate plea for passage toward a history and community that have been cut off. Summoning the ghosts and memories of violence hidden behind Western order, this film is a record of Diaz's fierce resistance and self-reflection as he seeks to reconstruct an archive of erased history. (KANG Dongho)



A Long Winter

긴 겨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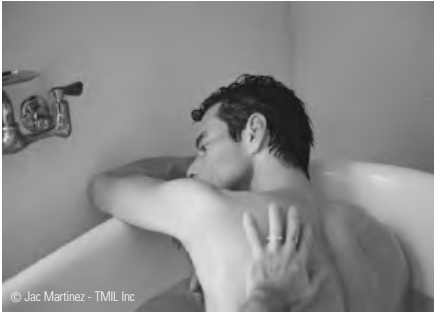
Canada/United Kingdom | 2026 | 119min | DCP | color
Director **Andrew HAIGH** 앤드류 헤이그

토론토영화제 스페셜프레젠테이션

133 Oct 08 / 09:00 / L5 **234** Oct 09 / 22:00 / L5
698 Oct 14 / 15:40 / L5

1951년 미국 콜로라도의 산간 마을, 마이크의 어머니 루이즈가 돌연 눈보라 속으로 사라진다. 아버지 레스터와 수색에 나선 마이크는 누구보다 날씨를 잘 알던 어머니가 단순히 길을 잃은 건지, 혹은 고립된 삶에서 벗어나려 했는지 헤아리기 시작한다. 설산이 적막에 잠긴 동안 수색은 차츰 일상이 되고 부자는 루이즈가 맡아온 살림을 서둘러 이어간다. 상실과 갈망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인물들을 그려온 앤드류 헤이그는 콜름 토빈의 단편 소설을 각색해, 떠난 이들의 빈자리와 그 틈에서 이름 없이 자라나는 감정을 바라본다. 마이크는 집안일을 돕는 지미와 산길을 오르며 봄이 되면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집을 떠나 한국전쟁에 참전한 동생 토미에게 편지를 쓴다. 한편으로 긴 겨울이 영영 끝나지 않길 바라면서. (함윤정)

In a mountain village in Colorado, 1951, Mike's mother, Louise, suddenly disappears into a blizzard. Setting out on a search with his father, Lester, Mike begins to wonder whether his mother, who understood the weather better than anyone, merely lost her way, or if she sought to escape an isolated life. As the snow-covered mountains sink into silence, the search gradually settles into a daily routine, and the father and son clumsily carry on the domestic chores Louise once handled. Director Andrew Haigh, who has portrayed characters finding their place amid loss and yearning, adapts Colm Toibin's short story to contemplate the void left by those who depart and the nameless emotions that sprout within the cracks. Climbing mountain paths with Jimmy, who helps around the house, Mike thinks they might finally find his mother when spring arrives. He also writes letters to his younger brother Tommy, who left home to fight in the Korean War, while secretly hoping that this long winter will never end. (HAM Yoonjeong)



The Man I Love

내가 사랑하는 남자

United States | 2026 | 97min | DCP | color
Director **Ira SACHS** 아이라 잭스

칸영화제 경쟁

079 Oct 08 / 22:20 / B1 **363** Oct 11 / 09:40 / BH
483 Oct 12 / 12:40 / CX

1980년대 말 뉴욕, 큰 병을 앓아 돌아온 퍼포먼스 아티스트 '지미'가 활동을 재개한다. 그는 무대를 준비하는 한편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육체적 쾌락을 좇는다. 바로크 종교음악과 오래된 포크, 스탠더드, 디스코와 뉴웨이브까지. 서로 다른 시대의 숨결이 흘러드는 가운데 지미가 "The Man I Love"와 "Look What They've Done to My Song, Ma"를 긴 호흡으로 부르는 장면이 돋보인다. 노래로 사랑을 기다리고 삶을 되짚는 그에게 무대는 한 곡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장소다. 아이라 잭스는 그 시절 뉴욕 다문타운에서 활동한 퀴어 예술가들의 기억을 허구의 인물 속에 불러온다. 끌어오르는 생기와 스러질 듯한 연약함을 한 몸에 붙든 라미 말렉은 지미의 위태로운 존재감을 매혹으로 바꿔놓는다. (함윤정)

New York, the late 1980s. Jimmy, a performance artist returning after a serious illness, resumes his career. As he prepares for the stage, he embarks on a new romance and pursues physical pleasure. Baroque religious music, old folk songs, standards, disco, and new wave—the breath of different eras flow together, while the scenes in which Jimmy gives extended renditions of *The Man I Love* and *Look What They've Done to My Song, Ma* stand out. For Jimmy, who waits for love and retraces his life through singing, the stage is a place where he can fully inhabit a song from beginning to end. Ira Sachs summons, through this fictional character, the memories of queer artists active in downtown New York during that era. Holding surging vitality and a seemingly fleeting fragility within the same body, Rami Malek turns Jimmy's precarious presence into something mesmerizing. (HAM Yoonjeong)



Minotaur

미노타우로스

France/Latvia/Germany | 2026 | 141min | DCP | color
Director **Andrey ZVYAGINTSEV** 안드레이 즈바킨체프

칸영화제 경쟁 심사위원대상

186 Oct 09 / 15:00 / CX **415** Oct 11 / 22:00 / C6
614 Oct 13 / 13:00 / L6

삶을 잘 통제한다고 믿는 성공한 비즈니스맨이 주변 세계의 균열에 부딪힌다. 칸영화제는 9년 만에 귀환한 즈바킨체프에게 대상의 영예를 안겼다. 그의 드라마는 항상 가족의 범주에서 출발해 종교적, 신화적 지평에 도달하는데, 신작은 제목에서 신화적 뉘앙스를 풍기면서도 현실의 땅에 단단히 발을 디딘다. 긴 범죄 장면에서는 사브롤의 원작처럼 대중적이며, 심란한 전쟁 상황을 들춰낼 때는 정치적 비판을 견지한다. 소재에서 새로운 게 없는 이야기를 예감한다면, 점점 가열되는 영화의 온도를 느낄 일이다. 특유의 서늘한 터치에 여전하지만, 강렬한 흡인력으로 인해 뜨거운 호흡으로 뿔러 들어가게 된다. 보통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면 미궁에 갇힌 괴물을 연상한다. 가실 미궁이란 인간 스스로 놓은 덫에 다름 아닌 바, 덫에 얼굴을 찌긴 자는 결국 괴인으로 화한다. 구름 칸 크레타행 여정이 그 방증이다. (이용철)

Returning to Cannes after nine years, Zvyagintsev was awarded the Grand Prix for *Minotaur*. The film depicts a successful businessman who believes he has firm control over his life, who runs headlong into the fissures of the world around him. Zvyagintsev's dramas always begin from the domain of family before arriving at religious and mythic horizons, and this new film, while carrying mythic overtones in its very title, keeps its feet firmly planted on real ground. In its extended crime sequence, it is as accessible as a Chabrol thriller, while in exposing troubling wartime conditions it holds fast to political critique. If the premise sounds familiar, you'll instead feel the film's temperature steadily rising. His characteristically cool touch remains intact, yet the film's intense pull draws you into a feverish rhythm all the same. The word 'Minotaur' usually conjures a monster trapped in a labyrinth. But in truth, the labyrinth is nothing other than a trap laid by human beings themselves, and those scarred by that trap ultimately turn into monsters. The journey to cloud-covered Crete bears this out. (LEE Yong Cheol)



Mother Mary

마더 메리

United States | 2026 | 112min | DCP | color
Director **David LOWERY** 데이빗 로워리

021 Oct 07 / 19:00 / B3 **256** Oct 09 / 10:00 / SH
637 Oct 13 / 12:00 / SH

<레미제라블>의 애절한 가창을 기억하는 이들에게, 세월을 비껴간 최정상 팝스타로 변신한 앤 해서웨이의 모습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다. 데이빗 로워리 감독의 신작 <마더 메리>는 최정상 자리에서 붕괴한 팝스타 마더 메리(앤 해서웨이)와 전속 디자이너 샘(마이크엘라 코엘)이 밀폐된 아틀리에에서 펼치는 잔혹하고 아름다운 심리 스릴러다. 의상을 제작하며 터져 나오는 욕은 애증과 성적 긴장감, 초자연적 '붉은 환영'은 팝스타를 섬고 마리아처럼 숭배하는 대중문화의 이면을 날카롭게 조명한다. 창작자의 깊은 고뇌를 광기 어린 서사로 감각적으로 풀어내며, 앤 해서웨이가 직접 소화한 라이브 가창에 찰리 XCX와 잭 안토노프의 사운드트랙, FKA 트윅스의 영매 연기와 몽환적 음악이 더해져 오감을 자극한다. 배우 앤 해서웨이의 실제 솔로 앨범 데뷔를 손꼽아 기다리게 만들, 올해 BIFF의 가장 감각적인 판컬처 잔혹동화. (하승)

For audiences who remember her poignant vocals in *Les Misérables*, Anne Hathaway's transformation into a timeless, top-tier pop star is stunning in its own right. Director David Lowery's new feature, *Mother Mary*, is a cruel yet beautiful psychological thriller that unfolds within the confined space of an atelier, centering on Mother Mary (Anne Hathaway), a pop icon unraveling at the peak of her career, and Sam (Michaela Coel), her exclusive fashion designer. As they craft the garments, the simmering love-hate dynamic, subtle erotic tension, and a supernatural 'red phantom' engulfing the studio sharply illuminate the dark underbelly of modern pop culture that worships pop stars akin to the Virgin Mary. Sensuously translating the artist's deep creative anxieties into a frantic narrative, the film offers an all-out sensory experience - elevated by Anne Hathaway's own live vocal performances, a soundtrack crafted by Charli XCX and Jack Antonoff, and FKA twigs' presence as a spirit medium alongside her dreamlike music. By the end, it leaves you eagerly anticipating actor Anne Hathaway's real-life solo album debut, making it the most stylish pop-culture dark fairy tale at this year's BIFF. (HUR Sung)

* 10.7 상영 종료 후 콘텐츠 스튜디오 TEO의 김태호 PD가 참여하는 스페셜 토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A Special Talk with content producer Kim Tae-ho (TEO) is scheduled after the screening on October 7th.



Moulin

장 물랭

France | 2025 | 133min | DCP | color
Director **László NEMES** 라슬로 네메스

칸영화제 경쟁

188 Oct 09 / 21:40 / CX **347** Oct 10 / 09:20 / L4
613 Oct 13 / 09:40 / L6

<사울의 아들>의 라슬로 네메스 감독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운 프랑스 저항운동의 상징적 지도자 장 물랭의 이야기를 영화화했다. 1943년, 자국 내 분열된 레지스탕스 세력을 통합하려 했던 물랭은 리옹에서 비밀회의를 계획했다. 체포된다. 리옹 게슈타포의 총책임자 클라우스 바르비는 물랭을 직접 심문하며 그를 독 안에 든 쥐로 만든다. 누아르 혹은 첩보물의 스타일로 서스펜스를 구축하던 영화는 '리옹의 도살장'로 불린 바르비와 프랑스 레지스탕스 영웅의 처절한 대치를 후반부 서사의 중심축에 놓으며 밀실 고문극의 공포를 극대화한다. 비 프랑스인인 네메스 감독의 시선은 물랭의 영웅적 면모를 낭만적으로 미화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자와 그것을 지키려는 자의 대결을 통해 강조되는 건 오히려 시대의 공포와 광기 그 자체다. 그것이 감독의 장기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이주현)

László Nemes, a director of *Son of Saul*, brings to the screen the story of Jean Moulin, the iconic leader of the French Resistance who fought against Nazi Germany during the Second World War. In 1943, Moulin, who sought to unite France's fractured Resistance factions, plans a secret meeting in Lyon, only to be arrested. Klaus Barbie, the head of the Lyon Gestapo, personally interrogates Moulin, cornering him with no means of escape. Having built its suspense through the conventions of noir or espionage cinema, the film shifts its focus in the second half to the harrowing confrontation between Barbie - known as the 'Butcher of Lyon' - and the hero of the French Resistance, intensifying the drama into a claustrophobic chamber horror. As a filmmaker from outside France, Nemes does not simply romanticize Moulin's heroism. Instead, the confrontation between one man seeking to destroy the human's soul and another fighting to preserve it throws the terror and madness of the era itself into stark relief. That this is the director's forte goes without saying. (LEE Juhyun)



My Wife Cries

어느 날, 아내가 울었다

Germany/France | 2026 | 92min | DCP | color
Director **Angela SCHANELEC** 앙젤라 샬넬레크

베를린영화제 경쟁

450 Oct 11 / 12:40 / L9 **588** Oct 13 / 17:30 / C4

근래 양식화된 영화를 선보였던 샬넬레크의 신작은 드라마다. 불운한 일을 겪은 아내는 벤치에서 울었고, 사연을 들은 남편은 머리가 폭발할 것 같아 길에 쓰러진다. 연기의 방식이 놀라운데, 얼굴은 감정을 과장하지 않고, 몸의 움직임은 최소화되며, 목소리는 내면이 아닌 육체에서 나온다. 대화 장면에서 혼자 독백하듯 몇 분에 걸쳐 대사를 발화할 때는 소름이 돋는다. 그리고 쇼트의 지속 시간, 풍경을 바라보는 태도, 현장 사운드 활용, 미니멀한 공간 등에서 일반적인 드라마와 차별화된다. 어쩌면 <어느 날, 아내가 울었다>는 그사이에 세상을 떠난 스트로브에 바치는 헌사일지도 모른다. 이런 정말 유물론적인 영화이기에, 공중에서 찬찬히 움직이는 크레인조차 무심하게 바라볼 수 없다. 그럼에도 코헨의 노래가 흐르는 뜻밖의 장면은 이 영화가 마냥 무뎡뎡한 영화가 아니라고 말한다. 긴장과 감동의 영화다. (이용철)

Having presented stylized cinema in recent years, Angela Schanelec's new film is a drama. A wife who suffered an unfortunate ordeal cries on a bench; hearing her story, her husband feels as if his head might explode and collapses in the street. The acting style is striking: facial expressions avoid exaggeration, physical movements are minimized, and voices seem to emanate not from psychological interiority, but from pure physicality. During dialogue scenes, when an actor speaks lines across several minutes as if delivering a solitary monologue, it sends chills down the spine. Furthermore, the duration of the shots, the attitude toward the landscape, the use of on-location sound, and the minimalist spaces set this work apart from conventional dramas. Perhaps, *My Wife Cries* is a tribute to the late Jean-Marie Straub, who passed away during this period. Because this is a truly materialist film, even a crane moving slowly through the air cannot be regarded with indifference. Even so, an unexpected scene accompanied by a Leonard Cohen's song suggests that this is not merely an austere film. It is a work of both tension and deep emotion. (LEE Yong Cheol)



Nowhere to Lay My Eyes

눈 돌 데가 없네

Korea | 2026 | 72min | DCP | color
Director **HONG Sangsoo** 홍상수

로카르노영화제 국제경쟁

053 Oct 07 / 13:00 / L5 **113** Oct 08 / 22:00 / C6
222 Oct 09 / 16:20 / L3 **679** Oct 14 / 19:00 / C5

상희(김민희)는 동생 상훈(신석호)과 엄마가 정착한 제주도의 집을 방문한다. 오래전 이혼한 엄마는 재혼해서 살고 있는데, 상희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엄마를 만나지 못했다. 다큐멘타리를 한다는 엄마의 새로운 남편, 이들과 함께 산다는 남자의 딸, 상희보다 상대적으로 엄마와 가까워 보이는 상훈, 무엇보다 낯설고도 '큰' 엄마. 상희는 이 어색한 관계 안에서 그들과 자신에 대해 느끼고 생각한다. 이를 전하는 상희의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은 홍상수의 전작들에 흐르던 목소리 중에서도 유독 처연하게 들리고 세 개의 소재목이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예측 불가능한 날씨의 감각은 상희의 마음에 일어난 진동과도 같다. <눈 돌 데가 없네>는 제주의 바람과 마음의 바람에 흔들리는 세계다. 그러나 영화 후반, 상희가 좋아하고 믿는 '작은 것'의 곳곳함이 비로소 제모습을 겸허히 드러낼 때, 그 흔들림에도 경이로운 빛이 퍼진다. 최명길의 그간 홍상수 영화에서 경험해 본 적 없는 엄마의 초상을 연기한다. 2026년 로카르노영화제 감독상, 최우수연기상(김민희), 에큐메니컬 심사위원상 수상작이다. (남다운)

With her younger brother Sanghoon (Shin Seokho), Sanghee (Kim Minhee) visits the house in Jeju Island where her mother settled. Her mother, who divorced long ago, has since remarried, and Sanghee hasn't seen her in a long time. She confronts her mother's new husband who makes documentaries, the daughter of him who lives with them, Sang-hoon who seems relatively closer to the mother than Sanghee herself, and her mother who is unfamiliar and "overwhelming." Within these awkward dynamics, Sanghee reflects and meditates on them and herself. Sanghee's voice-over narration sounds distinctly poignant even among the voices in Hong's previous works, while the unpredictable weather depicted across three subtitles mirrors the tremors stirring within Sanghee's heart. *Nowhere to Lay My Eyes* is a world swaying in both the winds of Jeju and the soul. Yet in the film's latter half, when the steadfastness of the "small things" Sanghee cherishes and believes in finally reveals itself with humility, a wondrous light washes over that turbulence. Choi Myeonggil delivers a maternal portrait never before seen in Hong's films. It is the winner of the Best Director Award, the Best Performance Award (Kim Minhee), and the Ecumenical Jury Prize at the 2026 Locarno Film Festival. (NAM Daewon)



Nagi Notes

나기 노트

Japan | 2026 | 110min | DCP | color
Director **FUKADA Koji** 후카다 코지

칸영화제 경쟁, APM 2023 선정작

055 Oct 07 / 19:00 / L5 **081** Oct 08 / 12:00 / B2
721 Oct 14 / 13:20 / KT

건축가인 유리는 전 남편의 누나인 요리코를 찾아온다. 그리고 조각가인 요리코는 유리에게 조각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니까 전 율케를 조각하는 전 시누이, 인 것이다. 거기에 요리코가 짝사랑했던 친구와 결혼했던 남자, 요시히로가 등장한다. 전작 <하모니움> (2016)과 <러브 라이프> (2022) 등에서 '가족'이 실은 언제 깨져도 이상하지 않은, 굳결 기득한 것임을 누설했던 후카다 코지의 신작은 더 나아가 이제 가족의 이름으로 도저히 성립불가능한 관계들을 다루기에 이른다. 그렇게 미묘한 관계와 미묘한 사건들이 이어진다. 서정적인 풍경과 평온한 산책, 사색적인 말들 사이에서, <나기 노트>는 결핍과 외로움이 실은 삶의 조건이라는 귀중한 진실을 드러낸다. 이런 실은 우리 모두 언젠가 마주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구형준)

Yuri, an architect, goes to visit Yoriko, the older sister of her ex-husband. Yoriko works as a sculptor, and asks Yuri to become the model for her next project. In other words, former sisters-in-law share a home and create art together. Into this comes Yoshihiro, a single father who married the friend Yoriko once loved from afar. Having revealed in earlier works like *Harmonium* (2016) and *Love Life* (2022) that 'family' is in fact something so riddled with cracks that it could fall apart at any moment, Fukada Koji's new film goes further still, exploring relationships that cannot be defined under the name of 'family' at all. And so, subtle relationships and subtle incidents unfold one after another. Amid lyrical landscapes, tranquil walks, and contemplative words, *Nagi Notes* reveals the precious truth that absence and loneliness are, in fact, fundamental conditions of life. This is a quiet reckoning none of us can evade in life. (GOO Hyeong Jun)



Orange-Flavoured Wedding

오렌지 맛 웨딩

France | 2026 | 115min | DCP | color
Director **Christophe HONORÉ** 크리스토프 오노레

칸영화제 칸프리미어

149 Oct 08 / 17:00 / L9 **288** Oct 10 / 09:00 / C3
639 Oct 13 / 18:00 / SH

1978년, 프랑스 중산층은 경제 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었다. 노동을 삶의 최우선 가치로 여겼던 프랑스인들의 일상에 실업이라는 그림자가 서서히 드리우기 시작한다. 크리스토프 오노레는 본인의 어린 시절 기억에서 출발해 지극히 사적이면서도 시대를 관통하는 이야기를 <오렌지 맛 웨딩>에 유려하게 풀어낸다. 취기와 갈등, 화해가 뒤섞인 결혼식의 틈틈 공간 속에서 감독은 한 시대가 저물어가는 순간을 예리하게 포착한다. 특히 인기 가수 클로드 프랑수아의 죽음은 순수와 낙관으로 대변되던 시절의 종언을 상징한다. 감독은 클로드 쇼테의 <졸거운 인생> (1970)을 비롯한 70년대 프랑스 영화 특유의 장대하고 서사적인 호흡을 되살리면서도, 인물들을 생생하고 인간적으로 그려내는 자신만의 재능을 유감없이 발휘한다. 이 양상불 영화를 위해 뱅상 라코스트(<잃어버린 환상>), 아델 에그자르코폴로스(<가장 따뜻한 색, 블루>), 폴 키르세(<애니멀 킹덤>) 등 동시대 최고의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서승희)

In 1978, France's middle class was taking a direct hit from the economic crisis. For the French, who had long regarded work as one of life's highest priorities, the shadow of unemployment was beginning to creep into everyday life. Drawing on memories of his own childhood, Christophe Honoré weaves a story in *Orange-Flavoured Wedding* that is deeply personal yet speaks to an entire era. Amid the heady atmosphere of a wedding filled with drunken revelry, conflict, and reconciliation, Honoré sharply captures the moment an era draws to a close. In particular, the death of popular singer Claude François symbolizes the end of an age defined by innocence and optimism. While reviving the grand, expansive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1970s French cinema, including Claude Sautet's *The Things of Life* (1970), Honoré also displays his singular gift for bringing his characters vividly and humanely to life. This ensemble film brings together some of the finest actors working today, including Vincent Lacoste (*Lost Illusions*), Adèle Exarchopoulos (*Blue Is the Warmest Colour*), and Paul Kircher (*The Animal Kingdom*). (SEO Seunghye)



Paper Tiger

페이퍼 타이거

United States | 2026 | 114min | DCP | color
Director **James GRAY** 제임스 그레이

칸영화제 경쟁

259 Oct 09 / 19:40 / SH	509 Oct 12 / 12:40 / L2
686 Oct 14 / 15:30 / L2	

동시대 미국 감독 중 미국적인 풍경과 정서를 가장 섬세하게 구현하는 제임스 그레이의 신작이다. 전작 <아마겟돈 타임> (2023)과 마찬가지로 그레이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전작이 드라마의 외피를 두르고 있다면 <페이퍼 타이거>는 누아르에 가깝다. 그레이는 가족이라는 동전의 양면을 보려는 걸까? 1980년대 뉴욕, 전기 엔지니어인 어원은 전직 경찰인 형 제리의 제인에 따라 하천 정화사업을 벌이려다 러시아 마피아에게 연루된다. 이 영화는 범속한 관계와 범속한 욕망을 아주 범속하게 묘사하면서도 동시에 더없이 우아한 말과 몸짓으로 조형해내는데, 이를 통해 미국영화의 위대한 성취를 계속해낸다. 부서지는 빛과 그림자, 교차하는 인물의 동선과 심리, 무엇보다 마일스 텔라와 아담 드라이버, 스칼렛 요한슨의 절제와 폭발을 오가는 연기 앙상블을 보고 있으면, 누아르가 무엇보다 아름다운 서정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구형준)

Among his contemporaries, James Gray is the American director who most delicately captures the American landscape and its emotional textures. Like his previous film, *Armageddon Time* (2023), his latest work draws on autobiographical material, but while the former took the form of a drama, *Paper Tiger* leans closer to noir. Is Gray seeking to explore the two faces of family? In 1980s New York, electrical engineer Irvin becomes entangled with the Russian mafia after joining a river cleanup project proposed by his brother Gary, a former police officer. The film portrays ordinary relationships and ordinary desires in utterly ordinary terms yet shapes them through words and gestures of extraordinary elegance, carrying forward the great tradition of American cinema. Watching the fractured play of light and shadow, the intersecting trajectories and inner lives of its characters, and above all the ensemble performances of Miles Teller, Adam Driver, and Scarlett Johansson – who move between restraint and eruption – one comes to realize that noir is, above all, a beautiful lyrical poem. (GOO Hyeong Jun)



Parallel Tales

패러렐 테일즈: 데칼로그

France/Italy/Belgium/Saudi Arabia/United States | 2026 | 140min | DCP | color
Director **Asghar FARHADI** 아스가르 파르하디

칸영화제 경쟁

173 Oct 09 / 21:40 / B1	388 Oct 11 / 12:10 / C1
563 Oct 13 / 10:20 / B2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이란 감독이 프랑스의 명배우들을 데리고 영화를 찍었는데, 더 주목할 건 크레딧에서 보이는 키에슬로프스키라는 폴란드 감독의 이름이다. 파르하디의 신작은 <데칼로그 6>, <데칼로그 5>, <블루> 등에서 영감을 얻었으나 결과는 <이창> 과 (극중 언급되는 심농의 소설을 영화화한) <살인 혐의> 사이에 놓인다. 심계명을 해석한 키에슬로프스키의 영화가 단순한 관계를 심오한 우화로 썼다면, 파르하디는 복잡한 관계의 소용돌이로 뛰어든다. 건너편 이웃을 망원경으로 훑쳐본다는 설정만 가져왔을 뿐, 진정한 이해와 사랑의 이야기 대신 영화의 구조적 측면과 관계의 방정식에 더 심혈을 기울인다. 작가가 쓰는 소설 제목에서 따온 영화의 타이틀은 현실과 허구를 넘나드는 평행 세계라는 의미이면서, 평행선상에 머무는 실패한 관계에 대한 알뜰한 언사다. (이용철)

An internationally acclaimed Iranian director shot a film with celebrated French actors, but what deserves even more attention is the appearance of Polish director Krzysztof Kieslowski's name in the credits. Farhadi's new film draws inspiration from *Dekalog 6*, *Dekalog 5*, and *Blue*, but the result lands somewhere between *Rear Window* and *Monsieur Hire* (the film adaptation of Simenon's novel, referenced within the film itself). Where Kieslowski's films, interpreting the Ten Commandments, used simple relationships to create profound parables, Farhadi plunges into a whirlpool of complicated relationships. He borrows only the premise of spying on a neighbor across the way through a telescope; instead of a story of true understanding and love, he devotes far more care to the film's structural dimension and the equations governing human relationships. Taken from the title of the novel the writer-character is working on, the film's title evokes parallel worlds moving between reality and fiction, while also aptly describing failed relationships that remain on parallel tracks. (LEE Yong Cheol)



Possible Love

가능한 사랑

Korea | 2026 | 164min | DCP | color
Director **LEE Chang-dong** 이창동

베니스영화제 경쟁

020 Oct 07 / 15:00 / CX	089 Oct 08 / 09:00 / CX
606 Oct 13 / 13:20 / L4	737 Oct 14 / 15:30 / BH

해고노동자 가족과 그들의 삶을 찍으려는 다큐멘터리 감독 부부가 만난다. 이들이 마주칠수록 깊숙이 내려앉은 욕망과 충동이 서서히 일렁이다 격랑을 이루고, 가능한 삶과 사랑의 형태로 달라진다. <가능한 사랑>은 선불리 자본가와 노동자를 대비시키지 않고 편의적으로 픽션과 다큐멘터리를 나누지 않으며 여러 겹으로 싸면 인물들의 마음을 풀어 해치지 않는다. 이창동은 인물과 공간을 사서히 탐색하며 은근한 눈길과 찰나에 스치는 표정을 통해 공허한 웃음과 냉소, 친절함과 구분 짓기, 구속과 자유 사이를 맴돈다. 숲의 새소리가 욕망을 일깨워도 험사리 그에 사로잡히지 않고, 해방구가 된 파도도 욕망과 존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며, 숲속에서 토해내는 가련한 짐승의 울부짖음이 더 나은 삶을 약속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가능한 사랑>이 하늘에 뜬 밝은 보름달과 햇살에 비친 물줄기가 만든 무지개 앞에 멈추면 평범한 인물의 평범한 사랑이 가능성을 믿게 된다. 세속과 감정과 낯것의 힘을 믿고 영화에 자신들을 던진 전도연, 설경구, 조인성, 조여정 덕분이다. (박인호)

A family of laid-off workers cross paths with a documentary filmmaking couple, who wish to film the workers lives. As their paths continue to cross, desires and impulses buried deep within begin to stir and swell into turbulent waves, reshaping the possibilities of both life and love. *Possible Love* neither hastily pits capitalist against worker nor conveniently divides fiction from documentary, and it resists prying open the carefully layered inner lives of its characters. Lee Chang-dong slowly explores his characters and spaces, moving through subtle glances and fleeting expressions, between hollow laughter and cynicism, kindness and division, constraint and freedom. Even when birdsong in the forest awakens desire and they are not easily seized by it; even waves that offer a space of liberation cannot bridge the gap between desire and dignity; and the pitiful howl of an animal echoing through the forest promises no better life. And yet, when *Possible Love* comes to rest before a bright full moon and a rainbow cast by sunlight on flowing water, you come to believe that an ordinary love between ordinary people is indeed possible. This is thanks to Jeon Do-yeon, Sul Kyung-gu, Zo In-sung, and Cho Yeo-jeong, who threw themselves into the film with faith in the power of worldly life, emotion, and raw instinct. (PARK Inho)



Ray Gunn

레이 건

United States | 2026 | 119min | DCP | color
Director **Brad BIRD** 브래드 버드

382 Oct 11 / 09:20 / CX	548 Oct 12 / 15:20 / SH
556 Oct 13 / 12:30 / BH	726 Oct 14 / 18:20 / SH

<라따뚜이>와 <인크레더블>의 거장 브래드 버드 감독이 8년 만에 애니메이션으로 돌아왔다. SF 누아르 대작 <레이 건>은 인간과 외계인이 자연스레 어우러져 살아가고, 각양각색의 날아다니는 차들이 도로를 메운 1930년대 로스앤젤레스 도시 '메트로피아'를 배경으로 펼쳐진다. 기계와 로봇이 탐정업을 주도하는 시대에 보기 드문 인간 사립탐정 레이 건(샘 록웰)은 외계인 조수 아이리(톰 웨이츠)와 함께 인기 스타 비너스 노바(스칼렛 요한슨)가 얽힌 의문의 살인 사건을 파헤친다. 배우들의 입체적인 목소리 연기는 캐릭터에 생생한 숨결을 불어넣는다. 고전 누아르의 낭만과 초현대적 디테일이 결합된 세계관은 도달하고 싶은 진짜 미션을 떠올리게 하며 시각적 쾌감을 선사한다. 속도감 넘치는 연출과 정교한 프레임이 압도적 몰입감을 주며, 애니메이션을 즐기지 않던 관객마저 단숨에 매료시키는 매혹적인 작품이다. (허승)

Directed by Brad Bird, the master behind *Ratatouille* and *The Incredibles*, the sci-fi noir *Ray Gunn* marks his return to animation after eight years. Set in Metropia, a 1930s retro-futuristic city where humans and aliens naturally coexist alongside a diverse array of flying vehicles filling the roads, private detective Ray Gunn (Sam Rockwell) persists as a rare human investigator in an era where machines and robots dominate detective work. Alongside his alien assistant Eyera (Tom Waits), Gunn delves into a mysterious murder case involving popular star Venus Nova (Scarlett Johansson), brought to vivid life through stellar voice performances. Blending classic noir romance with ultra-futuristic details, this imaginative world evokes the vision of a real future we might desire to reach, with its realization delivering the height of visual pleasure. Bird's high-velocity direction and meticulously crafted frames create an overwhelming sense of immersion, seamlessly captivating even non-animation fans. (HUR Sung)



Red Rocks

붉은 바위에 아이들이 있다

Portugal/France/Italy/Spain/Qatar | 2026 | 90min | DCP | color
Director **Bruno DUMONT** 브루노 뒤몽

칸영화제 감독주간

041 Oct 07 / 12:00 / L2 **123** Oct 08 / 09:00 / L3
435 Oct 11 / 22:20 / L5 **482** Oct 12 / 09:40 / CX

브루노 뒤몽은 프랑스 감독 가운데 가장 종잡을 수 없고 또한 가장 자유로운 감독이다. 미디어를 향한 신랄한 비판을 담았던 <프랑스> (2021) 이후, 감독은 어른들의 세계를 등지고 또 하나의 걸작을 완성했다. 바르 지방의 어느 여름, 예닐곱 살의 아이들이 붉은 절벽에서 자중해로 뛰어내리며 서로에게 도전한다. 며칠 후 이들은 사랑과 질투, 폭력과 기쁨, 그리고 자유까지도 알게 될 것이다. 아이들을 촬영하며 감독이 다다르고자 한 곳은 다름 아닌 '영화의 유년기'다. 카메라를 쳐다보는 시선, 알아듣기 힘든 대사, 아이들의 엉뚱한 반응도 수정하지 않으며 뒤몽은 '날 것 그대로의 영화'를 구현한다. 그 결과 아이들은 저마다의 통과의례를 품은 수수께끼 같은 부족처럼 그려진다. 주인공 제오와 그의 무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웃게 만들면서도 세상이 모험과 위험, 감정으로 가득했던, 그 찬란한 시절이 우리에게도 있었음을 일깨운다. <붉은 바위에 아이들이 있다>는 작지만 위대한, 올해의 걸작이다. (서승희)

Bruno Dumont is one of the most unpredictable and free-spirited French filmmakers. Following *France*, which offered a scathing critique about modern media, he turns his back on the adult world to craft yet another masterpiece. One summer in the Var region, a group of six- and seven-year-olds dare one another as they leap into the Mediterranean from red cliffs. Over the course of a few days, they come to know love, jealousy, violence, joy, and freedom. Filming these children, Dumont sought to return to the "childhood of cinema." Without correcting glances directed at the camera, unintelligible dialogue, or unpredictable reactions, he strives for a raw, unfiltered form of cinema. As a result, the children are portrayed like an enigmatic tribe undergoing their own rites of passage. The protagonist, Géo, and his pack keep us constantly amused while reminding us of a time when our world, too, was gloriously full of adventure, danger, and emotion. *Red Rocks* is a small yet monumental masterpiece of the year. (SEO Seunghee)



Roma Elastica

로마 엘라스티카

France/Italy | 2026 | 107min | DCP | color/b&w
Director **Bertrand MANDICO** 베르트랑 만디코

칸영화제 미드나잇스크린

284 Oct 10 / 13:00 / CX **368** Oct 11 / 12:10 / B1
650 Oct 14 / 15:30 / B1

1980년대 초, 미국으로 망명한 왕년의 프랑스 스타 에디 마스(마리옹 코티아르)는 전설적인 치네치타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이탈리아 SF 영화에 캐스팅된다.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한 에디는 '시네마'라는 미로 속으로 점점 깊숙이 빠져든다. 무한한 상상력을 지닌 바로크적 몽상가 베르트랑 만디코 감독은 <로마 엘라스티카>를 통해 페데리코 펠리니부터 루치오 풀치에 이르는 이탈리아 영화의 마법사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헌사를 바친다. 오르넬라 무티(<스완의 사랑>, 1983)와 프랑코 네로(<장고>, 1966)가 그 찬란했던 황금기의 증인으로 스크린에 돌아오고, 마리옹 코티아르는 젊은 날의 분신과 춤을 추며 정체 모를 측수에 휘감기는 매혹적인 연기로 관객을 사로잡는다.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2019)의 노에미 메를랑 역시 파격적인 변신을 감행하며 주인공과의 애절한 우정을 그려낸다. 단연간대, 시네필적 몽환과 멜랑콜리로 직조된 환상곡 <로마 엘라스티카>는 올해 가장 대담하고, 또한 가장 감동적인 프랑스 영화다. (서승희)

In the early 1980s, Eddie (Marion Cotillard), a former French star living in exile in the United States, is cast in an Italian science-fiction film being shot at the legendary Cinecittà Studios. Sensing that death is drawing near, Eddie ventures ever deeper into the labyrinth of cinema. In *Roma Elastica*, director Bertrand Mandico, a baroque dreamer with boundless imagination, pays a sublime tribute to the magicians of Italian cinema, from Federico Fellini to Lucio Fulci. Ornella Muti (*Swann in Love*, 1984) and Franco Nero (*Django*, 1966) return to the screen as witnesses to that glorious golden age, while Marion Cotillard mesmerizes the audience as she dances with her younger self and becomes entwined in mysterious tentacles. Noemie Merlant, too, undergoes a radical transformation, bringing tenderness and poignancy to her friendship with Eddie. Woven from cinephilic reverie and melancholy, *Roma Elastica* is, without question, the boldest and most moving French film of the year. (SEO Seunghee)



Tender Loving Care

텐더 러빙 케어

United Kingdom | 2026 | 107min | DCP | color
Director **Mike LEIGH** 마이크 리

토론토영화제 스페셜프레젠테이션

016 Oct 07 / 09:20 / B3 **357** Oct 10 / 13:10 / SH
638 Oct 13 / 15:00 / SH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양한 형태의 관계 맺기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좌표를 만든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가족부터 친구, 연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관심과 애정은 나와 내 주변의 타인을 끊임없이 향한다. 에이미와 로지, 두 여성은 사회복지사로서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돌본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들이 건네는 관심 어린 말들은 뜻하지 않게 상처와 단절을 초래한다. 한편, 그들은 연인과 가족 등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도 관용과 사랑을 교환한다. 하지만 종종 서툴고 어긋나거나, 때로는 원치 않게 이별을 맞이한다. 마이크 리는 인물들이 겪는 개인적, 사회적, 제도적 관계의 다채로운 형상과 각 관계가 지닌 간격들을 미세하게 측정한다. 우리는 누구나 혼자이고, 또 함께다. 그리고 여전히 사랑을 필요로 한다. (문주화)

From birth to death, every human being charts their own distinct coordinates through various forms of relationships. From the families we did not choose to friends and lovers, our care and affection continuously reach outward towards those around us as well as ourselves. Amy and Rosie, two women working as social workers, care for people within an institutional framework. Yet, the well-intentioned words they offer to people in desperate circumstances inadvertently cause wounds and alienation. Meanwhile, they also exchange tolerance and love with those closest to them, including lovers and family members. Even so, these bonds are often clumsy, misaligned, or brought to an unwanted end. Mike Leigh delicately gauges the various forms of personal, social, and institutional relationships experienced by the characters, as well as the subtle distances existing in each connection. We are all alone, yet together. And we still need love. (MOON Juhwa)



Thanks for Coming

와줘서 고맙다는 거장의 인사

France | 2026 | 85min | DCP | color
Director **Alain CAVALIER** 알랭 카발리에

칸영화제 감독주간

147 Oct 08 / 11:00 / L9 **210** Oct 09 / 22:10 / C5
310 Oct 10 / 22:50 / C5 **449** Oct 11 / 10:20 / L9

근래 에세이 다큐멘터리에 '삶이 영화가 되는 순간'을 담는 데 집중해 온 카발리에에 신작이 '스완송'이 됐다. 그는 '영화로 찍고 싶은 마지막 소망들'을 마칠 수 있게 밀어붙인 사람이 마쉴 세아두라며 헌사를 보낸 바 있다. 그의 영화에서 맨 앞에 나오는 이름, 40년 동안 곁을 지켜온 사람이다. 일종의 비디오테이프 다이어리라 할 <와줘서 고맙다는 거장의 인사>는 <파테르> (2011)의 비하인드 영상으로 시작해, 이후 만나고 보고 나는 시간의 개인 카메라 기록으로 이어진다. 이는 2005년 작품 <필름맨>의 연장선에 놓이는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더 말끔해진 쇼트들에서 기본 좋아했을 노인의 미소가 그려진다. 목소리는 그새 조금 변했으나, 사소한 쇼트마다 깃든 노인의 청빈함은 그대로다. 자상에서 지었으나 낙원에 가 닿은 노래 - 이견 천의무봉의 영화다. (이용철)

Cavalier, who in recent years has focused his essay documentaries on capturing 'the moments when life becomes cinema,' has called his new film his 'swan song.' He has paid tribute to Michel Seydoux as the man who urged him on so that he could fulfill his 'final wishes of what he wanted to film.' Seydoux's is the first name to appear in the credits of Cavalier's films - a man who has stood by his side for 40 years. A kind of video diary, *Thanks for Coming* begins with behind-the-scenes footage from *Pater* (2011) before unfolding into a personal record, captured on Cavalier's own camera, of encounters, observations, and moments shared with others. The film follows in the footsteps of his 2005 work *Le Filmneur* [The Filmmaker], though advances in digital technology have lent its images a new clarity, one that seems reflected in the old man's delighted smile. His voice may have changed slightly over the years, but the quiet simplicity that inhabits even the most incidental of shots remains untouched. A song composed on Earth yet reaching all the way to paradise - this is a film of effortless, seamless grace. (LEE Yong Cheol)



The Unknown

언노운

France | 2026 | 139min | DCP | color
Director **Arthur HARARI** 아르튀르 아라리

칸영화제 경쟁

189 Oct 09 / 09:40 / C1 **485** Oct 12 / 18:40 / CX
561 Oct 13 / 16:20 / B1

감독 외에 아카데미 수상에 빛나는 각본가로서, 배우로서도 활동 중인 아라리의 신작이다. 아라리의 첫 장편에 나온 슈나이더가 재회했고, 세이두가 열연으로 가세했으며, 한 유명감독이 깜짝 출연했다. 아라리가 탐구해온 '몸과 정체성'이란 주제는 <언노운>에서 꼬리에 꼬리를 문다. 한 파티에서 만난 여자와 관계를 맺은 남자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그가 찍은 사진이 반복해서 제시되는데, 기억해야 하는 것은 '교외의 외관, 그것이 지닌 의미, 작가의 사진' 가운데 어느 것일까. 바뀌 말해, 거울을 보며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질 때, 나를 지배하는 건 육체와 영혼 중 무엇일까. 미스터리인데 의문이 아닌 질문이 멈추지 않는 경우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슬픈 베드신을 보면서도 계속 무언가를 물어보게 된다. 참, 밥 딜런의 앨범 재킷을 놓치지 말 것. (이용철)

The new film from Arthur Harari, a director, Academy Award-winning screenwriter, and actor. Schneider, who appeared in Harari's debut feature, reunites with the director, while Seydoux joins the cast with a powerful performance, and a famous director makes a surprise cameo. In *The Unknown*, Harari's long-standing exploration of 'body and identity' gives rise to one question after another. Something unbelievable happens to a man after he sleeps with a woman he meets at a party. Photographs he took are shown again and again - but what exactly must be remembered: the suburban exterior itself, the meaning it holds, or the artist's gaze? Put differently, when your own face looks unfamiliar to you in the mirror, is it the body or the soul that governs who you are? It is a mystery that leaves us not with doubts, but with questions - and the questions never stop. That's why, even while watching what may be the saddest love scene in the world, you find yourself still wondering. Oh, and don't miss the Bob Dylan's album cover. (LEE Yong Cheol)



Yellow Letters

옐로우 레터스

Germany/France/Turkiye | 2026 | 127min | DCP | color
Director **İlker ÇATAK** 일커 차탁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

092 Oct 08 / 19:00 / CX **452** Oct 11 / 20:00 / L9

차탁은 올해 황금곰상을 수상하며 베를린영화제의 총아로 떠올랐다. 시뮬런 이미지로 들어가는 <옐로우 레터스>는 체제와의 불화로 곤경에 처한 배우와 가족의 이야기다. 무대에서 "임팩터, 오라!"라고 외치던 인물이 현실의 아들과 마주한다는 부조리한 상황은 '예술이 세상을 구한다'는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그래서일까, 영화는 특정 지식인의 위기 너머 인간이 부당한 변화에 불참해 삶을 영위하는 방식에 시선을 둔다. 촬영 배경이 독일의 도시임에도 튀르키예의 앙카라, 이스탄불로 설정한 것도 그러한 측면 지향성과 연결된다. 차탁의 영화는 진지한 쪽으로 이동 중인데, 간장과 불안 속에서 드라마를 뱉어내는 스타일이 빛나는 작품이다. 극중 대학 입구에 '신이며 도우소서'라는 문구가 보인다. 도우는 건 인간 스스로인가, 아니면 신에 의탁해 구하는가. 선택 앞에 선 약한 자에게 정치는 허락되지 않는다. (이용철)

Çatak has emerged as a darling of the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after winning the Golden Bear this year. Opening on a blood-red image, *Yellow Letters* tells the story of an actress and her family who find themselves in trouble after falling afoul of the regime. The absurd situation in which a character who cries out, "May darkness come!" onstage is confronted with darkness in real life, undermining the claim that 'art can save the world.' Perhaps for this reason, the film looks beyond the crisis of a particular intellectual to focus on how human beings carry on with their lives when confronted with unjust circumstances. The fact that the film was shot in German cities but sets its story in Ankara and Istanbul, Türkiye, also speaks to this aspiration toward universality. Çatak's filmmaking has been moving in an increasingly serious direction, and this film showcases his gift for drawing drama out of tension and anxiety. Within the film, at the entrance to a university the words 'GOD HELP' appear. Does help come from human beings themselves, or is it sought through reliance on God? For those who face a choice from a position of weakness, there are no roses. (LEE Yong Cheol)



Wild Horse Nine

와일드 호스 나인

United States/United Kingdom/Chile | 2026 | 116min | DCP | color
Director **Martin MCDONAGH** 마틴 맥도나

베니스영화제 경쟁

140 Oct 08 / 15:40 / L6 **358** Oct 10 / 16:20 / SH
549 Oct 12 / 18:30 / SH **647** Oct 14 / 19:30 / BH

1973년 칠레 쿠데타 직전, CIA 요원 크리스(존 말코비치)와 리(샘 록웰)는 지부장 MJ(스티브 부세미)의 명령으로 이스터섬에 파견된다. 오랜 동료인 두 사람이 모아이 석상 사이에서 어두운 과거와 얽히고 설킨 음모로 갈등하는 가운데, 그림된 낙원 같은 섬에서의 여정은 예상치 못한 혼란으로 이어진다. 전작 <아니세린의 밴시> (2022)에서 아일랜드의 외딴섬을 배경으로 절절한 관계의 파국을 그려냈던 마틴 맥도나 감독은 이번에 남태평양의 유쾌된 듯한 공간으로 무대를 옮겨 특유의 블랙코미디와 서스펜스를 선보인다. 거대한 정치적 격동을 배경으로, 명배우들의 출중한 연기 호흡과 어우러져 역사적 비극의 그늘과 개인의 윤리적 균열이 절묘하게 교차한다. (박가연)

Just before the 1973 Chilean coup d'état, CIA officers Chris (John Malkovich) and Lee (Sam Rockwell) are dispatched to Easter Island under orders from their bureau chief MJ (Steve Buscemi). As the longtime colleagues clash amidst the Moai statues over dark pasts and tangled conspiracies, their journey on this isolated, paradise-like island turns into unexpected chaos. Following *The Banshees of Inisherin* (2022), where he depicted the poignant collapse of a relationship set on a remote Irish island, director Martin McDonagh shifts the stage to a secluded corner of the South Pacific to deliver his signature black comedy and suspense. Set against a backdrop of massive political upheaval, the finely tuned interplay among master actors exquisitely intertwines the shadows of historical tragedy with the fractures of personal morality. (Karen PARK)



zi

zi

United States/Hong Kong, China | 2026 | 100min | DCP | color
Director **Kogonada** 코고나다

IP 선댄스영화제 넥스트

038 Oct 07 / 12:20 / C6 **152** Oct 08 / 11:20 / KT
689 Oct 14 / 12:40 / L3

코고나다와 사카모토 류이치를 사랑한다면 결코 놓칠 수 없는 작품. 낯선 사람과 함께 있는 자신을 본 'zi'는 누군가 그런 자신을 보는 듯한 기척에 고개를 돌린다. 그녀는 기묘한 사치를 안고 현실과 예감, 미래와 기억의 틈새를 거닌다. 상반된 감정이 공존하는 얼굴과 고조된 음악이 서로를 밀어 올릴 때, 붙잡을 수 없는 현재는 생의 충만과 소멸의 징후 사이에서 불꽃보다 선명히 발광한다. 장면이 낮과 밤을 바뀌 찾아오듯, 허밍은 풍경의 풍경을 감싸다 손끝의 연주로 번지고, 하나의 선율은 다른 편곡으로 돌아온다. 'zi'에게만 벌어진 듯한 시간의 틈은 지나간 빛을 보며 살아가는 모두가 공유하는 지각의 조건이기도 하다. 암전 속에서 새로운 박동으로 되살아난 『andata』가 묻는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나요? (함윤정)

This is a film no fans of Kogonada or Ryuichi Sakamoto can afford to miss. Having glimpsed herself in the company of a stranger, 'zi' turns her head, as if sensing someone's watching her. Carrying a strange sense of temporal displacement, she wanders through the gaps between reality and premonition, future and memory. When the conflicting emotions playing across her face and the swelling music coalesce, the ungraspable present shines more vividly than a flame set between the fullness of life and the signs of its dissolution. As scenes arrive in turn, alternating between day and night, a hum wraps around the landscape of Hong Kong before flowing into music played at the fingertips, and a single melody returns in a different arrangement. The rift in time that seems to open only for 'zi' is also a condition of perception shared by those who live on, gazing at light that has already passed. Revived with a new pulse in the blackout, *andata* asks: "Where do your eyes wander in this quiet moment?" (HAM Yoonjeong)

Vision – Asia

비전 – 아시아

뛰어난 작품성과 독창적 비전을 지닌 아시아의 독립영화 최신작을 선보인다.

A curated selection of groundbreaking independent films of the year from Asia,
offering a glimpse into the future of Asian cinema.



뉴 커런츠상 후보작 New Currents Award Nominees



World Premiere



International Premiere



베트남은 자국 영화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박스오피스도 연일 최고치를 갱신한다며 들떠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난 10년간 영화 한 편 만들지 못한 이은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인지저하증에 걸린 어머니와 문제아 취급을 당하는 아들, 빗더미에 앉은 여동생과 결혼을 못 하는 남동생은 그녀의 생활고만 더욱 부채질할 뿐이다. 그녀는 영화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허공 속에 나부끼다> 이후 10여 년 만에 신작 <1982>를 내놓은 응우옌호앙디엵 감독은 이 메타영화에서 영화 자체에 대한 사랑을 여과 없이 드러낸다. 영화 속 이은이 찾는 것은 잃어버린 어머니만이 아니라 10년째 소진되어 온 자기 자신이기도 하다. 삶과 영화가 서로에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지점은 저마다 삶의 균형을 찾아온 관객에게 여운을 남긴다. (박성호)

Vietnamese cinema is riding high. Its films are earning recognition abroad and the box office keeps setting new records. But what does any of that mean to Yen, who hasn't made a single film in ten years? A mother with dementia, a son treated like a problem child, a sister buried in debt and a brother unable to marry only deepen her financial troubles. Can she keep making films?

About ten years after her sensational debut *Flapping in the Middle of Nowhere*, director Nguyễn Hoàng Điệp returns with her new film *1982*. This meta-cinematic film lays bare her unfiltered love for cinema itself. In the film, what Yen searches for is not just her missing mother but her own self, worn down after ten years of struggle. The point where life and film slide into each other will linger with audiences who have each sought their own balance in life. (PARK Sungho)



375 Oct 11 / 19:00 / B2 **544** Oct 12 / 12:40 / KT
643 Oct 13 / 19:20 / BCM **718** Oct 14 / 16:10 / L10



After the Song

노래가 끝난 후

Japan | 2026 | 93min | DCP | color

Director **KUMAMOTO Ryohei** 구마모토 료헤이



WP

176 Oct 09 / 15:40 / B2 **344** Oct 10 / 13:30 / L8
426 Oct 11 / 09:00 / L4 **512** Oct 12 / 09:20 / L3

우리는 종종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에 다정한 거짓말을 꾸며낸다. 앞을 보지 못하는 어머니 하나와 단둘이 살아온 열네 살 키이타는 그 속에서 자란다. 변성기에 접어든 소년은 스스로 울다리를 넘어보기로 결심하고, 도쿄의 골목에서 자신이 알던 것과 매우 다른 사실들을 대면한다. 다만 진실에 여러 얼굴이 있듯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 키이타는 자신의 세계를 지켜온 거짓에도 다른 면모가 있음을 알아차리며 점차 그것을 받아들이게 된다. 시작과 작별의 뜻이 교차하는 원제처럼, 영화는 익숙한 세계에 안녕을 고하면서도 그것과 새로이 조우하는 과정이 곧 성장이라 말한다. 장면 곳곳을 물들이던 노래와 연주, 바닷마을의 풍경은 그렇게 다른 표정을 얻어간다. 소년의 성장통을 따스한 시선으로 그려낸 구마모토 료헤이의 장편 데뷔작이다. (함윤정)

We often spin tender lies out of love for someone. Fourteen-year-old Kiita has grown up in just such a lie, living alone with his blind mother, Hanae. As his voice begins to change, the boy decides to venture beyond the fence on his own, and in the back alleys of Tokyo comes face to face with realities far removed from what he has known. Yet just as truth has many faces, so too does its opposite, and Kiita gradually comes to see—and accept—that the lie that has protected his world has another face of its own. Echoing its original title, where beginning and farewell intersect, the film suggests that growth is the process of bidding farewell to a familiar world while encountering it anew. The songs and music that color scene after scene, along with the landscapes of the seaside town, gradually take on new shades of meaning. Kumamoto Ryohei's feature debut traces a boy's growing pains with a warm and tender gaze. (HAM Yoonjeong)



Birds in the Dark

어둠 속의 새들

India | 2026 | 141min | DCP | b&w

Director **Shashank WALIA** 샷상크 왈리아



WP

297 Oct 10 / 12:00 / C3 **447** Oct 11 / 16:00 / L8
477 Oct 12 / 19:20 / B2 **665** Oct 14 / 10:00 / C2

경찰 정보원 자그타르는 카슈미르 출신 무슬림 남성 아미르를 연행한다. 정글과 산속을 거쳐 번잡한 도시까지의 여정을 함께 하던 중, 아미르를 놓아준 자그타르는 도망치듯 떠났던 고향으로 돌아간다. 농업 노동자들의 투쟁이 조직되기 시작한 고향에서 자그타르는 지주이자 연인이었던 라만을 다시 만나고, 자그타르를 찾아온 아미르는 노동자 조직을 이끄는 딜라지를 만나면서 연대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촬영감독 출신인 샷상크 왈리아는 이 영화에서 연출과 촬영을 맡아 색슈얼리티, 가부장제, 농민 저항, 카스트 위계 등의 굵직한 사회적 문제들을 흑백의 화면 속에서 때로 처연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로, 때로 강렬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그려낸다. 시적이고 명상적인 한편, 뜨거운 해방의 기운이 공존하는 매력적인 데뷔작이다. (박선영)

A police informant Jagtar takes Amir, a Muslim man from Kashmir, into custody. As they travel through the jungle and the mountains towards the bustling city, Jagtar eventually sets Amir free and returns to the hometown he once fled. There, as agricultural workers begin to organize a struggle, Jagtar reunites with Raman, a landowner and his former lover. Meanwhile, Amir comes to the town looking for Jagtar and meets Dilraj, the leader of the workers' organization, and begins to feel a sense of solidarity. Shashank Walia who began his career as a cinematographer, takes on both directing and cinematography for this film, portraying weighty social issues including sexuality, patriarchy, famers' resistance, and the caste hierarchy, on the black-and-white screen with images that are poignantly beautiful at times, intense and dynamic at others. This is a compelling debut film, at once poetic and meditative, yet charged with a passionate spirit of liberation. (PARK Sunyoung)



Bua 부아

Thailand | 2026 | 129min | DCP | color

Director **Inthira CHAROENPURA, Phensiri KLANGSURIN**
인티라 차론티라, 펜시리 끌랑수린



299 Oct 10 / 19:20 / C3 **463** Oct 11 / 13:00 / BCM
476 Oct 12 / 15:40 / B2 **598** Oct 13 / 10:20 / L2

특출한 외모의 열다섯 살 소녀 부아는 시골에서 숯공장을 운영하는 할머니(싸와니 우툼마)와 함께 살고 있다. 엄마를 찾으러 방콕에 가고 싶은 마음에 할머니 몰래 미인대회 수업을 받는다. 할머니의 건강이 악화되고 세상이 흥흥한 가운데 부아가 아름답게 성장할수록 그녀 주변의 남자들은 그녀의 순수함과 절박함을 이용하려 든다.

인티라 차론티라, 펜시리 끌랑수린 두 여성감독의 장편 데뷔작 <부아>는 주인공의 이름이자 연꽃이란 뜻이다. 1970년대 태국의 팽배한 인종차별과 격렬한 학생운동이 공존했던 배경을 담고 있지만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기시감은 쓸쓸한 뒷맛을 남긴다. 결국 위선적인 기성세대의 욕심이 쌓아올린 슬픔의 탑은 미래 세대가 박차고 무너뜨릴 것임이 분명하다. 유기물이 썩어가는 바다에 뿌리가 있지만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을 파우는 연꽃처럼. (박성호)

Fifteen-year-old Bua has striking looks and lives in the countryside with her grandmother (Sawanee Utoomma), who runs a charcoal factory. Hoping to go to Bangkok and find her mother, she secretly takes beauty pageant lessons behind her grandmother's back. Amid her grandmother's declining health and a world growing more unsettled, the more beautiful Bua becomes, and the more the men around her try to exploit her innocence and desperation. Women directors Inthira Charoenpura and Phensiri Klangsirin make their feature debut with *Bua*, the name of its protagonist and the Thai word for lotus. *Bua* unfolds against a backdrop of widespread racial discrimination and fierce student movements in 1970s Thailand, yet the déjà vu it stirs transcends time and place, leaving a bitter aftertaste. In the end, the spire of sorrow built by the greed of a hypocritical older generation will surely be toppled by the next generation — a generation rooted in decaying organic matter yet blooming clean and beautiful, like the lotus. (PARK Sungho)



The Cord 탯줄

Kazakhstan | 2026 | 120min | DCP | color

Director **Darkhan TULEGENOV** 다크한 툴레게노프



177 Oct 09 / 18:50 / B2 **394** Oct 11 / 16:20 / C2
508 Oct 12 / 09:40 / L2 **672** Oct 14 / 19:00 / C3

곧 미국 대학 입학을 앞둔 아들 쿠아니시는 싱글맘 디나라의 자량이다. 쿠아니시가 어렸을 때 이혼한 디나라는 아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지만 십 대의 아들에게는 엄마가 알 수 없는 세계가 있다. 어느 날 쿠아니시는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갔다가 폭행 사건에 휘말리고,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폭행 사건은 살인 사건이 된다.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친구들의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쿠아니시를 범인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디나라는 이제 자신만의 방법으로 아들을 지켜야 한다. 아트하우스 영화와 상업 영화를 오가며 활발하게 활동 중인 다르한 툴레게노프 감독은 카자흐스탄 중산층의 위선을 배경으로, 비정상적일 정도의 애착 관계를 형성한 디나라와 쿠아니시의 관계를 조명한다. 과거와 현재, 기억과 망상의 경계를 끊임없이 흐드러지는 연출과 집착과 광기를 서늘하게 표현한 아이게림 무스타파의 연기력이 돋보인다. (박선영)

Kuanysh, who is about to enroll at an American university, is the pride of his single mother, Dinara. Divorced when Kuanysh was young, Dinara has devoted herself to caring for her son, but as a teenager he has a world his mother is not privy to. One day, Kuanysh goes to a club with his friends and becomes involved in an assault incident, which turns into a homicide when the victim dies during the investigation. The wealthy and influential parents of Kuanysh's friends attempt to make him the culprit, and now Dinara must protect her son by her own means. Darkhan Tulegenov who has been actively working across arthouse and commercial cinema, explores the disturbingly close relationship between Dinara and Kuanysh against the backdrop of the hypocrisy of Kazakhstan's middle class. Continually blurring the boundaries between past and present, memory and delusion, his direction stands out, while Aigerim Mustafa's performance impressively captures Dinara's obsession and descent into madness. (PARK Sunyoung)



Dead End 데드 엔드

Hong Kong, China | 2026 | 88min | DCP | color

Director **Isabella LAM Lok-hin** 이사벨라 람록힌



274 Oct 10 / 12:30 / B2 **437** Oct 11 / 13:00 / L6
578 Oct 13 / 10:20 / C2 **707** Oct 14 / 18:20 / L7



Hinotama: Ball of Fire 환상의 불빛

Japan | 2026 | 112min | DCP | color

Director **YAZA Takenoshin** 야자 다케노신



275 Oct 10 / 15:30 / B2 **493** Oct 12 / 10:00 / C3
635 Oct 13 / 16:10 / KT **691** Oct 14 / 18:30 / L3

컴퓨터 프로그래머 허먼은 한 살배기 딸을 둔 가정이다. 어느 날, 이복동생이라 주장하는 록이 나타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캐묻기 시작하면서, 허먼의 일상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런데 허먼의 주변을 맴돌며 그의 트라우마를 집요하게 자극하던 록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 아버지의 죽음은 허먼에게 과거가 아니라 여전히 그의 현재에 깊이 침투된 사건이다. 그리하여 과거에 잠식당한 현재에 갇혀 있던 허먼이 다른 세상으로 떠나고자 하는 것은 홍콩의 현재에 대한 은유로 읽힌다. 이사벨라 람록힌 감독은 홍콩에 대한 연민을 담아, 잘 설계된 사운드 디자인을 기반으로 서스펜스 넘치는 미스터리 범죄스릴러를 완성시켰다. <구룡성채>의 정바오루이 감독이 프로듀서를 맡고, 홍콩의 인기 그룹 미러의 앙려원이 허먼 역을, 전작 <파파>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준 딜런 소만토가 록 역을 맡아 두 인물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을 스크린 위에 설득력 있게 그려낸다. (박선영)

Herman is a computer programmer and the father of a one-year-old daughter. When Lok appears, claiming to be his half-brother and pressing him about their father's death, Herman's everyday life begins to unravel. Then one day, Lok, who has been hovering around Herman and relentlessly triggering his trauma, suddenly disappears. Their father's death is not something of the past for Herman but an event that continues to permeate his present. Herman's desire to escape to another world while trapped in a present consumed by the past, therefore, can be read as a metaphor for Hong Kong today. With affection and compassion for Hong Kong, Isabella Lam Lok-hin completed this suspenseful mystery crime thriller grounded in well-crafted sound design. Produced by Cheang Pou-Soi, director of *Twilight of the Warriors*, the film stars Yeung Lokman of the popular Hong Kong boy group MIRROR as Herman and Dylan Somanto, who gave an impressive performance in *Papa*, as Lok. Together, they convincingly bring the taut tension between the two characters to the screen. (PARK Sunyoung)

부부의 결혼 생활이 서서히 흔들리다 결국 이혼에 이르는 동안, 고등학교 다케시는 어린 시절 친구에게 들은 정체불명의 '불덩이'를 찾아 헤매는 일에 점점 집착한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교묘한 갈등을 피해 불덩이 찾기에 몰두하는 사이, 다케시는 본의 아니게 동생이 가족의 감정적 짐을 홀로 떠안게 만든다. 스물네 살의 나이에 불구하고, 아자 다케노신 감독은 놀라운 만큼 성숙한 연출과 치밀한 화면 구성으로 자신의 역량을 드러낸다. 구로사와 기요시의 <도쿄 소나타>를 연상시키듯, 집 안에 감도는 숨 막히는 긴장 또한 능숙하게 포착한다. 정갈하고 빈틈없이 정돈된 공간 속에서 평온한 일상의 표면 아래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을 예리하게 담아낸다. 다케시가 찾아 헤매는 불덩이는 따뜻한 온기라기보다 차가운 그림 속에서 잠시 반짝이는 불빛에 가깝다. 하지만 공간을 다루는 탁월한 감각과 인상적인 마지막 장면은 앞으로 눈여겨볼 신예 감독의 등장을 예고한다. (구평유안)

As his parents' marriage fractures and eventually collapses into divorce, high schooler Takeshi becomes increasingly obsessed with hunting for a mysterious 'ball of fire' rumored by a childhood friend. Using this quest to escape the quiet turmoil at home, Takeshi leaves his younger brother to shoulder the family's emotional weight without realizing it. At just 24 years old, director Yaza Takenoshin demonstrates astonishing maturity and rigorous visual control. He deftly conveys the suffocating tension at home in a manner echoing Kurosawa Kiyoshi's *Tokyo Sonata*. Within neat, tightly ordered domestic spaces, Yaza exposes the inevitable fractures of human connection, where the facade of calm gives way to suppressed emotion. The search for the ball of fire offers less warmth than a fleeting spark against cool-toned isolation, yet the film's spatial mastery and brilliantly executed finale signal a promising new talent to watch for the future. (GU Pengyuan)



Ria

Philippines/Netherlands/Norway/Saudi Arabia/Japan | 2026 | 95min | DCP | color
Director **Arvin BELARMINO** 아빈 벨라르미노



276 Oct 10 / 19:00 / B2
574 Oct 13 / 10:00 / C1

499 Oct 12 / 19:20 / C4
730 Oct 14 / 19:40 / BCM

“총알이 아닌 땅을 달라.” 포크 펑크 뮤지션 리아가 무대 위에서 외치는 절규다. 철거 시한을 다텔 앞둔 슬럼은 용역들의 방화로 집이 불에 타도 소방차가 오지 않고 물과 전기도 차례로 끊긴다. 이곳의 펑크족들은 빈곤과 국가 폭력을 매일 겪는 극한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도우며 생존형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그 가운데는 리더 올가도 있다. 그녀는 한 살배기도 되지 않은 채버려진 리아를 거둬들여 길렀다. 이제 리아는 당노로 으스라져 가는 올가를 돌본다. 근래 필리핀에서 가장 큰 가대를 받은 신에 아빈 벨라르미노 감독은 도발적인 데뷔작 <리아>를 통해 우리가 방관하는 사이 부조리한 시스템에 맞서는 최후의 저항선이 된 펑크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드러낸다. 그럼으로써 펑크의 펑크에 의한 펑크를 위한 상상은 현실이 된다. (박성호)

“Give us land, not bullets!” This is the scream folk-punk musician Ria lets out onstage. The slum faces eviction in five days. Hired thugs set fire to homes and no fire truck comes. Water and electricity are cut off one after another. The punks here endure extreme poverty and state violence every day. Yet they help each other and form a community built to survive. At its center stands their leader Olga. Ria was abandoned before she turned one. Olga took her in and raised her. Now Ria cares for Olga as her body crumbles from diabetes. Arvin Belarmino is the most anticipated rising filmmaker in the Philippines today. His provocative debut feature *Ria* reveals his affection and devotion for punk. Punk has become the last line of resistance against an absurd system while we stand by. Thus a vision of punk, by punk, for punk becomes reality. (PARK Sungho)



Slumber 미몽

Iran | 2026 | 106min | DCP | color
Director **Mani MOGHADDAM** 마니 모가담



298 Oct 10 / 16:00 / C3
629 Oct 13 / 10:20 / L10

475 Oct 12 / 12:20 / B2
717 Oct 14 / 13:20 / L10

불면증을 겪고 있는 모즈타바는 기록보관소의 직원이자 종교 집회에서 찬가를 이끄는 독실한 신자다. 어느 날부터 꿈에 나타나기 시작한 신비스러운 여인은 그의 만족스럽지 못한 일상에 균열을 일으킨다. 현실에서의 부인은 건강과 생활습관에 대한 끝없는 잔소리를 늘어놓고 정작 그가 가장 원하는 아이를 갖는 일에는 무관심하다. 반면 꿈속의 여인은 그를 적극적으로 회유하며 저항할 수 없는 유혹의 손길을 내민다.

마니 모가담 감독의 데뷔작 <미몽>은 희망이 없는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사회에서 현실도피를 선택(당)한 중년 남성의 위기를 그리고 있다. 점차 꿈과 현실의 경계를 잃어가는 도파는 자기연민에의 매몰인지 붕괴하지 않고 자아를 보존하기 위한 마지막 방어기제인지 구분하는 것조차 모호하게 만든다. (박성호)

Mojtaba suffers from insomnia. He works in the archives department and is also a devout believer who leads hymns at religious gatherings. One day a mysterious woman begins appearing in his dreams and creates a crack in his unsatisfying daily life. In reality his wife nags endlessly about his health and habits, indifferent to the one thing he wants most: a child. By contrast the woman in his dreams actively works to win him over and reaches out with an irresistible temptation. Mani Moghaddam's debut film *Slumber* portrays the crisis of a middle-aged man who chose (or was driven to choose) escape from reality, in a society enduring hopeless collective trauma. As the escape gradually erodes the boundary between dream and reality, it becomes unclear even whether it is a descent into self-pity or the last defense mechanism preserving the self from collapse. (PARK Sungho)



Selvi 셀비

India/Saudi Arabia | 2026 | 97min | DCP | color
Director **Sailesh RATHNAKUMAR** 사일레시 라트나쿠마르



175 Oct 09 / 12:30 / B2
642 Oct 13 / 16:30 / BCM

395 Oct 11 / 20:00 / C2
676 Oct 14 / 20:00 / C4

영화는 해변가에서 연을 날리며 환하게 웃는 셀비와 친구들의 모습으로 시작한다. 가족을 돌보기 위해 도시로 온 셀비는 언젠가 ‘진짜’ 간호사가 되어 두바이로 갈 날을 꿈꾸며, 방문 돌봄 노동자로 살아간다. 어느 날, 절친한 카비타가 연애의 실패로 자살을 시도하게 되자 셀비는 카비타의 근무 시간까지 떠맡게 된다. 12시간 근무 교대가 24시간이 되고 48시간이 되고 72시간이 되는 동안, 셀비는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피로와 무력감에 침잠되어 간다. 타밀어에서 ‘셀비’는 미혼 여성을 부르는 존칭이므로, 영화의 제목 ‘셀비’는 특정한 한 개인이자 이름 없이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들의 이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사일레시 라트나쿠마르 감독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카메라로 셀비의 뒤를 쫓으며 무너져가는 그녀의 시간들과 그 너머의 진실을 담아낸다. 주연 배우이자 제작을 맡은 안잘리 파틸의 섬세한 연기가 이름 없는 ‘셀비’들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박산영)

The film opens with Selvi and her friends smiling brightly and laughing as they fly kites on the beach. Having come to the city to support her family, Selvi works as a home-care worker while dreaming of becoming a ‘real’ nurse and going to Dubai one day. When her friend Kavitha attempts suicide after a breakup, Selvi ends up taking on Kavitha's shifts as well. Her 12-hour shift becomes 24 hours, then 48, then 72, and during that time Selvi sinks deeper into fatigue and helplessness she is unable to divulge to anyone. In Tamil, ‘selvi’ is a respectful form of address for an unmarried young woman. Therefore, the title *Selvi* not only refers to one particular individual but also symbolizes the countless women who live without a name of their own. Sailesh Rathnakumar follows Selvi with an ever-shaking camera, capturing her unraveling life and the truth that lies beyond. Anjali Patil, who stars in and also produces the film, breathes life into the nameless ‘selvi’ through her delicate and nuanced performance. (PARK Sunyoung)



There Will Be Snow 다시 눈이 올 거야

China | 2026 | 90min | DCP | color
Director **CHEN Jianying (Story)** 천젠잉



374 Oct 11 / 16:00 / B2
601 Oct 13 / 19:10 / L2

496 Oct 12 / 21:00 / C3
696 Oct 14 / 10:20 / L5

영화는 인상적인 장면으로 시작된다. 온통 눈과 얼음으로 뒤덮인 세상에서 일상불란하게 커다란 얼음덩어리를 쪼개고 나르는 사람들 뒤로 멀찍이 회부연 도시의 마천루가 보인다. 화면 위로, 얼음 도시 ‘글래스터레’와 지능형 도시 시스템 ‘파이어웍스’를 잇는 공사가 또다시 지연되었다는 암울한 뉴스가 흐른다. 고도로 자동화된 도시 ‘브라이트 존’의 한 무용단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구첸은 이제 글래스터레를 떠날 수 있다는 희망에 들뜬다. 한편, 파이어웍스 구축에 참여했던 엔지니어 쉬추는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 고향으로 돌아온다. 푸른빛의 조명이 영화 전체를 감싸는 가운데, 눈과 얼음, 순록과 철교 등의 이미지가 환상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폐허의 도시 글래스터레에 온기를 불어넣는다. 구첸의 마지막 춤은 기억과 사랑이 남아 있다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다소 불완전한 삶의 리듬일지 모른다고 말하는 듯하다. (박산영)

The film begins with a striking scene: a world covered in snow and ice, where people are busy cutting and transporting massive blocks of ice, while skyscrapers loom in a haze far behind them. Across the screen comes the depressing news that the construction connecting the ice city Glaceterre to the intelligent city system Fireworks has once again been delayed. When Gu Chen receives a phone call from a dance troupe in the highly automated city of Bright Zone, she is excited by the prospect of finally leaving Glaceterre. Meanwhile, Xu Chu, an engineer who took part in the development of Fireworks, returns to his hometown in search of lost memories. Bathed in bluish light, the film creates a fantastical atmosphere through images of snow, ice, reindeer, and iron bridges, breathing warmth into the ruined city of Glaceterre. Gu Chen's last dance seems to suggest that as long as memories and love remain, what keeps us going may be the imperfect rhythm of life itself. (PARK Sunyoung)



Zogsool 멈춰서다

Mongolia/Germany | 2026 | 109min | DCP | color
Director **SAKHYA Byamba 사히야 밤바**

WP

373 Oct 11 / 12:40 / B2 **511** Oct 12 / 19:20 / L2
624 Oct 13 / 18:40 / L8 **673** Oct 14 / 10:20 / C4

광활한 몽골의 초원. 화면의 반을 덮는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구름이 가득한 길을 한참 달리던 유조차가 한 작은 마을 앞에 멈춰 섰다. 코로나로 마을이 갑작스럽게 봉쇄되면서, 유조차 운전사 솜베르는 주유소 앞에서 격리되고, 부패한 관리와 탐욕스러운 주유소 주인에게 성과 노동을 착취당하며 살고 있던 주유소 관리자인 상글람 한다는 솜베르의 관리까지 떠맡게 된다. 촬영감독 출신인 사히야 밤바 감독은 드넓고 아름다운 몽골 초원과 솜베르가 갇힌 비좁은 트럭 운전석의 공간 대비를 통해, 코로나 초기의 혼란과 통제된 정보 안에서 벌어지는 집단 패닉과 광기를 풍자적으로 그린다. 그런 한편, 한다와 솜베르를 희생자가 아닌, 폐쇄되고 부패한 공동체에 균열을 내는 일탈자로 보는 시선이 흥미롭다. (박선영)

The vast Mongolian grassland stretches across the screen, with blue skies and beautiful clouds filling half the frame. Undereneath, an oil tanker truck drives for some time along a scenic road, before coming to a stop in front of a small town. When the town is suddenly sealed off due to the COVID pandemic, Sumber, the oil tanker driver, is quarantined at the gas station. Khanda, a single mother who manages the station while being exploited for sex and labor by a corrupt government official and the greedy owner, is now also tasked with looking after Sumber. A former cinematographer, Sakhya Byamba satirically portrays the chaos of the early days of the COVID pandemic and the collective panic and madness that unfold amid restricted information through the stark contrast between the vast, beautiful grassland and the cramped space of the truck cab where Sumber is confined. At the same time, the director's perspective is intriguing in that he sees Khanda and Sumber not as victims but as transgressors who create ruptures in a closed, corrupted community. (PARK Sunyoung)



Vision – Korea

비전 – 한국

뛰어난 작품성과 독창적 비전을 지닌 한국의 독립영화 최신작을 선보인다.

A curated selection of groundbreaking independent films of the year from Korea, offering a glimpse into the future of Korean cinema.



뉴 커런트상 후보작 New Currents Award Nominees

WP

World Premiere



BALER 베일러

Korea | 2026 | 95min | DCP | color
Director **OH Sehyeon 오세현**

WP

208 Oct 09 / 16:00 / C5 **321** Oct 10 / 12:50 / L3
400 Oct 11 / 21:20 / C3 **495** Oct 12 / 17:00 / C3
617 Oct 13 / 09:40 / L7

퇴사와 임신, 은주(김슬기)에 관해 아는 전부가. 아무런 의지나 기대가 없는 듯한 은주는 한 달 농번기 아르바이트를 해보라는 선배 창호(우지현)의 제안을 받고 농촌으로 향한다. 탈곡하고 남은 벼짚을 정돈하고, 소를 돌보고, 농촌의 거친 새내들과 둘러앉아 밥 먹고, 시시하고 불편한 대화를 짧게 나눈다. <베일러>에는 사건이랄 게 없다. 뭔가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자연의 순리, 자연스러운 발생에 가깝다. 송아지의 탄생, 개와 고양이의 출현, 새벽 연무, 저녁노을, 까마득한 밤, 질푸른 어둠, 매일의 일터인 논밭. 생과 사의 흔적과 시간의 순순한 흐름 속에 농촌 노동자들의 피로한 육체만이 덩그러니 남았다. 은주와 창호 사이에는 딱 질라 설명할 수 없는, 아스라하고 위태로운 마음의 풍경이 스쳐 간다. 고요한 화면에는 인간의 무던한 노동이, 그 쓸쓸한 몸짓, 고독의 시간이 공기처럼 배어 있다. 이와중에 자연은 알 바 아니라는 듯 아름다워 방정하다. (정지혜)

Quitting her job and being pregnant - that's the sum of what we know about Eunju (Kim Seul-ki). Seemingly without much desire or expectation, Eunju heads to the countryside at the suggestion of Changho (Woo Ji-hyeon), who proposes a month of seasonal farm work. She tidies up rice straw left over from threshing, tends to cattle, sits down to eat with rough-hewn men of the countryside, and exchanges brief, trivial, awkward conversations. There is little in the way of incident in *BALER*. If anything does happen, it simply arises as part of the natural order of things: the birth of a calf, the appearance of a dog and a cat, dawn mist, the evening glow, fathomless night, deep blue darkness, the rice paddies and fields of everyday labor. Amid the traces of life and death and the steady passage of time, only the weary bodies of rural laborers remain. Between Eunju and Changho drifts a faint, precarious landscape of feeling that resists any clean explanation. In the quiet frames, the steady labor of human beings - its lonely gestures, its hours of solitude - seems to permeate the very air. All the while, nature remains indifferent, its beauty almost cruel. (JEONG Jihye)



Beyond Love's Horizon

사랑의 지평선 너머로

Korea | 2026 | 96min | DCP | color/b&w
Director **PARK Songyeol 박송열**

WP

323 Oct 10 / 19:30 / L3	405 Oct 11 / 22:10 / C4
503 Oct 12 / 20:20 / C5	584 Oct 13 / 17:20 / C3
704 Oct 14 / 10:00 / L7	

가게를 폐업한 태영(박송열)과 주미(원향라) 부부는 막막하다. 그러던 차에 기적처럼 새 생명이 찾아왔다. 임신, 출산, 양육, 돌봄의 길은 생각보다 험난하고 고되다. 극도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느끼는 부부는 허둥대고 어긋나며 빠그덕대고 미끄러지길 거듭한다. 그럼에도 아이는 절대적인 행복이다. 삶이 곧 창작의 뿌리가 돼온 박송열, 원향라 커플이 연애와 결혼을 거쳐 새 가족을 맞는 대견함에 이르렀다. 전작들에 비해 서사와 형식은 완만하고 단순하지만, 그들 영화에서 본 적 없는 다양한 형식의 영상과 흑백과 컬러의 혼용은 아이의 탄생에 따른 낯선 경험과 감각의 방종으로 보인다. 상당한 에너지를 요하는 육아는 이들 영화의 가장 긴급한 질문, 압도적 현실임을 영화가 온몸으로 말한다. 힘에 부치지만, 난처하고 딱하지만, 타협은 없다. '계속해 보겠다'고 하는, 이것은 영화로 쌓고, 이는 자기 선언, 힘찬 사랑의 세레나데, 씩씩한 합창이다. (정지혜)

Taeyoung (Park Songyeol) and Jumi (Won Hyangra), a married couple who have closed down their shop, are at a loss. Then, like a miracle, new life arrives. The road through pregnancy, childbirth, childrearing, and caregiving proves far more grueling and arduous than expected. Overwhelmed by extreme physical and mental exhaustion, the couple fumbles, falters, stumbles, and slips again and again. And yet, their child is pure, absolute joy. For Park Songyeol and Won Hyangra, whose lives have always been the wellspring of their creative work, dating and marriage have now led to the momentous event of welcoming a new member into their family. Compared with their previous works, the narrative and form are more relaxed and straightforward, but the variety of visual styles previously unseen in their films, along with the interplay of black-and-white and color, seems to attest to the unfamiliar experiences and sensations brought on by the birth of their child. The film declares with its entire being that childrearing, which demands tremendous energy, is the most urgent question and overwhelming reality in their cinema. However overwhelming, awkward, and difficult it may be, there is no compromise. It is a declaration of self that is built and carried forward through film, a vigorous serenade of love, and a spirited chorus proclaiming, 'We will keep going.' (JEONG Jihye)



The Birds

새

Korea | 2026 | 139min | DCP | color
Director **SOHN Hyun-lok 손현록**

WP APM 2024 선정작

307 Oct 10 / 12:30 / C5	424 Oct 11 / 18:10 / L3
583 Oct 13 / 13:20 / C3	684 Oct 14 / 09:40 / L2

홀로 남매를 키우는 중년의 교사 예옥(강경현)은 근무하는 학교 옥상에서 학생들의 추락사를 목격한다. 그 현장에 딸 혜정(심수빈)도 있었음을 알고 추궁해 보지만, 혜정은 '하늘에 새가 있었다'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원인 모를 이상한 죽음이 계속되자 예옥은 사건의 취재 기자, 새 탐조 채널을 운영하는 스트리머와 함께 새들의 서식지로 향한다. SF 환상극 <새>의 추락하는 인간은 설명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에 무력하게 이끌리듯, 불가해한 물질에 취하고 현혹되리라도 한 듯, 절로 낙하하고, 맥없이 부유한다. 이 기막힌 사건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무자비하고 잔혹한 이 세계의 작동과 생리에 대한 반영, 그것을 향한 과격한 일격에 가깝다.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멜랑콜리하고, 환상과 환시를 경유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고 그 자신이 될 수 없는 세계란 낯설고 비통하다. (정지혜)

Yeok (Kang Kyunghun), a middle-aged teacher raising a son and a daughter alone, witnesses students fall to their deaths from the rooftop of the school where she works. Discovering that her daughter Hyejeong (Sim Su-bin) was also present at the scene, she presses her for answers, but Hyejeong only repeats the same words: 'There was a bird in the sky.' As the strange, unexplained deaths continue, Yeok, together with a reporter covering the case and a streamer who runs a birding channel, head towards the birds' habitat. In the SF fantasy drama *The Birds*, falling humans seem helplessly drawn by some overwhelming, inexplicable force, as if intoxicated and entranced by a mysterious substance, plunging of their own accord and drifting listlessly. This astonishing phenomenon is not merely temporary, but a reflection of the merciless and brutal logic of this world - and, at the same time, a fierce assault on it. Strange and sorrowful is a world in which adults and children alike are steeped in melancholy, unable to endure or even be themselves without recourse to fantasy and hallucination. (JEONG Jihye)



Cosmic Trace

우주의 흔적

Korea | 2026 | 106min | DCP | color
Director **JANG Woojin 장우진**

WP

309 Oct 10 / 19:30 / C5	498 Oct 12 / 16:00 / C4
604 Oct 13 / 20:00 / L3	663 Oct 14 / 15:00 / C1



Earbug

귀벌레

Korea | 2026 | 84min | DCP | color
Director **KIM Hyomi 김효미**

WP

209 Oct 09 / 19:10 / C5	422 Oct 11 / 12:10 / L3
591 Oct 13 / 13:40 / C5	669 Oct 14 / 10:20 / C3

유티브 보조 PD 현지(장세림)와 무명 배우 지현(강승호)은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떠안고 동거를 이어간다. 여가에 현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지현 어머니의 시한부 암 판정이 이어지자 막막해진다. <우주의 흔적>에서 죽음, 혹은 그 직전의 상태는 누군가의 한 세계, 우주가 소멸하고 남긴 흔적, 사그라들며 만들어 내는 생의 생생한 자국에 가깝다. 작디작고 미세한 먼지라도 같은 생사의 흔적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가에 분명히 있는 가시적이며 동시에 비가시적인 상태에 가깝다. 이 세계의 시작과 끝은 명확하지 않다. 우연과 필연, 찰나와 영원, 현실과 환상은 연속되고 중첩되며 포개질 뿐이다. 그것을 영화의 언어로, 영화라는 물질로, 영화 세계의 사정각적 방식과 효과로 섬세하게 세공해 냈다. 일상이라는 SF, 일상의 SF가 여기 있다. (정지혜)

Hyeonji (Jang Serim), an assistant producer for a YouTube channel, and Jihyeon (Kang Seung-ho), a struggling actor, continue living together while grappling with anxieties about the present and the future. When Hyeonji's father dies suddenly and Jihyeon's mother is diagnosed with terminal cancer, they find themselves overwhelmed. In *Cosmic Trace*, death - or the state just before it - is akin to what remains as someone's world, their own universe, disappears: the vivid marks left by a life as it fades away. These traces of life and death, tiny and fine as dust, may be invisible to the eye, yet they undeniably exist somewhere, hovering between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The beginning and end of this world are never clearly marked. Coincidence and necessity, the fleeting moment and eternity, reality and fantasy flow into one another, overlapping and layering upon each other. The film delicately shapes all of this through cinematic language, the materiality of film itself, and the audiovisual textures and effects of cinema. Here is the everyday as science fiction, and science fiction in the everyday. (JEONG Jihye)

스물여섯 소설가 지망생 정연은 첫 소설 쓰기를 시도하지만 쉽지가 않다. 절대적이고 진실한 사랑을 찾아 지구에 온 외계인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렇게까지 꼭 막힌 데는 정연 자신이 사랑을 모르나도 자책하기 때문이다. 반면, 화가인 동창 나정은 순조로이 개인전을 준비해 간다. 김효미의 격정적이고 기묘한 상상력이 돋보이는 데뷔작 <귀벌레>는 창작자의 열매감과 열등감, 질투와 불안, 자기 의심과 피해 의식이 강력한 파열음을 내며 내적 변신과 변모, 해방의 순간에 이르는 기세 좋은 애니메이션이다. 모리스 라벨의 『볼레로』를 비롯해 이 영화의 음악과 사운드는 정연의 귀를 간질이고 자극해 외면해 온 불편한 진실, 피하고 싶은 순간, 불안한 세계와 접속하며 전환의 계기에 이른다. 분방한 에너지가 넘실대는 이색 환상극이다. (정지혜)

Jeongyeon, a twenty-six-year-old aspiring novelist, tries to write her first novel, but struggles to make progress. It's a story about an alien who comes to Earth in search of absolute, true love - and the reason she's so thoroughly stuck is that she blames herself for not knowing what love is. Meanwhile, her old classmate Najeong, a painter, is having no such trouble preparing for her solo exhibition. *Earbug*, Kim Hyo-mi's debut feature, showcases her fierce and idiosyncratic imagination in a spirited animation where feelings of failure and inferiority, jealousy and anxiety, self-doubt and a sense of grievance erupt with explosive force, propelling Jeongyeon toward a moment of inner transformation, metamorphosis, and liberation. The film's music and sound - including Maurice Ravel's *Boléro* - tease and unsettle Jeongyeon, connecting her to uncomfortable truths she has long turned away from, moments she would rather avoid, and an anxious world, ultimately becoming a catalyst for change. It is a distinctive fantasy brimming with unrestrained energy. (JEONG Jihye)



The Flower

화곡사

Korea | 2026 | 71min | DCP | color
Director **KIM Si-jin 김시진**



223 Oct 09 / 19:10 / L3 **501** Oct 12 / 13:20 / C5
593 Oct 13 / 19:40 / C5 **705** Oct 14 / 12:40 / L7

화정터의 이 소장은 화장 일을 하며 망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일로 평생을 보냈다. 이제는 자신이 떠나야 할 시간임을 직감하고 오랫동안 일한 화정터를 찾았지만, 그를 반기는 이가 마땅히 없다. 그러던 와중에 갑작스레 죽음에 이른 이 소장. 기막히게도 그의 시신은 아무리 화장하려 해도 도무지 타지 않는다. 김시진 감독의 데뷔작 <화곡사>는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 드러나는 인간 군상의 별건 민낯, 악다구니와 이진투구, 해소되지 않은 과거의 기억에 관한 진중한 드라마이다. 특하나 영혼이 되어서라도 다시 만나길 소망하며 사랑하는 이를 향해 보내는 이 소장의 절절한 마음은 영화의 감성적 밀도를 한층 끌어 올린다. 무엇보다 스톱모션 기법으로 한땀 한땀 세공한 실력 또한 대단하다. 이 소장처럼 장인의 성실함과 우직함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에서 호감이 배가된다. (정지혜)

Mr. Lee, the director of a crematorium, has spent his entire life working there, seeing the dead off on their final journey. Now, sensing that his own time to depart has come, he returns to the crematorium where he worked for so long, only to find no one particularly glad to see him. In the midst of all this, Lee himself suddenly dies. Astonishingly, no matter how they try to cremate his body, it simply will not burn. *The Flower*, director Kim Si-jin's debut feature, is a solemn drama about the raw, ugly sides of people laid bare in the face of death, bitter quarrels and vicious infighting, and unresolved memories of the past. In particular, Lee's aching longing for his beloved, whom he hopes to meet again even if only as a spirit, deepens the film's emotional intensity. Above all, the painstaking craftsmanship of the stop-motion animation is remarkable. The animation is all the more endearing for the way it conveys the same diligence and steadfastness embodied by Mr. Lee himself. (JEONG Jihye)



Not for You

당신을 위한 것은 아닌

Korea | 2026 | 122min | DCP | color
Director **SHIN Dongmin 신동민**

WP 2026 ACF 후반작업지원펀드 지원작

221 Oct 09 / 12:40 / L3 **409** Oct 11 / 19:00 / C5
514 Oct 12 / 15:40 / L3 **712** Oct 14 / 09:40 / L9

은우(심은우), 승우(강승우), 윤영(조윤영)은 자살 사별자 자조 모임에서 만났다. 가까운 이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는 이들은 종종 함께 시간을 보낸다. 승우의 돌아가신 아버지를 뿌렸다는 한탄강에도 같이 가보고, 윤영의 생애 첫 독립에 힘을 보태며 이사를 돕기도 한다. 떠나간 이들이 있었기에 만나게 된 이들이다. 신동민 감독은 죽음에 관한 내밀한 자전적 경험을 창작의 원류, 답하지 못한 질문으로 삼고 환혼의 영화를 만들었다. <당신을 위한 것은 아닌>은 중심을 좀 더 옮겨, 이곳에 없는 '당신'이 아니라, 이곳에서 '당신'을 떠나보낸 이들의 시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고자 한다. 그들의 내밀한 목소리를 온전히 경청하기 위해 정중히 자리를 마련한다. '당신'이라는 영원한 미스터리로 가닿기 위해, 지금 이곳의 나에서 시작되는 고백, 수신인과 발신인이 같은, 길고 긴 편지처럼. (정지혜)

Eunwoo (Sim Eunwoo), Seungwoo (Kang Seungwoo), and Yunyoung (Jo Yunyoung) met at a support group for survivors of suicide loss. Having each experienced the loss of someone close to them, they often spend time together. They visit the Hantan River together, where Seungwoo's late father's ashes were scattered, and help Yunyoung move into her first place of her own. It was those they lost who brought the three of them together. Director Shin Dongmin has long drawn on his intimate, autobiographical experiences of death as both a source of creation and a set of unanswered questions, making films that summon the departed back to life. *Not for You* shifts the focus slightly, lingering not on the 'you' who is no longer here, but on the time lived by those who remain here after letting 'you' go. The film respectfully makes space for their innermost voices to be fully heard. A confession that begins with the 'I' of the here and now, reaching toward the eternal mystery that is 'you.' Like one long, long letter whose sender and recipient are one and the same. (JEONG Jihye)



FULL MOON

풀문

Korea | 2026 | 96min | DCP | color
Director **JEONG Jihye 정지혜**

WP

308 Oct 10 / 16:20 / C5 **421** Oct 11 / 09:00 / L3
587 Oct 13 / 14:00 / C4 **708** Oct 14 / 10:00 / L8

중학생 헤미(정민주)는 학교 댄스팀에서 센터를 차지해 빛나고 싶다. 하지만 정월대보름 축제 때, 무대 위에서 의상 사고가 벌어지면서 자신만만하던 헤미의 세계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가까운 친구들과 서먹해졌고,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이 몰랐으면 해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해온 부모의 존재가 만천하에 드러날 위기다. <풀문>은 사춘기 10대 소녀가 철저히 외면하고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가장 연약한 내면과 그와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알아봐 주길 바라는 열망의 다른 연이 맞붙어 생의 첫 균열을 내는 순간을 그린다. 상실의 맛은 씁쓸하고, 혼란은 야속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다. 달이 기울고 다시 차오르듯, 생각지 못한 우정을 발견하고, 영역 이해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어른들의 세계와도 다정한 마음을 교신한다. 군더더기 없는 정갈한 촬영, 친밀한 언어와도 같은 음악이 영화를 풍성하게 꽉 채운다. (정지혜)

Middle schooler Hyemi (Jung Minju) longs to shine as the center of her school dance team. But when a costume mishap occurs on stage during the Jeongwol Daeboreum (Great Full Moon) festival, cracks begin to spread through Hyemi's once self-assured world. She grows distant from her close friends, and worse still, the existence of her parents - a secret she has kept to herself, hoping the world would never find out - is now in danger of being exposed to everyone. *FULL MOON* captures the moment when two opposing impulses within an adolescent girl collide - the desire to turn away from and conceal her most vulnerable self, and the longing to be seen and recognized by the world - opening the first crack in her life. The taste of loss is bitter, and the confusion cruel, but this is not the end. Just as the moon wanes only to wax again, she discovers an unexpected friendship and forms a tender connection with the adult world she once thought she could never understand. Clean, unembellished cinematography and music that feels like an intimate language richly fill out the film. (JEONG Jihye)



Nothing Has Happened Yet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Korea | 2026 | 98min | DCP | color
Director **SHIN Sun 신선**

WP

220 Oct 09 / 09:20 / L3 **408** Oct 11 / 15:50 / C5
515 Oct 12 / 19:20 / L3 **577** Oct 13 / 19:00 / C1

은율(박한빛)은 자신에게 다가올 일들을 미리 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지녔다. 고향인 거제도도에 있는 어떤 벤치에 앉을 때면 가능하다. 전 애인이 준 로베르트 발자의 『산책자』를 들고 은율은 고향을 찾았다. 그곳에서 선배 민정(강소이)과 그의 연인 지근(하성국), 은율에게 깊은 상처로 남은 이와 낯선 여행자를 만나며 자신과 마주한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의 벤치는 지극히 평범한 사물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그곳이 예지의 장소가 될 수 있다면, 고개를 돌려 주변을 둘러보고, 불가해한 자연 속으로 어슬렁대며 들어서고, 자처해 길을 비켜나 보려는 산책자의 기질, 사선, 그 마음의 작동에서 비롯된 것이라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고 위안이여 가능성안기를 의연히 타진해온다. (정지혜)

Eunyl (Park Hanbitnara) possesses a special ability to glimpse what lies ahead for her - but only when she sits on a certain bench on her home island of Geoje. Carrying Robert Walser's *The Walk*, a gift from an ex-lover, Eunyl returns to her hometown. There, she meets her senior Minjeong (Kang Soyi) and Minjeong's partner Jigeun (Ha Seong-guk), someone who remains a painful memory for Eunyl. A stranger alone travels through. And in these encounters, she comes face to face with herself. The bench in *Nothing Has Happened Yet* may well be nothing more than the most ordinary of objects. If it can become a place where the future can be glimpsed, perhaps that possibility arises from the temperament, gaze, and inner workings of a walker - someone who turns to look around, ambles into the unknowable natural world, and deliberately steps off the path. The film calmly and steadily probes just how fortunate, how comforting, and how full of possibility it is that nothing has happened yet. (JEONG Jihye)



Some Detective

모종의 탐정

Korea | 2026 | 85min | DCP | color/b&w
Director **KIM Miyoung 김미영**

WP 2026 ACF 후반작업지원펀드 지원작

207 Oct 09 / 13:00 / C5	423 Oct 11 / 15:10 / L3
603 Oct 13 / 17:00 / L3	727 Oct 14 / 10:40 / BCM



Space

스페이스

Korea | 2026 | 140min | DCP | color
Director **PARK Hong-min 박홍민**

WP

320 Oct 10 / 09:00 / L3	502 Oct 12 / 16:20 / C5
602 Oct 13 / 13:00 / L3	709 Oct 14 / 12:50 / L8

작가 해주(이유하)는 탐정이 나오는 추리 소설을 처음 쓰려 하지만 생각처럼 잘되지 않는다. 그러던 중 전남편 태재(박종환)의 어머니로부터 연락을 받고 외출에 나서고, 이때부터 낯선 여정이 시작된다. 해주의 과거 인연들이거나 현재 해주가 맺고 있는 관계에서 비롯된 만남의 연속이다. 그것은 애초의 목적과는 무관한, 그로부터 꽤 많이 비껴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 애인과 만나기로 한 날, 정작 애인은 못 보고, 그의 아들 율이(유명조)와 애인의 친구 종이(최화정) 등과 만나 뜻밖의 시간을 보내는 식이다. <모종의 탐정>은 해주를 앞세워 그야말로 모종의 탐정처럼 군다. 잊고 있던 과거, 오만한 사실, 자기 확신이 만들어 낸 흔적과 조우하며 소설 쓰기를 잠시 멈춘 해주의 심연을 탐문해 나간다. 술술 넘어가고, 물 흐르듯 흘러가는 컷의 운용, 편집의 리듬감이 탐정의 기쁜 발걸음, 맞춤형 보폭 같다. (정지혜)

Writer Hye-joo (Lee Yuha) is trying her hand at a detective novel for the first time, but things aren't going as she'd hoped. One day she receives a call from the mother of her ex-husband Tae-jae (Park Jong-hwan) and sets out, beginning an unfamiliar journey. What follows is a series of encounters, some with people from Hye-joo's past and others arising from relationships in her present. These encounters may have little to do with her original purpose, taking her far off course. On a day she is supposed to meet her boyfriend, for instance, she never sees him and instead finds herself spending time with his son Yul-i (Yoo Myungjo) and his friend Jong-i (Choi Heejin). With Hye-joo leading the way, *Some Detective* itself takes on the role of a detective of sorts. Following clues from a forgotten past, mistaken assumptions, and traces left by Hye-joo's own convictions, the film probes the depths of a woman who has temporarily set aside her writing. The smooth, effortless flow of the cuts and the rhythm of the editing recall a detective's light footsteps, each stride perfectly measured. (JEONG Jihye)

하나, 소연(한혜지)과 정호(박종환)는 살림은 넉넉하지 않지만 살가운 연인이다. 하지만 아이를 갖자는 정호의 말에 소연의 몸은 허물어진다. 둘, 사업에 실패한 아버지 인철(박노식)과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아들 진우(김주영)가 팽팽히 맞서다 진우가 집을 박차고 나간다. 셋, 정호는 어렵사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자넬 곳이 마땅치 않은 진우는 돈을 벌고, 빌리고, 받아내기 위해 여기저기 기웃댄다. <스페이스>는 세 개의 에피소드가 독립적이면서도, 동일 인물들이 다른 에피소드에 얼마간 출현하고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느슨하고 유기적으로 이어져 공명한다. 이때 '스페이스'는 인물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장소, 인물 관계에 대한 은유, 신경전과 대치의 현장, 끝끝내 혼자가 돼 인식에 이르는 삶의 최후 보루이다. 장소이자 세계, 세계로서의 장소에서는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인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알다가도 모를 의문스러운 인간들이 출몰한다. 느닷없는 출현에 얼얼해질 것이다. (정지혜)

One: Soyeon (Han Hye-ji) and Jeongho (Park Jong-hwan) are a loving couple, though money is tight. But when Jeongho suggests having a child, Soyeon's body begins to break down. Two: Incheol (Park No-sik), a father whose business has failed, and his financially strapped son Jinwoo (Kim Joo-young) face off in a tense confrontation until Jinwoo storms out of the house. Three: Jeongho struggles to keep his restaurant running, while Jinwoo, with nowhere proper to stay, drifts from place to place, trying to earn money, borrow it, or collect what he is owed. *Space* consists of three self-contained episodes that are nevertheless loosely and organically connected, with the same characters appearing across episodes and leaving their mark on each, creating a sense of resonance between them. Here, 'space' is at once the concrete place where the characters live, a metaphor for their relationships, a site of tension and confrontation, and the final refuge where one ultimately finds rest alone. In this place that is also a world - this place-as-world - unreal and surreal events unfold as if they were perfectly ordinary, and inscrutable characters emerge out of nowhere. These sudden appearances will leave you reeling. (JEONG Jihye)



Things I Left at the Theater

극장에 두고 온 것들

Korea | 2026 | 117min | DCP | color
Director **PARK Kun-young 박근영**

WP

322 Oct 10 / 16:00 / L3	407 Oct 11 / 12:20 / C5
586 Oct 13 / 10:20 / C4	713 Oct 14 / 12:50 / L9

영화비평가 도경(기도영)은 옛 친구의 부고 소식을 뒤늦게 접한다. 마침, 강원도의 한 오래된 극장이 철거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다. 이 두 가지 일이 왠지 다르지 않게 느껴진다. 도경은 비평가로서 여가지기 돌아다니며 알하는 외중에 죽은 친구의 단편영화를 수소문하고 그 영화가 상영됐을 법한 극장과 상영 공간을 찾아간다. <극장에 두고 온 것들>은 커다란 상실과 그 이후의 시간에 관해 진지하고 사려 깊게 그려온 박근영의 미더운 신작이다. 유실되고 시효가 지난 물질이자 가치로서의 영화, 장소이자 기억으로서의 극장, 그 안에 부지불식간에 가입되고 스민 시간, 그 비물질적 역사에 관한 깊은 존중과 진한 그리움이 도경을 움직이고, 영화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다른 무엇도 아닌 영화이기에 가능한 방식으로, 사라진 존재들을 이곳에 불러낸다. (정지혜)

Film critic Dogyeong (Gi Doyeong) belatedly learns of an old friend's death. As it happens, this comes not long after the demolition of an old theater in Gangwon Province. Somehow, the two events do not feel all that different to her. As her work as a critic takes her from place to place, Dogyeong searches for her late friend's short film and visits theaters and screening spaces where it might once have been shown. *Things I Left at the Theater* is an assured new work from Park Kun-young, who has thoughtfully and earnestly portrayed profound loss and the time that follows it. Cinema as a material form and a value that have been lost and rendered obsolete; the theater as both place and memory; the layers of time imperceptibly inscribed in and absorbed by it - Dogyeong is driven by a deep respect and profound longing for this immaterial history, and that same impulse carries the film forward. In a way possible through cinema and cinema alone, the film summons back into being those who have vanished. (JEONG Jihye)



A Window on Asian Cinema

아시아영화의 창

아시아의 중견감독들과 신인감독들의 다양한 시각과 스타일을 엿볼 수 있는 화제작을 소개한다.

최근 아시아영화의 주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Experience the diverse styles and visions of Asian cinema through masterful works from acclaimed auteurs and emerging talents, capturing the spirit of contemporary Asian filmmaking.

WP World Premiere

IP International Premiere



싸꾼은 어머니가 곧 돌아가실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언을 듣는다. 방법은 하나. 하루 동안 여가의 사원을 방문해 공양을 올리면 최고의 공덕을 쌓을 수 있고 어머니도 오래 살 수 있다. 싸꾼은 가족들을 불러 모아 어머니를 모시고 길을 나선다. 그러나 정작 연로한 어머니가 금세 지쳐 포기해 버리고, 초조해진 가족들은 어떻게든 여정을 이어가기 위해 고민에 빠진다. 오랜 기간 아피차pong 위라세타쿤의 조연출로 활동해 온 솜팟 칠팔손퐁의 첫 장편 극영화로 칸영화제 감독주간에 초청됐다. 다큐멘터리 전작 <철길 위의 인생> (2016)에서 보여준 태국 사회에 대한 내밀한 관찰력이 극영화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세대와 개인에 따라 서로 다른 삶의 가치관과 종교에 대한 태도, 응축된 감정이 조금씩 불협화음을 빚어내지만, 그럼에도 가족 간의 유대는 이들의 여정을, 그리고 이 영화를 끝까지 끌고 가는 힘이 된다. (부경환)

Sakol receives a grim prophecy that his mother may soon die. There is only one way to save her: visit nine temples and make offerings in a single day, earning the greatest possible merit and, in turn, extending her life. Sakol gathers the family and sets off with his mother. But their journey soon hits a snag when his elderly mother becomes exhausted and can go no further. Anxious to find a way to continue, the family begins to search for a solution. This debut feature by Sompot Chidgasornpongse, who has served as an assistant director on many of Apichatpong Weerasethakul's films, was selected for the Directors' Fortnight at the 2026 Cannes Film Festival. His intimate observation of Thai society, already evident in his previous documentary *Railway Sleepers* (2016), carries over naturally into his fiction debut. Differences in outlook on life and attitudes toward religion, along with emotions that have built up over time, gradually create friction among the family members. Yet through it all, the bonds of family become the force that carries their journey - and the film itself - through to the end. (BOO Kyunghwan)

9 Temples to Heaven

천국으로 가는 아홉 사원

Thailand/Singapore/France/Norway/China/Hong Kong, China/Indonesia/Qatar | 2026 | 141min | DCP | color

Director **Sompot CHIDGASORNpongse** 솜팟 칠팔손퐁

칸영화제 감독주간

069 Oct 07 / 18:00 / BCM **144** Oct 08 / 13:20 / L7
500 Oct 12 / 09:20 / C5 **589** Oct 13 / 20:00 / C4



About an Intimate Matter

사적인 일에 관하여

India/United States/United Kingdom | 2026 | 95min | DCP | color

Director **Sandeep Kumar PAUL** 산디프 쿠마르 폴

WP

125 Oct 08 / 14:40 / L3 **290** Oct 10 / 18:40 / C1
668 Oct 14 / 19:40 / C2



Big Little Things

나의 사소하고도 큰 일들

Hong Kong, China/United States | 2026 | 109min | DCP | color

Director **Michelle ZHOU** 미셸 저우

베니스영화제 오리존티

108 Oct 08 / 20:00 / C4 **231** Oct 09 / 12:10 / L5
671 Oct 14 / 16:00 / C3

델리에서 대학을 마친 스와나는 콜카타로 돌아와 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친다. 학교에서는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파업 논의가 한창이지만, 스와나는 학생 교육이 우선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힌다. 어느 날 스와나는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이 부적절하다는 학부모의 고발로 학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스와나의 사생활이 도마 위에 오르자, 징계위원들은 그가 콜카타로 온 이유, 룸메이트 드리티와의 관계, SNS 사용 방식까지 모두 문제 삼는다. 사소해 보이던 문제가 스와나의 삶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사건으로 번져가는 극적인 전개는 여성의 취향과 옷차림이 얼마나 손쉽게 비난과 단속의 대상이 되는지를 예리하게 포착한다. 지극히 사적인 문제가 순식간에 이데올로기의 전장으로 뒤바뀌는 이 팽팽한 긴장을 관객은 눈을 떼지 못하고 지켜보게 될 것이다. (홍소인)

After graduating from university in Delhi, Swarna returns to Kolkata to teach at a secondary school. A discussion about striking for better working conditions for teachers is underway at the school, but Swarna opposes the idea, insisting that education for students should come first. Then one day, she is brought before the school's disciplinary committee after a parent files a complaint about a photograph she posted on Facebook. Her personal life is put under scrutiny, and the disciplinary committee members question everything from why she came back to Kolkata and her relationship with her roommate Driti to how she uses social media. The film's dramatic progression, in which a seemingly trivial matter grows into a huge incident that shakes Swarna's entire life, sharply captures how easily a woman's taste and clothing can become targets of criticism and control. As an extremely intimate matter is transformed into an ideological battleground in an instant, the taut tension will keep audiences riveted to the screen. (HONG Soin)

베이징에서 여자친구 리베이와 함께 사는 레이는 새해를 맞아 고향 하얼빈으로 돌아온다. 가족의 기대와 여자친구와의 관계 사이에서 갈등하던 레이는 부모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남자친구 행세를 할 남자를 집으로 데려가고, 가족들 앞에서 그와 커플 행세를 하기로 한다. 설상가상으로 리베이가 하얼빈에 나타나면서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레이는 선택의 기로에 선다. 자신의 행복 없이 희생하며 살아온 엄마와 그런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은 딸의 관계는 화생과 기대가 커질수록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진다. 영화는 가족 관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상적이지만 깊이 뿌리내린 갈등을 다루며, 가족의 의무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이의 긴장을 포착한다. 지극히 사적이면서도 보편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우리의 이야기. (홍소인)

Lei, who lives in Beijing with her girlfriend Li Bei, returns to her hometown of Harbin for the New Year. Torn between her relationship with Li Bei and her family's expectations, Lei brings a man home to pretend to be her boyfriend for her family. When Li Bei unexpectedly turns up in Harbin, the situation takes a turn, and Lei finds herself at a crossroads. Between a mother who has spent her life sacrificing her own happiness and a daughter who wants to live up to her mother's expectations, the greater the sacrifices and expectations, the more they cannot say. The film addresses the everyday yet deeply rooted conflicts within family relationships, capturing the tension between fulfilling one's familial obligations and living one's own life. An intensely personal story that nevertheless resonates universally - it is, in the end, our story. (HONG Soin)



Birds on Ice

빙판 위의 새들

India | 2026 | 86min | DCP | color

Director **Sahil H. SHAH** 사힐 H. 샤

WP

318 Oct 10 / 16:50 / L2 **397** Oct 11 / 12:20 / C3
670 Oct 14 / 13:00 / C3

히말라야 고원 라다크의 겨울, 얼어붙은 호수는 아이들의 아이스하키 훈련장이 된다. 어린 타시는 아이스하키를 누구보다 사랑하지만 스케이트 한 켤레조차 살 형편이 못 된다. 유목민인 부모를 기약 없이 기다리는 사이 결을 지키는 할아버지는 점점 늙어가고, 가장 가까운 친구와도 이별을 앞두고 있다. 사힐 H. 샤 감독은 여러 해 라다크를 오가며 주민들과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영화를 완성했다. 비전문 배우들의 꾸밈없는 몸짓과 생생한 라다크어 대사, 실제 국가대표 선수 파드마 초를의 출연은 라다크의 실제 삶과 영화를 강하게 이어준다. 영화는 꿈과 상실, 이별과 기다림의 시간을 묵묵히 통과하는 한 아이의 내면을 섬세하게 응시한다. 자신이 머물 자리와 앞으로 나아갈 길 사이에서, 그해 겨울, 소녀는 그렇게 성장한다. (채경환)

In winter, the frozen lake in Ladakh, a high-altitude region in the Himalayas, becomes an ice rink where children train for ice hockey. Young Tashi loves the sport more than anything, but her family cannot afford even a pair of skates. As she waits endlessly for her nomadic parents' return, her grandfather grows older, and her best friend is preparing to move away. Sahil H. Shah completed the film by building trusting relationships with local residents over the years. The unaffected performances of non-professional actors, vivid Ladakhi dialogues, and the appearance of Padma Chorol, a member of the Indian national hockey team, create a strong connection between the film and everyday life in Ladakh. *Birds on Ice* casts a delicate gaze on the inner world of a girl, quietly navigating dreams, losses, parting, and waiting. Between the place where she will remain and the road ahead, Tashi comes of age over the course of that winter. (CHAE Kyeong Hoon)



The Burning Giants

불타는 거인들

Thailand/Singapore/France/Netherlands | 2026 | 118min | DCP | color

Director **Phuttiphong AROONPHENG** 푸티퐁 아룬펩

베니스영화제 오리존티

030 Oct 07 / 12:00 / C4 **202** Oct 09 / 09:00 / C4
342 Oct 10 / 19:40 / L7 **545** Oct 12 / 16:00 / KT

정체를 알 수 없는 연기가 산속에 퍼지고 사람들은 피부가 붉어 탄 듯한 괴이한 질병에 시달린다. 정부는 감염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산간 마을에 사는 카렌족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집은 불태워버린다. 출입이 통제된 이곳에서 한 남성이 불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아와는 그가 실종된 남편임을 직감한다. 난민과 미군의 유산에서 각각 영감을 받은 <만타레이> (2018)와 <모리스> (2023)의 푸티퐁 아룬펩 감독이 이번에는 태국 사회의 주변화된 존재들에게 사선을 옮긴다. 승자와 권력자의 관점에서 각인된 서사 속에서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버려야 하는 이들의 소외와 상처를 바라보는 상징적 우화. 영화 후반, 마법과도 같은 <라마끼안> (힌두 대서사시 <라마야나>의 태국 버전) 가면극 공연으로 극이 전환되고 나면 또 다른 이야기 가 관객을 기다린다. (부경환)

A mysterious smoke spreads through the mountains, and people begin to suffer from a strange disease that leaves their skin seemingly scorched by fire. Under the pretext of containing the outbreak, the Thai government forcibly relocates the Karen villagers living in the highlands and burns their homes to the ground. When news arrives that a man has been captured in the restricted area, Aeva becomes convinced that he is her missing husband. Following *Manta Ray* (2018) and *Morrison* (2023), inspired respectively by the refugee issue and the legacy of the American military, Phuttiphong Aroonpheng turns his gaze to those marginalized within Thai society. *The Burning Giants* is a symbolic allegory that examines the alienation and wounds of people who are denied a voice and forced to abandon their own identities, within narratives inscribed by the perspectives of victors and those in power. In the film's latter half, the story takes a striking turn through a magical masked performance of *Ramakien* - the Thai adaptation of the Hindu epic *Ramayana* - opening the door to yet another story waiting to unfold. (BOO Kyunghwan)



Dhara

다라, 흘러감

Sri Lanka/Canada | 2026 | 117min | DCP | color

Director **Anuruddha JAYASINGHA** 아누룻다 자야싱하

WP

103 Oct 08 / 15:40 / C3 **199** Oct 09 / 15:40 / C3
580 Oct 13 / 16:20 / C2

군부대를 습격했다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스리랑카 반군의 사라다를 깊은 산속에서 젊은 승려 사미타가 구조한다. 사라다가 사찰에서 치료받는 동안 사라다와 사미타는 각자의 신념이 시험대에 오르는 경험을 한다. 반군 여성과 젊은 수도승,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려는 집단행동과 내면의 자유를 추구하는 개인의 참선, 생존을 위한 필수 욕구와 통제 불가한 욕망은 과연 한 공간에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아누룻다 자야싱하 감독은 내전과 행주의 위험으로 바깥이 삼엄한 중에 산사에 은둔 중인 인물들이 직면한 갈등과 파동을 몰입감 있는 작품으로 만들어냈다. 스리랑카의 자연을 담은 원경과 제한된 빛으로 촬영된 토굴 암자에서의 화면이 이처럼 짜임새 있게 아름다운 데는 촬영감독 크리스 세바스티앙 조이스의 공이 크다. (최은)

Deep in the mountains, Sharadha, a Sri Lankan rebel, is seriously injured after attacking an army base and is rescued by the young monk Samitha. While Sharadha recovers in the temple, she and Samitha find their respective beliefs put to the test. Can a rebel woman and a young monk, who embody collective action seeking freedom from oppression and an individual meditation in pursuit of inner freedom, essential needs for survival and uncontrollable desire, coexist in peace in the same space? Anuruddha Jayasingha transforms the conflicts and ripples experienced by the characters hiding away in the mountain temple, while the danger of the civil war and the threat of wild beasts lurk outside, into an immersive cinematic experience. The sweeping view of Sri Lanka's natural landscapes and the images of the cave temple filmed with limited sunlight are woven together beautifully, thanks in large part to the cinematographer, Chris Sebastian Joys. (CHOI Eun)



Diary of a Mad Old Man

미친 노인의 일기

United States | 2026 | 120min | DCP | color

Director **Wayne WANG** 웨인 왕

토론토영화제 갈라프레젠테이션

035 Oct 07 / 15:40 / C5 **137** Oct 08 / 21:50 / L5
467 Oct 12 / 10:00 / BH **682** Oct 14 / 16:40 / C6

할리우드에서도 아시아계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고 활약해 온 웨인 왕 감독의 신작이다. 70세 우츠기는 뇌졸중으로 왼쪽 신체가 마비되어 처제인 하나와 중국인 며느리 수수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 그러던 중 가족이 다같이 여름휴가를 떠나게 되자 자신은 수수와 둘이 집에 남아 있겠다며 고집을 부린다.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던 우츠기는 점차 수수가 자신에게 추파를 던진다고 믿게 되고, 그녀의 신체를 향한 미묘하고 관능적인 욕망을 느끼기 시작한다. 다나카지 준이치로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삼고 있는 <미친 노인의 일기>는 원작 속 탐미적인 페티시즘을 영화에 이식하고자 한다. 이 영화는 삶의 동력이 실은 추악하고 통속적인 순간 속에 깃들여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않는다. 특히 릴리 프랭키가 구현하는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노인의 욕망과 그것을 은근하고 신비롭게 받아주는 판빙빙의 연기는, 금기야말로 욕망의 진정한 얼굴이라는 점을 누설한다. (구형준)

This is the latest film from director Wayne Wang, who has built a career in Hollywood while remaining true to his Asian identity. Seventy-year-old Utsugi, left paralyzed on his left side by a stroke, is cared for by his sister-in-law Hana and his Chinese daughter-in-law Susu. When the rest of the family sets off together on a summer vacation, Utsugi insists on staying behind, alone in the house with Susu. Feeling diminished, Utsugi gradually comes to believe that Susu is flirting with him and begins to feel a subtle, sensuous desire for her body. Based on Tanizaki Junichiro's novel of the same name, *Diary of a Mad Old Man* seeks to translate the original novel's aesthetic fetishism into cinematic form. The film does not look away from the fact that the driving force of life resides in moments that are ugly and vulgar. In particular, Lily Franky's embodiment of the old man's palpable, undisguised desire and Fan Bingbing's subtly enigmatic performance in responding to that desire reveal that taboo is, in fact, the true face of desire. (GOO Hyeong Jun)



Elephants in the Fog

안개 속의 코끼리

Nepal/Germany/Brazil/France/Norway | 2026 | 108min | DCP | color

Director **Abinash Bikram SHAH** 아비나시 비크람 샤

칸영화제 주목할만한시선 심사위원상, APM 2021 선정작

162 Oct 08 / 19:00 / BCM **338** Oct 10 / 19:30 / L6
406 Oct 11 / 09:00 / C5 **552** Oct 12 / 15:00 / BCM

네팔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이 밤마다 야생 코끼리로부터 마을을 지키고 있다. 트랜스젠더 종교공동체인 '키나르'의 피라티 가족도 이 일에 동참했는데, 어느 날 피라티가 가장 아끼는 딸 압사라가 피라티와 디톤 후 야간 순찰을 나갔다가 숲에서 사라졌다. 숭배와 공포의 대상인 안개 속 코끼리처럼, 축복과 저주의 힘을 지녔다고 알려진 키나르의 삼 간숙한 곳으로부터 영화는 신성한 타지도 제3의 성도 아닌 단지 엄마와 여성이고 싶었던 사람들의 존엄을 스릴러 장르의 전율과 함께 길어 올렸다. 밀도 있는 시나리오와 실제 키나르 활동가인 푸스파 싱 라마의 꾸밈을 거둔 연기, 신비로운 영상과 음향이 조화로운 이 영화는 아비나시 비크람 샤의 첫 장편이며, 네팔 영화 최초로 칸 국제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 심사위원상을 수상했다. (최은)

In a Nepalese village, residents protect their homes from wild elephants every night. Pirati and her family are members of Kinnar, a religious community of transgender people, and they also join the night patrols. One night, after an argument with Pirati, her beloved daughter Apsara goes missing while out on patrol in the forest. Like the elephants in the fog, both revered and feared, Kinnar is believed to possess the power to bless and to curse. Delving deep into their lives, the film brings to light the dignity of people who wished to be nothing more than women and mothers - not sacred others nor a third gender - with the suspense of a thriller film. A densely woven script with real Kinnar activist Pushpa Thing Lama, whose unaffected acting comes together with mysterious images and sound in this debut feature by Abinash Bikram Shah, which became the first Nepalese film to win the Cannes Un Certain Regard Jury Prize. (CHOI Eun)



Four Seasons in Java

자바의 사계절

Indonesia/France/Netherlands/Norway/Saudi Arabia/Poland | 2026 | 137min | DCP | color

Director **Kamila ANDINI** 카밀라 안디니

토론토영화제 센터피스

066 Oct 07 / 19:10 / KT **121** Oct 08 / 15:50 / L2
254 Oct 09 / 10:00 / KT **534** Oct 12 / 16:30 / L8

페르티위(푸트리 마리노)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향한 공포심을 숨기지 않는다. 심지어 그녀의 부모님조차도 그녀를 받지 않는다. 페르티위가 살인을 저지르고 수감되었던 과거를 알기 때문이다. 괴물 취급 당하는 아웃사이더들이 모여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지만 진정한 평화를 위해 그녀는 두려운 과거와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한다. 카밀라 안디니 감독의 다섯 번째 장편 <자바의 사계절>은 아름다운 배경, 공들인 미장센과 극명히 대비되는 공동체의 위선과 낙약함을 드러낸다.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율바람이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제멋대로 해석된다. 이것이 어찌 그저 한 여성만의 문제겠는가. 폭력과 편견을 넘어 정의와 평화를 찾아가는 페르티위의 사계절이 영화적 상상력을 넘어 현실에서도 빛을 보길 바란다. (박성호)

Pertiwi (Putri Marino) returns to her hometown after twenty years but the villagers make no effort to hide their fear of her. Even her own parents do not welcome her back. It is because they know she once committed murder and served time in prison. Branded as monsters, she and her fellow outcasts come together to form a small community but true peace requires her to confront the frightening past head-on. Kamila Andini's fifth feature film, *Four Seasons in Java* reveals the hypocrisy and weakness of a community that obviously contrasts with its beautiful setting and careful mise-en-scène. The perpetrator becomes the victim and what is right gets interpreted however those in power please. How could this be just one woman's problem? I hope that four seasons of Pertiwi, a journey past violence and prejudice toward justice and peace, see the light of day in reality too and not only in cinematic imagination. (PARK Sungho)



Filipiñana

필리피냐나

Singapore/United Kingdom/Philippines/France/Netherlands | 2026 | 100min | DCP | color

Director **Rafael MANUEL** 라파엘 마누엘

선댄스영화제 월드시네마극영화 심사위원특별상(크리에이티브 비전), APM 2023 선정작

029 Oct 07 / 19:00 / C3 **126** Oct 08 / 18:00 / L3
262 Oct 09 / 15:40 / BCM **350** Oct 10 / 20:20 / L9
729 Oct 14 / 17:00 / BCM

마닐라 외곽의 호화 컨트리클럽. 이곳은 필리핀 사회에 질게 드러온 식민주의의 망령과 기형적인 계급 구조가 응축된 축소판이다. 골퍼들의 스윙 앞에 공을 놓는 '타겟'로 일하기 시작한 17세 소녀 이사벨은 클럽 총책임자 팔랑가 박사에게 묘한 감정을 느낀다. 한편, 사업가 레나토는 미국에서 온 조카 클라라와 라운딩을 하며 가업을 이어받으라고 집요하게 설득한다. 극심한 가뭄으로 물이 배급되는 바깥과 달리 페어웨이에는 물이 넘쳐나는 부조리 속에서, 이들의 얽힌 관계는 리조트가 감춰온 잔혹한 진실을 향한다. 베를린 단편 은곰상 수상작을 동영의 장편으로 확장한 라파엘 마누엘의 데뷔작으로, 지아장커가 총괄 제작을 맡았다. 올해 선댄스에서 주목받은 이 작품으로 감독은 필리핀 영화계의 새로운 재능으로 떠올랐다. 4:3 화면비에 담긴 치밀한 구도, 매혹적인 색채 대비, 정교하게 통제된 미장센은 강렬한 감각적 체험을 선사한다. (강동호)

A luxurious country club on the outskirts of Manila is actually a microcosm of Philippine society, with the lingering ghost of colonialism and a distorted class structure. Isabel, a 17-year-old girl who begins working as a 'tee girl,' placing golf balls for players to hit, feels strangely drawn to Dr. Palanca, the club's general manager. Meanwhile, businessman Renato plays a round of golf with his niece Clara, who is visiting from the United States, insisting that she take over the family business. Amid the absurdity of water overflowing on the fairway while it is rationed outside due to an extreme drought, the characters' relationships lead toward the brutal truth the country club is hiding. This debut feature by Rafael Manuel expands his short film of the same title, which won the Berlinale Silver Bear for Best Short Film. With Jia Zhangke as an executive producer, the film attracted attention at this year's Sundance, marking Manuel as a new talent in Philippine cinema. Meticulous compositions in the 4:3 aspect ratio screen, mesmerizing color contrast, and a delicately controlled mise-en-scène present an intense sensory experience. (KANG Dongho)



The Gate of Murder

살인의 문

Japan | 2026 | 127min | DCP | color

Director **KANAI Ko** 가나이 코

WP

158 Oct 08 / 18:20 / SH **260** Oct 09 / 10:00 / BCM
445 Oct 11 / 10:30 / L8 **680** Oct 14 / 10:00 / C6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칼을 꽂을 수 있을까?' 30년이라는 세월을 걸치며, 다지마와 어린 시절 친구 구라모치 사이에는 아둑고 뒤물린 관계가 펼쳐진다. 구라모치는 위기에 빠진 다지마를 번번이 구해주면서도, 뒤에서는 그의 인생을 망쳐온 장본인처럼 보이는 인물이다. 오랜 세월 굴욕을 겪으며 다지마의 의심과 살의는 점점 깊어지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폭력의 선을 넘기 직전까지 내몰린다. 히가시노 게이고의 베스트셀러 소설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에서 가나이 코 감독은 음산하고 서늘한 심리 스릴러를 선보인다. 인간의 사악한 이면을 미로처럼 펼쳐 보이는 영화는 오랫동안 쌓여온 원한과 비감함이 한순간의 살의보다 훨씬 더 끔찍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섬뜩한 긴장감의 중심에는 아마자키 켄토와 마쓰시타 코헤이의 팽팽한 연기 대결이 있다. 아마자키는 음흉한 속내를 매력적인 얼굴 뒤에 감춘 인물을, 마쓰시타는 거둬드는 배신에 서서히 무너져가는 남자를 강렬하게 연기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팽팽한 긴장을 이어가는 <살인의 문>은 '우정'으로 이어진 파괴적인 관계를 집요하게 파고드는 매혹적인 스릴러다. (구펑유안)

Would you drive a blade into your closest friend? Spanning three decades, a dark, twisted bond unfolds between Tajima and his childhood friend Kuramochi. Kuramochi repeatedly rescues Tajima from ruin, yet seems secretly responsible for sabotaging his life. As Tajima's suspicion and murderous intent fester over years of humiliation, he edges dangerously close to crossing the line into irreversible violence. Adapted from the bestselling novel by Higashino Keigo, director Kanai Ko delivers an exceptionally gloomy and chilling psychological thriller. The film expertly transforms humanity's sinister side into a visual maze, where slow-burning resentment and cowardice prove far more terrifying than a fleeting impulse to kill. Central to its haunting power is the intense acting duel between Yamazaki Kento, exuding a deceptive charm masking sinister cunning, and Matsushita Kouhei, portraying a man unraveling under constant betrayal. Tense and unrelenting until its final frame, *The Gate of Murder* is a compelling thriller and a dark exploration of toxic 'friendship'. (GU Pengyuan)



A Girl Unknown

무명소녀

China/France | 2026 | 128min | DCP | color
Director **ZOU Jing** 짜우징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Gan재단배급상, 국제영화비평가연맹상

060 Oct 07 / 13:20 / L7 **124** Oct 08 / 11:30 / L3
513 Oct 12 / 12:20 / L3 **690** Oct 14 / 15:20 / L3

중국 시골 마을의 총명한 소녀 주안은 갑자기 아빠를 잃고 엄마와 단둘이 남는다. 엄마가 재혼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주안은 곧 도시의 메이슈양 집에 맡겨졌다. 다정한 메이슈양과 좀처럼 결을 주지 않는 그녀의 남편 사이에서 내내 걸돌던 주안은 이 부부가 수년 전 어린 딸을 잃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TV 다큐멘터리와 광고로 경력을 시작한 짜우징 감독은 린 주안이 중학생 왕 주안이 되고 우 리안이 되었다가 마침내 그녀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와 이름을 찾게 되는 여정을 담은 이 장편 데뷔작으로 칸 국제영화제 비평가주간에 진출했다. <바닷마을 다이어리> (2015)의 엔딩에서 바다가 보여준 넉넉한 품을 기억하는 관객에게 좋은 선물이 될 작품이다. (최은)

After suddenly losing her father, Lin Juan, a bright girl living in a rural Chinese village, is left alone with her mother. Rumors about her mother's remarriage begin to circulate, and Juan is soon sent to the city to live with Meishuang and her husband. Unable to find her place between the kindhearted Meishuang and her aloof husband, Juan learns that the couple lost their young daughter several years ago. Zou Jing, who began her career, making television documentaries and commercials, makes her debut in Cannes Critics' Week with her first feature film about Lin Juan's journey - she becomes Wang Juan in middle school, then Wu Lian, before finally finding the name and place that are rightfully hers. For audiences who remember the generous embrace of the sea in *Our Little Sister* (2015), this film will be a welcome present. (CHOI Eun)



Happily Ever After

오래오래 행복하게

Taiwan | 2026 | 95min | DCP | color
Director **Feng-I Fiona ROAN** 핑이 피오나 환

토론토영화제 스페셜프렌데이션

039 Oct 07 / 16:00 / C6 **136** Oct 08 / 18:30 / L5
553 Oct 12 / 18:00 / BCM

전혀 다른 성격의 두 자매, 키티와 클레어.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한 모범생 딸 키티는 직장에서의 승진을 앞두고 부유한 남자친구와 약혼까지 했다. 언니 클레어는 여자친구와 안정적 관계를 맺고 있고 작가로서 인정받기 시작했지만, 주류적인 삶과는 여전히 거리가 멀다. 키티는 모든 것을 가졌고 클레어는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을 향한 여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어느 날 버려진 고양이 한 마리가 그들의 삶에 들어오면서 자매의 마음 속 상처가 드러난다. 영화는 두 자매의 시선을 통해 행복의 의미를 탐구하며, 자신만의 행복을 정의하는 복잡한 과정을 섬세하게 그려낸다. 가족의 기대를 저버릴까 하는 두려움 속에서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키티를 연기한 K팝 그룹 아이돌 슈화의 연기는 새로운 배우의 탄생을 예견케 한다. (홍소인)

Kitty and Claire are sisters with completely different personalities. Kitty, the model student and their mother's favorite, is about to be promoted at work and is engaged to her wealthy boyfriend. Her older sister Claire is in a stable relationship with her girlfriend and has just begun to gain recognition as a writer, but remains far removed from a conventional life. Kitty seems to have everything while Claire appears to be struggling, but the path to happiness is not so simple. One day, when an abandoned cat enters their lives, the sisters' emotional wounds begin to surface. Through the sisters' eyes, the film explores the meaning of happiness and delicately portrays the complex process of defining it for oneself. Shuhua, a member of the K-pop group I-dle, plays Kitty, who takes steps toward happiness while grappling with the fear of letting her family down. Her performance heralds the emergence of a new acting talent. (HONG Soin)



Gu Shi

이야기, 이야기

United States/Hong Kong, China/Thailand | 2026 | 83min | DCP | color
Director **Amie SONG** 에이미 송

베니스영화제 비엔날레칼리지시네마

061 Oct 07 / 16:30 / L7 **200** Oct 09 / 19:20 / C3
418 Oct 11 / 14:50 / L2 **535** Oct 12 / 19:40 / L8

숲의 유령에게 기억을 넘겨주고 이야기를 얻는다. 누군가 포기한 기억은 숲의 소유가 되어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로 전달된다. 세계는 그렇게 기억과 이야기와 부질없이 보이는 날갯짓들이 모여 슬픔과 절망의 바다를 건지고 희망을 전하는 거라고, 에이미 송의 신비로운 영화가 말한다. 영화는 바다와 숲 사이 어느 오래된 집에 네 가족이 피난처를 찾아 들어오면서 시작된다. 누나가 악몽에 시달리며 긴 잠에 빠져드는 동안 남동생은 사고로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 기억을 잃는 유전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남매에게 부모는 반복되는 옛 이야기를 들려줄 뿐이다. 기억과 이야기를 맞바꾸어 건디는 세계라니, 고통과 재앙에 대한 시작이고 신화적인 묘사가 탁월하다. (최은)

Memories are given to the spirit of the forest in exchange for stories. The memories that someone relinquishes become the forest's, and are passed on to those who come to the forest. This magical film by Amie Song suggests that memories, stories, and seemingly futile flapping of wings all together help the world endure its sea of sorrow and despair and carry hope forward. *Gu Shi* begins with a family of four taking refuge in an old house somewhere between the sea and the forest. While the older sister, plagued by nightmares, sinks into a deep slumber, her younger brother suffers a head injury from an accident. To the siblings who appear to suffer from a hereditary illness that causes memory loss, all the parents can do is to tell them the same old stories again and again. A world where one endures by trading memories for stories - the film's poetic and mythical evocation of suffering and catastrophe is superb. (CHOI Eun)



Head to Head

눈에는 눈

Iran/Germany | 2026 | 80min | DCP | color
Director **Ghasideh GOLMAKANI** 가시데 골마카니

토론토영화제 디스커버리

044 Oct 07 / 10:00 / L3 **159** Oct 08 / 10:00 / BCM
261 Oct 09 / 13:20 / BCM **714** Oct 14 / 15:50 / L9

국제영화제에서 명성을 얻은 영화감독 바하르는 신작을 촬영하기 위해 남성 배우들에게 여성의 의상을 입어달라고 요청하고, 배우들은 국제적인 경력이나 이란을 떠날 비자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촬영에 합류한다. 그러나 무더위 속에서 히잡을 쓰고 여성스러운 움직임을 연출하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힘들고, 그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힌다. 촬영현장에 경찰까지 들어닥치면서 상황은 점점 꼬여가는데……. 가시데 골마카니는 이란 사회에서 여성들이 놓인 일상 속에 남성들이 들어가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연출한다. 황당한 상황에 웃음지던 관객들은 어느 순간 그것이 여성들이 매일 겪는 현실이라는 점을 자각하며 씁쓸해질 수 밖에 없다. 영화에 대한 영화이자, 여성의 현실에 대한 통쾌하면서도 날카로운 풍자가 돋보이는 매력적인 데뷔작. (홍소인)

Bahar, an internationally acclaimed female film director, asks male actors to dress as women for her new film. The actors join the production in hopes of launching international careers or securing visas to leave Iran. But wearing hijabs and adopting feminine mannerisms in the sweltering heat proves far more grueling than expected, taking a serious toll on their pride. When the police show up on set, the situation spirals further out of control... Ghasideh Golmakani places men in the everyday realities of women in Iranian society, creating situations that are as absurd as they are revealing. Audiences may initially laugh at the absurdity, only to arrive at a bitter realization: this is what women endure every day. Both a film about filmmaking and an exhilarating yet incisive satire on the realities women face, this is a captivating debut feature. (HONG Soin)



Hearing

조용히 귀 기울이면

Singapore/Vietnam/Norway/France/Indonesia/Saudi Arabia/
Cambodia/Thailand/Taiwan | 2026 | 120min | DCP | color
Director **LÊ BẢO 레바오**

로카르노영화제 국제경쟁

043 Oct 07 / 17:30 / L2	120 Oct 08 / 12:00 / L2
206 Oct 09 / 09:20 / C5	448 Oct 11 / 19:30 / L8

닌은 아내와 헤어지고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 가끔씩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지만 마음을 전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일은 쉽지 않다. 닌의 직업은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는 일이다. 소음이 어느 정도를 넘어서면 조영에 불이 들어온다. 마을 어귀에는 주민들의 사고장이자 해방구인 식당이 있다. 밤이 되면 이곳은 터져 나오는 소음과 푸른 불빛으로 물든다. 장편 데뷔작 <맛>으로 2021년 베를린영화제 인카운터 부문 심사위원특별상을 수상한 레바오 감독의 두 번째 작품. 소리를 측정하는 남자의 일상을 따라가며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쌓인 침묵과 거리를 응시한다. '듣는 것'을 내세우는 작품인 만큼 사운드 디자인도 훌륭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자로 잰 듯한 구도와 풍성하고 또렷한 색감으로 매 장면이 한 폭의 그림처럼 느껴지는 시각적 경험 역시 탁월하다. (부경환)

Ninh has separated from his wife and lives alone with his mother. He occasionally sees his wife and children, but finding a way to express his feelings and mend their relationship is not easy. Ninh installs noise meters. When the noise exceeds a certain level, a light comes on. At the edge of the village is a restaurant that serves as a gathering place and an escape for the local residents. At night, it is awash with bursts of noise and blue light. *Hearing* is the second feature by Lê Bảo, whose debut feature *Taste* won the Special Jury Award in the Encounters section at the 2021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Following a man whose job is to measure sound, the film gazes at the silence and distance that accumulate between those who love one another. As a film that puts 'hearing' front and center, its sound design is superb; equally striking is its visual experience, with precise, measured compositions and rich, vivid colors that make each frame feel like a painting. (BOO Kyunghwan)



In My Father's Room

아버지의 방

Japan | 2026 | 109min | DCP | color
Director **HARADA Maha 하라다 마하**

산세바스티안영화제 경쟁

004 Oct 07 / 09:20 / BH	439 Oct 11 / 19:00 / L6
592 Oct 13 / 16:40 / C5	

사이가 소원했던 아버지가 홀로 세상을 떠난 후, 박물관 직원 사토미는 의문의 열쇠 하나를 건네받고 아버지가 남몰래 간직해온 방을 찾아 나선다. 아버지의 마지막 날들을 되짚어가던 그녀는 시와 다도, 소박한 아름다움으로 채워진 세계를 서서히 발견한다. 일본을 대표하는 베스트셀러 작가 중 한 명인 하라다 마하의 장편 데뷔작으로, 박물관 큐레이터 출신인 감독의 이력이 심분 발휘되어 예술과 일상의 의례가 지닌 우아함을 생생하게 그려낸다. 오랜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아오이 유우는 마음을 어루만지는 깊이 있는 연기로, 멀어진 부녀가 뒤늦게 서로에게 다가가는 과정을 그린 애뜻한 서사에 단단히 중심을 잡는다. 고요한 다도처럼 <아버지의 방>은 관객에게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일상에 깃든 작은 아름다움을 바라보도록 권한다. 기억과 정체성, 소리 없이 이루어지는 재회를 차분하고 섬세하게 담아낸 작품이다. (구평유안)

When museum employee Satomi receives a mysterious key following her estranged father's solitary death, she embarks on a quiet journey to his hidden room. Retracing his final days, she slowly uncovers a world sustained by poetry, the art of tea, and subtle beauty. Marking the feature debut of Harada Maha, one of Japan's most celebrated authors, the film benefits immensely from her background in museum curation, drawing heavily on the tactile elegance of art and daily ritual. Aoi Yu makes a triumphant return to the screen, delivering a deeply healing performance that anchors this poignant narrative of distant emotional reconciliation. Much like a serene tea ceremony, *In My Father's Room* invites viewers to pause and observe the quiet beauty embedded in everyday life, unfolding as a delicate, softly spoken study on memory, identity, and silent reconnection. (GU Pengyuan)



In Winter

겨울 이야기

Kazakhstan | 2026 | 87min | DCP | color
Director **Yerlan NURMUKHAMBETOV, Nursultan NUSKABEKOV** 예를란 누르무함베토프, 누르술탄 누스카베크프

WP

014 Oct 07 / 16:00 / B2	218 Oct 09 / 16:00 / L2
667 Oct 14 / 16:20 / C2	

다섯 아이의 아빠인 물리 교사 가빗은 벅찬 생활 중에 우연히 아파트 마당의 눈밭에 묻힌 거액의 현금 자루를 발견한다. 은행 대출을 갚고 가족에게 비싼 의식과 선물을 사주는 등 그의 삶은 잠시 풍요로워지지만 돈의 출처를 둘러싼 불안이 그의 일상을 죄어 온다. <호두나무>로 2015년 BIFF 뉴커런츠상을 받고, 2019년 개막작 <말도독물, 시간의 길>을 선보였던 예를란 누르무함베토프 감독이 이번에는 직접 주연까지 맡았다. 눈 덮인 아스타나의 풍경은 가빗의 불안과 대비되고 뜻밖의 행운이 일상을 어떻게 뒤흔드는지 절제된 리듬으로 그려진다. 평범한 가정의 난처함과 범죄극의 초조함을 간조한 유머로 엮어내며 돈과 인간, 그리고 행복에 관해 질문을 던지는 영리한 코미디. 눈밭에서 파낸 행운의 창구서는 과연 얼마일까? (채경훈)

Gabit, a physics teacher and father of five, is struggling to make ends meet when he happens upon a bag containing a large sum of cash buried in the snow-covered field outside his apartment building. Suddenly his life becomes comfortable, with him repaying bank loans and treating his family to expensive meals and gifts. But anxiety over where the money came from soon begins to weigh on him. Yerlan Nurmukhambetov, whose film *The Walnut Tree* won the 2015 BIFF New Currents Award and whose other film *The Horse Thieves. Roads of Time* opened BIFF in 2019, takes on the lead role himself in the film. The snow-covered landscape of Astana sharply contrasts with Gabit's unease, while the film shows with restrained pacing how an unexpected stroke of luck can upend an ordinary life. With dry humor, this clever film weaves an ordinary breadwinner's predicament with the suspense and tension of a crime thriller, raising questions about money, human nature, and happiness. Just how much will that lucky find in the snow ultimately cost him? (CHAE Kyeong Hoon)



Khoriya

코리아

India | 2026 | 81min | DCP | color
Director **Vishwendra SINGH 비슈웬드라 싱**

WP

219 Oct 09 / 19:10 / L2	390 Oct 11 / 18:30 / C1
666 Oct 14 / 13:40 / C2	

도시 외곽에서 양계장을 운영하는 네팔 출신 이복형제. 형은 농장을 확장하려 하고, 동생은 군인이 되어 여자 친구와 정착하기를 꿈꾼다. 조류독감으로 생계가 위협받자 형은 군 직원들을 노린 불법 스테로이드 거래에 뛰어들고 동생까지 끌어들이는다. 미용업에 종사하는 여자 친구는 더 큰 기회를 찾아 두바이행을 택한다. 영화는 양계장과 임대 학원, 공사장과 쇼핑센터 등 주변부로 밀려난 이들의 노동 공간을 배경으로 비정한 생존 경쟁 위에 세워진 사회 구조를 파고든다. 남아시아 독립영화의 산실인 필름 바자르 WIP 랩이 발굴한 비슈웬드라 싱의 첫 장편 영화. 네팔에서 화전식 이농 경작을 가리키는 '코리아'라는 제목은 발붙일 곳 없이 또 다른 노동의 자리로 떠밀리는 인물들과 포개지고, 그들의 이주는 누군가의 말천이 된다. (채경훈)

Two Nepali half-brothers run a poultry farm on the outskirts of a city. The older brother wants to expand the farm, while the younger dreams of becoming a soldier and settling down with his girlfriend. When their livelihood is threatened by an outbreak of the avian flu, the older brother turns to the illegal trade of steroids by targeting military recruits, and drags his younger brother into the business. His girlfriend, who works in the beauty industry, decides to leave for Dubai in search of bigger opportunities. Set against the labor spaces of those pushed to the margins of society, such as poultry farms, military prep schools, construction sites, and shopping malls, the film delves into the social structures built upon a ruthless competition for survival. This debut feature by Vishwendra Singh was discovered by Film Bazaar's WIP Lab, a major platform for independent films in South Asia. The title *Khoriya*, a term for traditional slash-and-burn farming system in Nepal, overlaps with characters who, unable to find their foothold anywhere, are pushed from one site of labor to another, and their displacement becomes someone else's source of profit. (CHAE Kyeong Hoon)



Lovers in the Blue Night

블루 나이트의 연인들

India/United States | 2026 | 107min | DCP | color
Director **Anuparna ROY** 아누파르나 로이

베니스영화제 오리존티

160 Oct 08 / 12:20 / BCM **328** Oct 10 / 18:40 / L4
531 Oct 12 / 18:40 / L7 **569** Oct 13 / 16:00 / B3

수몰지역 뱀골에서 온 카림과 아미나 부부는 쥐잡이와 전화방 여중업원으로 일하면서 뭍바이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카림은 우연히 만난 수카를 도와 도둑이 되고, 아미나는 일터에서 만난 구자리트 출신 오므람과 외로움을 나눈다. 대도시 뭍바이에서 난민, 여성, 성소수자, 무슬림, 하층계급으로 살아가는 네 사람의 이야기가 애처롭게 연결된 이 영화에서 '블루 나이트'는 바의 이름이자 말 그대로 우울한 밤이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가능성과 희망이 시작되는 시공간이기도 하다. 2025년 빛나는 데뷔작 <잊힌 나무들의 노래>로 인도 영화 최초로 베니스에서 오리존티 감독상을 수상한 아누파르나 로이는 두 번째 장편인 <블루 나이트의 연인들>로 한 해만에 다시 베니스 오리존티에 진출했다. (최은)

Karim and Ameena, a married couple from a flood-stricken region of Bengal, eke out a living in Mumbai, working as a rat catcher and in a phone-room attendant at a bar, respectively. After a chance encounter with Sukka, Karim helps him and becomes a thief, while Ameena shares her loneliness with Omran, a Gujarati man she meets at work. The stories of these four characters - a refugee, a woman, a gay man, and a Muslim - navigating their lives in Mumbai as members of the lower classes are poignantly intertwined. Here, 'Blue Night' is both the name of the bar and, literally, a night steeped in melancholy. Yet it is also a starting point for another kind of possibility and hope. Anuparna Roy, who won Best Director in the Orizzonti section at the 2025 Venice Film Festival with her dazzling debut feature *Songs of Forgotten Trees* - the first Indian film to receive the award - returns just one year later to Venice's Orizzonti with her second feature *Lovers in the Blue Night*. (CHOI Eun)



Not a Hero

영웅은 아니지만

India/Singapore | 2026 | 98min | DCP | color
Director **Rima DAS** 리마 다스

087 Oct 08 / 19:20 / B3 **233** Oct 09 / 18:50 / L5
345 Oct 10 / 16:00 / L8 **453** Oct 11 / 11:20 / L10

열한 살 소년 미반은 도시에서 시골 마을로 보내져 고모 파하와 지내게 된다. 파스타를 즐겨 먹고 영어로 소통하는 게 익숙한 미반에게 시골 마을의 일상은 열악하고 지루하게만 여겨진다. 거부감과 분노에 차 있던 미반은 차츰 그곳의 친구들, 동물, 자연과 교감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간다. 이질적인 그의 존재는 보수적인 시골 마을에 균열을 일으키고 미반과 아이들은 기존의 질서에 저항하며 자질한 소동을 일으킨다. 서사의 극적 전개보다 영화의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리마 다스의 연출은 아삼 지역의 수려한 자연 경관을 배경으로 아이들의 세계를 펼쳐내는 이 영화에서도 빛을 발한다. 영화는 한 소년의 점진적인 변화와 주변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포착하며 정서적 솔직함의 숨결을 불어넣는다. (홍소인)

Eleven-year-old Mivan is sent from the city to stay with his aunt Pahi in a rural village. Accustomed to eating pasta and communicating in English, Mivan finds life in the countryside harsh and boring. Initially filled with resistance and rage, he gradually adjusts to his new surroundings as he connects with the friends, animals, and nature around him. His incongruous presence creates a crack in the conservative rural village, and Mivan and the other children begin to resist the existing order, stirring up one small commotion after another. Rima Das places greater importance on the atmosphere of a film than on dramatic developments, and her direction shines here as the children's world unfolds against the picturesque landscape of the Assam region. Capturing the gradual transformation of a boy alongside the changes taking place around him, the film infuses the story with the breath of emotional honesty. (HONG Soin)



No Good Men

좋은 남자는 없다

Germany/France/Norway/Denmark/Afghanistan | 2026 | 104min | DCP | color
Director **Shahrbanoo SADAT** 샤르바누 사다트

베를린영화제 개막작

067 Oct 07 / 12:00 / BCM **132** Oct 08 / 22:30 / L4
249 Oct 09 / 17:30 / L9 **628** Oct 13 / 18:00 / L9

세 살짜리 아들을 돌보며 남편과 별거 중인 카메라 기자 나루와 방송인 친구들이 전쟁과 억압이 일상이 카불에서 '좋은 남자'를 찾는다. 어렵게 마련한 탈레반 지도자와의 인터뷰가 무산되자, 카불 방송의 베테랑 기자 쿼드랏은 거리 인터뷰나 해오며 나루를 길에 남겨두고 떠나버린다. 여성들에게 "아프간에 좋은 남자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이 인터뷰로 주목받은 나루는 쿼드랏의 뉴스팀에 합류하게 된다. 아프가니스탄 감독 샤르바누 사다트는 2021년 미군이 아프간에서 철수하면서 벌어졌던 카불 공방 탈출 사건을 모티브로 기자 커피의 로맨스와 아프간 사회에서 여성의 고통과 비애를 숨씨 좋게 엮어냈다. 2026년 베를린영화제 개막작으로, 카메라 뒤에 서 있는 대신 나루를 직접 연기해서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뛰는 사다트 감독을 볼 수 있는 것도 큰 행운이다. (최은)

Naru, a camerawoman separated from her husband and caring for their three-year-old son, and her friends in broadcasting search for 'good men' in Kabul, where war and oppression are part of everyday life. When a hard-won interview with a Taliban leader falls through, Qodrat, an experienced journalist at Kabul TV, leaves Naru on the street, ordering her to do vox pops instead. Her interviews with women, asking whether there are any good men in Afghanistan, attract attention, and she joins Qodrat's news team. Afghan director Shahrbanoo Sadat deftly intertwines the romance of two journalists with the suffering and sorrow of women in Afghan society, drawing on the 2021 Kabul airport incident during the US military withdrawal from Afghanistan. As the opening film of the 2026 Berlinale, the film also offers the rare pleasure of seeing Sadat herself who, instead of remaining behind the camera, plays Naru, taking her camera into the field. (CHOI Eun)



Promised Spaces

약속된 공간

France/Cambodia/Serbia/Germany | 2026 | 78min | DCP | color
Director **Ivan MARKOVIĆ** 이반 마르크비치

칸영화제 ACID

242 Oct 09 / 16:20 / L7 **360** Oct 10 / 10:00 / BCM
551 Oct 12 / 12:40 / BCM **619** Oct 13 / 15:50 / L7
710 Oct 14 / 16:10 / L8

누구나 꿈꾸는 신축 아파트에서의 내 집 마련. 그런데 과연 이것이 인간다운 삶과 행복을 약속할 수 있을까? 세다는 거대한 규모와 화려한 시설을 자랑하는 고급 단지 오아시스 파크에 입주한다. 그러나 밥 먹을 곳도, 말 붙일 사람도 마땅치 않은 이곳은 점점 거대한 고립의 공간이 되어간다. 한편,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공사현장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건설 인부와 청소부 등이 하나둘 모여들어 공동체를 이루고, 낯것의 콘크리트 구조물 속에서 그들만의 작은 세상을 일구어 나간다. 두 집단과 공간의 대비를 통해 건축물로 매개되는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을 드러내는 동시에, 고속으로 성장하는 도시에서 공동체와 집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작품. 영화감독이자 촬영감독, 시각예술가인 이반 마르크비치가 빼어난 영상미와 절제된 언어로 공간의 감각을 일깨우고 인물의 감정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부경환)

Everyone dreams of owning a home in a brand-new apartment complex. But can such a dream really promise a humane and happy life? Seda moves into Oasis Park, a luxury residential complex boasting immense scale and lavish amenities. Yet with nowhere to eat and hardly anyone to talk to, the place gradually becomes a vast space of isolation. Meanwhile, for some, an unfinished high-rise construction site is a precious home. Construction workers, cleaners, and others gradually gather there, forming a community and building a small world of their own amid the raw concrete structures. Through the contrast between these two groups and the spaces they inhabit, the film reveals the social disparities and inequalities mediated by architecture, while inviting us to reconsider the meaning of community and home in a rapidly growing city. Filmmaker, cinematographer, and visual artist Ivan Marković brings the spaces to life and delicately captures the characters' emotions through striking imagery and restrained language. (BOO Kyunghwan)



The Soul Whisperer

소울 위스퍼러

Australia/India/France/Bangladesh | 2026 | 95min | DCP | color
Director **Leo THADDEUS** 레오 타데우스

WP

107 Oct 08 / 16:00 / C4 **319** Oct 10 / 20:00 / L2
465 Oct 11 / 19:00 / BCM

테레시아는 죽어가는 사람들 곁에서 기도를 드리며 환자가 편안하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부유한 농장주 바르키한의 침상에서 테레시아는 참회와 용서를 권하는데, 완고한 바르키한은 이대로 죽을 생각이 없을 뿐 아니라 10년 만에 찾아와 자신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아들 조르지 부부에게 이제 와서 악점을 보이고 싶지도 않다. 모두를 괴롭히는 이 가족의 오랜 고통과 분노의 대물림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평생 시부에게 무시당했던 조르지의 타밀족 아내와 불시에 가족을 잃고 홀로된 여인 테레시아로부터 제기되었다. <소울 위스퍼러>는 존엄한 죽음에 관한 영화이면서, 산 자에게만 가능한 용서와 용기에 관한 영화이다. 영혼의 위로가 필요한 것은 곧 죽을 사람뿐만은 아니다. (최은)

Theresia stays by the bedsides of the dying, praying for them and helping them pass away in peace. At the bedside of Varkichan, a wealthy farmer, she urges him to repent and forgive, but the stubborn Varkichan has no intention of dying this way, nor does he want to show any weakness to his son George and George's wife, who have returned after ten years and are now waiting for him to die. How can the long suffering and inherited anger that have tormented everyone in the family finally be brought to an end? This question emerges from George's wife, a Tamil woman who has been looked down upon by her father-in-law throughout her married life, and from Theresia, a woman who lost her family without warning and became all alone. *The Soul Whisperer* is a film about dignified death, but also about the forgiveness and courage available only to the living. Those about to die are not the only ones in need of solace for the soul. (CHOI Eun)



Spirit Guardians: The Last Secret Of The First Emperor

수호전사: 황제의 마지막 비밀

Vietnam | 2026 | 135min | DCP | color
Director **NGUYEN PHAN Quang Binh** 응우옌판광빈

토론토영화제 갈라프레젠테이션

161 Oct 08 / 15:20 / BCM **316** Oct 10 / 09:20 / L2
419 Oct 11 / 17:50 / L2 **641** Oct 13 / 13:00 / BCM

서기 968년, 천 년간 외세의 지배를 받아왔던 베트남은 12사군의 난으로 쪼개져 있던 지역이 평정되며 최초의 통일 왕조가 세워진다. 11년 뒤 여전히 반역 세력이 잔존한 가운데 초대 황제가 서거하자 왕릉의 위치를 숨기기 위한 작전이 시작된다. 각지에서 모인 일곱 명의 호위무사는 목숨을 걸고 진짜 관의 행방을 숨기기 위해 아흔아홉 개의 관을 풀어 나른다. 응우옌판광빈 감독의 다섯 번째 장편 연출작 <수호전사: 황제의 마지막 비밀>은 베트남 영화 가운데 손꼽히는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이다. 10세기 왕국을 웅장하면서도 치밀한 디테일로 되살려낸다. 정교한 무술 액션 속에서 우정과 사랑, 열정과 신의가 교차하며 베트남 역사에 낯선 관객까지 이 위태로운 여정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다. (박성호)

In 968 CE, Vietnam, which had endured a thousand years of foreign rule, quells the turmoil of the Twelve Warlords and founds its first unified dynasty. Eleven years later, amid lingering rebel forces, the first emperor's death sets off an operation to conceal the location of his tomb. Seven guardian warriors, gathered from across the land, risk their lives to scatter ninety-nine coffins and conceal the whereabouts of the real one.

Director Nguyen Phan Quang Binh's fifth feature, *Spirit Guardians: The Last Secret Of The First Emperor*, is a large-scale production with one of the biggest budgets in Vietnamese film history. It brings the tenth-century kingdom back to life with both grandeur and meticulous detail. Amid its elaborate martial arts action, friendship and love, passion and loyalty intertwine, drawing even audiences unfamiliar with Vietnamese history into this perilous journey. (PARK Sungho)



Will You Still Be My Friend

내 친구로 남아줄래?

Taiwan/Singapore | 2026 | 101min | DCP | color
Director **LU Po-Shun** 뤼포쑤ん

산세바스티안영화제 뉴디렉터스

032 Oct 07 / 19:20 / C4 **317** Oct 10 / 13:30 / L2
497 Oct 12 / 12:40 / C4 **687** Oct 14 / 18:30 / L2

대만 남부의 어촌 마을. 뽀빠는 것을 좋아하는 준은 싱가포르에서 온 도시 소년 제스퍼와 비밀스러운 우정을 쌓아 나간다. 제스퍼의 부모가 마을에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 대규모로 토지를 매입하고, 공사기사작되면서 작은 시골마을은 소용돌이에 휩싸인다. 제스퍼의 부모가 추진하는 사업과 마을 어민들의 이익이 충돌하면서 두 소년은 그들만의 우정을 지키려 애쓰지만 둘의 관계는 시험대에 오른다. 영화는 지역사회에 불어온 개발의 바람과 그로 인한 어민들의 갈등 속에서 특별한 우정을 쌓아가고, 흔들리고, 부서지는 두 소년의 성장담을 그린다. 뤼포쑤 감독의 카메라는 피사체에 대한 사랑을 가득 담은 장면들로 빛나고, 지역의 현실과 두 소년의 자아 찾기라는 주제가 교차하며 대만 뉴웨이브의 현대적이고 쿼어적 버전을 선보인다. (홍소인)

In a fishing village in southern Taiwan, Jun, a boy who loves to run and play, forms a secret friendship with Jasper, a city boy from Singapore. When Jasper's parents buy up land to build a solar power plant and construction gets underway, the small rural village is thrown into turmoil. As their business interests clash with those of the village fishers, the two boys struggle to protect their friendship, but their relationship is put to the test. The film traces the coming-of-age of two boys as their special friendship takes shape, is shaken, and ultimately breaks apart amid the forces of development sweeping through their local community and the resulting conflicts among adults. Lu Po-shun's camera shines with scenes full of affection for its subjects, while the realities of the local community come together with the boys' search for their identities in this contemporary take on the Taiwanese New Wave. (HONG Soin)



You, Like a Star

그대, 별처럼

Japan | 2026 | 135min | DCP | color
Director **FUJII Michihito** 후지이 미치히토

IP

008 Oct 07 / 08:40 / B1 **143** Oct 08 / 10:00 / L7
248 Oct 09 / 13:40 / L9 **681** Oct 14 / 13:00 / C6

17살 동갑내기 카이(요코하마 류세이)와 아키미(히로세 스즈)는 첫눈에 서로를 알아본다. 완벽하지 않은 가족이라는 공통의 상처와 섬의 아름다운 풍경을 공유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에 뚫린 여백을 채워주는 영혼의 단짝이 된다. 카이는 만화 원작가로서의 꿈을 좇아 새로운 삶의 서사를 써 내려가지만, 아키미는 섬에 남아 가족이라는 유산을 감내하기로 결심하고 둘은 다른 선택 속에 놓인다. <그대, 별처럼>은 두 사람이 15년이라는 시간을 관통하며 겪는 사랑의 여정을 관측하는 드라마이다. 영화는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사랑이라는 불변의 감정을 보존하는 동시에 섬세하고 고요한 파동을 일으킨다. 한 시절을 공유했던 어떤 사람의 순수한 얼굴은 마음속 깊은 곳에 각인되어, 누군가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빛나는 문장이 된다. 나가리 유우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삼았다. (문주화)

Seventeen-year-olds Kai (Yokohama Ryusei) and Akimi (Hirose Suzu) recognize a kindred spirit in each other at first sight. Sharing the wound of imperfect families and the island's picturesque scenery, the two become soulmates who fill the voids in each other's hearts. While Kai pursues his dream as a manga writer to create a new narrative for his life, Akimi decides to remain on the island and shoulder the burden of her family, placing the two on separate paths. *You, Like a Star* is a drama that observes their 15-year journey of love across time. The film preserves the enduring emotion of love that defies the passage of time, stirring delicate and quiet ripples. The innocent face of someone who shared a chapter of one's life becomes etched deep within the heart, turning into a luminous sentence that guides one's destiny. The film is based on the novel of the same name by Nagira Yuu. (MOON Juhwa)



아시아영화진흥기구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The Network for the Promotion of Asia Pacific Cinema congratulates
the opening of the 31s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26.



사회공헌 프로그램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음성, 수신기 사용)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사운드해설(자막, 스마트폰 앱 사용)을 제공하는 영화 상영입니다.

날짜	시간	예매코드	상영관	작품명
10월 7일 (수)	12:20	027	CGV센텀시티 3관	피오르
	16:00	028		새드 걸즈
10월 8일 (목)	12:40	102		정가네
	19:40	104		산디와라 +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10월 9일 (금)	09:00	197		세대유감
10월 11일 (일)	15:20	398		바람의 빛깔
10월 12일 (월)	13:00	494		도라
	17:00	495		베일러
10월 13일 (화)	17:20	584		사랑의 지평선 너머로
	20:30	585		베드포드 파크

정겨운 나눔

상영시간표에 (♣)표시가 된 영화를 관람하시면,
티켓 판매수입의 일부를 복지기관에 기부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입니다.

바람의 빛깔	베이비 잭프루츠 베이비 구아바	그 소녀의 기억
수능, 출제의 비밀	빙판 위의 새들	백 투 부에노스아이레스
여전히 찬란하게	아버지의 방	붉은 바위에 아이들이 있다
자필	영웅은 아니지만	텐더 러빙 케어
최종연접	자바의 사계절	흐르는 세월

관객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완성되는 부산국제영화제 정겨운 나눔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굿네이버스와 함께합니다.



Korean Cinema Today – Special Premiere

한국영화의 오늘 – 스페셜 프리미어

특별한 대중적 매력과 위상을 지닌 동시대 한국 주류 상업 영화의 최신작 및 대표작을 프리미어로 상영한다.

A showcase of exclusive premieres featuring Korea's latest and most anticipated Korean commercial releases, films that capture special popular appeal and significance.

WP World Premiere



친구가 '두 몸에 나뉜 하나의 영혼'(아리스토텔레스)이라면 형제란 '몸은 나뉘었으나 기운은 이어져 있는 사람'이다. '인자추의 『안씨가훈』 형제편' 중) 아무리 믿고 지켜봐도 혈연은 그렇게 진득하고 아득하다. 여기 30년째 말 한마디 섞지 않고 각자 목장을 운영 중인 형제가 있다. 6년 연속 으뜸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형 만수(류승룡)를 제치고 처음으로 동생 병수(박해준)가 우승을 거머쥔 밤, 만수는 병수의 소가 구제역에 걸린 걸 발견하고 신고한다. 이어진 살처분의 혼란 속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송아지 장수를 살리고 싶었던 만수는 우여곡절 끝에 병수와 손을 잡는다. <정가네>는 소처럼 정직하게 두뼉두뼉 걸어오는 영화다. 만수는 동생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엔 너무 무뎠 못하고, 병수는 형에 대한 앙금을 풀기엔 너무 까칠하다. 영화는 서로 미안한 마음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형제의 난감함을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빌려 전달한다. 말로 할 수 없기에 더욱 전해지는 것들의 가치를 담담하게 그리는 우직한 화법이 미담다. (송경원)

If a friend is 'a single soul dwelling in two bodies' (Aristotle), siblings are those whose 'bodies are divided, but their spirits remain connected' (from the 'Brothers' chapter in Yan Zhitui's *Family Instructions for the Yan Clan*). No matter how resentful or wearying it becomes, the bond of blood remains stubbornly deep and enduring. Here are two brothers who run separate ranches and have not exchanged a single word in thirty years. The younger brother, Byeong-soo (Park Hae-jun), clinches his first victory at the Prime Cattle Contest, dethroning his older brother, Man-soo (Ryu Seung-ryong), who had won six consecutive years. On that very night, Man-soo discovers that Byeong-soo's cow is infected with foot-and-mouth disease and reports it. Amid the ensuing chaos of mass culling, Man-soo wishes to save Jang-soo, the sole surviving calf, and after many twists and turns, joins hands with Byeong-soo. *Cattle Run* is a film that strides forward as honestly and steadily as an ox. Man-soo is too gruff to be the first to reach out, while Byeong-soo is too prickly to let go of old grudges. Through the lens of the bond between humans and animals, the film captures the awkward predicament of two brothers who grew apart out of mutual guilt. Its straightforward, unpretentious narrative style calmly depicts the value of things that only grow deeper because they cannot be put into words, inspiring a quiet sense of trust. (SONG Kyung-won)

Cattle Run 정가네

Korea | 2026 | 110min | DCP | color
Director **KIM Ji-hyun 김지현**

WP

050 Oct 07 / 17:10 / L4 **102** Oct 08 / 12:40 / C3
227 Oct 09 / 15:50 / L4 **536** Oct 12 / 15:40 / C6



Sapiens 사피엔스

Korea | 2026 | 101min | DCP | color
Director **LEE Hu-bin 이후빈**

WP

040 Oct 07 / 19:40 / C6 **075** Oct 08 / 23:59 / BH
232 Oct 09 / 15:30 / L5 **539** Oct 12 / 19:20 / L9

진실과 사실의 거리는 얼마나 멀까. 사실이 하나라도 진실은 여러 갈래로 존재할 수 있다. 이후빈 감독의 <사피엔스>는 그 간극을 가지고 퍼즐 게임을 시도한다. 재벌 3세이자 상현건설 전무 오종화가 사라지고, 건설사 법률팀장 서희재(유재명)는 영상으로 납치 협박 메시지를 받는다. 이어 유일한 납치 용의자 나도한(정성일)을 마주하지만 헤라성 정체감 장애를 주장하는 그에겐 제대로 된 기억이 없다. 한 명의 몸에 여러 인격을 지니고 있는 나도한은 깨어날 때마다 다른 진술을 한다. 한 명의 용의자가 재구성하는 여러 관점의 진술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서스펜스를 만들어낸다. 하나는 납치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가. 다른 하나는 나도한은 누구인가. 편집된 기억을 찾아 나가는 과정은 영화가 장면을 이어 붙이는 쾌감을 닮았다. 유재명 배우의 묵직한 연기가 납치 사건 서사의 중심을 잡고, 정성일 배우의 1인 모노드라마에 가까운 다중 인격 연기는 거의 자력소라 해도 좋을 만큼 다채로운 결의 긴장을 선사한다. 이윽고 당도할 충격적인 결과만큼 그에 다디라는 과정이 더 흥미로운 영화다. (송경원)

How far is the distance between truth and fact? Even if there is only one fact, the truth can branch out in many directions. Director Lee Hu-bin's *Sapiens* plays a puzzle game within that very gap. When third-generation chaebol heir and executive managing director of Sanghyeon Construction Oh Jong-hwa vanishes, the company's legal team head, Seo Hee-jae (You Chea-myung), receives a video message demanding ransom for the kidnapping. Soon after, he confronts the sole kidnapping suspect, Na Do-han (Jung Sung-il), who claims to suffer from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and has no coherent memories. Harboring multiple personalities inside a single body, Na offers a different testimony each time he awakens. The multi-perspective statements reconstructed by a single suspect generate two distinct types of suspense: Who is the culprit behind the kidnapping? And who is Na Do-han? The process of piecing together these fragmented memories resembles the thrill of cinematic editing. You Chea-myung's grounded, weighty performance anchors the kidnapping narrative, while Jung Sung-il's multi-personality acting, bordering on a one-man monodrama, delivers a richly layered tension akin to a feat of sheer strength. It is a film where the journey toward the impending, shocking conclusion is even more compelling than the revelation itself. (SONG Kyung-won)



The Sorry Generation 세대유감

Korea | 2026 | 102min | DCP | color
Director **KIM Sung-yoon 김성윤**

WP

139 Oct 08 / 12:20 / L6 **197** Oct 09 / 09:00 / C3
554 Oct 13 / 20:00 / BT

영양전향 폭소 대환장의 가족이 몰려 온다. 무형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앞둔 대한민국 대표 종가 광명 김씨 용평공파(그라나)가 부르기에도 힘든, 뼈대 있는 이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는 46대 장손 용병(정재형)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이 박수무명을 찾았다가 "조상님들이 노하셨다"는 말에 귀찮을 발이기로 한다. 한편 일곱 번이나 행정고시에 낙방한 47대 장손 봉덕(이아경)은 원치 않은 책인과 부딪어 폭발하고, 조상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꼬였다는 생각에 아예 퇴마를 결심한다. 장편 대법작 <파편>으로 부산국제영화제 CGV상과 초록배미대상상을 받은 김성윤 감독의 신작 <세대유감>은 장성없는 난장으로 출을 주는 유쾌한 가족극이다.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코미디의 진리는 말 그대로 이 가족을 위한 말이다. 어처구니없고 난처한 상황들, 하지만 웃음은 바로 거기에서 피어난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개성이 살아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정재형, 이아경, 김주령, 김아영 등 배우들의 코믹한 호연은 이 영화의 가장 흥미로운 재미이기도 하다. (송경원)

A messy, uproarious, thoroughly chaotic family comes rushing in. With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scription review looming, the House of Lord Ongpyeong, Gwangpyeong Kim Clan—a name that's a tongue-twister in itself—is presided over by Yong-byeong (Jung Jae-young), the 46th-generation head of this distinguished family. When nothing seems to go his way, he visits a shaman and, upon hearing that "the ancestors are furious," decides to hold a shamanic ritual. Meanwhile, Bong-deok (Lee Yi-kyung), the 47th-generation heir, has failed the civil service exam seven times. Crushed by responsibilities he never wanted and convinced that his ancestors have ruined his life, he decides to exorcise them altogether. *The Sorry Generation*, the new film from Kim Sung-yoon, whose feature debut *Fragment* won the CGV Award and Chorokbaem Media Award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 a buoyant family comedy that dances through sheer chaos. The comic maxim 'comedy from a distance, tragedy up close' might have been coined for this family. The situations are absurd and awkward, yet that is precisely where the laughter springs from. Each family member has a vivid personality, while the spirited comic performances of Jung Jae-young, Lee Yi-kyung, Kim Joo-ryoung, Kim Ah-young, and the rest of the cast provide some of the film's greatest pleasures. (SONG Kyung-won)

Korean Cinema Today – Panorama

한국영화의 오늘 – 파노라마

동시대 한국영화의 역량과 흐름을 만끽할 수 있는 그해의 다양한 대표작 및 최신작을 선보인다.

An introduction to an array of the most significant and popular Korean films of the year,
from commercial blockbusters to arthouse gems.

WP World Premiere



여섯 사람이 기억하는 그날은 하나의 진실로 포개질 수 있을까. 신입사원 최종 면접에서 만난 여섯 청년은 팀 토론을 성공시켜 전원 합격하겠다는 희망을 품지만, 채용 인원이 단 한 명이라는 통보와 발신인 불명의 폭로성 메시지가 이들을 갈라놓는다. <최종면접>은 그날의 면접과 6년 뒤 진행된 인터뷰를 교차하며 여러 조각의 증언으로 진실을 직조한다. 화자의 말을 따라 사건을 재구성하는 동안 관객 역시 곳곳에 설치된 함정과 마주한다. 영화가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은 누가 거짓말했느냐보다 경쟁의 규칙이 각자의 진실을 어떻게 불신의 증거로 바꾸는가이다. 폐쇄된 면접장을 경쟁사회의 축소판으로 삼아 스펀지라의 긴장과 추리물의 재미를 끌어내는 영화. 팬데믹 시대를 통과한 청년 세대의 현실을 겹쳐 놓으며 어떤 오해는 바로잡을수록 존엄을 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역설을 드러낸다. (차한빈)

Can six people's memories of that day ever converge into a single truth? Six young candidates meet at a final-round job interview, hoping that a successful group discussion will earn them all a place at the company. But the revelation that only one position is available, followed by an anonymous message containing damaging revelations, drives them apart. *Final Interview* intercuts the events of that day with interviews conducted six years later, weaving a truth from fragments of testimony. As the audience reconstructs events through each speaker's account, they too encounter traps laid along the way. What the film relentlessly probes is not so much who lied as how the rules of competition turn each person's truth into grounds for suspicion. Turning the closed interview room into a microcosm of a competitive society, the film combines the tension of a thriller with the pleasures of a mystery. Against the reality faced by a generation shaped by the pandemic, the film reveals a painful paradox: correcting certain misunderstandings can come at the cost of one's dignity. (CHA Hanbi)

Final Interview

최종면접

Korea/Japan | 2026 | 106min | DCP | color
Director **KIM Joung-hoon 김정훈**

WP

056 Oct 07 / 10:00 / L6 **129** Oct 08 / 12:30 / L4
241 Oct 09 / 13:10 / L7 **605** Oct 13 / 10:20 / L4



HOPE

호프

Korea | 2026 | 156min | DCP | color
Director **NA Hong-jin 나홍진**

칸영화제 경쟁

019 Oct 07 / 09:30 / CX **571** Oct 13 / 10:00 / CX

추격은 나홍진 영화의 요체다. 질주와 미끄러짐을 동반한 그의 추격은 영화 매체의 본질을 겨냥한다. <호프>는 전작들과 달리 추격의 방향을 어지럽히고 쫓는 자와 쫓기는 자를 수시로 바꿔가며 이수리장을 관통한다. 나홍진은 마을, 숲, 도로로 이어지는 추격을 구성할 때 의도적으로 속도의 쾌감을 줄이거나 없앤다. 서스펜스를 지연시키자 추격의 방향과 강도가 무력해지고 종종 헛바퀴 돌 듯 제자리를 맴돈다. 건물 입구에 들어서지만 출구로 나오지 못하는 마을, 방향을 잃은 채 도망가다 죽어 나가는 숲,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는 가나니 도로에서 운동은 농담과 실수로 자주 멈춘다. 대답하리만치 뻔뻔한 도전으로 우리가 믿는 영화의 구성요소를 파괴하고도 영화에 도달할 수 있다는 과감한 선택. 국적, 지역성, 시대상, 장르 관습, 관객의 원초적 쾌락마저 흡수한 듯하다. 지지 않는 태양이 외계의 눈이자 우리를 응시하는 영화의 눈이라면 과대망상일까. 그렇다 해도 인간의 공포와 어리석음에 대한 연민이 담긴 빛이라 다행이다. (박인호)

Pursuit is the essence of Na Hong-jin's cinema. His chases, marked by sprinting and slipping, take aim at the very nature of cinema itself. Unlike his previous works, *HOPE* disorients the chase, constantly switching the roles of pursuer and pursued as it hurtles through chaos. In staging chases across villages, forests, and roads, Na Hong-jin deliberately slows or strips away the thrill of speed. As suspense is deferred, the chase loses both direction and momentum, often spinning its wheels in place. In the village, people enter buildings but fail to emerge; in the forest, they flee without direction only to meet their deaths; on the endless road with no discernible beginning or end, movement repeatedly comes to a halt over silly jokes and mistakes. It is an almost brazen challenge, a defiant declaration that cinema can still be reached even after dismantling the very elements we believe constitute it. The film seems to absorb nationality, local identity, the spirit of the times, genre conventions, and even the audience's most primal pleasures. Would it be too fanciful to see the sun that never sets as an 'alien eye' - or the eye of cinema gazing back at us? Even if that is so, it is comforting to find its light suffused with compassion for human fear and folly. (PARK Inho)



SINNER

자필

Korea | 2026 | 110min | DCP | color
Director **HONG Sung-min 홍성민**

WP

049 Oct 07 / 13:40 / L4 **131** Oct 08 / 19:10 / L4
240 Oct 09 / 10:20 / L7 **692** Oct 14 / 09:40 / L4

"검사는 구형을 할 뿐 판결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필>은 이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수면 아래로 묻혔을지 되묻는다. 흠결 없는 검사 김석규(정성일)가 법무부 장관 후보가 되자 야당은 1994년 '미금 방화 살인사건'을 문제 삼는다. 당시 석규가 글을 모르면 피의자 홍순화(박지현)를 강압 수사해 시형을 구형했다는 것이지만 이내 순화가 남긴 편지가 발견되어 위기를 넘긴다. 그러나 아들 은수에게 꼭 억울함을 전해달라는 순화의 편지를 뒤늦게 읽은 석규는 종결된 사건을 구여어 다시 탐문한다. 조사된 자료와 법정에서만 정의를 찾던 검사는 뒤늦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외면했던 진실을 마주하고, 그제야 서류 위의 사실과 실제적 진실 사이 괴리가 드러난다. 피의자 순화의 억울한 과거와 검사 석규가 마주한 양심의 현재가 교차하는 순간 관객은 쉽게 잊거나 흘려보낸 가치들을 되새길 기회를 얻는다.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부끄러워할 수는 있음을 눈물과 함께 전달하는 영화다. (송경원)

"A prosecutor requests a sentence; they don't give the verdict." *SINNER* questions how many untold stories have been buried beneath this phrase. When the ostensibly unblemished prosecutor Kim Seokgyu (Jung Sung-il) is nominated for Minister of Justice, the opposition party raises questions about the 1994 "Migeum Arson-Murder Case." They allege that he conducted a coercive investigation against the illiterate suspect Hong Sunhwa (Park Ji-hyun) and sought the death penalty; however, the crisis passes when a letter left by her comes to light. Yet, after belatedly reading her plea for her innocence to be conveyed to her son Eunso, Seokgyu begins to reinvestigate the closed case. A prosecutor who once sought justice only within documents and courtroom walls confronts the truths he had overlooked through the voices of those involved. Only then the chasm between facts on paper and the substantive truth reveals itself. As the suspect Sunhwa's past wrongful conviction intersects with the present crisis of conscience faced by prosecutor Seokgyu, the audience is given a chance to reflect on values so easily forgotten or brushed aside. The film movingly reminds us that while we cannot undo the past, we can at least feel shame for it. (SONG Kyung-won)



Still Shining 여전히 찬란하게

Korea | 2026 | 118min | DCP | color
Director **SONG Il-gon 송일곤**

WP

135 Oct 08 / 14:50 / L5 **198** Oct 09 / 12:10 / C3
339 Oct 10 / 09:40 / L7 **615** Oct 13 / 16:40 / L6

생의 찬란한 순간이 충만하고 행복한 때와 늘 동일할 수는 없으며, 깊은 슬픔과 쓰라림을 동반한 순간일지라도 생의 빛나는 시간으로 기억되기도 한다. 기억과 치유에 관한 깊은 탐색을 해 온 송일곤 감독의 신작 <여전히 찬란하게>는 생의 그런 아프고도 찬란한 순간을 두 친구의 우정과 세 인물의 곱고 가슴 시린 이야기로 세밀하게 옮긴 작품이다. 영화는 일제 강점기에 17세였던 순옥(박서경)과 정임(최주은)의 이야기와 현재 노년이 된 순옥(김혜자)과 정임(차미경)의 이야기, 그리고 두영(문성현)의 이야기를 교차한다. 그 안에서 두 친구의 애틋한 우정과 인생의 무정한 갈릴길, 험사리 깨내기 힘든 삶이 어려운 이야기를 기억의 조각으로 가우는데, 삶에 깃든 울퉁은 마음과 너무나 깊은 우정과 사랑의 면모에 가슴이 울린다. 역사의 중요한 이야기와도 겹치는 이들의 이야기는 빈한하고 참혹한 현실을 비집고 나오는 정임의 아름다운 노래로, 순옥의 애절한 눈빛으로 그리고 서로를 향한 꿈은 마음의 풍경으로 새겨지며 생명력 있는 영화가 되어간다. (홍은미)

The most brilliant moments of life do not always align with times of fulfillment and happiness; even moments accompanied by profound sorrow and bitterness can be remembered as life's most luminous times. Director Song Il-gon, who has long explored themes of memory and healing, meticulously captures such painful yet radiant moments through the friendship of two lifelong companions and the delicate, heart-wrenching stories of three individuals in his new film, *Still Shining*. The film interweaves the story of Soon-ok (Park Seo-kyung) and Jeong-im (Choi Ju-eun) as 17-year-old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ith their elderly lives in the present day, played by Kim Hye-ja and Cha Mi-kyung respectively, alongside the story of Doo-young (Moon Seong-hyun). Through this tapestry, it pieces together fragments of memory to depict the aching friendship of the two women, life's cruel crossroads, and stories of hardship not easily spoken of, deeply moving the audience with their steadfast integrity, profound friendship, and enduring love. Intersecting with pivotal historical narratives, their journey comes alive through Jeong-im's beautiful singing that pierces through a destitute and harrowing reality, Soon-ok's tender gaze, and the unwavering devotion they hold for one another, shaping the film into a vibrant, living work of art. (HONG Eun-mi)



Ugly Duckling Ms. Maeng 수능, 출제의 비밀

Korea | 2026 | 99min | DCP | color
Director **LEE Yong-jae 이용재**

WP

045 Oct 07 / 12:20 / L3 **130** Oct 08 / 15:50 / L4
440 Oct 11 / 22:20 / L6 **693** Oct 14 / 12:30 / L4

대한민국의 절대 강자 대학수학능력시험. 비행기와 주식 거래는 물론이며 한 나라를 멈춰 세우는 일사의 최종 보스. 도대체 그 막강한 위력을 발휘하는 수는 문제는 누가 어떻게 출제하는 것일까. <수능, 출제의 비밀>은 그 비밀을 집요하게 파헤치는 좌충우돌 코미디다. 어마어마한 스펙의 교수들이 모인 수능 출제 위원 명단에 오른 맹보람(이선빈)은 살라는 마음을 안고 수능 출제 캠프에 도착하지만, 지방 소도시 교사이전 안감생심이라는 듯 행정 착오의 결과였다고 밝혀진다. 하지만 국가와 위원장 문주열(유재명)은 제 욕심도 채우고 라이벌인 검토 위원장 박경태(김영민)와의 싸움에서 책임을 면피할 요량으로 맹보람을 적극 끌어들이고, 영화는 스펙만 좋은 후안무치한 인물들과 대립하는 맹보람의 애달프고도 보람찬 출제 캠프 감금기를 사괄벽적하게 펼친다. <수능, 출제의 비밀>은 수능 문제 출제를 둘러싼 우스꽝스럽고도 과격한 충돌 안에서 한국의 사회상을 날카롭게 진단하고 풍자하는 탁월한 전략의 코미디 영화다. (홍은미)

The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CSAT) is the undisputed heavyweight of South Korea. It is the 'final boss' of college entrance exams, capable of grounding airplanes, pausing stock market trading, and bringing the entire country to a standstill. Who exactly writes these all-powerful CSAT questions, and how? *Ugly Duckling Ms. Maeng* is a slapstick comedy that doggedly digs into that very secret. Excited to find her name among the question-setting committee packed with high-profile professors, Maeng Boram (Lee Sun-bin) arrives at the secluded exam-drafting camp, only to discover it was all an administrative error - as if such an honor were possible for a teacher from a small town. However, Moon Joo-yeol (You Chea-myung), the head of the Korean language committee, actively ropes Boram into the committee to satisfy his own ambitions and dodge accountability in his rivalry with review committee chair Park Kyung-tae (Kim Young-min). The film then raucously unfolds Boram's bittersweet yet rewarding confinement at the camp, pitting her against shameless figures whose only asset is their pedigree. *Ugly Duckling Ms. Maeng* is a brilliantly strategic comedy that sharply diagnoses and satirizes South Korean society through the ludicrous and fiercely turbulent conflicts surrounding the drafting of the CSAT. (HONG Eun-mi)



The World Before 첫세계

Korea | 2026 | 115min | DCP | color
Director **YOON Dan-bi 윤단비**

토론토영화제 플랫폼, APM 2023 선정작

013 Oct 07 / 12:30 / B2 **236** Oct 09 / 12:00 / L6
352 Oct 10 / 14:00 / L10 **634** Oct 13 / 13:10 / KT

진(심수빈)은 작은 섬에서 태어나고 자란 열일곱 소녀다. 아이들 특유의 가볍고 투명한 몸짓을 아직 간직한 소녀는 동네의 소소한 일상과 함께 여름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의 장례를 위해 섬으로 돌아온 어릴 적 친구 두재(김어진)와 재회하게 되는데, 홀로 섬으로 돌아온 두재는 속사정에 관한 아무 말도 없고, 진은 마음의 거처 없는 고립무원의 소년에게 연약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그 사이 둘에게 미묘한 시간이 흐르며 조용하던 소녀의 세계는 은밀하게 균열을 일으킨다. <첫세계>는 소녀와 소년의 못지않게 울리는 사소한 손짓, 쭈뼛대는 몸짓, 서로를 살피는 눈짓 하나하나에 손끝이 저릿해지는 긴장과 설렘이 감도는 영화다. 성애와 순결한 마음, 욕망과 연민과 이해 사이에 아무런 간극이 느껴지지 않는 놀라운 작품이다. 아델하고 아득한 두 친구의 시간을 바라보는 동안 보는 이의 마음도 함께 동하고, 소녀와 소년이 꿈결 같은 첫 세계에서 온몸이 부서질 듯 깨어나는 순간 보는 이의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린다. <남매의 여름밤>으로 큰 주목을 받았던 윤단비 감독의 차기작이자, 보기 드물게 아름답고 관능적이며 아픈 영화다. (홍은미)

Jin (Sim Su-bin) is a seventeen-year-old girl born and raised on a small island. Still carrying the light, translucent grace unique to childhood, she spends her summer amid the village's quiet everyday life. Then one day, she is reunited with her childhood friend Dujae (Kim Eo-jin), who has returned to the island for his grandmother's funeral. Arriving alone, Dujae remains silent about what he has gone through, and Jin becomes a delicate pillar of support for the utterly stranded, adrift boy. As an unspoken, subtle tension grows between them, the girl's quiet world begins to secretly crack. *The World Before* is a film where a tingling sensation of suspense and fluttering excitement lingers in every trivial gesture: the slight lifting of a hemline, hesitant fidgeting, and watchful glances exchanged between a boy and a girl. It is an astonishing work in which no divide can be felt between eroticism and innocence, desire, compassion, and understanding. Watching the dizzying, faint time shared by the two friends stirs the viewer's heart, and the moment the girl and boy awaken from that dreamlike first world as if shattered to pieces, the viewer's heart collapses alongside them. As the latest work from director Yoon Dan-bi, who drew immense acclaim with *Moving On*, it is a singularly beautiful, sensual, and aching film. (HONG Eun-mi)

영화와 현대미술 - 안성기를 기리며

ART AND FILM - IN MEMORY OF AHN SUNG-KI

기간

2026년 10월 6일 - 12월 27일

장소

뮤지엄원 (MUSEUM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20

참여작가

곽지수, 구보창, 김가람, 김수철, 나현, 컬렉티브 그룹 단장, 박정혁, 이이남, 조덕현, 차민영

BMA 부산시립미술관
BUSAN MUSEUM OF ART

World Cinema

월드 시네마

비아시아권 중견 작가들과 신인 감독들의 신작 및 우수 국제영화제 수상작을 포함하여 한 해 세계 영화의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한다.

A panoramic view of the year in global cinema, featuring new works from established directors and emerging talents outside Asia and award-winning films from prestigious international festivals.

WP World Premiere

IP International Premiere



제79회 칸영화제 주목할만한시선 부문 황금카메라상 수상작 <베니마나>는 생존 피해 여성의 시선으로 1994년 르완다 대학살이라는 비극적 역사를 돌아본다. 영화의 배경은 르완다 전역에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도모하는 공동체 재판이 열리던 2012년. 생존자인 베네란다는 피해자와 가해자 가족 간의 대화를 이끌며 이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녀는 강인한 여성이지만 심대 딸의 뜻밖의 임신 소식 앞에서 신념의 한계에 직면한다. 베네란다는 아니라 영화 속 모든 여성들은 매일 은폐된 진실을 마주하며 고통을 감내한다. 용서란 지독한 투쟁인을 온 몸으로 보여준다. 이들의 이야기는 곧 세대에 걸친 비극이 멈추고 진실과 용서가 르완다의 땅에 뿌리 내리기를 바라는 뜨거운 염원의 노래다. (이주현)

Winner of the Caméra d'Or at the 79th Cannes Film Festival, where it screened in Un Certain Regard, *Ben'imana* revisits the tragic history of the 1994 Rwandan genocide through the eyes of a woman who survived it. The film is set in 2012, a time when community trials were being held across Rwanda to uncover the truth and pursue justice. Vénéranda, a survivor, facilitates dialogue between victims and the families of perpetrators, helping them overcome trauma and rebuild their lives. Vénéranda is resilient, yet the unexpected news of her teenage daughter's pregnancy forces her to confront the limits of her own convictions. She is not alone: every woman in the film endures pain as she confronts truths long kept hidden. Together, they embody the grueling struggle that forgiveness demands. Their stories become an ardent song of hope - that generations of tragedy might finally come to an end, and that truth and forgiveness might take root in Rwandan soil. (LEE Juhyun)

Ben'imana

베니마나

Rwanda/Gabon/France/Norway/Ivory Coast | 2026 | 101min | DCP | color

Director **Marie-Clémentine DUSABEJAMBO** 마리클레망틴 두사베잠보

칸영화제 주목할만한시선 황금카메라상

101 Oct 08 / 09:40 / C3 **183** Oct 09 / 22:20 / B3
620 Oct 13 / 19:00 / L7



By Any Means

바이 애니 민즈: 자비는 없다

United States | 2026 | 107min | DCP | color

Director **Elegance BRATTON** 엘러건스 브래턴

058 Oct 07 / 17:30 / L6 **484** Oct 12 / 15:40 / CX
616 Oct 13 / 19:40 / L6

1966년 미시시피, 유력한 인권 운동가였던 버논 다머가 급진적인 인종주의자들의 습격으로 사망한다. 이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FBI국장의 비공식 인가를 받아 흑인 FBI요원 웨인과 마피아 조직 히트맨 스카르파가 팀을 이루게 된다. FBI가 마피아 조직원을 정보원으로 활용하며 협업했던 실화를 바탕으로 삼는 이 영화는, 인종주의가 만연한 시대를 배경으로 흑인 요원과 백인 마피아라는 어딘가 부조리한 콤비를 그리면서, 동시에 거기에 동시대 정치적 풍경을 용의주도하게 겹쳐낸다. 신념과 폭력과 정치는 얼마나 멀거나 가까운가? 거기서 무엇이 정당하고 부당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바이 애니 민즈: 자비는 없다>는 이에 대한 일종의 질문이자 대답이 되기 위해 맹렬히 달려든다. 특히 마크 월버그의 캐스팅은 영화의 상업적 결단인 동시에 정치적 몸짓이 되기도 한다. (구형준)

Mississippi, 1966. Vernon Dahmer, a prominent civil rights activist, is killed in an attack by racial extremists. With the unofficial approval of the FBI director, Black FBI agent Wayne teams up with Scarpa, a mafia hitman, to investigate the case. Based on the true story of the FBI working with a mobster as an informant, the film is set against an era of pervasive racism and centers on the somewhat absurd pairing of a Black agent and a white mafioso, while shrewdly layering the contemporary political landscape over it. How close—or how far apart—are conviction, violence, and politics? How can we tell what is justified and what is not? *By Any Means* charges fiercely forward, seeking to become both a question and an answer to these dilemmas. In particular, the casting of Mark Wahlberg is both a commercial decision and a political gesture. (GOO Hyeon Jung)



Campeón Gabacho

가바초 챔피언

Mexico | 2025 | 108min | DCP | color

Director **Jonás CUARÓN** 호나스 쿠아론

065 Oct 07 / 15:40 / KT **411** Oct 11 / 09:00 / C6
623 Oct 13 / 15:40 / L8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멕시코를 떠나 미국으로 향한 청년 리보리오(후안 다니엘 가르시아 트레비뇨)의 여정은 혹독한 노동과 차별의 연속이다. 하지만 영화는 결코 그를 무기력한 피해자의 자리에 묶어두지 않는다. 주연의 날것 그대로 생명력 넘치는 연기는 격렬한 현실과 감각적인 환상의 경계를 허물며 마법적 사실주의로 극 전체에 강렬한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호나스 쿠아론 감독은 <가바초 챔피언>을 통해 자칫 익숙한 클리셰로 빠지기 쉬운 이민 서사를 완전히 다른 호흡과 감각으로 재구성한다. 유쾌하고 과감한 시각적 장치와 매력적인 상상력을 덧입혀 현실의 무게를 신선한 리듬으로 전환해 내는 연출은 냉혹한 타향살이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는 인간의 존엄과 끈기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증명해 보인다. (박성호)

The path of young Liborio (Juan Daniel García Treviño), who leaves Mexico for the United States dreaming of a better life, is one relentless cycle of harsh labor and discrimination. But the film never confines him to the position of a helpless victim. The lead actor's raw and vital performance breaks down the boundary between intense reality and sensory fantasy, filling the entire film with the fierce energy of magical realism.

Through *Campeón Gabacho*, director Jonás Cuarón reconstructs an immigration narrative that could easily fall into familiar cliché with an entirely different rhythm and sensibility. His direction layers playful and bold visual devices with captivating imagination to transform the weight of reality into a fresh rhythm and proves in an original way the human dignity and perseverance that never breaks even amid the harshest life in a foreign land. (PARK Sungho)



Clarissa 그날 밤, 클라리사에게

Nigeria | 2026 | 134min | DCP | color
Director **Arie ESIRI, Chuko ESIRI** 아리 에시리, 추코 에시리

칸영화제 감독주간

015 Oct 07 / 20:00 / B2
609 Oct 13 / 10:00 / L5

나이지리아의 쌍둥이 형제 감독 아리 에시리와 추코 에시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달러웨이 부인>을 현대적으로 각색하면서, 20세기 영국 런던을 21세기 나이지리아 라고스로 대변하게 치환한다. 상류층 여성 클라리사의 하루를 중심으로 시대의 초상과 기억의 서사를 의식의 흐름에 따라 묘사했던 원작의 형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식민과 탈식민, 계급과 정체성에 관한 새로운 역사적 맥락을 덧입힌다. 한밤의 파티를 준비하는 클라리사의 집에 오랜 친구들이 하나둘 모이면서 오래전의 선택과 사랑, 잃어버린 가능성과 인연의 끈들이 시간의 틈을 비집고 모습을 드러낸다. 클라리사의 고급 저택은 현대 아프리카 사회를 비추는 거대한 무대로 변모하고, 하룻밤의 파티를 따라가는 카메라는 인물들 사이 부유하는 내밀한 감정의 문양까지 포착한다. 우아하게 절제된 롱테이크, 인위성을 덜어낸 미장센이 인상적이다. (이주현)

Nigerian twin brothers and filmmakers Arie Esiri and Chuko Esiri offer a contemporary adaptation of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boldly transposing it from twentieth-century London to twenty-first-century Lagos, Nigeria. While retaining the original's form - a portrait of an era and a narrative of memory unfolding through stream of consciousness, centered on a single day in the life of the upper-class woman Clarissa - the film adds layers of new historical contexts concerning colonialism and postcolonialism, class and identity. As old friends gather one by one at Clarissa's house in preparation for a party that night, choices and loves from long ago, along with lost possibilities and bonds from the past, surface through the cracks of time. Clarissa's grand residence transforms into a vast stage reflecting contemporary African society, and the camera, following the course of a single night's party, captures the subtle contours of intimate emotions drifting between the characters. The elegantly restrained long takes and the mise-en-scène, stripped of artifice, leave a strong impression. (LEE Juhyun)



Club Kid 클럽 키드

United States | 2026 | 122min | DCP | color
Director **Jordan FIRSTMAN** 조던 퍼스트먼

칸영화제 감독주간

185 Oct 09 / 12:00 / CX
694 Oct 14 / 15:10 / L4

뉴욕의 밤을 난잡하게 누비는 클럽 프로모터 '피터'에게 느닷없이 열 살 아들 '알로'가 나타난다. 게이인 그는 여자들과 섹스한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살다 출지에 서툰 아버지 노릇을 시작한다. 그런 피터의 세계에 들어와 DJ가 되는 알로. 영화의 제목은 이렇게 슬그머니 다음 세대에게 상속된다. 올해 칸영화제 최대 화제작으로 떠오른 <클럽 키드>는 조던 퍼스트먼이 각본과 연출, 주연을 모두 맡은 장편 데뷔작으로, '믿고 보는' A24가 무려 1,700만 달러에 판권을 확보했다. TV 코미디 작가로 출발해 팬데믹 시기 기발한 영상으로 SNS에서 이름을 알린 퍼스트먼은, 자신의 떠들썩한 페르소나를 피터에게 투영하면서도 그 이전의 취약성과 다정함을 끌어낸다. 영화의 엔딩에서 파티장을 둘러다보는 피터의 모습에는, 광란의 밤을 지나 책임의 아침을 걷는 어른의 사정이 가만히 배어 있다. (함윤정)

Peter, a club promoter who roams New York's wild nightlife, is caught off guard when his ten-year-old son Arlo suddenly shows up. As a gay man, Peter has long since forgotten that he ever slept with a woman, only to suddenly find himself fumbling his way through fatherhood. Arlo enters Peter's world and becomes a DJ. And just like that, the film's title is quietly passed down to the next generation. *Club Kid* marks Jordan Firstman's feature directorial debut, with Firstman also serving as writer and lead actor. The film generated buzz after premiering at the Cannes Film Festival, where A24 acquired distribution rights for \$17million. Having started out as a TV comedy writer before making a name for himself on social media with inventive videos during the pandemic, Firstman projects his own boisterous public persona onto Peter while drawing out the vulnerability and tenderness that lie beneath it. In the film's final shot, as Peter looks up at the party, his figure quietly evokes the realities of adulthood—leaving behind a night of frenzy and stepping into a morning of responsibility. (HAM Yoonjeong)



Deep Blue 딥 블루

Italy | 2026 | 96min | DCP | color
Director **Ernesto Maria CENSORI** 에르네스토 마리아 첸소리

WP

171 Oct 09 / 15:00 / B1
657 Oct 14 / 19:30 / B3

비수기의 바닷가 호텔.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이곳을 찾는다. 과거를 잊기 위해서, 혹은 반대로 자신의 뿌리에 얽힌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 칼라브리아 마피아 출신의 노년의 남자들은 피로 얼룩진 과거를 피해 이곳에 숨어들어 죽음을 기다린다. 한편, 니콜라는 아버지를 찾아 멕시코에서 이곳으로 왔다. 아버지는 왜 열한 살의 그에게 피비린내 나는 일을 강요한 뒤 그를 버렸을까? 이 강렬하고 뛰어난 장편 데뷔작에서 에르네스토 마리아 첸소리 감독은 폭력이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기억과 혈연, 또한 문화의 형태로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승되는지를 응시한다. 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니콜라는 이제,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짓누르던 아버지의 그림자와 마주해야 한다. 저마다의 죄를 짊어진 이들 앞에서 바다는 마치 용서를 속삭이는 듯하다. 지중해의 깊고 푸른 바다는 지난날의 피를 씻어낼 수 있을까? (서승희)

A seaside hotel in the off-season. Those who come here have their own reasons: some to forget the past, others to uncover buried secrets. Elderly men who once belonged to the Calabrian mafia hide away here from their blood-stained pasts and await death. Meanwhile, Nicola has come from Mexico in search of his father. Why did his father force him to take part in a bloody act when he was only eleven, only to abandon him afterward? In this intense, remarkable feature debut, director Ernesto Maria Censori explores how violence transcends a single family's tragedy and is passed down through generations in the forms of memory, blood ties, and culture. To break free from the cycle of violence and reclaim his own life, Nicola must now confront his father's shadow, which has loomed over his entire life. To those burdened with their own sins, the sea seems to whisper of forgiveness. Can the deep blue waters of the Mediterranean truly wash away the blood of days gone by? (SEO Seunghee)



Everybody Digs Bill Evans 내가 사랑한 빌 에반스

Ireland/United Kingdom | 2026 | 102min | DCP | color
Director **Grant GEE** 그랜트 지

베를린영화제 은곰상 감독상

086 Oct 08 / 15:50 / B3
479 Oct 12 / 12:40 / B3

라디오헤드, 조이 디비전 등 전설적인 뮤지션들의 초상을 기록해 온 다큐멘터리스트 그랜트 지의 첫 극영화이다. 시대를 풍미한 재즈 피아니스트 빌 에반스의 삶을 다루지만, 전기영화의 관습을 넘어 한층 도약한다. 영화는 그가 음악적 정점에 도달했던 1961년에서 출발하여, 이후 약 20년에 걸친 고독과 방황의 시간을 쌓아 올린다. 16mm 필름의 질감은 지난 세기의 영화적 정취를 환기하고, 조각난 이미지들의 몽타주는 즉흥과 변주의 리듬을 지닌 재즈처럼 한 예술가가 통과한 시간의 층위들을 유려하게 조율한다. 영화는 빌 에반스의 나약함과 균열을 정면으로 재현하는 한편, 불안정한 인간의 내면을 복잡한 악보처럼 섬세하게 구성한다. 앤더스 다니엘슨 리의 관능적이며서도 절제된 연기는 빌 에반스라는 전설을 동시대적 인물로 소생시킨다. (문주하)

This is the first narrative feature by documentarian Grant Gee, who has chronicled portraits of legendary musicians such as Radiohead and Joy Division. While it shows the life of era-defining jazz pianist Bill Evans, the film leaps far beyond the conventions of a standard biopic. Beginning in 1961, when Evans reached his musical zenith, the narrative accumulates the ensuing two decades of solitude and wandering. The texture of 16mm film evokes the cinematic sentiment of the past century, while the montage of fragmented images, echoing jazz's innate rhythm of improvisation and variation, fluidly harmonizes the layers of time the artist went through. Confronting Evans's vulnerabilities and fractures head-on, the film intricately scores an unstable inner mind like a complex musical composition. Anders Danielsen Lie's sensual yet restrained performance resuscitates the legend of Bill Evans into a living, contemporary figure. (MOON Juhwa)



Everytime 에브리타임

Germany/Austria | 2026 | 124min | DCP | color
Director **Sandra WOLLNER** 산드라 볼너

칸영화제 주목할만한시선 대상

253 Oct 09 / 17:30 / L10 **356** Oct 10 / 10:00 / SH
377 Oct 11 / 09:00 / B3 **564** Oct 13 / 13:40 / B2

두 편의 영화로 독보적 세계를 구축한 산드라 볼너가 실로 놀라운 영화를 선보인다. 엄마와 어린 딸, 그리고 한 청년이 테네리페 섬으로, 미뤄둔 여행을 떠난다. 그의 세 영화를 관통하는 주제는 누군가의 죽음이다. ‘태어났음의 불편함’을 견디라는 전작 제목처럼, 영화는 괴롭고 찬란하며 부사지기 쉬운 삶의 순간을 절실하게 붙든다. 얼핏 본 태양 빛은 사라지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반복되는 게임 이미지는 현실이란 ‘존재했으나 상실한 어떤 것, 혹은 존재하지 않았으나 그러했을 법한 어떤 것, 또는 존재하지 싶은 어떤 것’이라고 말한다. 암부가 많은 볼너의 영화는 극장에서 안 보면 손해이며, 카메라가 가다한 건물을 마주해 6분 동안 유영하는 장면에선 눈을 부릅떠야 한다. <에브리타임>은 논쟁적인 걸작이다. 무언가에 매혹되는 건 위험한 일이다. (이용철)

Sandra Wollner, who has built an unmistakable world of her own across two films, now presents a truly astonishing work. A mother, her young daughter, and a young man set off on a long-postponed trip to Tenerife. Death is a theme running through all three of her films. As the title of her previous film, *The Trouble with Being Born*, suggests, this film desperately holds onto life's moments—agonizing, radiant, and fragile all at once. This is because a glimpse of sunlight, once gone, never returns. The recurring game imagery suggests that reality is 'something that existed but was lost, or something that never existed but plausibly could have, or something one wishes existed.' Wollner's shadow-rich films demand to be seen on the big screen, and in the six-minute sequence where the camera drifts before a massive building, you'll need to keep your eyes wide open. *Everytime* is a controversial masterpiece. To be captivated by something is a dangerous thing. (LEE Yong Cheol)



The Fire Within You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

Italy | 2026 | 93min | DCP | color
Director **Edoardo DE ANGELIS** 에도아르도 데 안젤리스

IP 베니스영화제 경쟁

018 Oct 07 / 16:30 / B3 **273** Oct 10 / 10:00 / B1
369 Oct 11 / 15:30 / B1

에도아르도 데 안젤리스의 영화에서 가족은 생존하기 위해 투쟁하는 관계다. 대표작 <헤어질 수 없는 우리>에서 두 딸의 재능을 착취하는 건 아버지이고, <화랑이라는 악덕>은 불법 대리모 사업에 엮인 불임 여성의 이야기다. 이번엔 밀라노에서 가족을 꾸리는 아들이 나폴리에서 온 광활한 어머니 때문에 골치를 앓는다. 그의 가족도 그러하고, 하는 행동을 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불편해할 스타일이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전날의 악몽’이 열린다. 그 와중에 카메라는 춤을 추고, 음악은 실내 전투를 응원하며, 식용 수탉이 무심하게 서성거린다. 때때로 어떤 가족 다름은, 미안하지만 타인에게 즐거운 구경거리다. 속사포처럼 쏟아져 나오는 대사의 격돌이 혼을 쏙 빼놓다가도 끝내 드라마를 만들어내는, 그제 이탈리아 코미디의 재맛이다. 속에 불을 지닌 어머니와 아들의 끈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이용철)

In Edoardo De Angelis's films, family is a bond forged in the struggle for survival. In his acclaimed *Indivisible*, a father exploits his daughters' talent, while *The Vice of Hope* tells the story of an infertile woman caught up in an illegal surrogacy business. This time, a son building a family in Milan is driven to distraction by his boisterous mother visiting from Naples. His family is equally exasperated, and judging by her behavior, it's easy to see why most people would find her a handful. And so begins 'a nightmare on Christmas Eve.' Meanwhile, the camera dances, the music cheers on the domestic battles, and a rooster destined for the dinner table wanders about unconcerned. Sometimes, it's sad to say, a family squabble is simply great entertainment for onlookers. The clash of rapid-fire dialogue leaves you breathless, yet somehow builds into genuine drama - that's Italian comedy at its best. Nothing can sever the bond between a mother and son who both carry fire within. (LEE Yong Cheol)



Gentle Monster 젠틀 몬스터

Austria/Germany/France | 2026 | 115min | DCP | color
Director **Marie KREUTZER** 마리 크로이처

칸영화제 경쟁

051 Oct 07 / 20:40 / L4 **095** Oct 08 / 12:40 / C1
595 Oct 13 / 13:00 / C6

사랑하는 가족이 아동 성범죄자라면? 마리 크로이처 감독의 서늘한 질문은 현실의 추악한 일면을 들추는 것은 물론 평범한 얼굴을 한 괴물이 우리의 일상을 서성이고 있다고 경고한다. 피아니스트 루시(레아 세두)는 번아웃을 호소하는 남편을 위해 아들과 함께 교외로 이사한다. 평화로운 일상도 잠시, 경찰이 들이닥쳐 남편 필립의 컴퓨터를 압수해간다. 아동 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필립은 사실을 부정하는 대신 변명을 늘어놓고, 남편의 성범죄를 마주한 루시는 믿었던 세계가 붕괴되는 경험을 한다. 영화는 ‘또 다른 피해자인 가족’의 자리에 닳을 내려 신뢰가 파괴된 자리에 찾아온 윤리적 폐해를 응시한다. 나이가 감독은 사건 담당 수사관인 엘사가 아버지의 성적 부정행위를 목인하는 사건을 포개놓으면서 인간의 모순적 태도를 꼬집는다. 악은 은밀하게 광범하게 일상에 숨어든다. (이주현)

What if a beloved family member turned out to be a child sex offender? Director Marie Kreutzer's chilling question not only exposes an ugly facet of reality but also warns that monsters wearing ordinary faces linger within our everyday lives. Pianist Lucy (Léa Seydoux) moves to the suburbs with her son for the sake of her husband, who has been struggling with burnout. Their peaceful life lasts only briefly before police raid their home and seize Philip's computer. Under investigation on charges including possession of child sexual abuse material, Philip does not deny the allegations but offers one excuse after another. Confronting her husband's sex crimes, Lucy experiences the collapse of the world she once trusted. The film anchors itself in the perspective of 'the family as another victim,' gazing steadily at the ethical ruins left behind where trust has been destroyed. Furthermore, the director adds a parallel storyline involving Elsa, the investigator handling the case, who turns a blind eye to her own father's sexual misconduct, sharpening her critique of humanity's contradictory attitudes. Evil subtly slips into the ordinary fabric of everyday life. (LEE Juhyun)



A Good Little Soldier 모범 직원 카를라

France | 2026 | 102min | DCP | color
Director **Stéphane BRIZÉ** 스테판 브리제

베니스영화제 경쟁

119 Oct 08 / 09:20 / L2 **184** Oct 11 / 22:10 / CX
702 Oct 14 / 16:30 / L6

<옛 위>, <아버지의 초상> 등에서 스테판 브리제 감독이 들여다본 노동과 권력의 문제는 <모범 직원 카를라>에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의 평범해 보이는 회사 생활을 통해 다시금 탐구된다. 대형 보험회사의 유능한 인사관리 책임자 카를라는 경영진이 요구하는 성과를 달성해야 하는 동시에 직원의 복지와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양립하기 어려운 임무를 떠안은 중간 관리자다. 뛰어난 실력은 물론 헌신적 태도까지 갖춘 성공한 인물이지만, 그녀의 성공은 가족과 사생활을 희생한 결과다(영화에서 카를라의 가족은 영상통화로만 등장한다). 조직에의 충성과 윤리 사이의 딜레마,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수록 커져버리는 삶의 균열이 알바 로르바커의 원맨쇼에 가까운 오피스 드라마로 그려진다. 수많은 전문직 여성들의 초상임은 물론, 우리 시대 노동의 얼굴이 예리하게 담겼다. (이주현)

The issues of labor and power that director Stéphane Brizé has examined in works like *At War* and *The Measure of a Man* are explored once again in *A Good Little Soldier*, this time through the seemingly ordinary office life of a successful career woman. Carla, the capable head of human resources at a major insurance company, is a middle manager saddled with a nearly impossible dual mandate: delivering the results demanded by executive leadership while looking after employees' well-being and resolving workplace conflicts. She is a successful professional, distinguished not only by her ability but also by her unwavering dedication - yet her success comes at the cost of her family and personal life (in the film, Carla's family appears only through video calls). The dilemma between loyalty to the organization and personal ethics, and the fissures in life that only widen the harder she tries to be a good person, are portrayed in an office drama that plays almost like a one-woman show carried by Alba Rohrwacher. It is a portrait of countless professional women, and it captures, with sharp precision, the face of labor in our era. (LEE Juhyun)



Goodbye Cruel World

굿바이, 이놈의 잔인한 세상

France/Belgium | 2026 | 93min | DCP | color

Director **Félix DE GIVRY** 펠릭스 드기브리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138 Oct 08 / 09:40 / L6 **392** Oct 11 / 10:00 / C2
559 Oct 13 / 10:00 / B1

<아르고>, <코마>의 제작자로 알려진 펠릭스 드기브리의 데뷔작이다. 주연은 <추락의 해부>로 세계적 유망주로 부상한 밀로 마차도 그라너가 맡았다. “이 이야기는 끝에서 시작해 시작으로 끝난다”라고 영화를 소개하는 사람은 <엄마와 창녀>의 프랑수아즈 르브랭이다. 또래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14세 소년이 작별의 편지를 쓴 뒤 사라진다. ‘이건 자살이 아니라 살인’이라고 쓴 52통의 편지에 사람들은 그가 죽었을 거라 짐작한다. 요즘 보기 드물게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영화다. 16미리 촬영이 빛은 그윽한 색감과 복고적 질감은 영화의 분위기를 십분 살려낸다. 그 결과, 1960, 70년대에 트뤼포와 말이 연출한 소년기 영화가 함께 거론되는 건 당연한 일이다. 시네필이라면 거기에 피알라나 외스타슈의 이름을 더할 것이다. 르브랭이 괜히 목소리를 제공한 게 아니다. (이용철)

This is the directorial debut of Félix de Givry, known as a producer of *Arco* and *Coma*. The lead role is played by Milo Machado Graner, who emerged as a rising international star with *Anatomy of a Fall*. “This story begins with the end and ends with the beginning,” says Françoise Lebrun from *The Mother and the Whore*, introducing the film. After writing farewell letters, a fourteen-year-old boy who has been bullied by his peers disappears. Given the fifty-two letters he leaves behind, in which he writes, ‘This was murder, not suicide,’ people assume he must be dead. This is a rare thing these days: a lyrical, romantic film. The deep, glowing color and retro texture achieved through 16mm cinematography bring the film’s atmosphere fully to life. It is no surprise, then, that the film invites comparisons to the coming-of-age films directed by Truffaut and Malle in the 1960s and ’70s. Cinephiles will add Pialat and Eustache to that list as well. It is no accident that Lebrun lends her voice to the film. (LEE Yong-cheol)



I Rarely Wake Up Dreaming

올라와 올레흐: 난 좀처럼 꿈에서 깨어나지 않지

Germany/Ukraine | 2026 | 100min | DCP | color

Director **Isabelle STEVER** 이자벨 슈테버

로카노영화제 경쟁

372 Oct 11 / 09:20 / B2 **526** Oct 12 / 15:30 / L6
661 Oct 14 / 19:40 / CX

슈테버의 영화에서 인물들은 위태로운 사랑에 빠지고 한다. 전작들에서 그 역할이 중년 여성들의 몫이었다면, 신작에선 젊은 쿼어 커플이 시점에 오른다. 올라의 반대에도 올레흐가 성전환 과정을 거치면서, 두 사람은 이성애자 관계로 지낸다. 2022년, 우크라이나 확전으로 올레흐가 징집 대상이 되자 둘 사이의 갈등이 증폭된다. ‘성정체성 장애, 젠더 디스토피아’ 등의 단어와 눈앞의 전쟁이 충돌하는 상황 속에서 연인은 위기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감독과 각본가가 비슷한 경험을 겪은 사람들이고, 공송경보가 울리는 전시에 힘겹게 촬영된 만큼, 영화는 커다란 진실함으로 다가온다. 슈테버는 언제나, 다른 자리로 옮겨온 인물을 바라보며 끝을 맺는다. 전작 <그랑 주테>가 떠오르는 엔딩의 막막함은 감정을 추스르기가 힘들게 만든다. (이용철)

Love in Stever’s films is often precarious. While her earlier films placed middle-aged women in such relationships, her new film puts a young queer couple to the test. Oleh undergoes a gender transition despite Olya’s objections, and the two begin living as a heterosexual couple. In 2022, as the war in Ukraine escalates and Oleh becomes subject to conscription, tensions between them intensify. Amid a situation in which terms like ‘gender identity disorder’ and ‘gender dysphoria’ collide head-on with the war unfolding before them, how can the couple make it through this crisis? Both the director and screenwriter have had similar experiences themselves, and the film was shot under difficult wartime conditions, with air-raid sirens sounding, lending it a profound sense of authenticity. Stever always ends her films by looking at characters who have arrived at a different place. The aching poignancy of the ending, reminiscent of her earlier film *Grand Jeté*, makes it difficult to regain one’s composure. (LEE Yong-cheol)



The Guest

초대받지 않은 손님

Denmark | 2026 | 99min | DCP | color

Director **Mads MENGEL** 마스 멥엘

카를로비바리영화제 감독상, 심사위원특별상

078 Oct 08 / 19:10 / B1 **237** Oct 09 / 15:30 / L6
329 Oct 10 / 22:10 / L4 **627** Oct 13 / 15:20 / L9

감독은 덴마크 중산층 가족의 상층난 관계를 블랙코미디와 심리극의 렌즈로 들여다본다. 칼과 에밀리 부부는 바닷가에 위치한 고급 호텔에서 갓 태어난 아들 엘리엇의 작명 파티를 준비한다. 사건은 초대 받지 않은 손님이 등장하면서 벌어지는데, 불청객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자넨 칼의 엄마 비베케다. 칼, 칼 대신 엄마를 돌봐온 누나 리케, 정신 건강 문제가 있는 엄마 비베케, 세 사람의 억눌린 감정이 중요한 가족행사 날 폭발한다. 영화의 문제적 인물은 비베케처럼 보인다. 비베케의 등장과 함께 긴장감도 고조된다. 그런데 영화는 계속해서 미끼를 던진다. 비베케의 행동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칼의 과잉 반응도 의심스러운 거 아닌가? 인물의 정신적 불안정함을 가볍게 풍자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가 믿음직스러운 영화다. 비베케를 연기한 덴마크의 명배우 트린 디르홀름의 연기도 압권이다. (이주현)

The director examines the fractured relationships within a Danish middle-class family through the lens of black comedy and psychological drama. Karl and Emilie are preparing a naming celebration for their newborn son Elliot at a luxury seaside hotel. Trouble begins when an uninvited guest arrives: Vibeke, Karl’s mother, whom he has not spoken to in years. The suppressed emotions of three people - Karl; his sister Rikke, who has cared for their mother in Karl’s absence; and Vibeke, who struggles with mental health issues - come to a head on the day of this important family celebration. At first, Vibeke seems to be the source of the family’s troubles, and tension mounts with her arrival. But the film keeps complicating that assumption. How are we meant to understand Vibeke’s behavior? And isn’t Karl’s overreaction just as suspect? What is admirable is the film’s careful refusal to make light of its characters’ psychological instability. Celebrated Danish actress Trine Dyrholm delivers a tour-de-force performance as Vibeke. (LEE Juhyun)



In Waves

우리, 파도처럼

France/Belgium | 2026 | 91min | DCP | color

Director **NGUYEN Phuong Mai** 응우옌푸엉마이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127 Oct 08 / 21:20 / L3 **169** Oct 09 / 09:00 / B1
361 Oct 10 / 20:30 / BCM **626** Oct 13 / 12:40 / L9
646 Oct 14 / 13:00 / BH

<우리, 파도처럼>은 AJ 당고의 동명 그래픽 노블을 원작으로 한 응우옌푸엉마이 감독의 장편 데뷔작으로 올해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최초의 애니메이션 개막작으로 초청받아 많은 관객을 눈물짓게 했다.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진 캘리포니아 서핑 신을 배경으로 소심한 아시아계 고교생 AJ가 파도 위에서 가장 눈부신 소녀 크리스틴과 사랑에 빠지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룬다. 서투른 첫 만남부터 사랑이 무르익어가는 과정까지, 두 사람이 나누는 풋풋한 케미스트리는 보는 내내 웃음과 공감을 자아낸다. 그러나 찬란하던 나날은 뜻밖에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며 슬픔도 사랑도 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버린다. <우리, 파도처럼>은 그 가운데 끝내 사라지지 않는 것을 담담히 응시한다. (박성호)

In Waves is director Nguyen Phuong Mai’s feature debut, based on AJ Dungo’s graphic novel of the same name. Invited to open Cannes Critics’ Week this year as the first animated film ever to do so, it moved many audiences to tears. Set against a California surf scene lined with beautiful beaches, the film follows shy Asian American high schooler AJ as he falls for Kristen, the girl most radiant on the waves, and comes of age with her. From their awkward first encounter to the ripening of their love, the pair’s budding chemistry draws laughter and empathy throughout. But their radiant days take an unexpected turn, and both sorrow and love wash in and out like waves. Amidst it all, *In Waves* quietly gazes at what never fades in the end. (PARK Sungho)



Iron Boy

아이언 보이

France/Belgium | 2026 | 90min | DCP | color
Director **Louis CLICHY** 루이 클리시

칸영화제 주목할만한시선 심사위원특별상

017 Oct 07 / 13:00 / B3
504 Oct 12 / 09:40 / C6

기억 속 어린 시절은 언제나 조금 뒤틀고, 서툴고, 그래서 더 선명하다. 굵고 소박한 붓선으로 흐르듯 펼쳐지는 <아이언 보이>의 세계는 그런 유년의 기억과 묘하게 닮아있다. 픽사에서 <월-E>, <업> 등에 참여했던 루이 클리시 감독은 자신의 경험에서 출발한 이야기를 첫 단독 장편에 담았다. 농부인 아버지의 뒤를 따르려던 크리스토프는 몸의 이상으로 철제 보조기를 차게 된다. 몸을 곧게 세우기 위한 보조기는 오히려 그를 예정된 삶에서 비껴나게 하고, 그 틈으로 음악과 우정, 낯선 감정들이 찾아온다. 오르간을 연주하는 소년의 현실이 자유로운 상상으로 뻗어가는 순간, 신체의 제약은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힘으로 뒤바뀐다. 성장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 방식은 누구에게도 같지 않다. <아이언 보이>는 한 소년의 성장기를 통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저마다의 유년을 슬며시 불러낸다. 칸영화제 주목할만한시선 심사위원특별상,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심사위원상·관객상 수상작. (김자혜)

Childhood in our memories is always a little crooked, clumsy, and therefore all the more vivid. Flowing through bold, rustic brushstrokes, the world of *Iron Boy* bears a peculiar resemblance to such childhood recollections. Director Louis Clichy, an animator who previously contributed to Pixar's *WALL-E* and *Up*, brings a story rooted in his personal experience to his solo feature directorial debut. Christophe, who intended to follow in his father's footsteps as a farmer, is fitted with iron body braces due to a physical disability. The braces are meant to straighten his body yet instead steer him away from his predetermined path in life, allowing music, friendship, and new emotions to seep into the crevices. The moment the organ-playing boy's reality branches out into free imagination, his physical limitations transform into a power to see the world as never before. Growth comes to everyone, but the path is never the same for any two people. Through one boy's coming-of-age story, *Iron Boy* quietly awakens the distinct childhood lingering within each of us. It is a winner of the Cannes Un Certain Regard Special Jury Prize, as well as the Annecy IFF Jury Award and Audience Award. (KIM Jihye)



Jim Queen

짐 퀸

France/Belgium | 2026 | 86min | DCP | color
Director **Marco NGUYEN, Nicolas ATHANÉ** 마르코 응우옌, 니콜라 아타네

칸영화제 미드나잇스크리닝

269 Oct 10 / 23:59 / BH
555 Oct 13 / 10:00 / BH

2천만 팔로워를 거느린 파리 게이계의 절대적 인플루언서 짐. 헬스도 다져진 뽐뿌한 가슴과 엉덩이, 조각 같은 근육으로 욕망의 파라미드 꼭대기에 군림한다. 하지만 3주 안에 근육을 잃고 이성애자가 되는 '헤테로시스'라는 신종 성병에 감염되자 팬들은 빠르게 등을 돌린다. 치료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그가 무시했던 벽장 속 청년 루시앙만이 끝까지 곁을 지킨다. 올해 칸영화제에서 퀴비에르극장을 열광의 장으로 만든 <짐 퀸>은 소수자 공동체 내부에도 무시와 차별이 만연한 냉혹한 현실을 통렬하게 풍자한 애니메이션이다. 온갖 패러디가 실 틈 없이 쏟아지는 가운데 AIDS에 대한 공포와 동성애 차별, 커밍아웃의 두려움, 국가권력의 위선까지 포착한다. 혐오와 질투대신 자기 긍정과 연대로 얻는 진정한 자유를 유쾌하면서도 독하게 일깨운다. (박성호)

Jim is a superstar gay influencer in Paris with 20 million followers. Sculpted by gym training with a chiseled chest, glutes, and rock-hard muscles, he reigns at the top of the pyramid of desire. But when he contracts a new STD called 'heterosis,' which causes him to lose his muscles and become straight within three weeks, his fans quickly turn their backs on him. As he struggles to find a cure, the only one who stays by his side is Lucien, the closeted young man he used to ignore. *Jim Queen*, which set the Lumière Theatre ablaze with excitement at this year's Cannes, is an animated satire that biting captures the harsh reality of the contempt and discrimination that persist even within minority communities. Amid a relentless barrage of parodies, it captures the fear of AIDS, homophobia, the anxiety of coming out, and even the hypocrisy of state power. Instead of hatred and envy, it delivers a witty yet biting wake-up call about true liberty through self-acceptance and solidarity. (PARK Sungh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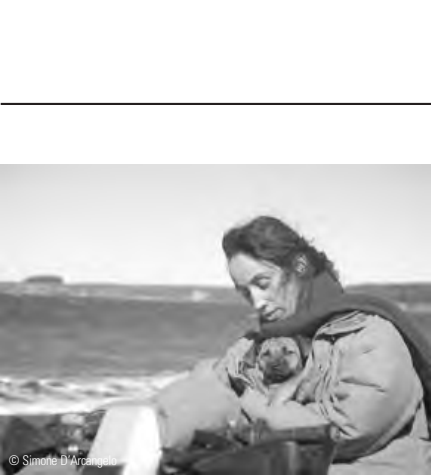
La Gradiva

라 그라디바

France | 2026 | 145min | DCP | color
Director **Marine ATLAN** 마린 아틀랑

칸영화제 비평가주간

096 Oct 08 / 15:40 / C1
610 Oct 13 / 13:20 / L5



La Perra

라 페라

Chile/Brazil | 2026 | 113min | DCP | color
Director **Dominga SOTOMAYOR** 도밍가 소토마요르

칸영화제 감독주간

145 Oct 08 / 16:40 / L7
343 Oct 10 / 10:30 / L8

246 Oct 09 / 17:00 / L8
715 Oct 14 / 18:10 / L9

신에 아틀랑은 로브그리에, 알베르타치의 영화에 영감을 준 전설의 소설을 완전히 탈바꿈시켰다. 여기에 '우아하게 걷는 여성(그라디바)의 부조상'은 없다. 프로이트가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연선의 중편은 원래 억압된 욕망과 사랑의 이야기다. 소년 소녀를 주인공으로 한 편의 꿈 같은 영화 <다니엘>을 만든 감독답게, 아틀랑은 원작의 고고학자를 일군의 청소년으로 대신했다. 프랑스 고등학교생들이 폼페이로 여행을 떠난다. 청소년기의 장체를 읽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시기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순간들을 더듬어 고스란히 담은 영화다. 공간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탈리아 여행>이 연상되고, 안타까운 마음은 <행잉 록에서의 소풍>을 꺼내게 하지만, 이걸 온전히 아틀랑의 영화다. 깃털처럼 가벼우면서 시간처럼 무거운 영화, <라 그라디바>는 그런 작품이다. 올해의 진정한 문제작이다. (이용철)

The rising filmmaker Atlan has completely transformed the legendary novella that inspired films by Robbe-Grillet and Albertazzi. There is no 'bas-relief of a woman walking gracefully (Gradiva)' here. Jensen's novella, which Freud analyzed in an essay, was originally a story of repressed desire and love. Having made *Daniel*, a dreamlike film about a boy and a girl, Atlan replaces the archaeologist of the original with a group of adolescents. A group of French high school students travel to Pompeii. The film does more than probe the nature of adolescence; it traces and captures in full the moments that shake that period of life to its very core. The setting inevitably calls *Journey to Italy* to mind, while a certain aching tenderness evokes *Picnic at Hanging Rock*, but this is, through and through, Atlan's own film. Light as a feather yet heavy as time - that is *La Gradiva*. It is the year's true revelation. (LEE Yong-cheol)

칠레 남부의 '외딴' 섬. 이 섬의 토박이인 실비아는 작은 강아지에게 '유리'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한 번도 갖지 못한 아이를 돌보듯 귀여워한다. 만사가 조심스럽고 말수가 적은 실비아와 달리 유리는 활발하고 자유분방하다. 어느 날 유리가 갑자기 사라지면서 실비아는 외면하고 있었던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과 대면하게 된다. 카메라가 실비아의 내면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유리의 마음으로 훌쩍 건너뛰는 순간, 우리는 '고립'된 섬이 아닌 무한으로 열린 채 서로 엉켜있는 바다, 하늘, 땅, 바람과 만나게 된다. 세상의 모든 자연과 생명이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감각하게 되는 순간이다. '반려'를 보살피는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때로는 부딪치면서도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법을 생각해 보게 한다. (손희정)

On a 'remote' island in southern Chile, Silvia, a native of the island, names a small dog 'Yuri' and dotes on it as though caring for the child she never had. Unlike Silvia, who is cautious and reticent, Yuri is lively and free-spirited. When Yuri suddenly disappears one day, Silvia is forced to confront painful memories from her past that she had been avoiding. As if trying to work through unresolved trauma, Silvia tries to control Yuri, but Yuri is not so easily controlled. As the camera follows Silvia's inner world and then, at one point, boldly leaps into Yuri's mind, we encounter not an 'isolated' island, but sea, sky, earth, and wind, open to infinity and entangled with one another. It is a moment in which we truly come to sense a planetary communion. In this way, the film asks us to imagine not 'companionship' but 'conflictual coexistence.' (Jay Hee-jeong SOHN)



A Place to Heal 15/18

France | 2026 | 104min | DCP | color
Director **Cédric KAHN** 세드리크 칸

베니스영화제 경쟁

142 Oct 08 / 21:30 / L6 **251** Oct 09 / 11:20 / L10
315 Oct 10 / 22:30 / C6 **594** Oct 13 / 10:20 / C6

세드리크 칸이 연출 및 주요 인물을 연기한 신작은 청소년 정신 병동을 다룬다. 대부분 아이는 영화 경력이 없고, 음악은 절제되며, 카메라는 관찰하는 쪽이라서 <15/18>의 스타일은 다큐멘터리와 유사하다. 15세에서 18세에 이르는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초반 상황을 보면 그곳이 학교 휴게실인지 착각할 듯하다. 물론 영화는 곧바로 그 이면으로 들어간다. 불안과 트라우마를 지닌 아이들의 입에선 '폭력, 매춘, 강간' 같이 가혹한 말들이 튀어나온다. 의사들은 시도 때도 없이 죽음과 자살을 말하는 아이들을 '미친 게 아니라 쉬 상처받고, 치유해야 할 문제를 지닌 존재'로 대하려고 노력한다. 병원의 목표는 곧 영화의 질문이다. '아이들이 바깥세상에서 정상적인 일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책임자겠다는 말 대신 무책임한 말은 하지 않겠다는 영화의 자세가 마음을 움직인다. (이용철)

A Place to Heal, directed by Cédric Kahn, who also plays a leading role, is set in an adolescent psychiatric ward. Most of the young cast have no prior acting experience, the use of music is restrained, and the camera tends to observe rather than intervene, giving *A Place to Heal* the feel of a documentary. Watching the fifteen- to eighteen-year-olds laugh and chat in the opening scenes, one might mistake the place for a school common room. Of course, the film soon moves beneath that surface. Uncomfortable words such as 'violence, prostitution, and rape' begin to emerge from children burdened by anxiety and trauma. It is unsettling to hear these children constantly talk about death and suicide, but the doctor tries to treat them not as 'crazy, but as vulnerable children dealing with problems that require care.' The hospital's goal is also the film's question: 'Can these children lead ordinary lives once they return to the outside world?' What is striking is the film's attitude: rather than claim responsibility, it simply refuses to speak irresponsibly. (LEE Yong Cheol)



Pressure 프레셔

United Kingdom/France | 2026 | 99min | DCP | color
Director **Anthony MARAS** 앤서니 마라스

역사의 향방을 가른 디데이 작전 72시간. 영화 <프레셔>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세를 뒤바꾼 노르망디 상륙 작전 직전의 긴박한 실화를 조명한다. 기상학자 제임스는 자신의 기상 예측을 바탕으로 아이젠하워 장군과 연합군 본부를 설득해야 하는 거대한 과제에 직면한다. 계획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작전 전체가 사상 최악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 <호텔 뭄바이> (2018)의 앤서니 마라스 감독은 폭풍 전야의 중압감을 정교하고 감각적인 연출로 그려낸다. 여기에 브렌든 프레이저, 앤드류 스콧, 캐리 콘돈 등 호화로운 출연진의 치밀한 연기 호흡이 더해져 긴장감을 극대화한다. 단 한 번의 기상 예측에 인류의 운명이 걸렸던 순간, 찰나의 선택이 빚어내는 장엄한 전쟁 드라마가 묵직한 울림을 선사한다. (박가연)

A film about the 72 hours leading up to D-Day that altered the course of history. *Pressure* sheds light on the tense, true story right before the Normandy Landings, the turning point of World War II. Based on his weather forecasts, meteorologist James faces the monumental task of convincing General Eisenhower and Allied headquarters to alter their plans. Should they press ahead, the entire operation could culminate in the worst disaster in military history. Director Anthony Maras of *Hotel Mumbai* (2018) captures the heavy pressure of the calm before the storm through precise, sensory direction. This is heightened by the meticulous performances and chemistry of a stellar ensemble cast, including Brendan Fraser, Andrew Scott, and Kerry Condon, maximizing the suspense. A moment when the fate of humanity hung on a single weather forecast, this magnificent war drama resonates with the weight of split-second decisions. (Karen PARK)

386 Oct 09 / 09:20 / CX **599** Oct 13 / 13:30 / L2
675 Oct 14 / 17:20 / C4



Queen at Sea 엄마의 바다

United Kingdom | 2026 | 121min | DCP | color
Director **Lance HAMMER** 랜스 해머

베를린영화제 은곰상 심사위원상, 조연상

134 Oct 08 / 12:00 / L5 **469** Oct 12 / 16:00 / BH
600 Oct 13 / 16:10 / L2

가족의 삶을 어디까지 대신 결정할 수 있을까. 아만다(줄리엣 비노치)와 그녀의 새아버지 마틴(톰 코트니)은 종종 차마를 앓는 레슬리(애나 칼더마셜)를 두고 격렬히 맞선다. 사랑과 폭력, 자살과 침해, 보호와 통제. 대립이 첨예해질수록 판단은 어려워진다. 쇠약한 육체를 비추던 카메라가 이제 막 성적 욕망에 눈뜬 아만다의 팔에게 시야를 넓히자, 서로 다른 생의 시기가 하나의 감각으로 이어진다. 정교한 프레임으로 관계의 구도를 살핀 <엄마의 바다>는 돌봄이란 이름 아래 타인의 여생을 판단하는 일의 곤경을 포착한다. 랜스 해머가 <발라스트> (2008) 이후 18년 만에 내놓은 두 번째 장편영화로, 올해 베를린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았다. 선뜻 규정할 수 없는 노년의 부부 관계를 빛낸 두 배우도 조연상을 공동 수상했다. (함윤정)

How far can we decide the course of a family member's life on their behalf? Amanda (Juliette Binoche) and her stepfather Martin (Tom Courtenay) clash fiercely over Leslie (Anna Calder-Marshall), who suffers from severe dementia. Love and violence, autonomy and intrusion, protection and control—the sharper the conflict grows, the harder it becomes to judge. When the camera, which has been trained on a frail body, widens its gaze to take in Amanda's daughter who's just awakening to sexual desire, two very different stages of life become connected through a single sensibility. Using meticulous framing to examine the dynamics of its relationships, *Queen at Sea* captures the predicament of deciding how another person should live out the rest of their life in the name of care. Lance Hammer's second feature, arriving eighteen years after *Ballast* (2008), won the Silver Bear Jury Prize at the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two actors who portrayed an elderly couple whose relationship resists easy definition also shared the Silver Bear for Best Supporting Performance. (HAM Yoonjeong)



Rose 로즈

Austria/Germany | 2026 | 94min | DCP | b&w
Director **Markus SCHLEINZER** 마르쿠스 슬라인저

베를린영화제 은곰상 주연상

250 Oct 09 / 20:00 / L9 **348** Oct 10 / 13:20 / L9
695 Oct 14 / 18:20 / L4

산드라 뢰를에게 베를린영화제 은곰상 주연상을 안긴 <로즈>는 자유를 위해 남장여자의 삶을 택한 인물의 비극을 그린, 기이하고 아름다운 흑백 영화다. 30년 전쟁이 끝난 17세기 독일의 개신교 마을. 버려진 농장의 상속자라 주장하는 군인 로즈가 나타난다. 마을 사람들은 여러모로 수상쩍은 이방인 로즈를 경계하고 의심하는데, 아무래도 그가 남자 행세를 하는 여자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사실 로즈의 삶은 거짓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과 다름없다. 하지만 그의 삶이 거짓이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로즈의 죄는 신을 모독한 것인가 남자를 모욕한 것인가. 로즈는 사회가 부여한 고정된 성 역할에 자신을 가둘 마음이 없다. “바지를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자유”를 얻고 싶어 여성에게 허락된 삶의 경계를 넘어선다. <로즈>는 남자가 되고 싶었던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자로 살 수 없었던 한 인간의 이야기다. (이주현)]

Rose, which earned Sandra Hüller the Silver Bear for Best Leading Performance at the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 a bizarre and beautiful black-and-white film depicting the tragedy of a person who chose to live as a cross-dressing woman for the sake of freedom. In a 17th-century German Protestant village in the aftermath of the Thirty Years' War, a soldier named Rose appears, claiming to be the heir to an abandoned farm. The villagers are wary and suspicious of this enigmatic outsider in every way, largely because he appears to be a woman masquerading as a man. In truth, Rose's life is little more than a sandcastle built on deception. Yet who has the right to declare that life a lie? Is Rose's crime an act of blasphemy against God, or an insult to men? Rose has no intention of confining herself to the fixed gender roles imposed by society. Yearning for, "There's more freedom in trousers." she crosses beyond the boundaries of life permitted to women. *Rose* is not the story of a woman who wanted to be a man, but the tale of a human being who could not live as a woman. (LEE Juhyun)



Salvation

구원은 없다

Turkiye/France/Netherlands/Greece/Sweden/Saudi Arabia | 2026 | 120min | DCP | color
Director **Emin ALPER** 에민 알페르

베를린영화제 은곰상 심사위원대상

105 Oct 08 / 09:20 / C4 **178** Oct 09 / 22:20 / B2
575 Oct 13 / 13:00 / C1

일관된 주제를 추구해온 에민 알페르는 올해 베를린영화제의 심사위원대상을 받았다. 실화에서 영감을 얻은 <구원은 없다>는 평을 두고 두 부족 간에 발생한 긴장을 그린다. 그의 영화는. 땅과 영역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배타적 증오의 결합이 초래하는 비극을 꾸준히 다뤘었다. 주제 표현을 위해 와이드스크린의 미학을 좇아온 부분도 주목할 만하다. 거기에 더해 <구원은 없다>는 종교적 맹신과 이교도적 계시가 뒷받침하는 순간의 악몽까지 나아간다. 카인과 아벨을 뒤집어놓은 이야기에서 윗마을과 아랫마을의 사람 중 누가 카인일까. 악마는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이어서 그의 지시를 따르더라도 불안과 공포는 사라지지 않는다. 알페르의 영화가 주로 시골의 한정된 공간을 무대로 삼는 까닭에 전근대적인 사회의 문젯거리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근대와 과정에서 극복되지 못한 공통된 숙원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이용철)

Emin Alper, a filmmaker who has consistently pursued a coherent set of themes, received this year's Silver Bear Grand Jury Prize at the Berlin Film Festival. His latest film *Salvation*, inspired by a true story, portrays the tension that arises between two tribes over land. His films have steadily explored the tragedy born from the combination of excessive attachment to land and territory alongside exclusionary hatred. Also worth noting is how he has pursued a widescreen aesthetic in service of expressing these themes. Beyond that, *Salvation* ventures into a momentary nightmare fueled by religious fanaticism and pagan revelation. In this inverted tale of Cain and Abel, who among the people of the upper village and the lower village is Cain? The devil exists inside the mind, so even in obeying its commands, anxiety and fear do not disappear. Because Alper's films are mostly set in confined rural spaces, they might seem to depict the problems of a premodern society. But he also seems to be suggesting that this is, in fact, a common and longstanding problem that modernization has failed to overcome. (LEE Yong Cheol)



Sense and Sensibility

이성과 감성

United Kingdom/United States | 2026 | 131min | DCP | color
Director **Georgia OAKLEY** 조지아 오클리

046 Oct 07 / 15:40 / L3 **076** Oct 08 / 09:00 / B1
470 Oct 12 / 19:00 / BH **688** Oct 14 / 09:20 / L3

아버지를 여린 후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정든 집에서 쫓겨난 두 자매. 생존마저 위협받는 현실 속에서 차분하고 이성적인 언니 엘리너와 열정적이고 솔직한 동생 메리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삶과 사랑, 부당한 세상에 맞선다. 제인 오스틴의 초기 원제 『엘리너와 메리앤』의 의도대로, <이성과 감성>은 연애 사건을 넘어 두 자매의 서사 자체와 심리적 연대에 집중한다. 이안 감독의 <센스 앤 세서빌리티>(1995)가 서정적인 클래식 로맨스의 정석이었다면, 조지아 오클리 감독은 당대의 억압적 사회 구조와 생존의 절박함에 초점을 맞춘다. 데이비 에드가-존스의 깊은 내면 연기와 에스메 크리드-마일스의 날것 같은 에너지가 시나지를 이루며, 19세기 영국 시골의 사실적인 미장센 속에서 두 자매의 성장기를 현대적이고 입체적인 감각으로 새롭게 탈바꿈시킨다. (박가연)

Following their father's death, two sisters are evicted from their beloved home along with their mother and younger sister. Amid a harsh reality where their very survival is threatened, the composed and rational elder sister Elinor and the passionate, candid younger sister Marianne each confront life, love, and an unjust world in their own distinct ways. True to the intent of Jane Austen's early working title *Elinor and Marianne*, *Sense and Sensibility* shifts focus beyond mere romantic entanglements to center on the sisters' own narrative and psychological solidarity. Where as Ang Lee's *Sense and Sensibility* (1995) served as the quintessential classic lyrical romance, director Georgia Oakley focuses instead on the oppressive social structures and the sheer urgency of survival of the era. The synergy between Daisy Edgar-Jones's deep internal performance and Esmé Creed-Miles's raw energy transforms the sisters' coming-of-age journey into a modern, multidimensional portrait set against the realistic mise-en-scène of the 19th-century English countryside. (Karen PARK)



Skintown

스킨타운

Ireland/United Kingdom | 2026 | 99min | DCP | color
Director **Kieron J WALSH** 키어런 J 월시

012 Oct 07 / 10:00 / B2 **083** Oct 08 / 22:00 / B2
457 Oct 11 / 19:00 / KT **597** Oct 13 / 20:00 / C6

1994년, IRA의 휴전 선언으로 시대가 요동치던 북아일랜드의 막장 동네 스킨타운. 동네 피자집 알바 자리를 전전하며 푼돈이나 모으던 20대 루저 비니와 존티에게 역대급 판이 깔린다. 우연히 굴러들어 온 400알의 엑스터시, 그리고 손에 쥐어진 거액의 현금. 짝 막힌 이 잿빛 도시를 털고 뜯 명분은 이미 충분하다. 에든버러영화제 대상 수상작 <스킨타운>은 <트레인스포팅>(1996)이 증명했던 90년대 영국 청춘 특유의 거친 반항과 레ιβB 문화를 완벽하게 계승한다. 불안과 불신시대의 공기처럼 감도는 세상 속에서, 청춘들은 무너지기 직전까지 위태롭게 흔들린다. 하지만 끝지 않은 현실 따위는 상관없다. 술에 취하고, 약에 취하고, 클럽 음악에 취해 몸을 던져 싸울 뿐. 목적지도, 이유도 없이 터져 나오는 이 막무가내의 에너지는 기묘하게도 눈부사게 아름답다. (구형준)

Northern Ireland, 1994. During a time of political upheaval, two young men in their early twenties dream of escape even as they grill beef ribs at their local pizza shop. Vinny and Jonty deeply wish to break away from their small town and head off somewhere else. When they unexpectedly get a chance to make big money dealing drugs, they begin seriously planning their escape. *Skintown* carries forward the rebellious sensibility born of political and emotional isolation that ran through so many British films of the 1990s, including *Trainspotting* (1996). The film takes anxiety and mistrust as the very air of its era, portraying the young people wandering through it as dangerously vulnerable. Yet they pay it no mind—getting drunk, doing drugs, playing music, partying, and sometimes getting into fights. The intense energy that hangs over it all has no clearly defined shape, and perhaps that is precisely what makes it so beautiful. (GOO Hyeong Jun)



Too Many Beasts

짐승이 너무 많아

France | 2026 | 95min | DCP | color
Director **Sarah ARNOLD** 세라 아놀드

칸영화제 감독주관

088 Oct 08 / 22:30 / B3 **230** Oct 09 / 09:00 / L5
699 Oct 14 / 18:40 / L5

아르덴의 시골 마을에는 왜 거대한 멧돼지들이 떼 지어 출몰하기 시작한 것일까? 파산한 농장주 브람은 한 유지를 살해한 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이 기묘한 사건을 풀어야 하는 이들은 우물쭈물 시달리는 코르시카 출신 경찰 폴다와 신경쇠약 직전의 심리학자 스테판이다. 농민과 부유한 지주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둘의 공조 수사는 점점 견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치달고, 그들이 지나가는 곳마다 야수라장이 벌어진다. 그러나 마침내 마주하게 된 진실은 상상을 뛰어넘는다. 기묘하고 엉뚱한 인물들로 가득한 프랑스 시골 풍경을 기발하게 그려낸 사라 아놀드의 <짐승이 너무 많아>는 알랭 기로디와 코엔 형제 특유의 부조리한 유머를 떠올리게 한다. 농촌의 현실을 배경으로 한 사회적 영화이자 거침없이 질주하는 광기 어린 코미디이며,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매혹적인 수사극 <짐승이 너무 많아>는 올해 발견한 가장 유쾌하고도 기상천외한 장편 데뷔작이다. (서승희)

Why have giant wild boars suddenly begun roaming in packs through a rural village in the Ardennes? And where exactly has the bankrupt farmer Brun vanished to after murdering a local dignitary? The unlikely duo tasked with solving these bizarre mysteries are Fulda, a Corsican police officer suffering from depression, and Stéphane, a psychologist on the verge of a nervous breakdown. As tensions escalate between farmers and wealthy landowners, their joint investigation spirals increasingly out of control, leaving chaos wherever they go. But the truth they eventually confront is beyond anything they could have imagined. With its bizarre, eccentric characters and inventive portrait of the French countryside, Sarah Arnold's *Too Many Beasts* recalls the absurdist humor of Alain Guiraudie and the Coen brothers. At once a social film rooted in the realities of rural life, a wildly careening comedy of madness, and a gripping investigative drama that keeps the tension high, *Too Many Beasts* is one of the most delightful and wildly inventive feature debuts of the year. (SEO Seunghee)



Viva Carmen 비바 카르멘

France | 2026 | 90min | DCP | color
Director **Sébastien LAUDENBACH** 세바스티앵 라우덴바흐

칸영화제 감독주간

239 Oct 09 / 22:50 / L6 **517** Oct 12 / 13:10 / L4
607 Oct 13 / 17:20 / L4



Woman Unknown 마리가 뭐 어때서

Denmark/Latvia/Sweden | 2026 | 126min | DCP | color
Director **May EL-TOUKHY** 마이 엘투키

베니스영화제 경쟁

355 Oct 10 / 19:00 / KT **370** Oct 11 / 18:40 / B1
655 Oct 14 / 13:30 / B3

조르주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을 독창적으로 각색한 이 애니메이션은 원작의 비극적 사랑과 관능적 카리스마를 자유와 연대, 희망으로 채색하며 회화적 매력을 극대화한다. 19세기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집시들의 애환이 담긴 플라멩코가 탄생한 이 고장에 떠돌이 소년 살바도르와 그의 스승이자 미래를 보는 칼칼이 맹인 노인이 도착한다. 살바도르는 이곳에서 매혹적인 집시 여인 카르멘에게 첫눈에 반한다. 하지만 그의 스승은 군인 호세의 칼에서 카르멘의 죽음을 보고, 살바도르와 거리의 아이들은 카르멘의 비극을 막기 위해 힘을 합친다. 카르멘과 호세의 치정극이 아니라 세비야의 거리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희망을 노래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감독의 전작 <치킨 포 린다!>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대범함 색채 팔레트 의활용과 힘찬 드로잉이 더없이 매력적이다. (이주현)

This animated film, an inventive adaptation of Georges Bizet's opera *Carmen*, colors the original's tragic love and sensual charisma with freedom, solidarity, and hope, pushing its painterly appeal to the fullest. The story unfolds in nineteenth-century Andalusia, Spain, the region where flamenco, born of the sorrows and joys of the Roma people, first emerged. Salva, a wandering boy, arrives there with his teacher, an old blind knife-sharpener who can see the future. There, Salva falls in love at first sight with Carmen, a captivating Roma woman. But his teacher sees a vision of Carmen's death in the blade of José, a soldier, and Salva and the street children join forces to prevent her tragic fate. What makes this film distinctive is that, rather than centering on the doomed romance between Carmen and José, it sings of hope through the children living in the streets of Seville. As seen in the director's previous work *Chicken for Linda!*, the bold color palette and vigorous linework are irresistibly compelling. (LEE Juhyun)

나치 독일의 점령에서 해방된 1945년 덴마크의 코펜하겐. 부유한 사업가와의 결혼을 앞둔 가정부이자 가정교사 마리아에게는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 마리의 비밀을 알고 있는 고향 친구가 나타나면서 불안은 커지고,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마리는 필사적으로 과거를 숨기려 한다. 해방 직후 덴마크에서는 어느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해방군과 레지스탕스에 의해 나치 부역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독일군과 친밀한 관계를 맺었던 여성들에게는 가혹한 신체적 폭력이 가해졌다. <마리가 뭐 어때서>는 남성들이 주도한 집단적 폭력과 사회적 낙인의 메커니즘을 수난당하는 여성의 몸을 통해 집요하게 파고든다. 처벌의 비대칭성과 광기에 가까운 집단적 폭력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질문하며 전후 사회의 부끄러운 역사를 들춰낸다. <퀸 오브 하츠>의 마이 엘투키 감독 작품이다. (이주현)

Copenhagen, Denmark, 1945. Newly liberated from the Nazi German occupation. Marie, a housekeeper and governess about to marry a wealthy businessman, harbors a past she wants no one to discover. When a friend from her hometown who knows Marie's secret reappears, her anxiety mounts. Fearing that her entire life could fall apart, Marie desperately tries to keep her past hidden. In the immediate aftermath of liberation, Denmark, like other European countries, saw Nazi collaborators swiftly punished by liberating forces and resistance groups. Women who had formed intimate relationships with German soldiers were subjected to brutal physical violence. *Woman Unknown* relentlessly examines the mechanisms of male-dominated collective violence and social stigma through the violence inflicted on women's bodies. By questioning the purpose behind such disproportionate punishment and near-mad collective violence, the film lays bare a shameful chapter in postwar history. The film is directed by May El-Toukhy (*Queen of Hearts*). (LEE Juhyun)

한국 · 캐나다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다음 장면은, 함께.



한국과 캐나다의 시청각 공동제작협정 서명을 축하합니다.

두 나라의 창작자들이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영화와 이야기들을 기대합니다.

주한캐나다대사관

Canada

Flash Forward

플래시 포워드

독창적인 영화 세계를 선보인 비아시아권 신인 감독들의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장편을 소개하는 부문으로,
관객 투표를 통해 플래시 포워드 관객상을 수여한다.

A platform for innovative and original first and second features by emerging non-Asian filmmakers.
The winner of the Flash Forward Audience Award is selected by the audience.

WP World Premiere

IP International Premiere



한국계 미국인 2세 오드리(최희서)는 뉴저지에서 물리치료사로 살아가고 있다. 그녀는 타인의 몸을 돌보는 직업을 가졌지만, 정작 자신을 보살피는 데에는 한없이 서툴고 때로는 가혹하기까지 하다. 어머니의 교통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오드리는 일라이(손석구)를 만나게 된다. 교통사고라는 물리적 충돌은 삶의 가장자리에 위태롭게 놓여 있던 오드리와 일라이, 두 소진된 신체를 조우하게 한다. 영화는 이만자 가족과 입양가족이라는 각자의 굴레 속에서 상처를 겪어온 두 사람이 상대가 지닌 흉터를 발견하고 교감하는 과정을 그린다. 타인의 편견이 자리할 곳 없는 오드리의 좁은 차를 함께 타고 다니면서, 두 남녀는 자신에게 결여된 언어와 돌봄의 방식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거처가 되어준다. 오드리와 일라이는 오래된 흉터 위로 돌아나는 새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 (문주화)

Audrey (Moon Choi), a second-generation Korean American, works as a physical therapist in New Jersey. Though her profession revolves around caring for others' bodies, she is utterly clumsy, at times even harsh, when it comes to looking after herself. While dealing with the aftermath of her mother's car accident, Audrey meets Eli (Son Sukku). The physical collision of the car crash brings together Audrey and Eli, two exhausted bodies precariously perched on the margins of life. The film follows these two people, each having endured the wounds and constraints of an immigrant family and an adoptive family. As they recognize the scars the other carries, they gradually form a connection. Sharing rides in Audrey's cramped car, a space where others' prejudices find no room to take root, the two discover the language and forms of care they had long lacked, becoming a sanctuary for each other. Can Audrey and Eli heal enough to let hope bloom where old wounds used to be? (MOON Juhwa)

Bedford Park

베드포드 파크

United States | 2026 | 120min | DCP | color
Director **Stephanie AHN 스테파니 안**

선댄스영화제 미국극영화경쟁 심사위원특별상(데뷔작)

064 Oct 07 / 12:00 / KT **115** Oct 08 / 11:50 / C6
507 Oct 12 / 19:00 / C6 **585** Oct 13 / 20:30 / C3



Black Church Bay

블랙 처치 베이

United Kingdom | 2026 | 107min | DCP | color
Director **Rhys Marc JONES 리스마크 존스**

313 Oct 10 / 16:00 / C6 **519** Oct 12 / 19:20 / L4
678 Oct 14 / 16:00 / C5



A Day in the Life of Jo:

Chapter Phaedra

조의 하루: 페드라 챕터

Greece/Germany/France | 2026 | 87min | DCP | color
Director **Jacqueline LENTZOU 자클린 렌주**

베니스영화제 오리종티

296 Oct 10 / 09:30 / B2 **412** Oct 11 / 11:40 / C6
659 Oct 14 / 13:40 / CX

고등학교 재스퍼가 사라졌다. 그의 행방을 찾는 사람들 가운데 교사 배리가 있다. 평소 재스퍼와 은밀한 관계를 맺어온 배리가 지난 행적을 은폐하는 동안, 학교 안팎으로 배리에 대한 목격담과 재스퍼가 찍은 성관계 영상이 퍼지기 시작한다. 교사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자기 보전의 욕구 사이에서 갈피를 잃은 배리는 또 다른 학생을 의심의 자리로 밀어 넣는다. 그렇게 자신의 눈에 익숙한 거울상과 타인에게 보이는 얼굴을 견주던 배리의 수업은 그의 처지와 묘하게 공명한다. 영화는 새어 나오는 진실과 밝혀지지 않는 행방 사이에서 서스펜스를 이어가며, 사건의 전말을 명쾌히 정돈하는 대신 비밀을 감춘 채 그 여파를 감당하는 인물의 심리를 집요하게 쫓는다. 정체성과 수용의 곤경을 파고든 단편들로 주목받은 리스마크 존스의 장편 데뷔작. (함윤정)

Jasper, a high school student, has gone missing. Among those searching for him is his teacher, Barry. As Barry scrambles to cover his tracks and hide his long-standing secret relationship with Jasper, sightings of Barry and a sex video Jasper recorded begin circulating throughout the school and beyond. Caught between his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s a teacher and his instinct for self-preservation, Barry loses his bearings and maneuvers another student into becoming a suspect. A lesson Barry gives on comparing the familiar image in the mirror with the face seen by others comes to resonate eerily with his own predicament. The film sustains its suspense between truths that keep leaking out and Jasper's still-unknown whereabouts, forgoing a tidy resolution of the case to relentlessly probe the psychology of a character forced to live with the fallout of a secret he continues to conceal. This is the feature debut of Rhys Marc Jones, who has drawn attention for short films probing the complexities of identity and acceptance. (HAM Yoonjeong)

놀랍도록 신선하다. 마치 <엘리펀트>를 처음 보았을 때처럼. 예쁜 하이틴 영화가 의외의 지점에 도달할 즈음에야 제목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경우다. 데뷔작 <달, 66개의 질문>의 부제가 '사랑, 움직임, 흐름(그리고 그것들의 결핍)'에 관한 영화라면, 신작에는 '숨, 손길, 외로움(그리고 그것들의 결핍)'에 관한 영화라는 부제가 달렸다. 개성적인 연출 스타일 - 굴절된 이미지, 외화면 사운드, 특이한 구도와 편집 - 을 유지한 가운데, 문득 하늘을 뚫고리며 바라볼 때는 그녀의 머릿속이 궁금해진다. 그러다 아무도 상상 못 할 클라이맥스에서 그 모든 것이 폭발한다. 20분이 넘는 대담한 전개에서, 그녀는 자신의 작가성을 공표한다. '마음의 카메라, 마음의 영화'란 이런 것이다. 현대 그리스 작가영화를 대표하는 창카리와 란티모스를 잇는 새로운 감성의 출현이다. (이용철)

This film is astonishingly fresh - like watching *Elephant* for the first time. The meaning of the title lands only when this cute teen movie arrives at an unexpected place. If Jacqueline Lentzou's debut film *Moon, 66 Questions* carried the subtitle 'a film about flow, movement, and love (and lack of them),' her new work comes with one that says, 'a film about breath, touch, and loneliness (and lack of them).' Maintaining her characteristic directing style, with warped images, offscreen sounds, and idiosyncratic composition and editing, the film makes us wonder what is going on inside her head when she suddenly gazes at the sky. Then, at a climax no one could have imagined, everything erupts. In a daring development lasting over 20 minutes, Lentzou announces herself an auteur. This is what a 'camera of the heart, film of the heart' looks like. This film announces the emergence of a director with a new sensibility,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Athina Rachel Tsangari and Yorgos Lanthimos, two defining figures of contemporary Greek auteur cinema. (LEE Yong Cheol)



Eclipse

이클립스

Austria/Italy | 2026 | 91min | DCP | color
Director **Manuel WETSCHER** 마누엘 베트셔

베니스영화제 오리종티

314 Oct 10 / 19:20 / C6	417 Oct 11 / 11:40 / L2
565 Oct 13 / 17:00 / B2	

1999년, 친구 사이인 토미와 크리스는 알프스의 낙농장에서 함께 여름을 보낸다. 토미의 삼촌을 도와 소들을 돌보고 틈틈이 자연을 탐험하는 일이 소년들의 평범하면서도 소중한 일과다. 하지만 아이들의 세계에도 균열이 생긴다. 토미의 아버지가 ‘동성애 질환’에 걸렸다는 소문이 크리스의 귀에 들어오고, 감염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크리스는 토미를 멀리한다. 동성애와 에이즈를 둘러싼 무지와 편견이 두 소년의 사이를 잔인하게 갈라놓는다. 마침 찾아온 세기말의 개기일식은 아이들에게 두려움이자 깨달음으로, 질서의 붕괴이자 전환의 순간으로 다가온다. 익숙했던 세계가 일시에 암흑에 잠기고, 그 어둠 속에서 소년들은 자신이 외면해 온 감정과 마주한다. 감각적인 패션필름처럼, 서정적인 다큐멘터리처럼 세계의 어둠을 처음으로 알아버린 두 소년의 여름을 투명하게 담아낸 영화다. (이주현)

In 1999, Tomy and Chris, who are friends, spend their summer together on a dairy farm in the Alps. Tending to the cows, assisting Tomy's uncle, and exploring nature in their spare moments make up the boys' ordinary yet precious routine. Soon, however, a fracture forms in their world. Rumor reaches Chris that Tomy's father has contracted a 'gay disease' and, gripped by the fear of contagion, Chris begins to pull away from Tomy. The ignorance and prejudice surrounding homosexuality and AIDS cruelly drive a wedge between the two boys. The total solar eclipse at the turn of the century arrives as both fear and revelation, a collapse of order and a moment of transformation. The familiar world is momentarily plunged into darkness, and within that obscurity, the boys confront the feelings they had long turned away from. Resembling a sensory fashion film and a lyrical documentary, this work transparently captures the summer of two boys who come to know the world's darkness for the very first time. (LEE Juhyun)



Föa - Once Upon A Future

옛날 옛적, 미래에

Italy | 2025 | 86min | DCP | color
Director **Margherita FERRARI** 마르게리타 페라리

WP

116 Oct 08 / 15:40 / C6	438 Oct 11 / 16:00 / L6
652 Oct 14 / 09:40 / B2	

마르게리타 페라리는 파올로 소렌티노의 신인 프로젝트가 발굴한 신이다. <옛날 옛적, 미래에>는 그녀의 동영 졸업작품을 바탕으로 한다. 제노바에서 G8 정상회담이 열린 2001년 7월, 임신 8개월인 18세 소녀는 시위대 셋을 집에 들이게 된다. 훗날 반세계화의 분수령으로 평가받은 저항 운동은 이미 여러 차례 영화로 기록된 중요한 사건이다. 영화는 국가 폭력이 인권을 유린하는 현장에 뛰어드는 대신, 최루탄 냄새를 풍기는 청년들과 미래의 증언자가 사적 공간에서 충돌하고 화합하는 모습을 재현한다. 복고풍 기운, 세련된 감성, 생생한 기록영상이 섞인 믿음직한 데뷔작은 당시의 구호 - 새로운 세상은 가능한가 - 를 지금 우리에게 제시한다. 반짝이는 눈빛으로 당당하게 세상에 나온 가이아 라비나는 기억해야 할 이름이다. 그녀는, 성숙이 단 하루의 시간으로도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용철)

Margherita Ferrari is a promising new filmmaker discovered through Paolo Sorrentino's emerging filmmakers project. *Föa - Once Upon a Future* is based on her graduation film of the same name. In July 2001, when the G8 summit was held in Genoa, an 18-year-old girl, eight months pregnant, takes three protesters into her home. The protests, later regarded as a watershed moment in the anti-globalization movement, have already been documented in numerous films. Rather than plunging into the scene of state violence and human rights abuses, the film recreates the clashes and reconciliations in a private space between the witness of the future and young people reeking of tear gas. This assured debut - blending a retro aesthetic, sophisticated sensibility, and vivid archival footage - poses the era's rallying cry, 'Another World is Possible.' anew to audiences today. With her sparkling gaze and confident screen presence, Gaia Ravina is a name to remember. She shows us that maturity can arrive in the span of a single day. (LEE Yong Cheol)



La Bola Negra

블랙 볼

Spain/France | 2026 | 155min | DCP | color
Director **Javier CALVO, Javier AMBROSSI**

하비에르 칼보, 하비에르 암브로시

칸영화제 감독상

311 Oct 10 / 09:00 / C6	460 Oct 11 / 16:10 / SH
--------------------------------	--------------------------------



A Man of His Time

노트르 살뤼

France/Belgium | 2026 | 158min | DCP | color
Director **Emmanuel MARRE** 에마누엘 마르

칸영화제 각본상

174 Oct 09 / 09:00 / B2	413 Oct 11 / 14:40 / C6
472 Oct 12 / 14:00 / B1	

79회 칸영화제 감독상 공동 수상작 <블랙 볼>은 스페인 내전과 프랑코 독재가 남긴 상처를 세 시대(1932년, 1937년, 2017년)를 살아가는 세 남자의 삶으로 엮는다. 제목은 1936년에 처형된 스페인의 시인이자 극작가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르카의 미완성 희곡에서 가져왔으며, 그의 부재와 기억이 영화 전반을 관통한다. 하비에르 암브로시, 하비에르 칼보 두 감독은 시간을 직선적으로 따라가기보다 기억과 감정을 교차하는 방식으로 폭력의 역사가 개인의 삶에 남긴 흔적을 보여준다. 총구 앞에 바스라진 육신, 잃어버린 자유와 파괴된 예술, 침묵을 강요받은 쿼어의 언어와 사랑의 증거가 새롭게 발굴·복원된다. 두 감독의 시선은 무엇을 말했는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못 했는가에 집중되어 있다. 밝히지 못한 정체성, 미완의 원고 같은 것. 영화는 그 홀어진 말들을 상상하며 살아남은 자들과 유령이 된 존재들에게 말을 건넨다. (이주현)

A co-winner of the Best Director Prize at the 79th Cannes Film Festival, *La Bola Negra* weaves together the wounds left by the Spanish Civil War and the Franco dictatorship through the lives of three men living across three eras (1932, 1937, and 2017, respectively). The title is drawn from an unfinished play by Federico García Lorca, the Spanish poet and playwright executed in 1936, and his absence and memory run through the entire film. Rather than following time in a linear fashion, directors Javier Ambrossi and Javier Calvo interweave memories and emotions to reveal the traces that a history of violence leaves on individual lives. Bodies shattered at gunpoint, lost freedom and destroyed art, and the language of queer people forced into silence and the tokens of their love are newly unearthed and restored. The two directors' gaze is fixed not on what was said, but on what could not be said - identities left undisclosed and manuscripts left unfinished. The film imagines those scattered, unspoken words and speaks to both the survivors and those who have become ghosts. (LEE Juhyun)

올해 칸영화제 각본상 수상작 <노트르 살뤼>는 독일 점령기 프랑스에서 비시 정부의 관료로 일하며 유대인 박해에 조용히 공모하게 되는 한 남자의 행적을 쫓는다. 1940년 9월, 독일에 패배한 프랑스에 비시 정권이 들어선다. 무일푼의 49세 앙리 마르(스완 아를로)는 가장 속에 자비로 출현한 정치 논고 『우리의 구원』을 품은 채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여긴다. 에마누엘 마르 감독은 자신의 증조부가 남긴 실제 편지를 바탕으로, 20세기 최악의 범죄가 프랑스 행정기관 내부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실행되었는지를 서늘하게 드러낸다. <추락의 해부> (2023)에서 변호사로 열연했던 스완 아를로는 지위와 특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한 평범하고 기회주의적인 인물의 내면을 깊이 파고든다. 전형적인 역사 재현극과 궤를 달리하는 이 작품은 조나단 글레이저의 <존 오브 인터레스트> (2024)처럼 극사실주의적인 방식으로 촬영되었으며, 그 어떤 극적인 효과도 배제한 채 악을 지극히 평범한 얼굴로 그려낸다. (서승희)

Winner of the Best Screenplay Award at this year's Cannes Film Festival, *A Man of His Time* traces the footsteps of a man working as a Vichy government bureaucrat in German-occupied France who becomes quietly complicit in the persecution of Jewish people. In September 1940, as the Vichy regime is established in France and defeated by Germany, the penniless 49-year-old Henri Marre (Swann Arlaud) carries a self-published political treatise, *Notre Salut*, in his bag, viewing the situation not as a crisis but as an opportunity. Based on actual letters left behind by his own great-grandfather, director Emmanuel Marre reveals how systematically one of the 20th century's worst crimes was organized from within the French administration. Swann Arlaud, who delivered a powerful performance as the defense lawyer in *Anatomy of a Fall* (2023), delves deeply into the psychology of an ordinary, opportunistic figure whose sole concern is preserving his position and privilege. Far from a typical historical period drama, the film was shot in a hyper-realistic style akin to Jonathan Glazer's *The Zone of Interest* (2024), stripping away any dramatic embellishment to depict evil with an utterly mundane face. (SEO Seunghee)



The Meltdown

멜트다운

Chile/United States/Spain/Mexico | 2026 | 110min | DCP | color
Director **Manuela MARTELLI** 마누엘라 마르텔리

칸영화제 주목할만한시선

214 Oct 09 / 19:00 / C6 **306** Oct 10 / 09:00 / C5
622 Oct 13 / 12:40 / L8

1992년. 칠레는 세비아 엑스포에 남극 빙하 조각을 전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개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명국가'로 인정받고자 했다. 때는 바이츠로 피노체트 독재가 막을 내린 직후였다. 그러나 빙하는 녹기 마련이고, 얼음 속에 파묻힌 진실은 자신이 드러날 시기를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영화는 칠레의 스키 리조트에서 일어난 한 소녀의 실종 사건을 통해 폭력의 시대 앞에서 평범한 사람들은 왜 침묵으로 굴복했고, 자신의 안락과 출세를 위해 어떻게 부당한 체제에 가담했는지를 파고든다. 그렇게 진정한 자유와 민주주의는 단순히 독재가 끝났다고 선언하는 것만으로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얼음의 멜트다운은 20세기 말 냉전이 끝나며 전 세계가 겪어야 했던 거대한 변화와 혼란의 시대를 함께 바추고 있다. (손화정)

1992. By exhibiting a piece of Antarctic ice at the Seville Expo, Chile sought recogni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n 'open, forward-looking, civilized nation.' This was just after the curtain had fallen on the Pinochet dictatorship. But ice, by its nature, melts - and the truth buried within it merely waits, holding its breath, for the moment it can reveal itself. Through the disappearance of a girl at a Chilean ski resort, the film asks how ordinary people submitted to the violence of the era through their silence and became complicit in the system for the sake of their own advancement - revealing that freedom and liberation do not arrive through proclamation alone. As director Manuela Martelli has noted, the girl's connection to East Germany, a 'vanished country,' underscores that this allegory of 'thawing' is bound up not only with Chile's history but also with the global systemic transformations that unfolded at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Jay Hee-jeong SOHN)



Sad Girlz

새드 걸즈

Mexico/France/Spain | 2026 | 90min | DCP | color
Director **Fernanda TOVAR** 페르난다 토바르

베를린영화제 제너레이션14플러스 수성공상, 국제심사위원대상

028 Oct 07 / 16:00 / C3 **117** Oct 08 / 18:40 / C6
441 Oct 11 / 10:00 / L7 **649** Oct 14 / 13:00 / B1

"나는 섹스가 별로인가 봐." 파울라는 좋아하던 소년과의 첫 섹스 후 단짝 친구 마에스트라에게 이렇게 털어놓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건 섹스가 아니라 성폭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은 종종 회색지대에 놓여있다. '나쁜 섹스'와 성폭력 사이의 경계는 때로 모호하고, 피해자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한다. 영화는 파울라 옆에서 올바른 조력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마에스트라에게 포커스를 맞추면서 '정답'을 찾기보다는 '함께'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 한 가지 인상적인 것은 영화가 악물을 평범한 개인의 평온과 치유라는 맥락 속에 위치시키는 방식이다. <새드 걸즈>는 '카르텔의 나라 멕시코'라는 혼란 편견을 뛰어넘어 복잡하면서도 매력적인 일상을 스크린에 담아낸다. (손화정)

"Maybe I don't like sex." After her first time with a boy she liked, Paula confides this to her best friend, La Maestra. But as time passes, she comes to realize that what happened wasn't sex - it was sexual assault. Sexual violence that occurs within intimate relationships often falls into a gray area. The line between 'bad sex' and sexual assault can be blurry, and this ambiguity can leave victims even more confused. Rather than searching for a 'right answer,' the film focuses on La Maestra, who strives to support Paula in the right way, and explores what it means to be 'together.' Also striking is the way the film situates drug use within the context of peace and healing in ordinary people's lives. In this way, everyday life in this complex and captivating country unfolds on screen, moving beyond the stereotype of 'Mexico, the country of Narcos.' (Jay Hee-jeong SOHN)



Oasis

오아시스

Germany/Austria | 2026 | 118min | DCP | color
Director **Jannis LENZ** 야니스 렌츠

베니스영화제 오리존티

312 Oct 10 / 12:30 / C6 **436** Oct 11 / 09:20 / L6
505 Oct 12 / 12:40 / C6

루카스, 앤디, 마야에게 학교는 좀처럼 재밌는 공간이 아니다. 누군가 몰래 찍어 올린 앤디의 나체 영상이 학생들 사이에 퍼지고, 친구들을 향해 폭력적 말을 내뱉는 앤디의 영상이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전달된다. 괴롭힘의 피해자였던 아이는 곧 폭력성을 지닌 위험 인물로 낙인찍힌다. 하지만 세 친구는 맞서고 해명하기보다 숲으로의 도피를 택한다. 그곳에서 자기들만의 치유 게임을 시작하는데, 이 게임이 이상하고 아슬아슬하다. 서로의 몸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를 보듬고, 이 모든 과정을 촬영한다. 마치 숭고한 의식을 치르듯. 영화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자리, 프레임 안과 밖의 경계가 섬 없이 뒤바뀌고 무너지는 상황을 비춤으로써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고 싶은 대로 보는 사람들의 이중적 잣대를 꼬집는다. 영화는 학교 폭력의 실체가 아니라 고통으로 고통을 덮으며 자기들만의 방어 태세를 갖추는 아이들의 처절한 몸부림을 응시한다. 미카엘하네케의 조감독 출신다운 집요하고 날카로운 연출이다. (이주현)

For Lukas, Andy, and Maya, school is hardly an enjoyable place. A video of naked Andy, illicitly filmed, spreads among the students, while another video of Andy hurling violent threats at peers is sent to teachers and parents. The child who was once a victim of bullying is swiftly branded as a dangerous, aggressive threat. Rather than confronting the situation or explaining themselves, the three friends choose to escape into the woods. There, they begin a healing game of their own, one that is both bizarre and precarious. They inflict wounds on each other's bodies, nurse those wounds, and film the entire process, as if performing a sacred ritual. By illuminating the relentless shifting and collapsing of boundaries between victim and perpetrator, inside and outside the frame, the film exposes the double standards of people who see only what they want to see, and how they want to see it. Rather than focusing on the reality of school violence, the film gazes upon the desperate struggles of children building their own defenses by masking pain with pain. It is an unrelenting, sharp directorial effort befitting a former assistant director to Michael Haneke. (LEE Juhyun)



Titanic Ocean

타이타닉 오션

Greece/Romania/Japan/Spain/France | 2026 | 132min | DCP | color
Director **Konstantina KOTZAMANI** 콘스탄티나 코자마니

칸영화제 주목할만한시선

109 Oct 08 / 09:00 / C5 **212** Oct 09 / 11:50 / C6
660 Oct 14 / 16:20 / CX

그리스 감독 콘스탄티나 코자마니의 <타이타닉 오션>은 일본의 인어양성 학교에서 '메메이딩'을 훈련하는 소녀들을 통해 익숙한 인어 신화를 오늘날의 소녀 문화로 옮겨놓는다. 소녀들은 본명 대신 '딥 씨', '이터널 선셋', '요코하마 블루' 같은 예명을 짓고 자신만의 색으로 머리를 물들인 채 프로페셔널 인어가 되기 위해 훈련한다. 소녀들은 매력적 외모, 유연한 몸, 극한의 호흡 등을 요구받고, 가혹한 신체 규율과 경쟁 문화에 압박감을 느낀다(여러모로 한국의 아이돌 산업을 연상시킨다). 이야기는 인어학교의 수영 코치 코타로를 짝사랑하는 딥 씨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첫사랑, 목소리의 상실, 변신 등의 모티브를 지닌 안데르센의 「인어공주」에 유혹과 파멸의 세이렌 신화를 더한다. 욕망의 시스템 속에서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소녀들의 몽환적 판타지다. (이주현)

Greek director Konstantina Kotzamani's *Titanic Ocean* transposes the familiar mermaid myth into contemporary girl culture through a group of girls training in 'mermaiding' at a Japanese mermaid academy. Instead of their real names, the girls take stage names like 'Deep Sea', 'Eternal Sunset', and 'Yokohama Blue' dyeing their hair in colors all their own as they train to become professional mermaids. Expected to meet exacting standards of beauty, flexibility, and breath control, the girls feel the pressure of a punishing physical regimen and a fiercely competitive culture (evoking, in many ways, K-POP idol industry). The story centers on Deep Sea, who nurses a crush on Kotaro, the swim coach at the mermaid academy, layering the siren myth of seduction and ruin over Andersen's *The Little Mermaid*, with its motifs of first love, loss of voice, and transformation. A dreamlike fantasy of girls setting themselves free from within a system of desire. (LEE Juhyun)



What Belongs to Others

타인에게 속한 것들

Poland | 2026 | 104min | DCP | color

Director **Grzegorz DĘBOWSKI** 그제고시 뎡보프스키

베니스영화제 오리존티

213 Oct 09 / 15:40 / C6 **518** Oct 12 / 15:40 / L4
656 Oct 14 / 16:40 / B3

<타인에게 속한 것들>은 폴란드 영화계의 새로운 거장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올해 발견해야 할 가장 예리하고 인상적인 영화 중 한 편이다. 카시아는 폭력적인 남자와의 위험한 관계에 얽매며 그의 강요로 절도를 저지르며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세입자가 사망한 아파트에 몰래 들어간 그녀는 죽은 남자의 연인 행세를 하며 삶을 바꿀 기회를 포착한다. 그리고 일면식도 없던 한 남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닫혀있던 자신의 감정을 마주하기 시작한다. 거장 파벨 파블리코프스키의 <이다> (2013)에서 조감독으로 영화적 감각을 다듬어 온 그제고시 뎡보프스키 감독은 이 매혹적인 소설 스타일러 <타인에게 속한 것들>을 통해 고독한 영혼들이 살아가는 창백한 비르사바의 초상을 담담하면서도 아프게 그려낸다. (서승희)

What Belongs to Others is the first signal of a major new master emerging in Polish cinema, and one of the sharpest and most striking films to discover this year. Kasia is bound to a dangerous relationship with a violent man, forced by him to make her living through theft. One day, sneaking into the apartment of a tenant who has died, she seizes a chance to change her life by posing as his lover. And in mourning a man she never once met, she at last begins to confront the feelings she had long kept locked away. Having honed his cinematic sensibility as an assistant director for the master Paweł Pawlikowski's *Ida* (2013), director Grzegorz Dębowski, in this captivating social thriller *What Belongs to Others*, paints a portrait — restrained yet aching — of a pale Warsaw inhabited by lonely souls. (SEO Seunghee)



ITALIAN CINEMA

at the 31th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FLASH FORWARD
COMPETITION

OPEN CINEMA

FÖA
Once upon a future
 by Margherita Ferrari
 word sales PiperPlay

THE SPIRAL
 by Paolo Strippoli
 world sales Le Pacte

ICONS

WORLD CINEMA

BACK TO BUENOS AIRES
 by Marco Bechis
 word sales Fandango

DEEP BLUE
 by Ernesto Maria Censori
 world sales True Colours

THE ECHO CHAMBER
 by Andrea Pallaoro
 word sales Paradise City Sales

THE FIRE WITHIN YOU
 by Edoardo De Angelis
 word sales Rai Cinema
 International Distribution

IT WILL HAPPEN TONIGHT
 by Nanni Moretti
 world sales Playtime

CINECITTÀ



www.cinecitta.com | www.filmmitalia.org

Wide Angle -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와이드 앵글 - 한국 단편 경쟁

영화의 시선을 넓혀 색다르고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단편영화와 다큐멘타리를 모아 선보인다.

A section dedicated to outstanding short films and documentaries that expand cinematic horizons through bold, distinctive perspectives.

[한국 단편 경쟁 1], [한국 단편 경쟁 2], [한국 단편 경쟁 3] 에 해당되는 작품은 각각 묶음 상영된다.

The films in the categories as below will be screened in batches: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1],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2],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3].

KC1 한국 단편 경쟁 1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1

KC2 한국 단편 경쟁 2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2

KC3 한국 단편 경쟁 3 Korean Short Film Competition 3

WP World Premiere

IP International Premiere

Baby Doe

신원미상

Korea | 2026 | 24min | DCP | color

Director **CHO Heesoo 조희수**

2050년 아시아 최대의 불법체류자 국가가 된 대한민국. 형사 진이는 신원 미등록 아동범죄조직 '노란 양 떼'를 추적한다. '살아서 유령이 된 아이들'을 쫓을수록 자신의 어린 시절과 마주하게 되는 진이, 시각적으로 탁월한 범죄드라마에 1인 2역을 소화한 이나영의 처음 보는 얼굴이 있다. (강소원)

In 2050, the Republic of Korea has become the country with the largest number of illegal immigrants. Detective Genie is chasing after the 'Yellow Flock', a criminal organization run by unregistered children. But the more she pursues these children who have become ghosts even though they are alive, the more she comes face to face with her own childhood. This visually excellent crime drama shows a new side of Lee Na-young, who plays two different characters. (KANG Sowon)

335 Oct 10 / 09:20 / L6 **427** Oct 11 / 12:20 / L4 **529** Oct 12 / 13:40 / L7
630 Oct 13 / 13:20 / L10

Tomato Pasta Recipe

토마토 파스타 레시피

Korea | 2026 | 20min | DCP | color

Director **AN Whae 안향호**

이별 직전의 연인 성은과 민형이 서로 다르게 기억하는 하루가 발랄한 음악에 실려 3막으로 펼쳐진다.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파스타를 해 먹기로 한 날, 토마토와 금붕어가 뒤섞이고 둘의 기억이 엮인다. 성은과 민형, 토마토의 시점으로 펼쳐지는 유니크하고 영동한 이별 이야기. (강소원)

A day remembered differently by Seong-eun and Min-hyung, a couple on the verge of breaking up, unfold in three acts to bright, lively music. One day, they decide to make pasta together one last time before breaking up, and as tomatoes get mixed together with goldfish, Seong-eun and Min-hyeong's memories begin to diverge. A unique and offbeat breakup story, told from the points of view of Seong-eun, Min-hyung, and a tomato. (KANG Sowon)

335 Oct 10 / 09:20 / L6 **427** Oct 11 / 12:20 / L4 **529** Oct 12 / 13:40 / L7
630 Oct 13 / 13:20 / L10

Dear Sunshine

낮잠

Korea | 2026 | 11min | DCP | color

Director **GOO Jiyeon 구지윤**

아간 교대 근무 간호사인 나연은 낮에 잠들 수 있다. 하지만 잠들 수 없는 날도 있다. <낮잠>은 정애가 있는 동생 나은이 언니의 '낮잠'을 방해한 그날의 이야기다. 특별한 날일까? 힘들고 몽클한 어느 하루가 나연의 시선에 담긴다. 매일이 특별한 이 자매의 나날에서 오려낸 하루. (강소원)

Na-yeon, a nurse who works night shifts, can sleep during the day. But there are days when she cannot. *Dear Sunshine* tells the story of the day when her younger sister Na-eun, who has a disability, interrupts her daytime sleep. Is it a special day? A tiring yet touching day is seen through Na-yeon's eyes. One day cut from the lives of sisters for whom every day is extraordinary. (KANG Sowon)

335 Oct 10 / 09:20 / L6 **427** Oct 11 / 12:20 / L4 **529** Oct 12 / 13:40 / L7
630 Oct 13 / 13:20 / L10

The Variety

변종

Korea | 2026 | 23min | DCP | color

Director **CHANG Hyungyun 장형윤**

서른 중반의 시나리오 작가 진화는 25년 전의 사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체육 선생님에게 이유 없이 뺨을 맞은 어린 진화는 이명과 환청에 시달리는 어른이 되었다. 원형을 잃어버리고 변종으로 살아가는 이들에 관한 잔인하고도 애처로운 이야기, 혹은 장형윤의 귀환. (강소원)

Jin-hwa, a screenwriter in her mid-thirties, still cannot escape what happened 25 years ago. In her childhood, she was slapped by her gym teacher for no reason, and she has since been plagued by tinnitus and hallucinations. A cruel, pitiful story about people who have lost their original form and live on as something else, this film is also the return of Chang Hyungyun. (KANG Sowon)

335 Oct 10 / 09:20 / L6 **427** Oct 11 / 12:20 / L4 **529** Oct 12 / 13:40 / L7
630 Oct 13 / 13:20 / L10

Afternoon on the Bridge

교량의오후

Korea | 2026 | 11min | DCP | color

Director **HA Ji-hyung 하지형**

도심을 가로지르는 교량 아래 우울한 표정의 남자가 숨쉬 있게 물수제비를 띄우자 건너편에서 그를 지켜보던 여자가 물 위로 돌을 던져댄다. 뒤편에서 색소폰을 부는 아저씨는 조력자일까, 방해꾼일까. 번잡한 도시의 어느 오후, 가닿을 듯 말 듯 간질거리는 신기루 같은 연애담. (강소원)

A sad-looking man stands under a bridge cutting across the heart of city. When he skillfully skips stones, a woman watching him from the other side throws stones into the water. Is the man playing the saxophone in the background a helper or a nuisance? One afternoon in a bustling city, a romance blooms like a mirage, tantalizingly close but always just out of reach. (KANG Sowon)

235 Oct 09 / 09:00 / L6 **300** Oct 10 / 23:00 / C3 **428** Oct 11 / 15:30 / L4
533 Oct 12 / 14:10 / L8

The Distant Home

멀리 있는 집

Korea | 2026 | 29min | DCP | color

Director **GONG Seonjeong 공선정**

양산 할머니 댁에 갔는데 할머니가 안 계신다. 수아에게 할머니는 어디 갈 데 없는 사람이다. 목욕탕 아니면 절, 갈 데가 뻔하다. 그렇게 할머니를 찾아 여기저기를 기웃거린 거리의 하루가 담백한 다큐멘터리 터치에 담긴다. 마음을 기울여 찍은, 청령의 사산에 담긴 노년의 풍경. (강소원)

Su-a arrives in Yangsan to visit her grandmother, but she is not home. The old lady is not someone with many places to go - just the bathhouse or the Buddhist temple. Su-a spends the day wandering through the streets in search of her grandmother, and the search is captured with a sincere, documentary touch. A young person's view of old age, filmed with warmth and care. (KANG Sowon)

235 Oct 09 / 09:00 / L6 **300** Oct 10 / 23:00 / C3 **428** Oct 11 / 15:30 / L4
533 Oct 12 / 14:10 / L8

Amateur Energy

아마추어 에너지

Korea | 2026 | 15min | DCP | color

Director **TAE Jiwon 태지원**

여행을 다녀온 하은은 시를 쓰겠다고 선언하고, 한창 연애 중인 언니 하정은 남자친구의 영어연애편지에 감동한다. 비범한 구석을 찾기 어려운 하은 하정 자매의 비범하지 않은 일상. 제목처럼 하은의 시도, 이 영화도, 아마추어 에너지로 가득하지만 그 안에 문득 반짝임이 있다. (강소원)

Upon her return from a trip, Ha-eun declares that she is going to write poetry, while her older sister Hajeong is moved by a love letter from her boyfriend, written in English. These are the unremarkable days of the unremarkable sisters Ha-eun and Hajeong. As the title suggests, Ha-eun's attempts at poetry and the film itself are full of amateur energy, but now and then something sparkles. (KANG Sowon)

336 Oct 10 / 13:40 / L6 **429** Oct 11 / 18:40 / L4 **530** Oct 12 / 16:20 / L7
576 Oct 13 / 16:20 / C1

Tale of Tails

지민지민지

Korea | 2026 | 19min | DCP | color

Director **SHIM Sujeong 심수정**

그림 같은 전도밭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십 대 소녀들. 외톨이 지민은 모든 아이들의 선망의 대상인 민지가 독사에 물려 쓰러지자, 자신에게 기회가 왔다고 느낀다. 부조리한 게임, 날뛰는 카메라, 아름다운 음악, 독처럼 번져가는 광기 어린 충동들. 좋은 삶든 갖게 있어도 힘든 영화. (강소원)

Teenage girls draw in a picturesque field. Loner Jimin feels that her chance has come when Minji, the popular girl everyone adores, is bitten by a venomous snake. Combining an absurd game, wild camerawork, beautiful music, and manic urges spreading like venom, this film will be hard to forget, whether you like it or not. (KANG Sowon)

336 Oct 10 / 13:40 / L6 **429** Oct 11 / 18:40 / L4 **530** Oct 12 / 16:20 / L7
576 Oct 13 / 16:20 / C1

All of Her

개

Korea | 2026 | 21min | DCP | color

Director **KIM Nam-hyeon 김남현**

결혼을 앞둔 경환은 여자 친구의 개가 거슬린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밤, 그는 결국 사고를 치고 만다. 그리고 경환의 악몽이 시작된다. 멜로로 시작해서 바디 호러로 전환되는 과정이 시각적으로는 초현실적이지만 심리적으로는 지극히 현실적이어서 더욱 인상적인 판타지. (강소원)

Kyeonghwan is about to be married, but his girlfriend's dog bothers him. One night, he takes the dog for a walk and ends up making a terrible mistake. Then his nightmare begins. The shift from romance to body horror is visually surreal, yet psychologically all too real, making this strange fantasy even more memorable. (KANG Sowon)

235 Oct 09 / 09:00 / L6 **300** Oct 10 / 23:00 / C3 **428** Oct 11 / 15:30 / L4
533 Oct 12 / 14:10 / L8

TOE's

여*기의 발가락

Korea | 2026 | 13min | DCP | color

Director **YUN Taerang 윤태랑**

물류센터에서 일하다가 사귀기발가락을 다친 민기 앞으로 의문의 택배 상자가 배송된다. 상자 안에는 예상치 못한, 아니 상상도 못한 게 들어있다. 두려움에 떨다가 문득 기발한 생각을 떠올린 민기. 상황은 점차 점입가경에 이르고 영화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재치 넘치고 통렬한 애니메이션. (강소원)

After injuring his pinky toe while working at a distribution center, Mingi receives a mysterious package. Inside is something unexpected, something he could never have imagined. Trembling with fear, Mingi suddenly has a clever idea. As things spiral further out of control, the film takes off in a very different direction. A witty animation with a sharp bite. (KANG Sowon)

235 Oct 09 / 09:00 / L6 **300** Oct 10 / 23:00 / C3 **428** Oct 11 / 15:30 / L4
533 Oct 12 / 14:10 / L8

The Boy Who Fell to Earth

지구에 떨어진 남자

Korea | 2026 | 28min | DCP | b&w

Director **JUNG Jaeseo 정재서**

지구라는 행성에 살고 있는 외로운 소년의 분투기. 부모님은 지구 저편으로 사라져 버렸고, 동네 가게리의 괴롭힘은 끝이 없어서 소년에게 지구는 왜계일까?만 하다. 아니, 그가 외계인일까? 독창적인 서사, 강렬한 흑백 이미지, 몰입감 높은 보이스오버, 그리고 이효재의 연기. (강소원)

This is a story about the struggles of a lonesome boy living on a planet called Earth. His parents have disappeared to the other side of the globe, while a group of neighborhood boys torment him endlessly, making Earth feel like an alien planet. Or perhaps he is the alien. An original narrative, striking black-and-white images, immersive voiceover, and a remarkable performance by Lee Hyoje come together in this film. (KANG Sowon)

336 Oct 10 / 13:40 / L6 **429** Oct 11 / 18:40 / L4 **530** Oct 12 / 16:20 / L7
576 Oct 13 / 16:20 / C1

An Uninvited Neighbor

초대받지 않은 이웃

France | 2026 | 14min | DCP | color

Director **CHO Haein 조해인**

파리의 한국인 이주민 '조'의 원룸에 파리 태생의 비둘기 '그레고리'가 느닷없이 침입 해서는 같이 살자고 한다. 거주권과 체류증, 태생과 권리를 둘러싼 한바탕 논쟁이 펼쳐지고, 둘 중 누구도 지지 않는다. 아니, 이거지 못한다. 애니메이션과 실사를 가발하게 결합한 블랙코미디. (강소원)

Cho, a Korean immigrant in Paris, lives in a studio apartment that is suddenly invaded by Gregory, a pigeon born in Paris, who in sists on living with her. A heated argument unfolds about residency, permits, birth, and rights, and neither of them backs down. Or wins. An ingenious black comedy that cleverly combines animation with live action. (KANG Sowon)

336 Oct 10 / 13:40 / L6 **429** Oct 11 / 18:40 / L4 **530** Oct 12 / 16:20 / L7
576 Oct 13 / 16:20 / C1

Wide Angle - Asian Short Film Competition

와이드 앵글 - 아시아 단편 경쟁

영화의 시선을 넓혀 색다르고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단편영화와 다큐멘타리를 모아 선보인다.

A section dedicated to outstanding short films and documentaries that expand cinematic horizons through bold, distinctive perspectives.

[아시아 단편 경쟁 1], [아시아 단편 경쟁 2] 에 해당되는 작품들은 각각 묶음 상영된다.

The films in the categories as below will be screened in batches:
[Asian Short Film Competition 1], [Asian Short Film Competition 2].

SC1 아시아 단편 경쟁 1 Asian Short Film Competition 1

SC2 아시아 단편 경쟁 2 Asian Short Film Competition 2

WP World Premiere

IP International Premiere

Beneath the Barren

IP **SC1**

메마른 땅 아래

Nepal | 2026 | 11min | DCP | color
Director **Rajendra BUDHA** 라젠드라 부다

네팔 히말라야 깊숙이 자리 잡은 마을에는 할머니 팜치와 어린 손자 파완이 살고 있다. 마을 사람을 대부분은 이미 도시로 떠나버렸고 공동화된 농촌마을은 황량해졌다. 한때는 모두를 먹여 살렸던 땅은 돌보는 이 없이 거칠고 메마른 황무지가 되어간다. (박성호)

In a village deep in the Nepalese Himalayas lives an elderly woman, Pamchi, and her young grandson, Pawan. Most of the villagers have already left for the city, leaving the hollowed-out farming village desolate. The untended land that once fed everyone is turning into rough and barren wasteland. (PARK Sungho)

062 Oct 07 / 19:20 / L7 **326** Oct 10 / 12:30 / L4 **492** Oct 12 / 20:00 / C2

Salt Electric

WP **SC1**

소금 전기

India/Canada/Estonia/France | 2026 | 12min | DCP | color
Director **Paromita DHAR** 파로미타 다르

18세 소녀 킴은 가톨릭 집안에서 청소녀에서 어른이 되는 과정에 있다. 집에서 다리에 난 털을 스스로 확신하고, 엄마에게서 요리를 배우기 시작한다. 심부름차 들렀던 오빠의 방에서 우연히 성인용 비디오테이프를 발견하고 걱정과 흥분감을 동시에 느낀다. (박성호)

Eighteen-year-old Kim, from a Catholic family, is in the process of moving from adolescence into adulthood. At home, she waxes the hair on her legs herself and begins learning to cook from her mother. Sent on an errand to her brother's room, she stumbles upon an adult videotape, and feels worry and excitement all at once. (PARK Sungho)

062 Oct 07 / 19:20 / L7 **326** Oct 10 / 12:30 / L4 **492** Oct 12 / 20:00 / C2

Downwind

WP **SC1**

바람을 타고

Taiwan | 2026 | 18min | DCP | color
Director **CHEN Hung** 천홍

해변에 위치한 도시에 파이프 오르간처럼 눈에 솟아오른 정유공장의 굴뚝이 즐비하다. 공장에서는 종종 사고가 일어나고 환경재난이 일상이 돼버린다. 주민들은 정유공장의 확장공사에 반대시위를 하지만 한편으로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공존해야 한다. (박성호)

Smokestacks rise like organ pipes over a coastal city, lined with oil refineries. Accidents at the plants occur with troubling regularity, and environmental disaster has become part of daily life. Residents protest the refinery's planned expansion, even as they must coexist with the very neighbors who work there. (PARK Sungho)

062 Oct 07 / 19:20 / L7 **326** Oct 10 / 12:30 / L4 **492** Oct 12 / 20:00 / C2

She Said

WP **SC1**

그녀가 말했다

Singapore | 2026 | 21min | DCP | color
Director **Ivan TAN** 아이번 탄

링(판빙빙)은 남자친구에게 청혼을 받는다. 그녀는 수락하고 싶지만 자신에게 끔찍한 과거가 있다는 고백을 한다. 그것은 그녀가 과거에 범죄단지에서 로맨스 스캔을 하다 탈출했다는 이야기다. 사랑을 불모로 사람을 속여온 그녀의 말은 어디까지가 진실일까? (박성호)

Ling (Fan Bingbing) receives a marriage proposal from her boyfriend. She wants to accept, but confesses that she's hiding a dark past — she once escaped a scam compound where she was forced to run romance scams. Having deceived others by holding love hostage, how much of what she says can be trusted? (PARK Sungho)

062 Oct 07 / 19:20 / L7 **326** Oct 10 / 12:30 / L4 **492** Oct 12 / 20:00 / C2

αLPα

IP **SC1**

알파

Indonesia | 2026 | 16min | DCP | color
Director **Dhiwangkara SETA** 디왕카라 세타

17세 펑크음악 보컬리스트 반유는 금지된 언더그라운드 공연을 했다는 이유로 교정시설로 붙잡혀 들어간다. 강압적이고 반인권적인 캠프 속에서도 그는 반항심을 굽히지 않고 곧 최고책임자의 눈에 띄게 된다. 그리고 그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진실과 맞닥뜨려야만 한다. (박성호)

Seventeen-year-old punk vocalist Banyu is sent to a correctional facility for performing at a banned underground show. Even within the suppressive, inhumane camp, he refuses to bend, and his defiance soon catches the eye of the facility's top official. He must then confront the very truth he had been most desperate to avoid. (PARK Sungho)

062 Oct 07 / 19:20 / L7 **326** Oct 10 / 12:30 / L4 **492** Oct 12 / 20:00 / C2

Fatima

WP **SC2**

파티마

Iran | 2026 | 14min | DCP | color
Director **Soroush SHAHPOURI** 소루시 샤푸리

파티마는 엄격한 학교에서는 모범생으로, 과잉보호하는 아버지 밑에서는 말 잘 듣는 딸로 살고 있다. 하지만 몰래 담배도 피우고 보컬 트레이닝을 받아 뛰어난 노래실력을 갖추고 있다. 공개적으로 노래 부르는 것이 금지된 사회에서 그녀는 늘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한다. (박성호)

Fatima is a model student at her strict school and an obedient daughter to her overprotective father. But in secret, she smokes and trains her voice, developing real singing talent. In a society where singing in public is taboo, she can never let her guard down. (PARK Sungho)

146 Oct 08 / 20:00 / L7 **327** Oct 10 / 15:40 / L4 **581** Oct 13 / 19:30 / C2

The Things That Vanish

WP **SC2**

사라지는 것들

Japan | 2026 | 14min | DCP | color
Director **IKEDA Kenta** 이케다 겐타

와탄 호숫가 넓은 집에는 점점 기억을 잃어가는 81세의 노인 수미가 혼자 살고 있다. 그녀를 돌보기 위해 찾아온 27세의 요양보호사 미치에게는 약간의 도박이 있다. 미치는 자신이 발견한 오래된 손목시계를 제때 돌려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낀다. (박성호)

In an old house by a remote lake, 81-year-old Sumie lives alone, her memory slowly fading. Michi, the 27-year-old caregiver who comes to look after her, has a slight tendency to steal. Michi feels guilty for not having returned an old wristwatch she found. (PARK Sungho)

146 Oct 08 / 20:00 / L7 **327** Oct 10 / 15:40 / L4 **581** Oct 13 / 19:30 / C2

Chumpa: A Doll Under the Basket

WP **SC2**

츄파 인형

Nepal | 2026 | 20min | DCP | color
Director **Rajesh Prasad KHATRI** 라제시 프라사드 카트리

14살밖에 되지 않은 소녀 무나는 계속 학교에 다니고 싶지만 조혼을 강요하는 마을의 완고한 전통 앞에서 좌절한다. 선생님에게 도움을 청해보지만 마을사람들은 공부가 무슨 소용이냐며 무시한다. 결국 결혼식은 열리고 소녀의 꿈은 탈출구 없이 끝내 좌절되는 듯하다. (박성호)

Fourteen-year-old Muna wants nothing more than to stay in school, but her dreams are crushed by her village's rigid tradition of forced early marriage. She turns to her teacher for help, only to be dismissed by the villagers, who ask what use an education could possibly be. In the end, the wedding proceeds, and her dream seems to fade with no way out. (PARK Sungho)

146 Oct 08 / 20:00 / L7 **327** Oct 10 / 15:40 / L4 **581** Oct 13 / 19:30 / C2

In Our Panic

IP **SC2**

혼란 속에서

China | 2026 | 15min | DCP | color
Director **XU Jianming** 쉬젠밍

할머니는 어린 손자에게 흰털로 뒤덮인 괴물에 대해 얘기해준다. 거짓말을 하거나 물건을 훔친 아이를 잡아먹는다는 무서운 괴물은 손자에게 같은 트라우마를 남긴다. 손자는 지라서 할머니가 숨겨온 아픈 과거에 대해 듣게 되고 가족과 사랑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박성호)

A grandmother tells her young grandson about a monster covered in white fur — one said to devour children who lie or steal. The frightening tale leaves the boy with lasting trauma. Grown up, the grandson learns of the painful past his grandmother had long kept hidden, deepening his understanding of family and love. (PARK Sungho)

146 Oct 08 / 20:00 / L7 **327** Oct 10 / 15:40 / L4 **581** Oct 13 / 19:30 / C2

Wild No More

WP **SC2**

잔치는 끝났다

Taiwan | 2026 | 15min | DCP | color
Director **CHANG Ting Wei** 창팅웨이

이혼을 앞둔 아웬은 교외의 한적한 볼링장에서 일하고 있다. 한 무리의 여성들이 볼링장을 빌려 자유를 만끽할 화끈한 처녀파티를 개최한다. 화려한 쇼가 끝나고 그들은 장난으로 아웬과 고고보이를 수감에 묶고 떠나버린다. 같은 공간의 두 사람은 연결된 듯 연결되지 못한다. (박성호)

On the verge of divorce, Yawen works at a quiet suburban bowling alley. A group of women rent out the venue for a wild bachelorette party, ready to savor their freedom. After a flashy show, they prank Yawen by handcuffing her and a go-go boy together before taking off. Sharing the same space, the two seem connected, yet remain unable to truly connect. (PARK Sungho)

146 Oct 08 / 20:00 / L7 **327** Oct 10 / 15:40 / L4 **581** Oct 13 / 19:30 / C2



Wide Angle - Documentary Competition

와이드 앵글 - 다큐멘터리 경쟁

영화의 시선을 넓혀 색다르고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모아 선보인다.

A section dedicated to outstanding short films and documentaries that expand cinematic horizons through bold, distinctive perspectives.

WP World Premiere

IP International Premiere



771 Days 771일 후

Afghanistan | 2026 | 71min | DCP | color
Director **Zainab ENTEZAR** 자이나브 엔테자르

WP

245 Oct 09 / 14:50 / L8 **302** Oct 10 / 12:10 / C4
444 Oct 11 / 19:10 / L7

“오늘도 엄마가 거리 시위에서 살아 돌아왔어!”

이제 막 문을 열고 들어온 자이나브가 어린 아들을 껴안으며 귀가 인사를 건넨다. 여성들의 거리 시위에 출근하듯 나가는 감독은 집을 나설 때마다 아들을 다시 보지 못할까 봐 두렵다. <771일 후>는 자이나브 엔테자르 감독이 탈레반 점령 하의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낸 771일의 기록이다. 늘 가던 골목 상점과 카페, 책방이 문을 닫고 대학이 폐쇄되고 여성의 모든 사회적 활동이 금지된 곳에서 엔테자르 감독은 혼자 비밀스럽게 영화를 만들었다. 그녀의 카메라 속 세상은 거칠게 요동치고, 뒤집히고, 부딪히고, 뒤편에 가려진다. 여성의 모든 권리가 박탈된 곳에서 영화를 찍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체감하게 하는 이미지들. 771일 후, 엔테자르는 폭탄보다 위험한 카메라와 하드 드라이브, 노트북이 든 가방을 들고 아프가니스탄 탈출에 성공한다. 영화는 정확히 거기서 시작한다. Day 771. (강소원)

“Mom made it home alive from the street protest again today!”

As soon as Zainab Entezar opens the door to her home and walks in, she is greeted by her young son and embraces him. She goes to the women's street protests as though heading to work, and every time she leaves home, she fears she may never see her son again. *771 Days* is director Zainab Entezar's record of the 771 days she spent in Afghanistan under Taliban rule. As the stores, coffee shops, and bookstores she once frequented close, universities are shut down, and all social activities for women are banned, Entezar secretly makes a film on her own. The world seen through her camera lurches violently, turns upside down, collides, and is covered behind something. These images show us what it means to make a movie in a place where women have been stripped of all their rights. After 771 days, Entezar succeeds in escaping Afghanistan with a bag containing a camera, hard drive, and laptop, which are even more dangerous than a bomb. That is precisely where the film begins: Day 771. (KANG Sowon)



ACROSS: Anatomy of the Forgotten War 어크로스: 전쟁은 어떻게 잊혀지는가

Korea/Italy | 2026 | 90min | DCP | color
Director **KIM Ji 김지**

WP

192 Oct 09 / 19:30 / C1 **304** Oct 10 / 18:20 / C4
487 Oct 12 / 15:30 / C1



AGAAR 초원의 아가르

China/France | 2026 | 117min | DCP | color
Director **YANG Bo 양보**

WP

190 Oct 09 / 13:00 / C1 **341** Oct 10 / 16:00 / L7
403 Oct 11 / 15:40 / C4

S#1.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인권변호사 카멜은 유럽인권법센터(ECCHR)에서 예멘 전쟁범죄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다. S#2. 이탈리아 사르데냐의 STOP RWM 활동가들은 섬에 들어선 독일 군수업체 RWM의 불법 확장과 무기 수출을 저지하기 위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S#3. 예멘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던 자말과 가족이 후티 반군을 피해 제주에 도착한다. 유럽과 중동, 한국을 잇는 세 장면은 마치 거대한 정치 스릴러의 도입부처럼 긴장과 호기심을 동시에 불러일으킨다. 그 교차점에 (잊혀진) 예멘 전쟁이 있다. <어크로스: 전쟁은 어떻게 잊혀지는가>는 전쟁을 일으켜 무기를 파는, '죽음의 상인들'을 쫓는다. 예멘,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독일을 기반으로 작업하고 있는 김지 감독의 냉철하고 투명한 카메라는 세상의 비극을 다른 각도에서 재조명한다. 마지막 씬, 추악한 전쟁 사업의 민낯을 대놓고 폭로하는 X맨 트럼프의 SNS 활약에 다큐멘터리의 노력이 무색해질지라도, 김지의 유능한 카메라는 어디든 간다. 동시대 한국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차원. (강소원)

Scene 1: Cannelle, a human rights lawyer based in Berlin, is pursuing a case on war crimes in Yemen at the European Center for Constitutional and Human Rights (ECCHR). Scene 2: In Sardinia, Italy, STOP RWM activists continue their campaign against the illegal expansion of the German arms manufacturer RWM on the island and its arms exports. Scene 3: Jamal, a former civil servant in Yemen, arrives with his family in Jeju after fleeing the Houthi rebels. Linking Europe, the Middle East, and Korea, these three scenes, which evoke the opening of a large-scale political thriller, arouse both tension and curiosity. At their intersection lies the (forgotten) war in Yemen. *ACROSS: Anatomy of the Forgotten War* follows the 'merchants of death' who start wars to sell weapons. From Yemen to Palestine and Ukraine, Kim Ji, a filmmaker based in Germany, Yemen, Palestine, Ukraine, and Germany, looks at the world's tragedies from different angles with a cool-headed and clear-eyed camera. In the final scene, Donald Trump openly exposes the ugly reality of the war business on social media, rendering the documentary's efforts almost futile. Yet Kim Ji's capable camera goes wherever it is needed. This documentary takes contemporary Korean documentary cinema to a whole new level. (KANG Sowon)

중국 내몽골의 젊은 목동 '아가르'는 전통적인 목축으로는 BMW의 꿈을 이룰 수 없다고 믿는 현대화된 청년이다. 일찍이 인터넷으로 영어를 배워 크루즈선의 일직리를 얻고 카리브해를 누비던 그였다. 아랑에 찬 아가르에게 초원은 너무 좁다. 그는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초원의 미래를 바꿔보려 한다. 양보 감독은 급변하는 내몽골 초원을 무대로 아가르와 그 가족의 삶을 친근한 시선으로 근접 관찰한다. 무엇보다 이 영화가 특별해지는 순간은 꿈과 현실, 초원과 인터넷 사이에서 길을 잃고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좀처럼 흔들리지 않을 때이다. 이들 가족에게는 타고난 낙천성과 유머가 있고, 서로를 향한 믿음과 다정한 말들이 있다. “살이 너무 쓰니까 사탕을 좀 드세요, 어머니.” 아가르가 건넨다는 이 한마디처럼, <초원의 아가르>에는 삶이 덜 쓰게 느껴지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 21세기 내몽골의 쓸쓸한 풍속도이자 인상적인 가족 드라마. (강소원)

Agaar, a young shepherd in Inner Mongolia, is a modern youth who believes that traditional herding cannot get him his dream car - a BMW. He once learned English online, got a job on a cruise ship, and traveled around the Caribbean. For ambitious Agaar, the grassland is too small. He tries to change its future with a smartphone and the internet. Against the backdrop of the rapidly changing grasslands of Inner Mongolia, Yang Bo observes Agaar and his family with an intimate gaze. The film becomes especially moving when, lost somewhere between dreams and reality, the grassland and the internet, their attitudes towards life remains unshaken. The family has a natural optimism and a sense of humor, as well as trust and kind words for one another. “Life is too bitter, so have some sweets, mother.” Like Agaar's words, *AGAAR* has a strange, magical power that makes life feel a little less bitter. It is a bittersweet portrait of 21st-century Inner Mongolia and a memorable family drama. (KANG Sowon)



Can I Talk to You?

지금 얘기해도 돼요?

Korea | 2026 | 111min | DCP | color

Director **Yi Seungjun** 이승준

WP 2024 ACF 장편독립다큐멘터리 AND펀드 지원작

228 Oct 09 / 19:10 / L4 **401** Oct 11 / 09:20 / C4
490 Oct 12 / 12:40 / C2



Dreams of the Wild Oaks

야생 참나무의 꿈

Iran/France/Spain | 2026 | 79min | DCP | color

Director **Marjan KHOSRAVI** 마르잔 호스로비

WP

217 Oct 09 / 13:10 / L2 **292** Oct 10 / 09:40 / C2
404 Oct 11 / 19:20 / C4

도심의 밤거리, 맨발에 체육복 바지를 동동 걸어 올린 십대 소녀가 담배를 꺼내 물고 보호관찰소의 음성감독에 접속한다. “4, 5, 6, 7, 4, 5, 6, 7...” 시스템이 요청하는 무의미한 숫자를 소리 내어 따라하는 소녀. 얼굴이 보이지 않지만 표정을 보는 듯하다. <지금 얘기해도 돼요?>의 오프닝은 단숨에 시선을 사로잡는다. 가출, 절도, 자해, 흡연 등의 일탈로 창원지방법원 소년부에서 1호 차별을 받고 청소년 센터 ‘로렘의 집’에서 지내는 세 명의 십대 소녀가 주인공이다. ‘바라지는 것’이 가장 두렵고, ‘모든 게 약점’인 자신이 싫어서 자해를 하고, ‘숨을 쉬고 싶다’고 고백하는 아이들. <달팽이의 별>과 <부재의 기억>의 감독 이승준은 그 아이들을 인터뷰하거나 보이스오버 내레이션은 덧붙이지도 않고, 심지어 얼굴을 특정할 수 있게 찍지도 않았다. 이 영화의 신비는 따로 있다. 홀로 세상 끝에서 있는 이 아이들은 어떻게 카메라에 걸을 내어주었을까. 모두가 지나온 시간이지만 누구도 잘 모르는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는 청춘잔혹 다큐멘터리. (강소원)

On a city street at night, a barefoot teenage girl with the legs of her sweatpants rolled up lights a cigarette and sticks it between her lips before connecting to the probation office's voice monitoring system. "Four, five, six, seven, four, five, six, seven..." She repeats the meaningless numbers requested by the system aloud. Her face is never shown, yet we can almost see her expression. The opening scene of *Can I Talk to You?* immediately grabs our attention. The film follows three teenage girls staying at the House of Rothem, a youth shelter, after receiving protective measure no. 1 from the Juvenile Division of the Changwon District Court for acts of delinquency, including running away from home, theft, self-harm, and smoking. The girls confess that they are most afraid of being abandoned, that they hurt themselves because they hate being people for whom, "everything is a weakness" and that they simply want to "breathe." Yi Seungjun, director of *Planet of Snail* and *In the Absence*, does not interview the girls or add voice-over narration. In fact, he does not even film them in a way their faces can be identified. The film's mystery lies elsewhere. How did these girls, each standing alone at the edge of the world, let the camera approach them so closely? This documentary about the brutal days of youth invites us into a world we have all passed through, yet one that no one truly knows. (KANG Sowon)

눈이 평평 내리는 들판을 막막하게 둘러보는 열세 살 소녀 사마네는 지금 아버지와 사냥을 나온 참이다. 정해진 시간 내에 황금 날개를 지닌 화귀 새 일곱 마리를 잡지 못하면 사마네는 원치 않는 결혼을 해야 한다. <야생 참나무의 꿈>은 이란 남서부 바크티아리 부족의 폐쇄적이고 억압적인 전통 아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시간과 싸우고 있는 소녀 사마네의 이야기를 담는다. 이곳이 고향인 마르잔 호스로비 감독에게 사마네는 열두 살에 결혼을 강요당한 어머니의 과거라면, 사마네에게 마르잔 감독은 소녀가 꿈꾸는 미래다. 소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나 선생님이 되고, 파리에도 갈 거라고 다짐하고, 감독은 사마네의 얼굴이 빛나는 순간들을 포착하는 것으로 그 꿈에 응답한다. 사마네와 아버지는 ‘강제 결혼’과 ‘피의 제물’이라는 고대 전통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마지막 씬에서 카메라는 딸이 혼자서도 사냥을 할 수 있도록 총을 장전하는 법을 알려주는 아버지에게 오래 머무른다. 아버지의 그 마음이 희망이다. (강소원)

Thirteen-year-old Samaneh gazes helplessly over a field being blanketed in heavy snow. She has come hunting with her father, and unless she captures seven rare birds with golden wings within the given time, she will be forced to marry against her will. *Dreams of the Wild Oaks* tells the story of Samaneh, racing against time to protect her freedom within the closed and oppressive traditions of the Bakhtiari tribe in southwestern Iran. For Marjan Khosravi, who grew up in this community, Samaneh is a reflection of her own mother's past, who was forced to marry at age 12; for Samaneh, Khosravi embodies the future she dreams of. The girl vows to study hard and become a doctor or teacher and one day go to Paris. Khosravi responds to that dream by capturing the moments Samaneh's face lights up. Can Samaneh and her father break free from the yoke of ancient traditions of forced marriage and blood sacrifice? In the final scene, the camera lingers on the father as he teaches his daughter how to load her gun so that she can hunt on her own. His willingness to prepare her for independence is hope. (KANG Sowon)



On the Road with Abbas

Kiarostami

온 더 로드: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Iran | 2026 | 88min | DCP | color/b&w

Director **Seifollah SAMADIAN** 세이폴라 사마디안

WP

303 Oct 10 / 15:20 / C4 **455** Oct 11 / 17:20 / L10
527 Oct 12 / 19:00 / L6

‘그와 함께했던 달콤한 나날들과 그 없이 보낸 쓸쓸한 10년을 추억하며’ 압바스 키아로스타미의 촬영감독이었던 세이폴라 사마디안 감독이 내놓은 키아로스타미 10주기 추모 영화. <온 더 로드: 압바스 키아로스타미>를 무미건조하게 소개하면 이렇게 되겠지만 이 영화의 야심과 성취는 우리의 예상을 간단히 넘어선다. 사마디안은 키아로스타미와 25년간 함께 여행하며 기록한 영상을 키아로스타미의 영화처럼 구성하고, 그 안에 키아로스타미 영화의 아름다움과 신비를 깨는 비밀의 열쇠들을 배열해 넣었다. 그렇게 ‘자동차’와 ‘길’을 모티프 삼아 열 개의 이야기, 열 개의 여정이 펼쳐진다. 키아로스타미와 함께 길 위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여정에 운전사를 자청한 젊은 자파르 파...하도 있다. 무엇보다 이 영화의 가장 의외의 매력은 키아로스타미가 벌이는 소소하고 엉뚱한 장난과 농담을 담은 순간들에 있다. 영화에 생기를 불어넣는 즐거운 기억들. 키아로스타미를 향한 이 자극한 헌사는 아름답고 따스하며 무엇보다 유쾌하다. (강소원)

‘Remembering the sweet days with him and the bitter 10 years without him.’ A tribute film made by cinematographer Seifollah Samadian, who had been Abbas Kiarostami's cinematographer, to mark the tenth anniversary of his death - that would be the dry way to introduce *On the Road with Abbas Kiarostami*. But this film's ambition and achievement easily surpass our expectations. For 25 years, Samadian traveled with Kiarostami and recorded their journeys. He now turns that footage into a film in the spirit of Kiarostami's own films, arranging within it the secret keys to the beauty and mystery of his films. Ten stories, ten journeys unfold, using the ‘car’ and the ‘road’ as motifs. What does it mean to be on the road with Kiarostami? On these journeys, they are accompanied by Jafar Panahi, who volunteers to be their driver. But the film's most unexpected charm lies in the moments that capture Kiarostami's small, silly pranks and jokes. These are joyful memories that bring the film to life. This heartwarming tribute to Kiarostami is beautiful, warm, and, above all, delightful. (KANG Sowon)



Recovery

리커버리

Korea | 2026 | 77min | DCP | color/b&w

Director **IM Yeonjeong** 임연정

WP

301 Oct 10 / 09:20 / C4 **443** Oct 11 / 16:10 / L7
542 Oct 12 / 17:40 / L10

“나는 액션영화가 찍고 싶었다. 여자가 나오는 액션영화.” 거대한 파도 앞에서 자신의 꿈을 들려주는 연정은 공장 주치수 도장에서 몸을 격하게 구르고 있다. 액션을 알기 위해서는 몸을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핑도 배운다. <리커버리>는 꽤나 경쾌한 걸음으로 시작된다. 감독의 스포츠 도전기인가 싶을 즈음 연정은 그의 ‘기억 속 얼룩진 검은 상자’를 조심스레 열어 보인다. 누구든 결코 다시 열고 싶지 않을, 심연처럼 어둡고 공포스러운 기억들이 애니메이션으로 구현되고 여성 액션에 대한 열망이 그의 트라우마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다. <리커버리>는 오랜 기억 속 어둡고 마주한 후 자신을 긍정하며 삶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기나긴 고투의 기록이다. 그렇게 마침내 임연정 감독은 첫 쇼트의 꿈을 이룬다. 올해 본 가장 용감한 셀프 다큐이자 내향적인 액션영화. (강소원)

“I wanted to make an action film. An action film featuring a woman.” Yeonjeong talks about her dream before a huge wave, and immediately she is throwing herself around the mat at a jiu-jitsu gym. To understand action means to understand the body, which is why she learns surfing as well as martial arts. *Recovery* begins at a fairly cheerful pace. Just when we start to wonder whether this is a film about the director trying different sports, Yeonjeong carefully opens the stained black box of her memories. Dark and frightening memories that no one would want to reopen appear on screen as animation, and we come to understand that her desire to make a women's action film is tied to her trauma. *Recovery* is a record of the long struggle to face the darkness in one's memories, accept oneself, and move on to the next chapter of life. In the end, Im Yeonjeong makes her dream come true with her first shot. This is the bravest self-documentary of the year and an introverted action film. (KANG Sowon)



Revolving Lanterns

나무는 태어난 곳에서 죽는다

Japan/United States | 2026 | 113min | DCP |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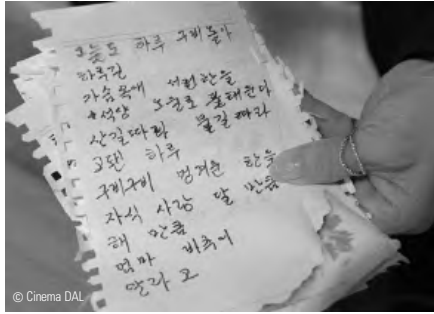
Director **MATSUI Itaru** 마쓰이 이타루

WP

106 Oct 08 / 12:20 / C4 **203** Oct 09 / 12:30 / C4
354 Oct 10 / 19:30 / L10

눈발이 날리는 철쭉 같은 밤을 뚫고 자동차 한 대가 깊은 산골 마을로 들어온다. 후쿠시마의 산악 지대에 자리 잡은 오쿠가와 마을. 남자는 이곳이 고향이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500명의 노인만 남은, 사라져가는 마을에서 남자는 새로운 집을 짓기 시작한다. <나무는 태어난 곳에서 죽는다>는 '완전히 시간이 멈춘 듯한 곳'의 몇 계절을 담았다. "우리의 행복은 느리게 살아가는 데 있어,"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 아마도 여기서 죽음을 맞을 그들은 느리지만 꾸준한 일과로 하루를 채운다. 마쓰이 이타루 감독은 그 단순한 삶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목가적인 삶의 방식으로 이상화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아무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는 이들 삶의 풍경을 섬세하고 고요한 영화적인 감각으로 그려내는 데 몰두한다. 사실, 집 짓는 남자의 이야기도 아니다. 계절과 날씨와 하루의 일출 일몰이 빛내는 변화 속에서 노동과 식사로 채워진 일상의 운율이 살아나는, 그것으로 온전히 아름다운 영화다. (강소원)

A car makes its way through the pitch black on a snowy night, into a village deep in the mountains. Okugawa, nestled in the mountains of Fukushima, is the man's hometown. The village is slowly disappearing, its population dwindled down to just 500 elderly residents, yet the man begins building a new house. *Revolving Lanterns* captures several seasons in a place where time seems to have come to a complete stop. "Our happiness lies in living slowly." The village's inhabitants, who were born there and who will most likely die there, fill their days with slow but steady routines. Matsui Itaru does not romanticize the quiet beauty of this simple way of life as some ideal pastoral existence. Instead, he devotes himself to rendering the landscapes of these uneventful lives with a delicate and distinctly cinematic sensibility. In fact, this film is not even about the story of the man building a house, either. Rather, this film is made beautiful simply by the way the rhythms of every life, filled only with work and meals, come alive amid the changes wrought by the seasons, the weather, and the daily rising and setting of the sun. (KANG Sowon)



A Woman Dancing on the Waves

파도 위에서 춤추는 여자

Korea | 2026 | 100min | DCP | color

Director **CHOI Se-dam** 최세담

WP

204 Oct 09 / 16:00 / C4 **340** Oct 10 / 12:40 / L7
446 Oct 11 / 13:30 / L8

최세담 감독의 외할머니 윤영자는 '파도 위에서 춤추는 여자'라는 제목의 소설을 쓰고 싶어 했다. 평생 무숙인으로 살면서 한 집안을 일으켜 세운 그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소설을 쓰지 못했고, '파도 위에서 춤추는 여자'가 누군지도 있었다. 감독은 기억을 잃어가는 할머니를 주인공으로 기묘하고 놀라운 가족사를 펼쳐 보인다. 요양원과 집을 오가는 할머니의 말에는 죽은 자들과의 대화가 끼어들고, 과거의 기억과 현재의 혼란이 뒤섞인다. 거기에 할아버지의 소설이 얹히고 가족들의 기억과 복잡한 감정들이 켜켜이 쌓인다. 마침내 할머니의 오래된 법당을 정리하는 마지막 공간에서 모조리 불려 나온 온갖 감정들이 신들린 춤을 춘다. "모든 신은 고난을 준다"고 한다. 할머니의 신은 이 가족에게 고난만 선사한 걸까. 수십 년의 기억을 되짚고 먼 길을 돌아 영화는 어떤 가족의 특별한 역사 또는 할머니의 쓰지 못한 소설을 기록한 일종의 자서전이 된다. (강소원)

Choi Sedam's grandmother, Yoon Young-ja, wanted to write a novel titled *A Woman Dancing on the Waves*. She spent her life as a shaman, building the family up from nothing. But she never managed to write the novel and eventually forgot who the 'woman dancing on the waves' was. Making her grandmother, who is gradually losing her memory, the protagonist, Choi unfolds a strange and remarkable family history. The conversations with her grandmother as they go back and forth between the nursing home and her house are interrupted by conversations with the dead, and memories of the past mingle with the confusion of the present. The grandfather's novel enters the story, too, layered with the family's memories and complicated emotions. Finally, at the very last shamanic ritual held to clear out the grandmother's old shrine, all the emotions that have been summoned erupt into a possessed dance. They say, "All gods bring hardships on people." Did the grandmother's god give this family nothing but hardship? Tracing back decades of memories and taking a long trip through the past, the film ultimately becomes one family's extraordinary history, or perhaps an autobiography of the novel the grandmother never wrote. (KANG Sowon)



Soundweave

소리그물

Korea | 2026 | 74min | DCP | color

Director **YOON Juyoung** 윤주영

WP

243 Oct 09 / 19:00 / L7 **402** Oct 11 / 12:50 / C4
541 Oct 12 / 15:20 / L10

재개발이 진행 중인 유령 마을에서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주영은 틈틈이 마을을 기록하다가 어떤 돌을 발견한다. 천지사방이 돌덩이인 동네에서 어느 낯선 남자의 집에서 발견한, 그 남자의 아버지가 남겼다는 돌이다. 주영의 아버지는 10년 전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보다 먼저 주영을 떠났다. 윤주영 감독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이사하는 일을 과거의 기억을 되짚어 현재의 삶을 리셋하는 과정과 겹쳐놓는다. 아섯집을 싸다가 어머니를 만나 그때왜 그랬...고 묻고, 이사 들어갈 집을 정리하며 오래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와 재회한다. 돌, 몸, 소리, 숨이라는 간결하고도 단단한 소재목이 붙은 네 개의 장을 통과하면서 윤주영 감독은 자신의 기억과 망각, 폭력과 생존의 방식을 정면으로 응시한다. <소리그물>을 온도로 말하자면, 때로는 지독하게 차갑고 때론 놀랍도록 뜨겁다. 회화, 영상, 퍼포먼스를 넘나드는 윤주영 감독의 대담하고 도전적인 장면 대위작. (강소원)

Ju-young is preparing to move from a ghost town undergoing redevelopment, documenting the neighborhood whenever she can. One day, she discovers a rock in the home of a stranger, in a neighborhood scattered with rocks all around - a rock that is said to have been left behind by his father. Ju-young's father disappeared ten years ago. Her mother left her even earlier. Yoon Ju-young layers the act of moving from one house to another over the process of resetting her present life by retracing memories of the past. While packing her belongings, she encounters her mother and asks why she did what she did back then; as she clears out her new place before moving in, she reunites with her long estranged father. Moving through four chapters, simply and firmly titled Rock, Body, Sound, and Breath, Yoon squarely confronts her own memories, oblivion, violence, and the ways of survival. In terms of temperature, *Soundweave* is awfully cold at times and surprisingly hot at others. This is a bold, ambitious feature debut from Yoon Ju-young, who works across painting, video, and performance. (KANG Sowon)



Wide Angle - Documentary Showcase

와이드 앵글 – 다큐멘터리 쇼케이스

영화의 시선을 넓혀 색다르고 차별화된 비전을 보여주는 단편영화와 다큐멘터리를 모아 선보인다.

A section dedicated to outstanding short films and documentaries that expand cinematic horizons through bold, distinctive perspectives.

 부산시네필상 후보작 Busan Cinephile Award Nominees

 WP World Premiere

 IP International Premiere



2009년 필리핀 남부에서 언론인 32명을 포함한 58명이 살해된 마긴다나오 학살과 희생자 명단에 포함되지 못한 사진기자 레이날도 '베보트' 모마이의 이야기를 다룬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다. 그는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희생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영화는 아버지 '베보트'이 58번째 희생자였음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딸의 오랜 싸움을 따라간다. 감독은 딸과의 실제 화상 인터뷰와 조사 기록을 극영화로 재연하고, 이를 로토스코핑 애니메이션으로 변환한 후 실제 뉴스 아카이브와 교차시킨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애니메이션은 기록에서 누락된 한 사람의 과거와 끔찍한 사건을 재연하는 핵심적인 표현 방법이다. 하지만 사실과 추정, 기억과 상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도전적인 형식은 기록과 재연의 윤리에 대한 질문을 함께 던진다. 로테르담과 안시에 연이어 초청된 화제작. (조지훈)

This animated documentary tells the story of photojournalist Reynaldo 'Bebot' Momay, who was left off the list of victims of the 2009 Maguindanao massacre in which 58 people, including 32 journalists, were killed in the southern Philippines. Because his body was never found, he was not legally recognized as a victim. The film follows Bebot's daughter in her long fight to have her father recognized as the 58th victim. The director reenacts interviews with Bebot's daughter and his research, turns them into rotoscoped animation, and places them alongside actual news archive. Here, animation becomes a way to reconstruct the life of a man and a tragic incident that were left out of the record. Yet, boldly moving between fact and supposition, memory and imagination, the film also raises questions about records and the ethics of reenactment. A much-discussed film, *58th* was screened at Rotterdam and Annecy. (JO Ji-hoon)

58th 58번째

Philippines | 2026 | 85min | DCP | color/b&w

Director **Carl Joseph PAPA 칼 조지프 파파**



191 Oct 09 / 16:30 / C1 **331** Oct 10 / 12:20 / L5
454 Oct 11 / 14:20 / L10



Annyeong, Stellar 안녕, 스텔라

Korea | 2026 | 100min | DCP | color

Director **AHN Jee-hwan 안지환**



WP

195 Oct 09 / 16:40 / C2 **333** Oct 10 / 18:50 / L5
486 Oct 12 / 09:20 / C1



Baby Jackfruit Baby Guava 베이비 잭프루트 베이비 구아바

Vietnam/Korea | 2026 | 103min | DCP | color

Director **NONG Nhat Quang 농낙광**



216 Oct 09 / 09:40 / L2 **293** Oct 10 / 12:40 / C2
434 Oct 11 / 19:00 / L5

2005년 서울 회기동의 술집 겸 카페 '구남과여'에서 출발한 '구남과여라이딩 스텔라'는 트로트와 개러지, 덤(dub)과 전자음을 뒤섞은, 어느 장르의 계보에도 포섭되지 않는 사운드로 20년을 달려왔다. 그러나 2025년 9월, 밴드는 "끝없이 달릴 것만 같은 이상한 자동차를 멈춰 세워보려 한다"는 성명과 함께 해체를 선언하고, 속초에서 제주까지 '안녕 투어'에 오른다. 영화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이키델릭 인디 밴드의 마지막 여정을 따라간다. 울렁이는 베이스와 나른한 육성으로 객석을 휘어잡는 시간을 고스란히 담아내면서, 여덟 개의 챕터를 통해 20년의 궤적을 그들의 언어로 되짚는다. 그러나 이 영화는 부고가 아니라 마지막 라이브 공연의 초대장이다. "자구가 너무 망가지면 돌아오겠다, 전기가 없어도 가능한 음악으로." 이 특별한 작별 선언은 이렇게, 다음을 기억하는 문장으로 남았다. (조지훈)

Goonamgua yeo riding Stellar a band that began at the café and bar Goonamgwayeo in Hoegi, Seoul, in 2005, has spent 20 years making music that mixes trot, garage, dub, and electronic sounds - music that fits into no genre lineage. But in September 2025, the band announced its breakup with a statement: "We are trying to stop the weird car that seemed as though it would run forever." Then they set off on a 'Annyeong Tour' from Sokcho to Jeju. The film follows the final journey of one of Korea's leading psychedelic indie bands. Capturing the band as they draw in their audience with rolling bass and languid vocals, it looks back on their 20-year trajectory through eight chapters in their own words. So, this film is not an obituary but an invitation to a final live performance. "We will return when the Earth is too broken - with music that can be made even without electricity." This strange goodbye announcement remains, in the end, a promise to meet again. (JO Ji-hoon)

전통적인 가족을 원하는 보수적인 어머니 꾹, 신경발달장애가 있는 누나 마이, 가족과 거리를 둔 채 하노이에서 살아가는 게이 아들이다 감독인 광 말하지 않음으로써 간신히 지탱되어 온 세 사람의 아슬아슬한 관계는 계획에 없던 마이의 임신과 함께 흔들리기 시작한다. 감독은 7년에 걸쳐 모은 가족의 일기와 사진, 전화 통화 녹음, 직접 촬영한 현재의 시간을 교차시키며 침묵 속에 묻어두었던 상처와 서로를 향한 희망을 하나씩 꺼내놓는다. 누나의 어린 시절 애칭 '베이비 잭프루트'와 태어날 아기의 애칭 '베이비 구아바'를 나란히 놓은 제목처럼, 영화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계기로 가족의 과거를 되짚으며 모성의 순환과 세대 간 화해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상처투성이인 가족의 이야기를 흡인력 있는 가족극으로 풀어내면서도 사적 다큐만의 솔직함과 따뜻한 유머를 잃지 않는 수작이다. (조지훈)

Quang is a gay film director living in Hanoi, keeping his distance from his family: his conservative mother Cuc, who wants a traditional family, and his older sister Mai, who is neurodivergent. Their uneasy relationship begins to crumble with Mai unexpectedly becomes pregnant. Through diary entries, photographs, recordings of phone calls, and footage of the present, Quang brings out the wounds and resentments the three have kept buried. Like the title, which places side by side 'Baby Jackfruit,' Mai's childhood nickname, and 'Baby Guava,' the nickname for the baby to come, the film looks back at the family's past and explores the cycle of motherhood and the possibility of reconciliation between generations. The story of a wounded family unfolds as a compelling drama that never loses the honesty and warm humor of a personal documentary. (JO Ji-hoon)



The Best Days

청춘길일

Korea | 2026 | 112min | DCP | color
Director **KIM Byoungsoo** 김병수



WP

295 Oct 10 / 19:00 / C2 **442** Oct 11 / 13:10 / L7
522 Oct 12 / 15:20 / L5

양승우의 사진은 매년 같은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저 거리까지 들어갔는가. 그는 노숙인과 야쿠자 등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이들을 30년 가까이 찍어왔다. 믿을 수 없이 가까운 거리에서 찍힌 그의 사진은 취재의 산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시간의 산물이다. 그는 도쿄 외곽의 축제 거리에서 오키노미야키를 구우며 살지만 일본 다큐멘터리 사진의 최고 권위인 도몬켄상을 외국인으로 수상한 사진작가다. 하지만 이런 그에게는 사진 한 장 없이 세상을 뜬 고향 친구가 있고, 그날 이후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있는 카메라가 있다. 삶이 달을 닮은 거리에서 타인의 얼굴에 자신의 이야기를 새겨온 그의 사진처럼, 이 영화도 가까운 거리에서 그의 성장과 사진 세계를 담는다. 그의 첫 사진집의 제목이기도 한 '청춘길일'은 이렇게 한 인물의 초상이자, 기억되지 못하는 삶을 빛으로 기록하는 한 사진작가의 사진론이 된다. (조지훈)

Yang Seungwoo's photographs always prompt the same question: "How did he get that close?" For nearly 30 years, he has photographed the homeless, Yakuza, and others no one remembers. His photographs, taken from an almost impossibly close distance, are not the product of reporting but of time spent alongside his subjects. Yang makes a living cooking okonomiyaki on a festival street on the outskirts of Tokyo, while also being the first foreign photographer to win the prestigious Domon Ken Award for documentary photography. But he has an old friend who died without leaving behind a single photograph, and since his death he has carried his camera like a talisman. Like his photographs, which etch his own story onto the faces of strangers from a distance close enough to touch, this film captures Yang's life and photographic world at a close range. *The Best Days*, also the title of his first photo book, becomes both a portrait of one person and a meditation on photography of a photographer who brings to light the lives unable to be remembered. (JO Ji-hoon)



Birds of War

전쟁의 새들

United Kingdom/Syria/Lebanon | 2026 | 85min | DCP | color
Director **Janay BOULOS, Abd ALKADER HABAK**
자나이 불로스, 압드 알카데르 하바크



선댄스영화제 월드시네마다큐멘터리 심사위원특별상

201 Oct 09 / 22:20 / C3 **351** Oct 10 / 11:00 / L10
520 Oct 12 / 09:40 / L5

전쟁 영상을 구하기 위해 걸었던 한 통의 문자메시지가 13년에 걸친 사랑의 시작이 된다. 런던에서 BBC 기자로 일하던 레바논 출신 자나이 불로스는 시리아 내전의 참상을 전할 영상을 구하기 위해 알레포의 활동가이자 카메라맨인 압드 알카데르 하바크에게 연락한다. 취재원과 기자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혁명과 전쟁, 망명과 오랜 기다림 속에서 사랑으로 깊어진다. 영화의 주인공이자 공동 감독인 두 사람은 13년 동안 각자 혹은 함께 쌓아온 방대한 개인 아카이브를 통해 시리아의 잔혹한 현실을 재구성하면서, 농담과 애정으로 서로의 삶을 지탱해 온 가슴 뭉클하고 특별한 러브스토리를 들려준다. 안전한 런던의 뉴스룸과 목숨을 걸고 촬영해야 하는 시리아 현장의 대비는 전쟁의 참상을 바라보고 전달하는 일의 윤리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사람의 무력감을 함께 상기시킨다. 올해 선댄스영화제 저널리즘 임팩트 심사위원특별상 수상작. (조지훈)

A text message sent to ask for war footage marks the beginning of 13-year love affair. Janay Boulos, a London-based Lebanese journalist for the BBC, contacts Abd Alkader Habak, a cameraman and activist in Aleppo, looking for footage of the Syrian civil war to show the horrors of war to the world. Their relationship begins as that of a journalist and her source, but deepens into love through revolution, war, exile, and a long wait. The film's protagonists and co-directors, Boulos and Alkader Habak reconstruct the brutal reality of Syria through the vast archives they have gathered, separately and together, over the years. Along the way, they tell a special, heartwarming love story of two people who have supported each other with jokes and affection. The contrast between the safe newsroom in London and the streets of Syria, where filming means risking your life, brings to mind the ethics witnessing and conveying the horrors of war, and the helplessness of those who can only watch. *Birds of War* won this year's Sundance Special Jury Award for Journalistic Impact. (JO Ji-hoon)



Colors of White Rock

화이트 록의 색깔

Mongolia/France | 2026 | 81min | DCP | color
Director **Khoroldorj CHOIJOOVANCHIG**
호롤도르지 초이주반치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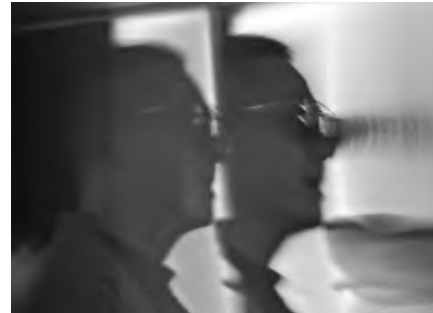


2022 ACF 장편독립다큐멘터리 AND펀드 지원작

289 Oct 10 / 15:40 / C1 **433** Oct 11 / 15:50 / L5
579 Oct 13 / 13:20 / C2

광활한 고비사막 위로 석탄을 실은 트럭들이 꼬리를 물고 달린다. 그중 한 대의 운전석에는 세 아이의 어머니인 여성 트럭 운전자 마이쿠가 있다. 영화는 몽골 고비사막의 탄광과 중국 국경을 오가며 트럭에서 살아가는 그녀의 삶을 6년에 걸쳐 기록한다. 사막을 끝없이 가로지르는 트럭 행렬은 초원과 가족을 따라 이동했던 몽골의 유목민들이 이제 자본과 자원을 따라 움직이는 새로운 유목민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화는 황량한 사막의 풍경과 길 위의 고단한 일상, 멀리 떨어진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엄마의 내면을 오가며 광산 개발이 자연과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담담하게 포착한다. 압도적인 풍경 속에서 운전대를 잡고 거대한 시대의 변화를 통과하는 한 여성의 모습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다. 2013년 극영화 <갈망야지>로 부산에 초청되었던 몽골 감독 호롤도르지 초이주반치그의 첫 장편 다큐멘터리다. (조지훈)

Through the vast Gobi Desert, trucks loaded with coal travel one after another. At the wheel of one of them sits Maikhuu, a mother of three. The film follows her life on the road over six years, travelling between the coal mines of the Mongolian Gobi Desert and the Chinese border. The endless line of trucks shows how Mongolia's nomads, who once moved with their cattle in search of grassland, are now becoming a new kind of nomad, following capital and resources instead. Navigating through the desolate desert landscape, the difficult life on the road, and the inner world of a mother living far from her children, the film plainly captures how mining development is changing both nature and people's lives. Against the overwhelming landscape, the image of a woman at the wheel, passing through a great transformation of the times, stays with you long after the films ends. Mongolian director Khoroldorj Choijoovanchig, whose narrative feature *Yellow Colt* was invited to BIFF in 2013, returns with his first feature-length documentary. (JO Ji-hoon)



From Dawn to Dawn

새벽에서 다시 새벽으로

Spain/France | 2026 | 96min | DCP | color
Director **Xisi Sofia YE CHEN** 시시 소피아 예 첸

389 Oct 11 / 15:20 / C1 **566** Oct 13 / 19:30 / B2
664 Oct 14 / 18:00 / C1

스페인에 정착한 중국인 이민자 가정의 2세대인 감독은 카메라를 들고 오빠 아옌의 삶을 들여다본다. '가족이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타인'이란 말처럼, 동생의 시선은 낯설고 복잡한 인물의 초상을 만들어낸다. 절에서 시작해 가라오케에서 끝나는 영화의 여정은 아옌이라는 인물의 극단적인 양면을 고스란히 품는다. 영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는 영혼과 도박, 폭력, 총기 사건에 얽혔던 갱스터로서의 과거, 사업가이자 가정으로서의 일상과 거리의 형제들과 어울리는 삶. 영화는 어느 한쪽으로 그를 규정하려 하지 않고 모순되는 초상들을 가만히 바라본다. 그 시선은 곧 이민자의 삶과 2세대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된다. 가족이면서 타인이고, 가장 가까우면서도 끝내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 오빠를 바라보는 동생의 카메라가 만들어낸 인상적인 다큐멘터리다. 스위스의 권위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제 '비종뒤릴'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주현)

As a second-generation member of a Chinese immigrant family settled in Spain, the director takes up a camera to look into the life of her older brother, A Wen. As the saying goes, "family is the closest stranger in the world," and the sister's gaze crafts a portrait of a figure at once unfamiliar and complex. Spanning from a temple to a karaoke room, the film's journey fully embraces the extreme dualities of A Wen: a soul seeking inner peace through meditation versus a past entangled in gambling, violence, and shootings as a gangster; the everyday routine of an entrepreneur and family patriarch versus a life spent hanging around with his street brothers. Without attempting to define him by either extreme, the film quietly observes these contradictory portraits. This gaze soon expands into a broader narrative on immigrant life and second-generation identity. It is an impressive documentary shaped by a sister's camera, looking upon a brother who is family yet a stranger, the closest person to her yet ultimately someone beyond comprehension. Winner of the Grand Prize at the prestigious Swiss documentary film festival Visions du Réel. (LEE Juhyun)



Gabin

시골 소년 가벡과 함께한 10년

France/Germany/Switzerland | 2026 | 105min | DCP | color
Director **Maxence VOISEUX** 막상스 부아제

칸영화제 감독주간

334 Oct 10 / 22:10 / L5
662 Oct 14 / 12:00 / C1

가족에 대한 애정과 자유에 대한 열망, 현실에 대한 책임과 미래에 대한 불안 사이에서 갈등하는 가벡은 프랑스 북부 시골 노동자 계급 출신의 소년이다. 가벡의 아버지는 아들이 정육점을 물려받길 원하고, 농장에서 매일 고된 노동을 하는 어머니를 돕기에 가벡은 아직 어리다. 8살부터 18살까지, 소년의 시간을 10년간 담아낸 막상스 부아제 감독의 다큐멘터리는 시간의 물성을 스크린 위에 경이롭게 새겨 넣는다. 인물의 삶에 밀착해 한 존재의 성장과 변화를 응시하는 시선은 믿음직스러우면서 다정하고, 목가적 풍경 속 미화되지 않은 삶은 서정적 애상을 안긴다. 묵묵히 흐르는 시간은 자연스럽게 깊은 서사를 만들어내는데, 영화가 압축한 시간 속에서 한 존재의 내적 외적 성장을 마주하는 경험은 신비롭다. 리처드 링클레이터의 <보이후드>도 자연스레 떠오를 것이다. (이주현)

Gabin is a boy from a working-class family in rural northern France, torn between his love for his family and his longing for freedom, betwee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resent and his anxiety about the future. Gabin's father wants his son to take over the family's butcher shop, while Gabin is still too young to help his mother, who labors on the farm every day. Filmed over ten years, following the boy from age eight to eighteen, director Maxence Voiseux's documentary marvelously etches the very materiality of time onto the screen. His gaze, staying close to his subject's life as he watches one person's growth and change, is both steady and tender, and the unembellished life set against pastoral landscapes lends the film a lyrical wistfulness. Time, flowing quietly and without fanfare, naturally builds a deep narrative, and encountering one person's emotional and physical growth within the film's compressed span of time is a genuinely wondrous experience. Richard Linklater's *Boyhood* will naturally come to mind as well. (LEE Juhyun)



Homesick

홈시크: 바다의 끝에서

Korea/Denmark/Finland | 2026 | 83min | DCP | color/b&w
Director **Taekyung Tanja Inwol SØRENSEN**
대경 단야 인월 쇠렌센



244 Oct 09 / 12:20 / L8
521 Oct 12 / 12:10 / L5

생후 두 달 만에 인천에서 덴마크 서부의 소도시로 보내진 아이가 있다. 서류는 그녀를 기아(棄兒)로 기록했지만, 그것은 신속한 입양을 위한 위조문서였다. <홈시크: 바다의 끝에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감독이 자신의 입양 이력을 추적하는 사적 다큐이자, 2025년 진실해해위원회가 인권침해를 인정한 해외 입양 제도에 대한 정치적 증언이다. 감독은 덴마크 가족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폭력과 알코올 중독, 이혼과 죽음을 감춰온 입양 가정의 상처를 드러낸다. 흰옷을 입은 입양인 여성들이 등장하는 연출된 장면에서는 다른 선택이 가능했다면 펼쳐졌을지도 모를 삶을 아름답고 쓸쓸하게 상상한다. '유령에 사로잡힌(Hjem søgt)'이라는 뜻이면서 'Hjem(집)+søgt(찾기)'의 뜻으로도 읽히는 덴마크어 제목처럼, 이 영화는 두 세계 사이를 유령처럼 떠돌던 한 사람이 마침내 자신의 목소리로 집과 뿌리를 찾아가는 깊고 매혹적인 여정을 담고 있다. (조지훈)

A two-month-old baby is sent from Incheon to a small town in western Denmark. On paper, she is recorded as 'abandoned,' but the documents were falsified to speed up the adoption process. *Homesick* is a personal documentary made by the director who, after learning this truth, traces her own adoption history, as well as a political testimony about Korea's overseas adoption system that was recognized as having committed human rights abuses by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in 2025. Through interviews with her Danish family, the director reveals the wounds of her adoptive family that has kept violence, alcoholism, divorce, and death hidden. In staged scenes featuring women adoptees dressed in white, the film imagines, beautifully and sadly, the life that might have unfolded had another choice been possible. The Danish title *Hjem søgt* means 'haunted' but can also be read as 'home' (Hjem) + 'seek' (søgt). Like the title, this deep, haunting film follows a woman who has wandered two worlds like a ghost, finally finding her voice as she searches for her home and roots. (JO Ji-hoon)



Kim Yun Shin Punches In

김윤신은 미술관에 없다

Korea | 2026 | 100min | DCP | color/b&w
Director **LIM Sunae** 임선애



194 Oct 09 / 13:30 / C2
456 Oct 11 / 20:00 / L10



A Life of an Artist: Kwon Jinkyu

권진규: 예술가의 일생

Korea | 2026 | 127min | DCP | color/b&w
Director **MIN Hwanki** 민환기



193 Oct 09 / 09:40 / C2
540 Oct 12 / 12:00 / L10

남미 어딘가의 빈 못자리를 찾아가 '프롤로그: 예고된 무덤'이라는 첫 장막을 띄운 영화는 곧장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는 김윤신의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오프닝을 채운다. 한 세기에 가까운 시간의 부피가 느껴지지 않는 예술가의 초상이 여기 있다. 1935년 원산에서 태어난 김윤신은 한국 1세대 여성 조각가로 마흔이후에 교수직을 내려놓고 홀연히 아르헨티나로 떠나 나무와 돌, 원석을 따라 남미에서 40년을 작업했다. 그리고 이혼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영화는 거기서 시작된다. <69세>, <세기말의 사랑>의 감독 임선애의 첫 다큐멘터리는 그의 극영화 히로인보다 평온하고 강렬하며 무한히 자유롭고 경이로운 인물에 빠져진다. 위대한 예술가 영화일까? 숨 쉬듯이 작업하고, 작업으로 기쁨을 얻는 그는 위대해지기보다 더 오래, 더 많이 작업하기를 원한다. 그 삶을 지켜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일렁인다. 임선애 감독은 에필로그의 끝맺지 못한 문장, '김윤신은 내일도'에 그 모든 경의를 담았다. (강소원)

Kim Yun Shin Punches In opens with the camera arriving at an empty gravesite somewhere in South America, and the first caption appears: "Prologue: A Foretold Grave." It then cuts straight to the vibrant image of Kim Yunshin cutting down a tree with a chainsaw. Here is a portrait of an artist in whom the weight of nearly a century seems nowhere to be felt. Born in Wonsan in 1935, Kim is one of Korea's first-generation female sculptors. At 49, she gave up her professorship and left for Argentina, spending the next 40 years working in South America, following trees, stones, and raw gemstones. Then, at 90, she returned to Korea. That is where this film begins. Lim Sunae, director of *An Old Lady and Ms. Apocalypse*, dedicates her first documentary to a figure who is calmer, more intense, infinitely freer, and more marvelous than the heroines of her fiction films. Is this a film about a great artist? Kim works as naturally as she breathes and finds joy in her work. Rather than being great, she simply wishes to work longer and to make more. Merely watching her life unfold makes something stir within us. Lim gathers all her admiration into the unfinished sentence in the epilogue: "Tomorrow as well, Kim Yunshin will..." (KANG Sowon)

권진규(1922-1973)는 한국 근대 조각을 완성하고 현대 조각의 문을 연 것으로 평가받는 조각가다. 테라코타와 건칠 기법으로 만들어진 420여 점의 작품을 남긴 그는 회화의 박수근, 이중섭과 나란히 호명되는 한국의 대표 조각가지만, 생전에 한국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민환기 감독의 신작 <권진규: 예술가의 일생>은 기록과 사진, 인터뷰로 권진규의 조각 세계를 재구성하면서 배우의 재연으로 기록의 공백을 메운 다큐멘터리다. 특히 이 영화에 등장하는 재연은 단순한 사건의 재현이 아니라 한 인물의 복잡한 내면을 읽어내는 장치로 기능한다. 영화는 그의 생애를 따라 그가 남긴 작품들의 의미를 하나씩 짚어가고, 그의 조각이 결국 모순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연민이 물리적인 실체로 표현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영화가 끝나면, 권진규의 조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질 것이다. (조지훈)

Kwon Jinkyu (1922-1973) was a sculptor who is regarded to have brought modern sculpture in Korea to fruition, opening the way to contemporary sculpture. Leaving behind over 420 pieces of work in terracotta and dry lacquer, he stands alongside painters Park Soo-Keun and Lee Jung-sub as one of Korea's foremost artists, yet he was never properly recognized in his lifetime. Min Hwanki's latest film, *A Life of an Artist: Kwon Jinkyu*, is a documentary that reconstructs Kwon's artistic world through archival records, photographs, and interviews, while filling the gaps in the historical record with dramatic reenactments. The reenactments, in particular, serve not simply to reproduce events but as a means of delving into the artist's complex inner world. The film follows Kwon's life, examining the significance of his works one by one, ultimately revealing that his sculptures are physical expressions of compassion for humans living with contradictory emotions. By the time the film ends, you may well find yourself wanting to see Kwon's sculptures in person. (JO Ji-hoon)



Our Wish, Our Colors

바람의 빛깔

Korea | 2026 | 89min | DCP | color

Director **LEE Yeojin** 이여진



353 Oct 10 / 17:00 / L10 **398** Oct 11 / 15:20 / C3
523 Oct 12 / 19:00 / L5

고장 난 선풍기를 주워 온 할아버지는 몇 시간을 씨름해 멈춘 날개를 다시 돌린다. 비록 머리를 반대로 달았지만 바람은 시원하다. “내 병도 이 선풍기와 똑같아.” 추락 사고로 청각과 정신에 장애를 갖게 된 그는 해운대 도심의 작은 숲속에 버려진 물건들을 모아 자신만의 세계를 만든다. 미대 입학 후 정작 그리고 싶은 것이 사라진 손녀는 카메라를 들고 그의 세계를 담기 시작한다. 할아버지의 세계는 온갖 무용한 것들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하지만 감독은 그의 외출 길에 가까이 동행한다. 유용한 것들만을 필요로 하는 세계에서 무용해 보이는 일에 몰두하는 할아버지의 기이한 초상이자, 무뚝뚝한 할아버지와 다정한 손녀가 쌓아가는 특별한 우정을 담은 가슴 먹먹하고 따뜻한 영화이며, 한 인간의 빛과 어둠을 동시에 바라봐야 하는 다큐멘터리스트의 자세를 성찰케 하는 자기 반영적 다큐멘타리이기도 하다. (조지훈)

An elderly man brings home a broken fan and wrestles with it for hours until the blades spin again. He has put the blades on backward, but the wind is still cool. “My illness is the same as this fan.” Suffering from hearing loss and mental disability from a fall, he collects discarded objects in a small patch of woods in the heart of Haeundae and builds a world of his own. His granddaughter, who enrolled at art college only to lose the desire to draw, begins instead to capture her grandfather’s world with her camera. His world is full of useless things and incomprehensible happenings, but she willingly joins him on his outings. A strange portrait of an old man absorbed in useless things in a world that only values the useful, this film is also a warm and poignant record of the special friendship between a brusque grandfather and his affectionate granddaughter, as well as a self-reflective documentary that examines the documentarist’s position in looking at both the light and darkness of one person. (JO Ji-hoon)



Rehearsals for a Revolution

리허설 포 레볼루션

Czech Republic, Spain, Iran | 2026 | 101min | DCP | color

Director **Pegah AHANGARANI** 페가 아항가라니



간영화제 황금눈상

094 Oct 08 / 09:40 / C1 **247** Oct 09 / 11:00 / L9
431 Oct 11 / 09:20 / L5

이란에서 배우로 활동하다 망명한 페가 아항가라니 감독은 아버지, 문학 교사, 삼촌, 친구, 딸로 이어지는 다섯 인물의 이야기를 따라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의 역사를 재구성한다. 슈퍼 8mm, 16mm 홈비디오와 사진, 신문, 녹음테이프부터 휴대전화와 유튜브 영상까지, 서로 다른 시대의 기록들은 개인의 기억과 만나 국가가 지워온 폭력의 역사를 복원하는 대항 기록으로 변화한다. 영화는 앞선 세대의 좌절을 단순한 패배가 아닌 딸의 세대에 전할 기억이자 다음 저항을 준비하는 ‘리허설’로 바라본다. 방대한 현대사를 설명하는 1인칭 내레이션은 때로 인물들의 복잡한 내면을 지나치게 압축하기도 하지만, 더 침묵해진 이란의 현실을 보여줄 이미지조차 인터넷 차단으로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무력함을 숨기지 않는 감독의 태도는 깊은 울림을 남긴다.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 자체가 어떻게 저항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올해 칸의 화제작. (조지훈)

Pegah Ahangarani, an Iranian actor who went into exile, reconstructs Iran’s history after the 1979 revolution through the stories of five people: her father, a literature teacher, an uncle, a friend, and a daughter. From Super 8 mm and 16 mm family movies, photographs, newspapers, and tape recordings to mobile phones and YouTube videos, records from different eras meet personal memories and transform into a record of resistance, restoring a history of violence erased by the state. The film sees the older generation’s despair not simply as defeat but as memories to be passed down to the daughter’s generation and as a ‘rehearsal’ for the next resistance. The first-person narration, which covers Iran’s vast modern history, at times compresses the characters’ complex thoughts and feelings too much, but the director’s refusal to hide her helplessness, when even images of Iran’s worsening reality are inaccessible due to internet shutdowns, resonates deeply. A much-discussed film at this year’s Cannes, it shows how remembering and recording can themselves become acts of resistance. (JO Ji-hoon)



Time and Tide

흐르는 세월

Australia | 2026 | 99min | DCP | color/b&w

Director **Vee SHI** 비쉬



047 Oct 07 / 19:00 / L3 **330** Oct 10 / 09:00 / L5
489 Oct 12 / 09:40 / C2 **640** Oct 13 / 10:20 / BCM

아무리 멀어져도 좀처럼 서로에게서 벗어날 수 없는 관계. 이것이 가족의 또 다른 의미인지도 모르겠다.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난 비 쉬가 카메라를 들고 중국으로 돌아갔을 때,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돌보는 일은 오래전부터 결혼 생활에 지쳐 있는 어머니와 생계와 양육을 홀로 감당하는 둘째 딸 리윈의 일상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 한 자녀 정책 아래 한때 가족 비감으로 보내졌던 이가 오히려 부양의 몫을 떠안은 현실에서, 집은 떠나고픈 욕구와 외면할 수 없는 책임이 뒤엉킨 장소처럼 그려진다. 당초 감독과 그의 가족들이 자신을 연기하는 픽션으로 기획되었던 영화는 실제 삶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다큐멘터리의 형식을 갖추어 간다. 떠난다고 끝나지도, 머무른다고 채워지지도 않는 관계의 골을 타고 흐르는 세월만 속절없다. (함윤정)

A relationship from which neither party can quite break free, no matter how far apart they drift—perhaps this is another meaning of family. When Vee Shi returned to China and the hometown he left as a child, with a camera in hand, he is confronted with this notion. He found that caring for his father, who had been felled by a stroke, was weighing heavily on the daily lives of his long-suffering mother and his sister Liyun, who shouldered the burden of earning a living and raising her children on her own. In a reality where someone once sent away from the family under the one-child policy has ended up shouldering the burden of supporting the family, the home is depicted as a place where the desire to leave and an inescapable sense of responsibility become tangled together. Originally conceived as a fiction film in which the director and his family would play themselves, the film gradually takes on the form of a documentary as it follows the course of real life. Leaving cannot bring the relationship to an end, nor can staying fill the void; only time flows inexorably on through the rift between them. (HAM Yoonjeong)



Union Town

유니온 타운: 뉴욕을 달리는 사람들

United States | 2026 | 110min | DCP | color

Director **Barbara KOPPLE** 바바라 코플

베니스영화제 비경쟁

031 Oct 07 / 16:00 / C4 **080** Oct 08 / 08:40 / B2
645 Oct 14 / 10:00 / BH

반세기여 걸쳐 미국의 노동 현장을 기록해 온 바바라 코플의 노동 3부작 완결편. <할란 카운티 USA> (1976)와 <아메리칸 드림> (1990)으로 두 차례 아카데미 상을 수상한 감독은 탄광과 공장을 거쳐 동시대 노동의 숨 가쁜 현장에 도착한다. 3년에 걸쳐 촬영된 <유니온 타운: 뉴욕을 달리는 사람들>은 뉴욕을 가동시키는 노동자들의 운동을 정밀하게 추적한 시네마 베라테릭 다큐멘터리이다. 영화는 이미존, UPS 등 거대 기업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두텁게 조직하고, 물건과 음식을 빠르게 실어 나르던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을 향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망설임 없이 결집한다. 이는 노동의 역사를 집요하게 추적해 온 노장의 감독이 보내는 강렬한 지지의 목소리이다. 폭발적으로 고조되는 에너지 속에서, 영화는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뉴욕, 연대의 도시를 완성한다. (문주화)

Union Town is the conclusion of Barbara Kopple’s labor trilogy, chronicling American workplaces over half a century. Having won two Academy Awards for *Harlan County U.S.A.* (1976) and *American Dream* (1990), the director travels past coal mines and factories to arrive at the breathless frontlines of contemporary labor. Filmed over the course of three years, the film is a cinéma vérité documentary that meticulously tracks the labor movement powering New York City. The film densely weaves the voices of workers employed by corporate giants such as Amazon and UPS, as those who once swiftly transported goods and food unite without hesitation to speak up for their own lives. This stands as a powerful voice of solidarity from a veteran filmmaker who has doggedly accumulated the history of labor. Amidst explosively mounting energy, the film reveals another side of New York we never knew: a city of solidarity. (MOON Juhwa)

Open Cinema

오픈 시네마

작품성과 대중성을 겸비한 신작 및 국제적인 관심을 모은 화제작을 영화의전당 루프씨어터에서 상영한다.

Experience acclaimed new releases and international sensations that blend artistic excellence with broad appeal, screened under the stars at Busan's hallmark Roof theater.

WP World Premiere



만약 그들이 없다면 영화 속 거리는 텅 비어버릴 것이다. 사무실과 슈퍼마켓은 인적 없이 황량하고, 스크린은 생기를 잃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눈에 띄어선 안 된다. 스타의 빛을 가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로 엑스트라다. 그중에서도 배우의 꿈을 끝내 놓지 못한 코린은 오늘도 촬영장 구석에서 스포트라이트를 기다린다. 그리고 이 무명 배우를 연기하는 이가 다름 아닌 이자벨 위페르라는 사실이야말로 <내일은 이름이 있다>가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근사한 농담이다. 100편이 넘는 필모그래피를 지닌 이 살아 있는 전설은, 눈빛 하나와 침묵 한 조각만으로도 좌절과 열광 사이를 오가는 코린 역을 눈부시게 완성해 낸다. 『콜 마이 에이전트』의 마르크 피투시 감독은 특유의 따뜻한 유머로 영화계의 이면을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상드린 카베를랑과 다이앤 크루거는 극 중 자기 자신을 연기하며 유쾌한 앙상블을 빚어낸다. <내일은 이름이 있다>는 이 가을, 극장을 웃음과 감동으로 가득 채울 다없이 반기운 초대장이다. (서승희)

If they weren't there, the streets in movies would be empty. Offices and supermarkets would stand empty and desolate, and the screen itself would lose its vitality. And yet they must never stand out - never cast a shadow over the stars. They are the extras. Among them, Corinne, who has never let go of her dream of becoming an actress, still waits in a corner of the set for her moment in the spotlight. And the fact that this nameless extra is played by none other than Isabelle Huppert is the most delightful joke *All About Corinne* has to offer. With more than 100 films to her name, this living legend brings Corinne - caught between frustration and longing - brilliantly to life with nothing more than a look or a moment of silence. With his signature warmth and humor, director Marc Fitoussi of *Call My Agent!* casts a perceptive eye on the less glamorous side of the film industry, while Sandrine Kiberlain and Diane Kruger play themselves, rounding out a delightful ensemble. This autumn, *All About Corinne* arrives as a most welcome invitation, promising to fill the theater with laughter and heartfelt emotion. (SEO Seunghye)

All About Corinne

내일은 이름이 있다

France/Belgium | 2026 | 118min | DCP | color
Director **Marc FITOUSSI** 마르크 피투시

토론토영화제 갈라프레젠테이션

466 Oct 12 / 20:00 / BT **560** Oct 13 / 12:30 / B1



In the Clear Moonlit Dusk

아름다운 초저녁달

Japan | 2026 | 120min | DCP | color
Director **TAKEMURA Kentaro** 타케무라 켄타로

WP

070 Oct 08 / 20:00 / BT **724** Oct 14 / 12:20 / SH

외모와 지성을 겸비해 '왕자'라 불리지만, 이성보다는 동성에게 '멋진 남자' 취급을 받는 현실에 복잡한 속내를 안고 살아가는 여고생 Yoi. 그녀의 앞에 또 다른 '왕자'이자 화려한 존재감의 선배 코하쿠가 나타난다. 가벼워 보이는 인상과 달리 직진으로 마음을 전해오는 코하쿠의 애정 공세에 두 사람은 마침내 연애를 시작한다. 동명의 인기 만화를 실사화한 <아름다운 초저녁달>은 만화책을 찢고 나온 듯한 마치에다 슌스케와 안자이 세이라의 완벽한 케미스트리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부족한 자신감, 타인에 대한 선망, 때로는 유치해지는 질투까지 청춘의 감정들을 섬뜩하게 그려낸다. 서로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며 비로소 나답게 빛날 용기를 찾아가는 두 '왕자'의 달콤하고 아련한 첫사랑 이야기. (박가연)

Blessed with striking looks and sharp intelligence, high school girl Yoi is dubbed a 'prince,' yet she harbors complicated feelings about being treated as a 'cool guy' by fellow girls rather than boys. Then, another 'prince,' Kohaku, a senior with a dazzling presence, appears before her. Contrary to his seemingly frivolous impression, Kohaku pursues her with straightforward affection, and the two eventually begin dating. A live-action adaptation of the hit manga of the same name, *In the Clear Moonlit Dusk* captivates audiences with the perfect chemistry between Michieda Shunsuke and Anzai Seira, who look as though they stepped right off the pages of the comic. The film refreshingly captures the emotional nuances of youth from lingering insecurities and envy of others to moments of petty jealousy. It is a sweet, poignant first-love story of two 'princes' who look into each other's true selves and finally find the courage to shine as they truly are. (Karen PARK)



Inherit

인헤릿

Thailand | 2026 | 129min | DCP | color
Director **Banjong PISANTHANAKUN** 반종 피산다나쿤

토론토영화제 센터피스

362 Oct 11 / 20:00 / BT **546** Oct 12 / 19:40 / KT

수십 년간 소식이 끊겼던 워라넷 할머니(다위카 호네)가 가족들 앞에 나타난다. 카리스마 넘치는 아름다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그녀의 등장에 집안은 재회의 반가움보다 불길한 긴장감으로 휩싸인다. 가문의 오래되고 무시무시한 비밀이 하나둘씩 드러나는 가운데, 유일하게 워라넷을 따르는 순수한 소녀 우이가 18세 생일을 맞는다. 세 차레나 TV 시리즈로 제작될 만큼 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소설 『악마의 후계자』(1991)가 마침내 영화로 재탄생한다. 태국 호러의 새 장을 연 <셔더>, 흥행기록을 세운 <피막>, 나홍진 감독이 제작한 <랑종>으로 태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많은 팬을 확보한 반종 피산다나쿤 감독이 연출을 맡아 전 세계 호러 팬과 평단이 손꼽아 기다리는 올해 최고의 기대작. 압도적인 관능미를 보여주는 다위카의 뛰어난 연기와 내러티브에 숨어놓은 사회적 맥락이 가미되며 원한의 공포가 증폭된다. (부경환)

Woranart, the family's long-lost great-aunt, suddenly reappears. Mysteriously unchanged after all these years, Woranart is met with an unease that quickly overshadows the joy of reunion. As the family's secrets gradually come to light and the seeds of a devastating calamity begin to take root, Oui, the youngest granddaughter and the only one who trusts and follows Woranart, turns 18. The 1991 novel *Thayat Asun* (lit. *The Heir of the Demon*), a hugely popular work that has been adapted into three television series, finally makes its way to the big screen. Directed by Banjong Pisanthanakun, whose *Shutter* (2004), *Pee Mak* (2013), and *The Medium* (2021) have captivated both critics and audiences, *Inherit* is one of the year's most anticipated titles, eagerly awaited by horror fans around the world. Infused with elements of social commentary that intensify the horror, the film stars Thailand's leading actress Davika Hoorne as Woranart, who brings decadent sensuality and sinister charisma to the role, making the film impossible to look away from. (BOO Kyunghwan)



Just an Illusion

그저 환상일 뿐

France | 2026 | 118min | DCP | color

Director **Éric TOLEDANO, Olivier NAKACHE** 에리크 톨레다노, 올리비에 나카슈

산세바스티안 펠릭

229 Oct 09 / 22:40 / L4 **644** Oct 14 / 20:00 / BT

거울 앞에 선 열세 살 뱃상. 형의 스프레이를 훔쳐 앞머리를 세우려다 실패하고 물로 앞머리를 대충 닦아 붙인 채 학교로 달려간다. 목표는 단 하나, 마리옹에게 근사해 보이는 것. 이 사소한 아침 소동 하나로 관객은 단숨에 1985년 파리 근교로 이동한다. <언터처블: 1%의 우정> (2011)으로 현대 프랑스 코미디의 신화를 다시 쓴 톨레다노와 나카슈 감독은 그 시절의 가구와 의상, LP판의 질감은 물론 음악까지 완벽하게 재현해 낸다. 실직한 아버지(루이 가렐),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하는 어머니(카미유 코뎕�), 뉴웨이브 밴드 더 큐어의 열혈 팬인 형 사이에서 뱃상은 첫사랑을 지켜내려 애쓴다. 감독들은 <라보>의 상큼함과 유머를 되살리면서도, 그 시절이 깊은 사회적 격변기였음을 잊지 않는다. 누구도 실업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여성들은 마침내 중요한 직책에 진출하기 시작했으며, 인종주의는 정치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불안하고 보수적인 어른들 앞에서 뱃상과 그의 첫사랑 마리옹은 인종과 종교를 넘어 서로를 사랑하려는 다음 세대의 희망을 노래한다. <그저 환상일 뿐>은 『응답하라 1988』 못지않은 유머로 무장한 코미디이자, 웃음과 눈물, 향수와 현재가 절묘하게 포개지는 애뜻하고 사랑스러운 시간 여행이다. (서승희)

Thirteen-year-old Vincent stands in front of the mirror. After failing to style his bangs with hairspray he stole from his older brother, he ends up plastering them down with water before heading to school. He has just one goal: to look cool in front of Marion. With this trivial morning commotion, audiences are instantly transported to the Parisian suburbs of 1985. Éric Toledano and Olivier Nakache, the masters of French comedy who made history with *The Intouchables* (2011), impeccably recreate the era's furniture, costumes, tactile textures of vinyl records, and music. Caught between an unemployed father (Louis Garrel), a mother steadily climbing the corporate ladder (Camille Cottin), and an older brother devoted to the new wave band The Cure, Vincent scrambles to protect his first love. While reviving the refreshing charm and humor of *La Boum*, the directors do not forget that this era was a time of profound social upheaval. No one was safe from the threat of unemployment, women were finally breaking into key positions, and racism was seeping into the political landscape. In front of anxious and conservative adults, Vincent and Marion sing the next generation's hope, striving to love each other across racial and religious divides. Armed with humor rivaling *Reply 1988*, *Just an Illusion* is both a comedy and an affectionate, lovely journey through time where laughter, tears, nostalgia, and the present exquisitely overlap. (SEO Seunghye)



Look Back

룩백

Japan | 2025 | 100min | DCP | color

Director **KOREEDA Hirokazu** 고레에다 히로카즈

베니스영화제 경쟁

003 Oct 07 / 20:00 / BT

뛰어난 재능과 자부심으로 학교 신문에 실릴 4컷 만화를 씩씩 그려내던 시골 소녀 후지노는 학교조차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 코모토의 압도적인 그림 실력에 깊은 충격을 받는다. 만화에 대한 열정 하나로 교감을 나누게 된 두 사람은 둘도 없는 동반자가 되어 함께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 예기치 못한 삶의 갈림길을 마주한다. 가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후지모토 타츠키의 만화 『룩백』을 실사화한 작품으로, 신에 데구치 나츠키와 마키타 아유가 호흡을 맞춰 애뜻한 서사를 완성했다. 원작 특유의 정서를 정교하게 살려낸 공간 연출, 그리고 아날로그 펜 선에서 펜타블렛으로 옮겨가는 시간의 궤적은 작품에 현실적인 생동감을 부여한다. 특히 후반부 클라이맥스에서 펼쳐지는 평행세계 연출은 원작 이상의 감동과 압도적인 잔상을 남긴다. 찬란했던 우정과 창작의 기쁨, 그리고 다정한 이별의 아픔을 보듬는 섬세하고 묵직한 성장의 기록. (박가연)

Fujino, a countryside girl who effortlessly sketched four-panel mangas for the school newspaper with brilliant talent and pride, is deeply shaken by the overwhelming drawing skills of Kyomoto, a shut-in recluse who doesn't even attend school. Connected solely by their shared passion for manga, the two become irreplaceable companions running toward their dreams together, only to face unexpected crossroads in life. In this live-action adaptation of Fujimoto Tatsuki's manga *Look Back*, master director Koreeda Hirokazu teams up with rising stars Deguchi Natsuki and Makita Aju to craft an aching narrative. The spatial direction, delicately preserving the distinct sensibility of the original work, along with the passage of time captured in the transition from analog pen lines to graphics tablets, breathes realistic vitality into the film. In particular, the parallel-world sequence in the climactic second half leaves an overwhelming afterimage and emotional resonance that surpasses the original. It stands as a delicate, weighty coming-of-age chronicle that embraces radiant friendship, the joy of creation, and the bittersweet pain of tender parting. (Karen PARK)



The Sorry Generation

세대유감

Korea | 2026 | 102min | DCP | color

Director **KIM Sung-yoon** 김성윤

WP

139 Oct 08 / 12:20 / L6 **197** Oct 09 / 09:00 / C3
554 Oct 13 / 20:00 / BT



The Spiral

스파이럴

Italy/France/Belgium | 2026 | 115min | DCP | color

Director **Paolo STRIPPOLI** 파올로 스트리폴리

베니스영화제 경쟁

075 Oct 08 / 23:59 / BH **163** Oct 09 / 20:00 / BT

영망진창 폭스 대한강의 가족이 몰려 온다. 무형문화유산 등재 심사를 앞둔 대한민국 대표 중가 광평 김씨 옹평공파(그러니까 부르기에도 힘든), 빼대 있는 이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는 46대 장손 용병(정재영)은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자 박수무당을 찾았다가 '조상님들이 노하셨다'는 말에 굿판을 벌이기로 한다. 한편 일곱 번이나 행정고시에 낙방한 47대 장손 봉덕(이아경)은 원치 않은 책임과 부당에 폭발하고, 조상을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꼬였다는 생각에 아예 퇴마를 결심한다. 장편 데뷔작 <파편>으로 부산국제영화제 CGV상과 초록벤티디어상을 받은 김성윤 감독의 신작 <세대유감>은 정성없는 난장으로 춤을 추는 유쾌한 가족극이다.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코미디의 진리는 말 그대로 이 가족을 위한 말이다. 어처구니없고 난처한 상황을, 하지만 웃음은 바로 거기에서 피어난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개성이 살아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정재영, 이아경, 김주령, 김아영 등 배우들의 코믹한 호연은 이 영화의 가장 흥미로운 재미이기도 하다. (송경원)

A messy, uproarious, thoroughly chaotic family comes rushing in. With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scription review looming, the House of Lord Ongpyeong, Gwangpyeong Kim Clan—a name that's a tongue-twister in itself—is presided over by Yong-byeong (Jung Jae-young), the 46th-generation head of this distinguished family. When nothing seems to go his way, he visits a shaman and, upon hearing that "the ancestors are furious," decides to hold a shamanic ritual. Meanwhile, Bong-deok (Lee Yi-kyung), the 47th-generation heir, has failed the civil service exam seven times. Crushed by responsibilities he never wanted and convinced that his ancestors have ruined his life, he decides to exorcise them altogether. *The Sorry Generation*, the new film from Kim Sung-yoon, whose feature debut *Fragment* won the CGV Award and Chorokbaem Media Award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s a buoyant family comedy that dances through sheer chaos. The comic maxim 'comedy from a distance, tragedy up close' might have been coined for this family. The situations are absurd and awkward, yet that is precisely where the laughter springs from. Each family member has a vivid personality, while the spirited comic performances of Jung Jae-young, Lee Yi-kyung, Kim Joo-young, Kim Ah-young, and the rest of the cast provide some of the film's greatest pleasures. (SONG Kyung-won)

<홀리 보이> (2025)로 서늘한 매혹을 선사했던 파올로 스트리폴리가 신작 <스파이럴>로 다리오 아르젠티의 계보를 잇는 이탈리아 판타스틱 영화의 후계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부유한 부르주아 가문의 엄마는 개의 습격으로 다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딸을 구하고자 정제 모를 여인과 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악마는 결코 대가 없이 손을 내밀지 않는 법. 그 대가는 가족 전체를 끝없는 비극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다. 봉준호의 <기생충> (2018)을 연상시키는 이 작품은 이기심으로 악마를 집 안에 들인 1980년대 이탈리아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예리한 성찰이기도 하다. 최면을 걸듯 몽환적인 바로크풍 비주얼 위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배우 아드리انو 판나나와 자스민 트린카가 팽팽한 긴장을 빚어내고, 빌레리아 브루니 테데스키는 파격적인 악마적 존재로 분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공포와 계급, 욕망이 나선처럼 휘감기는 우아한 악몽. (서승희)

After the chilling allure of *The Holy Boy* (2025), Paolo Strippoli proves with his new film *The Spiral* that he is a true heir to the tradition of Italian fantastic cinema epitomized by Dario Argento. A mother from a wealthy bourgeois family makes a pact with a mysterious woman to save her daughter, who is in danger of losing her leg after a dog attack. But the devil never extends a hand without demanding something in return. The price draws the entire family into an endless spiral of tragedy. Evoking Bong Joon-ho's *Parasite* (2018), the film also offers a pointed reflection on the Italian bourgeoisie of the 1980s, whose selfishness invites the devil into its own home. Against hypnotic, dreamlike Baroque-ish visuals, Italy's leading actors Adriano Giannini and Jasmine Trinca generate palpable tension, while Valeria Bruni Tedeschi transforms into a startlingly demonic presence, delivering a performance unlike anything we have seen from her before. An elegant nightmare in which horror, class, and desire coil together like a spiral. (SEO Seunghye)



The Violinist

바이올리니스트

Singapore/Spain/Italy | 2026 | 114min | DCP | color
Director **Ervin HAN, Raúl GARCÍA** 어빈 한, 라울 가르시아

토론토영화제 센터피스

325 Oct 10 / 20:00 / BT **393** Oct 11 / 12:40 / C2

유복한 소녀 페이의 집에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거리에서 자란 소년 카이가 허드렛일꾼으로 들어온다. 페이가 연습하는 바이올린 소리를 듣던 카이는 곧 절대음감과 천재적인 음악성을 드러낸다. 음악으로 연결된 두 사람은 함께 자라며 바이올린 듀오를 이루고, 상류층의 살롱이든 노동자들이 모인 거리에서 잠시나마 기쁨을 선사한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그림자가 영국령 싱가포르를 덮치며 아름다운 화음은 끝내 역사의 폭력에 휘말린다. 싱가포르의 어빈 한과 스페인의 라울 가르시아가 공동 연출한 <바이올리니스트>는 2026년 안사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장편 대상과 음악상을 수상하며 주목받았다. 어울릴 것 같지 않았지만 결국 서로의 삶에 영원히 새겨진 두 사람의 사랑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이별을 맞는다. 섬세한 손그림과 클래식 선율은 개인의 기억과 시대의 상흔을 아름답고도 애뜻하게 포착한다. (박성호)

Kai, a boy who grew up on the streets without ever knowing his father's face, comes to work as a servant boy in the household of Fei, a girl from a wealthy family. Having long listened to Fei practice the violin, he soon reveals a perfect pitch and prodigious musicality of his own. Bound together by music, the two grow up side by side and form a violin duo, bringing brief moments of joy whether in high-society salons or in the streets where workers gather. But as the shadow of World War II falls over British-colonial Singapore, their beautiful harmony is ultimately swept into the violence of history. Co-directed by Singapore's Ervin Han and Spain's Raúl García, *The Violinist* drew attention by winning the Grand Prize for Feature Film and the Music Award at the 2026 Annecy International Animation Film Festival. Unlikely as it once seemed, their love — etched forever into each other's lives — meets an inescapable parting before the vast tragedy of war. With delicate hand-drawn artistry and classical melodies, the film beautifully and tenderly captures personal memory and the scars of an era. (PARK Sungho)



Midnight Passion

미드나잇 패션

작품성과 오락성을 겸비한 호러, 스릴러, 액션, SF 등 장르영화의 신작들을 심야에 상영한다.

A selection of genre films—from horror and thriller to action and sci-fi—that are certain to keep devoted fans awake throughout the night.

심야 상영 일정	Midnight Passion 1 미드나잇 패션 1	Sapiens 사피엔스 The Chain of Roses 장미의 사슬 The Spiral 스파이럴 075 Oct 8 / 23:59 / BH
	Midnight Passion 2 미드나잇 패션 2	Red Thread 붉은 실 The Scar-Faced Cat: Way of Asura 스카페이스 캣: 수라도 L'Autre 불청객 168 Oct 9 / 23:59 / BH
	Midnight Passion 3 미드나잇 패션 3	Jim Queen 짐 퀸 Welcome to Dolly's House 웰컴 투 돌리 하우스 Angel's Egg 천사의 알 269 Oct 10 / 23:59 / BH

WP World Premiere

IP International Premiere



Angel's Egg

천사의 알

Japan | 1985 | 72min | DCP | color
Director **OSHII Mamoru** 오시이 마모루

009 Oct 07 / 12:30 / B1 **269** Oct 10 / 23:59 / BH

1985년 오시이 마모루가 일라스트레이터 아마노 요시타카와 함께 빚어낸 <천사의 알>은 줄거리 요약이 무의미한 침묵의 묵시록이다. 물에 잠긴 폐허의 도시에서 커다란 알을 품고 다니는 소녀가 십자가 형상의 병기를 짊어진 청년을 만난다. 존재하지 않는 물고기를 쫓는 어부들, 화석이 된 새, 방주의 기억까지. 대사를 극단적으로 걷어낸 자리에 성서적 상징과 적막한 이미지가 들어차 관객 각자의 해석을 기다린다. 본래 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OVA)으로 발표됐지만 화면의 밀도는 처음부터 극장을 향해 있었다. 발표 당시 난해하다는 이유로 외면받았고 오시이 스스로 이 작품으로 인하여 한동안 일이 끊겼다고 회고한 문제작이지만 이 실패가 없었다면 <공각기동대> (1995)의 사색도 없었을 것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끝내 깨지지 않는 알처럼 품고 있는 영화. 어둠 속에서 오롯이 이미지에 집기는 극장 관람이아말로 이 작품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송경원)

Crafted in 1985 by Oshii Mamoru together with illustrator Amano Yoshitaka, *Angel's Egg* is a silent apocalypse that defies plot summary. In a flooded city of ruins, a girl carrying a large egg encounters a young man with a cross-shaped weapon slung across his back. Fishermen chase nonexistent fish, a fossilized bird remains, and memories of the Ark linger. With dialogue stripped to a bare minimum, biblical symbols and haunting images fill the silence, awaiting each viewer's own interpretation. Though originally released as an original video animation (OVA), the visual density of *Angel's Egg* seemed destined for the big screen from the very beginning. Dismissed upon its release as impenetrably obscure, the film became a notorious failure, and Oshii himself later recalled that it left him without work for some time. Yet without this failure, the philosophical contemplation of *Ghost in the Shell* (1995) might never have existed. Like an egg that refuses to break, the film holds within it an enduring question: What is faith? To surrender completely to its images in the darkness of a theater is perhaps the only way to truly experience *Angel's Egg*. (SONG Kyung-won)



The Chain of Roses

장미의 사슬

Japan | 2026 | 83min | DCP | color
Director **SATO Sakichi** 사토 사키치

WP

037 Oct 07 / 09:00 / C6 **075** Oct 08 / 23:59 / BH
205 Oct 09 / 22:50 / C4 **685** Oct 14 / 13:00 / L2

끔찍한 사고를 당한 뒤, 서로에게 수감인 채 깨어난 한 남녀는 경찰과 무자비한 마약 조직 모두에게 쫓기는 신세가 된다. 과거의 기억이 전혀 없는 두 사람은 자신들 중 누가 경찰이고 누가 범죄자인지조차 알지 못한다. 일본 TV 업계에서 쌓아온 경력을 바탕으로, 사토 사키치 감독은 서사의 진행 속도를 경쾌하게 선보이며, 매끄럽고 신뜻하면서도 폭발적인 에너지를 지닌 로맨틱 범죄 코미디를 완성해낸다. 범죄영화 황금기 특유의 고전적인 '엇갈린 짝궁' 케미스트리를 떠올리게 하는 이 영화는, 정신없이 펼쳐지는 황당한 우연의 연속과 아슬아슬한 탈출극을 통해 복고적인 향수를 불러일으킨다.사와지리 에리카와 마루야마 류헤이 사이의 짜릿한 케미스트리는 이 혼돈에 생생한 활기를 불어넣으며, 록앤롤 같은 질주감과 진솔한 정서적 온기 사이에서 절묘한 균형을 이룬다. 빠르고 스타일리시하며 더없이 만족스러운 <장미의 사슬>은, 아무리 팽팽한 속박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은 피어날 수 있음을 증명하는 83분짜리 짜릿한 롤러코스터다. (구평유인)

Waking up handcuffed together after a violent crash, a man and a woman find themselves on the run from both the police and ruthless drug dealers. With no memories of the past, they are unsure which of them is the cop and who is the criminal. Drawing on his background in Japanese television, director Sato Sakichi demonstrates brisk narrative pacing, delivering a slick, breezy, and high-octane romantic crime comedy. Recalling the classic odd-couple dynamics of the golden age of crime films, the film channels a retro nostalgia through a fast-paced series of absurd coincidences and thrilling escapes. The electric chemistry between Sawajiri Erika and Maruyama Ryuhei gives a vibrant spark to the chaos, balancing the rock-and-roll momentum with genuine emotional warmth. Fast, stylish, and immensely satisfying, *The Chain of Roses* is a thrilling 83-minute rollercoaster ride that proves true romance can bloom even amidst the tightest restraints. (GU Pengyuan)



Jim Queen

짐 퀸

France/Belgium | 2026 | 86min | DCP | color
Director **Marco NGUYEN, Nicolas ATHANÉ** 마르코 응우옌, 니콜라 아타네

칸영화제 미드나잇스크리닝

269 Oct 10 / 23:59 / BH **414** Oct 11 / 18:50 / C6
555 Oct 13 / 10:00 / BH

2천만 팔로워를 거느린 파리 게이계의 절대적 인물루언서 짐. 헬스로 다져진 뼉뼉한 가슴과 엉덩이, 조각 같은 근육으로 욕망의 파라디즈 폭대기에 군림한다. 하지만 3주 안에 근육을 잃고 이성애자가 되는 '헤테로시스'라는 신종 성병에 감염되자 팬들은 빠르게 등을 돌린다. 치료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에서 그가 무시했던 벽장 속 청년 루시앙만이 끝까지 곁을 지킨다. 올해 칸영화제에서 쿼미에르극장을 열광의 장으로 만든 <짐 퀸>은 소수자 공동체 내부에도 무시와 차별이 만연한 냉혹한 현실을 통렬하게 풍자한 애니메이션이다. 온갖 패러디가 실 틈 없이 쏟아지는 가운데 AIDS에 대한 공포와 동성애 차별, 커밍아웃의 두려움, 국가권력의 위선까지 포착한다. 혐오와 질투대신 자기 긍정과 연대로 얻는 진정한 자유를 유쾌하면서도 독하게 일깨운다. (박성호)

Jim is a superstar gay influencer in Paris with 20 million followers. Sculpted by gym training with a chiseled chest, glutes, and rock-hard muscles, he reigns at the top of the pyramid of desire. But when he contracts a new STD called 'heterosis,' which causes him to lose his muscles and become straight within three weeks, his fans quickly turn their backs on him. As he struggles to find a cure, the only one who stays by his side is Lucien, the closeted young man he used to ignore. *Jim Queen*, which set the Lumière Theatre ablaze with excitement at this year's Cannes, is an animated satire that biting captures the harsh reality of the contempt and discrimination that persist even within minority communities. Amid a relentless barrage of parodies, it captures the fear of AIDS, homophobia, the anxiety of coming out, and even the hypocrisy of state power. Instead of hatred and envy, it delivers a witty yet biting wake-up call about true liberty through self-acceptance and solidarity. (PARK Sungho)



L'Autre

불청객

Canada | 2026 | 98min | DCP | color
Director **Alexandre FRANCHI** 알렉상드르 프란치

IP 토론토영화제 센터피스

168 Oct 09 / 23:59 / BH **385** Oct 11 / 19:00 / CX
697 Oct 14 / 13:00 / L5

스탠은 다리에 인공관절을 넣는 수술을 받다가 도중에 깨어난 것 같은 트라우마에 휩싸여, 끊임없이 다리가 박살날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힌다. 실상가상 병원에선 병실이 부족하다며 코마상태에 빠진 불상의 남자를 스탠의 병실에 집어넣는데, 그는 스탠과 단둘이 남겨지자 갑자기 말을 걸기 시작한다. 그렇게 스탠은 신체훼손(혹은 파괴)의 공포와 미지의 남성이 자아내는 불안 사이에서 편집증을 앓기 시작한다. 무엇이 진정으로 무서운가? 진짜 공포는 무언가를 보거나 알게 됐을 때가 아니라, 반대로 보이지 않고 알 수 없을 때 엄습한다. 이 영화는 무지와 미지가 사실 두려움의 조건이라는 스릴러 장르의 오랜 지침을 충실히 따르며, 병실이라는 좁고 한정된 공간을 무지막지한 서스펜스의 무대로 확장시킨다. 여기서라면 평범한 주사바늘, 반복되는 식사, 일상적 대화, 간단한 산책, 심지어 배설마저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장막다리가 된다. (구형준)

While undergoing surgery to have an artificial joint implant in his leg, Stan is haunted by the trauma of seemingly waking up mid-operation, gripped by an unrelenting fear that his leg is about to be shattered. To make matters worse, the hospital, citing a shortage of beds, moves an unidentified comatose man into Stan's room. But once the two are left alone, the man suddenly begins to speak. Caught between the fear of bodily mutilation—or outright destruction—and the anxiety stirred up by this unknown man, Stan begins to spiral into paranoia. What is truly frightening? True fear strikes not when something is seen or known, but when it remains unseen and unknowable. Faithfully following the thriller genre's longstanding principle that ignorance and the unknown are conditions for fear, the film transforms the narrow, confined space of a hospital room into a stage for relentless suspense. Here, an ordinary injection, routine meals, everyday conversation, a simple walk, even excretion become stepping stones between life and death. (GOO Hyeong Jun)



Red Thread

붉은 실

Vietnam | 2026 | 126min | DCP | color
Director **Ham TRAN** 함 편

WP

168 Oct 09 / 23:59 / BH **510** Oct 12 / 15:30 / L2
633 Oct 13 / 10:00 / KT

어린 소녀 략의 눈에는 무시무시한 귀신들이 보인다. 략의 아버지는 귀신을 두려워하며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친구처럼 대하며 도움을 주라고 독려한다. 하지만 끔찍한 사연을 가지고 독한 원한을 품고 있는 귀신들을 돕는 것은 어린 략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벅찬 일이다. 게다가 성인이 된 략은 잔혹한 연쇄살인마의 타깃이 된다. 베트남 장르영화를 대표하며 넷플릭스 시리즈 <악마의 만찬> (2025)으로 큰 화제를 모은 함 편 감독의 <붉은 실>은 공포가 타인을 이해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음산하고도 아심 찬 호러영화다. 삶과 죽음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으며 그러기에 산 자와 죽은 자는 인연과 업으로 얽혀 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란 어렵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 없다. (박성호)

Young Lac sees terrifying ghosts. Her father encourages her not to simply fear and avoid them, but to treat them like friends and help them. But these ghosts carry harrowing stories and bitter grudges, and helping them proves far more than young Lac can bear. Now grown, she becomes the target of a brutal serial killer. Director Ham Tran built his reputation as a leading figure in Vietnamese genre cinema and caused a sensation with the Netflix series *Devil's Diner* (2024). His new film *Red Thread* is an eerie and ambitious horror movie that asks whether fear can become a path to understanding others. Life and death are not as far apart as they seem, and so the living and the dead remain entangled by fate and karma. It's so hard to admit our own mistakes. And yet we must keep trying to understand one another. (PARK Sungho)



Sapiens 사피엔스

Korea | 2026 | 101min | DCP | color
Director **LEE Hu-bin 이후빈**

WP

040 Oct 07 / 19:40 / C6 **075** Oct 08 / 23:59 / BH
232 Oct 09 / 15:30 / L5 **539** Oct 12 / 19:20 / L9

진실과 사실의 거리는 얼마나 멀까. 사실이 하나라도 진실은 여러 갈래로 존재할 수 있다. 이후빈 감독의 <사피엔스>는 그 간극을 가지고 퍼즐 게임을 시도한다. 재벌 3세이자 상현건설 전무 오종화가 사라지고, 건설사 법률팀장 서화재(유재명)는 영상으로 납치 협박 메시지를 받는다. 이어 유일한 납치 용의자 나도한(정성일)을 마주하지만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주장하는 그에게 제대로 된 기억이 없다. 한 명의 몸에 여러 인격을 지니고 있는 나도한은 깨어날 때마다 다른 진술을 한다. 한 명의 용의자가 재구성하는 여러 관점의 진술은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서스펜스를 만들어낸다. 하나는 납치 사건의 범인이 누구인가, 다른 하나는 나도한은 누구인가. 편집된 기억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영화가 장면을 이어 붙이는 쾌감을 닮았다. 유재명 배우의 묵직한 연기가 납치 사건 서사의 중심을 잡고, 정성일 배우의 1인 모노드라마에 가까운 다중 인격 연기는 거의 차력쇼라 해도 좋을 만큼 다채로운 결의 긴장을 선사한다. 이윽고 당도할 충격적인 결과만큼 그에 다다른 과정이 더 흥미로운 영화다. (송경원)

How far is the distance between truth and fact? Even if there is only one fact, the truth can branch out in many directions. Director Lee Hu-bin's *Sapiens* plays a puzzle game within that very gap. When third-generation chaebol heir and executive managing director of Sanghyeon Construction Oh Jong-hwa vanishes, the company's legal team head, Seo Hee-jae (You Chea-myung), receives a video message demanding ransom for the kidnapping. Soon after, he confronts the sole kidnapping suspect, Na Do-han (Jung Sung-il), who claims to suffer from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and has no coherent memories. Harboring multiple personalities inside a single body, Na offers a different testimony each time he awakens. The multi-perspective statements reconstructed by a single suspect generate two distinct types of suspense: Who is the culprit behind the kidnapping? And who is Na Do-han? The process of piecing together these fragmented memories resembles the thrill of cinematic editing. You Chea-myung's grounded, weighty performance anchors the kidnapping narrative, while Jung Sung-il's multi-personality acting, bordering on a one-man monodrama, delivers a richly layered tension akin to a feat of sheer strength. It is a film where the journey toward the impending, shocking conclusion is even more compelling than the revelation itself. (Song Kyung-won)



The Scar-Faced Cat: Way of Asura 스카페이스 캣: 수라도

Taiwan | 2026 | 108min | DCP | color
Director **WANG I-Fan 왕이판**

WP

153 Oct 08 / 18:00 / KT **168** Oct 09 / 23:59 / BH
462 Oct 11 / 10:00 / BCM

우리는 복수극의 문법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전작 <갯 더 헬 아웃>에서 좀비와 프로레슬링으로 대만 입법원을 난장판으로 만들었던 왕이판 감독은 식민지 시대극과 무협, 여성 원탐 액션을 한데 엮어 그 익숙함을 다시 버린다. 일제 치하의 대만, 경찰들이 연이어 살해된다. 용의자는 쌍чатку 든 고양이처럼 날렵한 여인 '화렌마오'다. 사건을 맡은 시미즈는 두 사람의 운명을 뒤틀어 놓은 1년 전의 비극에 다가간다. 대만의 신예 한닝이 약 1년간의 훈련으로 화렌마오의 액션을 완성하고, <나는 내일, 어제의 너와 만난다>의 후쿠시 소타가 시미즈 역을 맡아 그녀의 폭주를 막아선다. 결국 진실에 마주하는 순간, 화렌마오의 여정은 핏빛 수라도로 변하고 그녀의 예리한 발톱이 미드나잇 패션의 스크린을 찢는다. (채경훈)

We already know the conventions of a revenge story. But Wang I-Fan, who unleashed mayhem in Taiwan's Legislative with zombies and pro wrestling in *Get the Hell Out*, sharpens the familiar formula by combining the backdrop of colonial Taiwan, martial arts, and female-led action. In Taiwan under Japanese rule, police officers are murdered one after another. The suspected killer is the Scar-faced Cat, a female assassin with cat-like agility, wielding a pair of sickles. The case is assigned to Shimizu, a Japanese officer who spends a year gradually approaching the case, twisting their fates. Emerging Taiwanese actor Han Ning trained for nearly a year to perform the demanding action sequences as the Scar-faced Cat, while Fukushi Sota, star of *My Tomorrow, Your Yesterday*, plays Shimizu who sets out to stop her rampage. When the truth finally comes to light, the Scar-faced Cat's journey descends into a blood-soaked way of asura, as her razor-sharp claws tear through the screen in Midnight Passion. (CHAE Kyeong Hoon)



The Spiral 스파이럴

Italy/France/Belgium | 2026 | 115min | DCP | color
Director **Paolo STRIPPOLI 파올로 스트리폴리**

베니스영화제 경쟁

075 Oct 08 / 23:59 / BH **163** Oct 09 / 20:00 / BT



Welcome to Dolly's House 웰컴 투 돌리 하우스

Taiwan | 2026 | 88min | DCP | color
Director **Seven YCH, Rady FU, Tree MUTA**
세븐 YCH, 레이디 푸, 트리 무타

093 Oct 08 / 22:00 / CX **196** Oct 09 / 20:40 / C2
269 Oct 10 / 23:59 / BH **376** Oct 11 / 22:00 / B2
711 Oct 14 / 18:40 / L8

<홀리 보이> (2025)로 서늘한 매혹을 선사했던 파올로 스트리폴리가 신작 <스파이럴>로 다리오 아르젠토의 계보를 잇는 이탈리아 판타스틱 영화의 후계자임을 다시 한번 증명한다. 부유한 부르주아 가문의 엄마는 개의 습격으로 다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딸을 구하고자 정제 모를 여인과 계약을 맺는다. 그러나 악마는 결코 대가 없이 손을 내밀지 않는 법. 그 대가는 가족 전체를 끝없는 비극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다. 봉준호의 <기생충> (2018)을 연상시키는 이 작품은 이기심으로 악마를 집 안에 들인 1980년대 이탈리아 부르주아 계급에 대한 예리한 성찰이기도 하다. 최면을 걸듯 몽환적인 바로크풍 비주얼 위로,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배우 아드리아노 잔니니와 자스민 트린카가 맹맹한 긴장을 빚어내고, 발레리아 브루니 테데스키는 파격적인 악마적 존재로 분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공포와 계급, 욕망이 나선처럼 휘감기는 우아한 악몽. (서승희)

After the chilling allure of *The Holy Boy* (2025), Paolo Strippoli proves with his new film *The Spiral* that he is a true heir to the tradition of Italian fantastique cinema epitomized by Dario Argento. A mother from a wealthy bourgeois family makes a pact with a mysterious woman to save her daughter, who is in danger of losing her leg after a dog attack. But the devil never extends a hand without demanding something in return. The price draws the entire family into an endless spiral of tragedy. Evoking Bong Joon-ho's *Parasite* (2018), the film also offers a pointed reflection on the Italian bourgeoisie of the 1980s, whose selfishness invites the devil into its own home. Against hypnotic, dreamlike Baroque-ish visuals, Italy's leading actors Adriano Giannini and Jasmine Trinca generate palpable tension, while Valeria Bruni Tedeschi transforms into a startlingly demonic presence, delivering a performance unlike anything we have seen from her before. An elegant nightmare in which horror, class, and desire coil together like a spiral. (SEO Seunghee)

라이브 스트리밍 중 해외의 지하골窟당 유적에서 강행한 공개 청혼 사건으로 유튜브 프린세스 마리아와 연인 아웨는 한순간에 추락한다. 얼마 후 발신자 불명의 기이한 영상이 도착하고 그녀는 전설적인 인형 제작자 마담 돌리를 영상에서 발견한다. 마리아와 아웨는 베일에 싸인 돌리의 사생활에 관한 콘테스트 재기를 노리고 그녀의 수상한 초대에 응한다. 다만 최초의 장편 로투스코핑 애니메이션으로, 실사에 기반한 로투스코핑 특유의 효과가 인물들을 인간과 인형 사이에 붙들며 '불쾌한 골짜기'의 섬뜩함을 만들어 낸다. '좋아요'를 갈망하며 타인의 시선에 영혼이 정당 잡힌 현대인의 초상을 아르데코풍의 미장센과 고딕 호라의 타치로 만든 심리 공포 판타지. 미드나잇 패션 관객을 위한 매혹적이고 위험한 초대장이다. (채경훈)

After a scandalous proposal stunt staged during a livestream at an underground columbarium site overseas, YouTuber Princess Maria and her lover A-Yue suffer a spectacular fall from grace. Sometime later, a mysterious video arrives from an unknown sender, and Maria discovers the legendary dollmaker Madame Dolly in it. The couple accepts her enigmatic invitation, hoping to make a comeback with videos about Dolly and her mysterious personal life. This very first Taiwanese feature-length rotoscoped animation uses the distinct effect of rotoscoping, based on live-action footage, to hold its characters somewhere between human and doll to create the eerie sensation of the 'uncanny valley.' With an Art Deco-inspired mise-en-scène and touches of gothic horror, this psychological horror fantasy offers a portrait of the contemporary world where people crave 'likes' and their souls are held hostage by the gazes of others. *Welcome to Dolly's House* is a tantalizingly dangerous invitation to audiences of Midnight Passion. (CHAE Kyeong Hoon)

On Screen

온 스크린

영화의 확장된 흐름과 가치를 포괄하는, 그 해의 최신 드라마 시리즈 기대작을 상영한다

An exploration of cinema's expanding horizons through screenings of the year's most anticipated drama series

WP World Premiere **IP** International Premiere



도쿄에서 시체를 기괴한 형상으로 뒤틀어 미술품처럼 전시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현장을 조사하던 형사 이노세(나카야마 에이라)는 의문의 남성을 발견하고 추적한다. 그는 한국에서 국제 공조로 파견된 형사 김석(손석구)이다. 악의적인 메시지와 끔찍한 사체, 동일한 수법의 연쇄살인이 한국과 일본에서 발생하자 두 형사는 각자 따로, 하지만 결국엔 함께 어둠을 파헤친다. <푸른길>은 동명의 한일 합작 만화 <푸른길>을 원작으로 한 초국적 서사의 형사물이다. 『해와 달』의 권가야 작가, 『마스터 키튼』의 스토리를 쓴 에도가와 케이시가 힘을 합친 묵직한 원작을 『D.P.』의 한준희 감독과 <파일럿>의 조유진 작가가 또 다른 방향으로 각색했다. 치밀한 스토리텔링을 장르적인 언어로 해석한 <푸른길>은 겹겹이 쌓인 페스츄리처럼 다층적인 매력을 자랑한다. 범인을 밝히는 과정만큼 흥미로운 것은 다른 듯 서로 닮은 두 형사의 호흡이다. 외로운 늑대 같은 두 형사의 추적에 진실이 한꺼풀씩 벗겨질 때마다 흡입력을 더한다. (송경원)

In Tokyo, a case emerges where corpses are grotesquely contorted and exhibited like works of art. While investigating the scene, Detective Inose (Nagayama Eita) spots and pursues a mysterious man, who turns out to be Kim Seok (Son Sukku), a detective dispatched from South Korea on an international joint investigation. As serial murders bearing identical patterns, horrific corpses, and malicious messages unfold across South Korea and Japan, the two detectives delve into the darkness separately, yet ultimately together. *The Blue Road* is a transnational detective story based on the Korea-Japan collaborative manga of the same name. The weighty original source material, co-created by Kwon Gya of *Sun and Moon* and Edogawa Keishi, story writer of *Master Keaton*, has been adapted in a fresh direction by director Han Jun-hee of *D.P.* and writer Cho Eugene of *Pilot*. Translating its intricate storytelling into genre conventions, *The Blue Road* boasts multilayered appeal like a flaky pastry. Just as intriguing as the process of uncovering the culprit is the dynamic between the two detectives, who are at once different yet mirror images of one another. Each time a layer of truth is peeled away in the pursuit led by these two lone wolves, the gripping tension pulls the audience in even deeper. (SONG Kyung-won)

The Blue Road

푸른길

Korea | 2026 | 138min | DCP | color
Director **HAN Jun-hee** 한준희

WP

057 Oct 07 / 13:30 / L6 **157** Oct 08 / 14:20 / SH
543 Oct 12 / 09:20 / KT



Dead-End Job

꼴알바

Korea | 2026 | 142min | DCP | color
Director **KIM Da-min** 김다민

WP

048 Oct 07 / 09:40 / L4 **226** Oct 09 / 11:50 / L4
618 Oct 13 / 12:20 / L7

빛에 잡아먹힐 지경이 된 허준(이재욱)은 '거미인력' 사장(이희준)을 따라 정체불명의 고수의 알바에 뛰어들다. 노동재해보호원 소속이라며 그에게 기묘한 명함을 내미는 연주(고민시)는 일지리를 둘러싼 진실을 파헤치려는 눈치다. <꼴알바>는 회사마다 기상천외한 노동 현장을 펼쳐 놓는다. 편의점 야간 근무는 '사람 아닌 것'과 싸우는 격전지로, 피에로와 동행한 이벤트 출장 알바는 죽음의 레이스로 돌변하는 식이다. 한편, 극장 알바를 시작한 지윤(김민하)은 뜻밖의 존재들과 마주하고, 급기야 스크린에서는 끔찍한 기억까지 반복 재생된다. <막걸리가 알려줄거야>를 연출하고 <살인자ㅇ난감>의 각본에 참여한 김다민 감독의 첫 시리즈 연출작이다. 기이한 현실에서 출발한 상상력이 일상과 환상의 경계를 리드미컬하게 가로지르고, 먹고살기의 무게 속에서 공포와 유머가 처절히 맞물린다. (차한비)

Hyeok-joon (Lee Jae-wook) is drowning in debt, and follows the boss (Lee Hee-jun) of Spider Staffing Agency into a mysterious but lucrative gig. Yeon-joo (Ko Min-si), who hands him a strange business card and introduces herself as being from the Labor Accident Prevention Institute, seems intent on uncovering the truth behind the job. Each episode of *Dead-End Job* unveils another outlandish workplace: a night shift at a convenience store turns into a battlefield against 'something not quite human,' while an event gig alongside a clown turns into a deadly race. Meanwhile, Ji-yoon (Kim Min-ha), who takes a job at a movie theater, encounters unexpected beings - and soon, horrific memories start looping on the screen itself. This marks the series directorial debut of Kim Da-min, who helmed *FAQ* and co-wrote the screenplay for *A KILLER PARADOX*. Imagination rooted in a bizarre reality rhythmically crosses the line between the everyday and the fantastical, while horror and humor become inextricably intertwined under the crushing weight of making a living. (CHA Hanbi)



The Remarried Empress

재혼 황후

Korea | 2026 | 151min | DCP | color
Director **CHO Suwon** 조수원

WP

238 Oct 09 / 18:40 / L6 **265** Oct 10 / 08:20 / BH
516 Oct 12 / 09:40 / L4

"흔들리지 않을 거야. 훔칠라지도 않을 거야." 황제의 배우자이자 뛰어난 킹메이커였던 나비에(신민아)는 하루아침에 이혼을 통보받는다. 그러나 그는 연적과 구태 의연한 싸움을 벌이는 대신 새로운 땅과 운명을 선택하려 한다. 동명 인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재혼 황후>는 로맨스 판타지의 화려한 볼거리와 권력을 둘러싼 정치극, 분노와 실망이 교차하는 미묘한 감정의 결을 함께 펼친다. 나비에의 결단은 사랑의 패배 이후 택한 차선책이 아니라, 자신을 소진시킨 체제에서 능력과 삶의 방향을 되찾으려는 정치적 선택이다. 위엄과 고독을 품은 나비에, 속을 알 수 없는 소비에슈(주지훈), 해맑은 얼굴 뒤에 그늘을 감춘 라스타(이세영),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넘나드는 하인리(이종석). 익숙한 원작의 인물들이 생생한 얼굴과 몸을 얻고, 네 사람의 욕망과 이해관계가 거대한 가상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한다. (차한비)

"I won't waver. I won't be swept away." Navier (Shin Mina), the empress and a formidable kingmaker in her own right, suddenly learns that the emperor intends to divorce her. But rather than be drawn into a familiar rivalry with another woman, she chooses a new land and a new destiny. Based on the popular web novel of the same name, *The Remarried Empress* combines the dazzling spectacle of romantic fantasy with a political drama of power, weaving in subtle undercurrents of anger and disappointment. Navier's decision is not a fallback after the failure of love, but a political choice to reclaim her agency and the course of her life from a system that has worn her down. Navier, dignified yet solitary; Sovieshu (Ju Jihoon), impossible to read; Rashta (Lee Seyoung), hiding shadows behind an innocent face; and Heinrey (Lee Jongsuk), who moves freely between human and non-human form. The familiar characters of the original work come vividly to life, as the desires and competing interests of these four set its vast fictional world into motion. (CHA Hanbi)

아름다운 시절, 안성기

Those Beautiful Years, Ahn Sung-ki

부산국제영화제의 특별기획 프로그램 '아름다운 시절, 안성기'는 한국 영화사의 위대한 배우 안성기를 기억하는 귀한 자리이다. 안성기는 1957년 <황혼열차>에 아역배우로 데뷔해, 1980년 <바람불어 좋은날>을 기점으로 성인 배우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대체 불가한 대한민국 대표 배우로 오랫동안 사랑과 존경을 받아왔다.

이번 특별기획 프로그램은 여러모로 뜻깊다. 6편의 상영작은 생전에 안성기 배우가 부산국제영화제 특별기획 프로그램 준비를 제안받고 자신의 대표작으로 직접 짧은 영화 목록을 중심으로 두고 선정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 안성기가 배우로서 활발히 활동하며 대중적으로 인정받던 때의 작품들이다. 당대 최고의 감독들과 협업한 결과라는 점에서 영화사적 의미 또한 크다. 그야말로 배우 안성기의 아름다운 시절을 담은 영화들이자 배우 안성기를 통해 한국영화가 성취한 아름다운 한 시절의 영화들이다.

먼저, 이장호 감독의 <바람불어 좋은날>(1980)이다. 안성기는 중국집 배달부 덕배로 1980년대 한국의 격변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곳곳히 살아가는 평범한 청춘의 초상이었다. 다음은 배창호 감독의 <고래사냥>(1984)이다. 그는 이 영화에서 자유로운 영혼의 민우로 안성기 하면 떠오르는 특유의 웃음기 가득한 표정, 해학이 넘치는 몸짓으로 분방한 인간의 면모를 유감없이 펼친다. 이어 박광수 감독의 데뷔작 <칠수와 만수>(1988)이다. 연작제로 깊은 상처를 입은 채, 극장 간판 그림을 그리는 만수로 분해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소리치고 제 몸을 던지는 인물을 혼신의 연기로 선보인다. 이명세 감독의 데뷔작 <개그맨>(1988)에서는 자신을 천재 영화감독이라고 여기지만, 실상은 삼류 카바레 개그맨인 중세를 맡아 페이스는 짙은 연기로 한국 영화사에서 손꼽히는 희비극적 인물로 평가받는다. 정지영 감독의 <하얀전쟁>(1992)에서는 베트남전 참전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얻은 소설가 한기주를 통해 역사의 비극 앞에 파탄 난 인물의 연약한 내면을 설득력 있게 보여줬다. 마지막으로 임권택 감독의 <축제>(1996)이다. 노모의 부고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향한 작가 이준섭을 통해 죽음 앞 생의 아름다움, 인생을 둘러싼 깊은 화한의 감정을 담담히 전한다.

상영 후 특별한 관객과의 대화도 마련했다. 안성기 배우와 같이 작업한 이장호, 배창호, 박광수, 이명세, 정지영 감독, 김보연, 김수철, 배종옥 배우가 함께할 뿐 아니라, 동시대 유망한 감독들 장간재, 김초희, 박이웅, 윤단비, 오정민이 스페셜 모데레이터를 맡았다. 여기에, 김지윤 정치학 박사도 특별 게스트로 참여하고, 정성일 영화평론가가 스페셜 토크로 강연한다. 또한 책자 『모험과 모범 사이, 시대의 배우 안성기』도 펴냈다. 정성일 영화평론가의 배우론을 비롯해, 영화평론가, 저널리스트들이 쓴 안성기 배우의 대표작, 재발견작에 관한 글, 동료 감독들, 배우들이 안성기를 말한 인터뷰가 실렸다. 배우 안성기의 연기와 인생을 살펴보고 연구하는데 좋은 길잡이가 돼 줄 것이다. (정지혜) (공동주최: 한국영상자료원)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s special program *'Those Beautiful Years, Ahn Sung-ki'* offers a meaningful opportunity to remember Ahn Sung-ki, one of the great actors in the history of Korean cinema. Ahn Sung-ki made his debut as a child actor in *The Twilight Train* (1957) and began his career in earnest as an adult actor with *A Fine, Windy Day* (1980). From then on, he remained an irreplaceable figure in Korean cinema, earning the love and respect of audiences for decades.

This special program is significant in many ways. The six films were selected primarily from a list of works Ahn Sung-ki himself named as representative of his career when he was invited, during his lifetime, to help prepare a special program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The selections date from the 1980s and 1990s, when Ahn was at the height of his career and widely acclaimed by the public. They are also significant in the history of Korean cinema as the fruits of his collaborations with some of the leading directors of the era. These films capture the beautiful years of Ahn Sung-ki as an actor - and, through him, a beautiful chapter in the history of Korean cinema. First is director Lee Jang-ho's *A Fine, Windy Day* (1980). As Deok-bae, a Chinese restaurant delivery boy, Ahn embodied an ordinary young man steadfastly making his way through the upheavals of 1980s Korea. Next is director Bae Chang-ho's *Whale Hunting* (1984). As the free-spirited Min-woo, Ahn gives full expression to the character's uninhibited nature through the warm, playful smile and humor-filled gestures that became hallmarks of the actor. In director Park Kwang-su's debut feature *Chil-su and Man-su* (1988), Ahn plays Man-su, a movie theater sign painter deeply scarred by the guilt-by-association system, delivering a wholehearted performance as a man who cries out defiantly against the world and throws himself headlong into it. In director Lee Myung-Se's debut feature *Gagman* (1988), he plays Jong-se, who fancies himself a brilliant film director but is in reality a third-rate cabaret comedian. Ahn's pathos-filled performance made Jong-se one of the most memorable tragicomic characters in Korean film history. In director Chung Jiyoung's *White Badge* (1992), he convincingly conveys the vulnerability and inner turmoil of Han Ki-ju, a novelist suffering from PTSD after serving in the Vietnam War, a man shattered by the tragedy of history. Finally, in director Im Kwon-taek's *Festival* (1996), Ahn plays writer Lee Jun-seop, who returns to his hometown after learning of his elderly mother's death, quietly conveying the beauty of life in the face of death and the profound sense of regret that accompanies a life lived.

Special post-screening conversations with audiences have also been arranged. Directors Lee Jang-ho, Bae Chang-ho, Park Kwang-su, Lee Myung-Se, and Chung Jiyoung, all of whom worked with Ahn Sung-ki, will take part, along with actors Kim Bo-yeon, Kim Soo-chul, and Bae Jong-ok. Rising contemporary filmmakers Jang Kunjae, Kim Cho-hee, Park Ri-woong, Yoon Dan-bi, and Oh Jung-min will participate as special moderators, alongside political scientist Dr. Kim Ji-yeon as a special guest and film critic Jung Sung-il, who will deliver a special talk. A companion book, *Between the Adventurous and the Exemplary Ahn Sung-ki, Actor of His Time*, has also been published. It features Jung Sung-il's critical essay on Ahn Sung-ki as an actor, essays by film critics and journalists on his major and rediscovered works, and interviews in which fellow directors and actors reflect on Ahn. The volume will serve as a valuable guide to exploring and studying Ahn Sung-ki's acting and life. (JEONG Jihye) (Co-Organized by the Korean Film Archive)



Chil-su and Man-su

칠수와 만수

Korea | 1988 | 108min | DCP | color

Director PARK Kwang-su 박광수

025 Oct 07 / 15:00 / C2

488 Oct 12 / 19:00 / C1



Festival

축제

Korea | 1996 | 107min | DCP | color

Director IM Kwon-taek 임권택

491 Oct 12 / 15:40 / C2

한국영화의 뉴웨이브를 연 작품으로 꼽히는 <칠수와 만수>는 주인공들의 사회적 배경부터가 본격적이다. 낙살과 결랑현을 오가며 거짓말을 일삼는 칠수(박종훈)는 동두천 기차촌에서 자랐으며 영화와 광고 간판을 그리는 만수(안성기)는 비전향 전기수의 아들로 평생을 숨죽여 살아왔다. 칠수가 미국에 사는 누나의 초청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었다면, 만수는 매사에 자조적이며 삶에 어떤 기대도 품지 않고 돈 버는 데만 집중한다. 입만 열면 허풍인 칠수가 영화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면 모든 대사가 냉소적이고 체념적인 만수는 절망을 품은 소시민을 대변한다. 안성기는 시대마다 자본과 독재, 계급적 차별로 좌절하는 인물의 얼굴을 그려왔다. 무표정해 보이지만 눈빛과 미세한 주름으로 자포자기, 체념, 비관을 신중하게 담아내는 그의 얼굴에는 80년대 가난한 소시민의 비감이 묻어난다. (김송희)

Widely regarded as the film that heralded the Korean New Wave, *Chil-su and Man-su* is grounded in the deeply realistic social backgrounds of its protagonists. Chil-su (Park Joong-hoon), who oscillates between charming cheekiness and swagger while constantly telling lies, grew up around the Dongducheon U.S. military camp town. Meanwhile, Man-su (Ahn Sung-ki), who paints movie and commercial billboards, has spent his entire life keeping his head down as the son of an unrepentant long-term communist prisoner. While Chil-su clings to the vain hope of an invitation from his sister in the United States, Man-su is self-deprecating in every aspect of life, harboring no expectations and focusing solely on earning money. If Chil-su, with his endless bravado whenever he speaks, breathes vitality into the film, Man-su, with his cynical and resigned dialogue, represents the ordinary citizen consumed by despair. Ahn Sung-ki has consistently portrayed the faces of individuals frustrated by capital, dictatorship, and class discrimination across different eras. Though his expression appears neutral, his eyes and subtle wrinkles carefully capture despair, resignation, and pessimism, radiating the deep sorrow of the impoverished working class of the 1980s. (KIM Song-hee)

치매를 앓던 노모의 부고를 들은 준섭(안성기)은 가족을 챙겨 고향으로 떠난다. “할머니 또 죽었어?”라고 묻는 딸의 질문으로 이 가족이 과거 위독한 노모로 인해 여러 차례 고향으로 향했음을 알 수 있다. <축제>는 전통 방식의 장례 절차를 지키는 전남 장흥의 가나인 장례를 따라가며, 감추어 두었던 가족사를 구전을 통해 펼쳐 보인다. 소설가인 준섭이 어머니를 가리며 처음으로 쓴 동화책과 함께 장례가 병행되며 관객은 기이한 정화 감정을 느낄 것이다. 이야기를 전하는 화자이기도 한 안성기는 스치는 인물에게도 자리를 내어주는 다양한 이로 영화에서 든든한 기둥으로 중심을 잡는다. 준섭은 장례 중 한 번 온다. 울음을 참는 듯, 흐르는 슬픔을 모친의 죽음과 함께 흘려보내는 듯한 안성기의 눈물은 상례를 따르는 영화에 기쁨을 더한다. (김송희)

Upon hearing the news of his dementia-stricken mother's passing, Joon-seop (Ahn Sung-ki) gathers his family and heads to his hometown. His daughter's question, "Did Grandma die again?" reveals that this family had rushed back to the village multiple times before due to the elderly mother falling critically ill. Following a lengthy traditional funeral in Jangheung, South Jeolla Province, *Festival* unfolds hidden family histories through oral tales. As the funeral progresses, alongside the first children's book written by Joon-seop in honor of his mother, the audience experiences a curious sense of catharsis. Also serving as the film's narrator, Ahn Sung-ki acts as a steadfast pillar, portraying a gentle man who makes room even for passing acquaintances. Joon-seop cries only once during the funeral. Seemingly holding back tears while letting the flowing sorrow drift away with his mother's death, Ahn's quiet weeping adds profound grace and dignity to the film following the funeral rites. (KIM Song-hee)



A Fine, Windy Day

바람불어 좋은날

Korea | 1980 | 119min | DCP | color
Director **LEE Jang-ho** 이장호

023 Oct 07 / 15:30 / C1 **098** Oct 08 / 13:00 / C2

중국집 배달원 덕배(안성기)를 비롯한 춘식(이영호), 길남(김성찬)은 시골에서 상경해 하루 벌이 청춘들이다. 70년대 후반에 촬영된 <바람불어 좋은날>은 인물을 원경에 세워 개발이 한창인 강남의 풍경을 자주 비춘다. 어눌하게 말을 더듬는 덕배는 상류층 명회(유지인)를 통해 부자의 삶을 엿보지만 이내 명회의 친구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중국집 동료에게 이렇게 말한다. “보고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말하고 싶어도 병어리인 척 해야해.” 본격적인 성인 연기를 보여준 초기작에서 안성기는 예의 순박한 얼굴로 서울의 천박한 자본가들을 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 철가방을 들고 재게 뛰는 법 없는 느릿한 걸음, 주변을 두리번대는 순진한 안성기의 고갯짓에 영화의 메시지가 실려 있다. (김송희)

Deok-bae (Ahn Sung-ki), a Chinese restaurant delivery boy, along with Chun-sik (Lee Yeong-ho) and Gil-nam (Kim Seong-chan), are young men who moved from the countryside to Seoul, living day-to-day. Filmed in the late 1970s, *A Fine, Windy Day* frequently places its characters in distant long shots against the backdrop of Gangnam undergoing rapid urban development. The stammering Deok-bae catches a glimpse of high society through the upper-class Myeong-hui (Yoo Ji-in), only to be humiliated by her friends soon after. He tells his co-worker at the restaurant: "You gotta pretend not to see even when you see, pretend not to hear even when you hear, and pretend to be mute even when you wanna speak." In this early film that marked his full-fledged transition to adult roles, Ahn Sung-ki uses his characteristically naive face to contrast with the shallow capitalists of Seoul. The film's underlying message is carried through his unhurried steps, never rushing even with a food delivery box in hand, and the innocent turns of his head as he looks around at the world. (KIM Song-hee)



Whale Hunting

고래사냥

Korea | 1984 | 112min | DCP | color
Director **BAE Chang-ho** 배창호

022 Oct 07 / 12:00 / C1 **100** Oct 08 / 20:10 / C2

대학에 염증을 느낀 철학과 대학생 병태(김수철)는 집을 나와 떠돌다 간 경찰서에서 거지 민우(안성기)를 만나고, 그의 손에 이끌려간 사창가에서 청녀 춘자(이미숙)를 만나 사랑을 느낀다. 고향에 가고 싶다는 춘자를 사창가에서 빼돌려 도망을 시작한 셋은 가진 것이 무작정 남쪽으로 향한다. 시도 때도 없이 각설이 타령을 부르며 “거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라며 장광설을 펼치는 민우는 “고래를 잡을 거”라는 병태를 무시하지 않는다. 깃털처럼 가벼워 보이더라도 눈빛에는 짙은 절망이 배어 있는 민우는 과거 운동권 학생이었음이 은연중 드러나는데, 경종의 양극단에 있는 인물을 관객이 자연스레 호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것은 온전히 안성기의 공이 크다.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청춘을 연기하며 은유적으로 시대상을 보여준다. (김송희)

Weary of college life, Byeong-tae (Kim Soo-chul), a philosophy student, leaves home to wander the streets. At a police station, he meets Min-woo (Ahn Sung-ki), a beggar, who leads him to a red-light district where Byeong-tae falls in love with a sex worker named Chun-ja (Lee Mi-sook). Helping Chun-ja escape the brothel after she expresses her wish to return home, the trio set off towards the south with nothing to their names. Constantly singing the beggars' ballad and delivering long tirades that, "a beggar owns nothing," Min-woo never dismisses Byeong-tae's dream to, "catch a whale." Though appearing as light as a feather, Min-woo harbors a deep despair in his eyes, subtly hinting at his past as a student activist. It is entirely thanks to Ahn Sung-ki's performance that audiences naturally warm up to a character caught between such extreme lightness and gravity. Portraying a youth despised by the world, he metaphorically reflects the spirit of the era. (KIM Song-hee)



Gagman

개그맨

Korea | 1988 | 125min | DCP | color
Director **LEE Myung-Se** 이명세

026 Oct 07 / 18:20 / C2 **097** Oct 08 / 09:20 / C2

“언제나 여러분의 사랑 속에서 자라나는, 종달새처럼 지저귀는 개그맨 이종세.” 당시 누구도 는 질문에 상류 개그맨 종세(안성기)는 늘 장광설로 자기를 소개한다. 1988년 작 <개그맨>의 첫 장면에서 이발사 문도석(배창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이렇게 투덜댄다. “아유, 여름은 뭐하러 있조. 간단하게 봄, 가을, 겨울 있으면 좀 좋아요.” 대사 대부분에 이처럼 정보가 담기지 않은 영화에서 세 인물은 각자의 말을 계속 지저귄다. <개그맨>은 가장 능청스럽고 뻔뻔한 안성기의 표정 연기를 볼 수 있는 영화다. 돈키호테처럼 비현실을 사는 종세는 경찰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내일은 할리우드에 갈 거라며 망상과 현실을 전도시킨다. 남만이 사라진 현실을 정면으로 비웃는 종세를 안성기는 찰리 채플린의 콧수염을 한 채 애수를 담아 그려낸다. (김송희)

"Ever-growing in your love, chirping like a lark, I am comedian Lee Jong-se." Whenever asked who he is, Jong-se (Ahn Sung-ki), a third-rate comedian, introduces himself with this grandiloquent spiel. In the opening scene of the 1988 film *Gagman*, barber Moon Do-seok (Bae Chang-ho) grumbles while sweating profusely: "Ah, why do we even have summer? Wouldn't it be so much simpler if we just had spring, fall, and winter?" In a film where the dialogue contains as little concrete information as this, the three characters continuously chirp away with their own lines. *Gagman* showcases Ahn Sung-ki's most sly and shameless facial acting. Living in a Don Quixote-like fantasy, Jong-se completely reverses delusion and reality, insisting he will go to Hollywood tomorrow even while on the run from the police. Sporting a Charlie Chaplin-esque mustache, Ahn portrays Jong-se, a character who directly mocks a reality stripped of romance, with a touch of melancholy. (KIM Song-hee)



White Badge

하얀전쟁

Korea | 1992 | 124min | DCP | color
Director **CHUNG Jiyoung** 정지영

024 Oct 07 / 11:00 / C2 **099** Oct 08 / 16:30 / C2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기주(안성기)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시사잡지에 전쟁 소설을 연재한다. 전쟁 후유증으로 일상은 망가졌고 이혼한 아내를 아이와 함께 미국으로 떠날 계획이다. 어느 날 참전 전우였던 변진수(이경영)에게 전화가 걸려 온다. 변진수는 소설을 봤다며 황설수설하고 며칠 후 한기주의 집으로 권총 한 자루가 배달된다. 안정효의 동영 소설을 영화화한 <하얀전쟁>은 당시 한국 영화로는 드물게 반전 영화임과 동시에 한국이 전쟁에서 가해국일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베트남어를 전공한 안성기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불안정한 인물의 상태를 무표정 위에 슬쩍 내보인다. 다만 후유증에 시달리는 변진수와 대비해 고통의 무게를 나눠진 인물의 고독과 절망을 그만큼 표현할 배우는 없을 것이다. (김송희)

Han Ki-ju (Ahn Sung-ki), a Vietnam War veteran, serializes a war novel in a news magazine by drawing on his memories from that time. Crippled by the aftereffects of the war, his daily life has fallen apart, and his ex-wife plans to leave for the United States with their child. One day, he receives a phone call from Byeon Jin-soo (Lee Kyung-young), a fellow veteran. Jin-soo babbles incoherently saying he has read the novel, and a few days later, a handgun is delivered to Ki-ju's house. Adapted from Ahn Jung-hyo's novel of the same name, *White Badge* was a rare anti-war film in Korean cinema at the time, also suggesting that Korea could have been a perpetrator in the conflict. Having actually majored in Vietnamese in college, Ahn Sung-ki subtly reveals the unstable psyche of a Vietnam veteran beneath a deadpan face. Contrasted with Jin-soo, who suffers from even more severe trauma, few actors could match Ahn's ability to express the solitude and despair of a man bearing the heavy weight of shared agony. (KIM Song-hee)

일본 애니메이션 특별전: 광기의 걸작, 전율의 기대작 12+1

Japanese Animation Special: Masterpieces of Madness, Exhilarating Prospects 12+1

올해 부산국제영화제는 애니메이션의 성지 일본의 과거와 미래를 조명하는 대형 특별전을 선보인다. 상영작은 총 13편이다. 몇 가지 전제를 두었다. 되도록 극장용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으로 한다. 기존 작품들의 경우 일본 영화사 전체를 통틀어 도전적 걸작으로 평가되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한다. 국내에서 상영된 바가 전혀 없거나 최근에 상영된 적이 없었던 작품들을 위주로 한다(최소 15년에서 25년 만에 상영하는 작품이 다수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두 명의 애니메이션 대가 미야자키 하야오와 다카하타 이사오의 작품은 포함하지 않는다(대신에, 두 거장이 공통으로 사랑해 하지 않았고 절대적 영향을 받은 유럽 고전 애니메이션 작품을 예외적으로 포함한다). '일본 애니메이션 특별전: 광기의 걸작, 전율의 기대작 12+1'이 탄생한 배경이다. 광기로 가득한 걸작들이야말로 오늘날 일본 애니메이션의 보편적이고도 대중적인 영광을 가능케 했다. 어정의 출발은 일본 최초의 장편 컬러 애니메이션 <백사전> (1958)이다. 그3 수험생 미야자키 하야오를 밤새 울렸다는 이 과소평가된 원작 이후, 도산 작전의 무시프로덕션이 던진 성인용 아방가르드 <슬픔의 벨라돈나> (1973), 만화의 신 데즈카 오사무가 애니메이션으로서의 야심을 증명한 <불새 2772 사랑의 코스모존> (1980), 오시이 마모루가 실명 대신 꿈을 택한 <천사의 알> (1985)까지 일본 애니메이션 특유의 수공과 실험의 시대를 탐색한다. 다음은 재패니메이션으로 대표되던 기술적 정점의 시대다. 오토모 가쓰히로가 총지휘한 올니버스 <메모리즈> (1995)와 데즈카 원작, 린타로 연출, 오토모 각본이라는 3세대의 합작 <메트로폴리스> (2001)는 일본 SF 애니메이션이 세기의 전환기에 도달한 기술적·미학적 정점을 증명한다. 이어 유아사 마사아키의 데뷔작 <마인드 게임> (2004)은 형식의 해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증명한다. 이 계보의 상당수가 당대에는 외면받았다. 하지만 시대를 앞지른 작품들은 뒤늦게 복원되고 재발견되며 마침내 고전이 되었다.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리는 오늘날의 일본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정작 극장가를 채우는 것은 대부분 검증된 만화 원작의 프랜차이즈들이다. 이번 특별전이 소환하는 계보는 정확히 그 반대편에 선다. <슬픔의 벨라돈나>는 회사를 무너뜨렸고, <천사의 알>은 감독의 생업을 끊었으며, <마인드 게임>은 흥행에 참패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지도를 갱신해온 진짜 동력은 안전한 성공의 목록이 아니라 실패를 무릅쓰고 도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작품들과 함께 소개되는 신작 애니메이션들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가치를 환기시키는 전율의 기대작들이라 할 만하다. 일본화가 시노미야 요시토시의 데뷔작 <파리스 그리이 밝는 날>에는 장편 데뷔작으로는 일본 애니메이션 최초로 베를린영화제 경쟁부문에 올랐고 인사영화제에서 심사위원상을 받았다. 로토스코핑으로 소녀들의 여름을 그린 <우리는 외계인>은 칸영화제 감독주간에서 소개되어 화제가 됐다. 신카이 마코토의 스튜디오가 무명 신인을 발탁한 <사라누이>, 나쓰메 신고와 매드하우스가 일본 개봉에 앞서 선보이는 <고스트 밥의 끝>까지, 이 작품들은 오늘날 일본 애니메이션 활황이라는 현상을 넘어, 애니메이션 창작의 즐거움과 본질을 탐구한다. 1996년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메모리즈>가 국내 관객에게 처음 소개되어 신화적인 영광을 일으킨 이후 꼭 30년이 되는 해다. 부산에서 출발한 기억이 시간의 바위를 돌아 다시 부산에 도착한 인연의 자리에서, 시간을 가로지르는 열세 편의 불빛이 관객을 기다린다. 진정한 애니메이션의 역사는 언제나 극장의 어둠 속에서 다시 켜졌다. 이번에는 당신의 차례다. (송경원)

This year,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presents a major special program tracing the past and future of Japan, a mecca of animation. The program comprises thirteen films. Several principles guided the selection. Priority was given to original animated features made for theatrical release and, among existing works, to daring masterpieces that stand out in Japanese film history. The program also focuses on films rarely or never screened in Korea, many returning after fifteen to twenty-five years. Works by Miyazaki Hayao and Takahata Isao, the two masters already familiar to Korean audiences, were excluded. Instead, one classic European animation beloved by and deeply influential on both filmmakers was included as an exception. Thus was born 'Japanese Animation Special: Masterpieces of Madness, Exhilarating Prospects 12+1.' Such 'masterpieces of madness' paved the way for Japanese animation's global and popular success today. The journey begins with Japan's first feature-length color animation, *The White Snake Enchantress* (1958), said to have moved a teenage Miyazaki Hayao to tears. It continues through the handcrafted, experimental era of *Belladonna of Sadness* (1973), an adult avant-garde film made as Mushi Production neared bankruptcy; *Phoenix 2772 (Space Firebird)* (1980), in which Tezuka Osamu demonstrated his ambitions as an animator; and Oshii Mamoru's *Angel's Egg* (1985), which chose dreams over explanation. Next comes the technical peak of 'Japanimation.' Otomo Katsuhiro's omnibus *MEMORIES* (1995) and *Metropolis* (2001)—based on Tezuka, directed by Rintaro, and written by Otomo—demonstrate the technical and aesthetic heights Japanese science-fiction animation reached around the turn of the century. Yuasa Masaaki's debut *MIND GAME* (2004) shows how far formal freedom could go. Many of these films were overlooked on release, only to be restored, rediscovered, and eventually recognized as classics. Today's Japanese animation industry may be enjoying an unprecedented boom, but theaters are largely dominated by franchises based on proven manga properties. The lineage presented here stands at the opposite extreme. *Belladonna of Sadness* helped ruin its studio, *Angel's Egg* cost its director his livelihood, and *MIND GAME* failed at the box office. What truly redraw the map of Japanese animation was not safe success, but the willingness to risk failure. The new works in the program continue that spirit. Shinomiya Yoshitoshi's *A New Dawn* became the first Japanese animated debut feature selected for Berlin's competition and later won a Jury Award at Annecy. The rotoscoped *We Are Aliens* attracted attention at Cannes Directors' Fortnight. *Shiranui* comes from an unknown newcomer discovered by Shinkai Makoto's studio, while Natsume Shingo and Madhouse present *ghost – end of night* ahead of its Japanese release. Together, these films look beyond today's animation boom to explore the joy and essence of animation itself. This year marks thirty years since *MEMORIES* was first introduced to Korean audiences at the inaugural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1996, inspiring legendary enthusiasm. Now, as that memory comes full circle back to Busan, thirteen lights spanning time await their audience. The history of animation has always been rewritten in the darkness of the theater. This time, it's your turn. (SONG Kyung-won)



Angel's Egg 천사의 알

Japan | 1985 | 72min | DCP | color
Director **OSHII Mamoru 오시이 마모루**

009 Oct 07 / 12:30 / B1 269 Oct 10 / 23:59 / BH



Belladonna of Sadness 슬픔의 벨라돈나

Japan | 1973 | 87min | DCP | color
Director **YAMAMOTO Eiichi 야마모토 에이치**

359 Oct 10 / 19:20 / SH

1985년 오시이 마모루가 일러스트레이터 아mano 요시타카와 함께 빚어낸 <천사의 알>은 줄거리 요약이 무의미한 침묵의 묵시록이다. 물에 잠긴 폐허의 도시에서 커다란 알을 품고 다니는 소녀가 십자가 형상의 병기를 짊어진 청년을 만난다. 존재하지 않는 물고기를 쫓는 어부들, 화석이 된 새, 방주의 기억까지. 대사를 극단적으로 걸어낸 자리에 성서적 상징과 적막한 이미지가 들어차 관객 각자의 해석을 기다린다. 본래 오리지널 비디오 애니메이션(OVA)으로 발표됐지만 화면의 밀도는 처음부터 극장을 향해 있었다. 발표 당시 난해하다는 이유로 외면받았고 오시이 스스로 이 작품으로 인하여 한동안 일이 끊겼다고 회고한 문제작이지만 이 실패가 없었다면 <공각기동대> (1995)의 사색도 없었을 것이다. 믿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끝내 깨지지 않는 알처럼 품고 있는 영화. 어둠 속에서 오롯이 이미지에 잠기는 극장 관람이야말로 이 작품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송경원)

Crafted in 1985 by Oshii Mamoru together with illustrator Amano Yoshitaka, *Angel's Egg* is a silent apocalypse that defies plot summary. In a flooded city of ruins, a girl carrying a large egg encounters a young man with a cross-shaped weapon slung across his back. Fishermen chase nonexistent fish, a fossilized bird remains, and memories of the Ark linger. With dialogue stripped to a bare minimum, biblical symbols and haunting images fill the silence, awaiting each viewer's own interpretation. Though originally released as an original video animation (OVA), the visual density of *Angel's Egg* seemed destined for the big screen from the very beginning. Dismissed upon its release as impenetrably obscure, the film became a notorious failure, and Oshii himself later recalled that it left him without work for some time. Yet without this failure, the philosophical contemplation of *Ghost in the Shell* (1995) might never have existed. Like an egg that refuses to break, the film holds within it an enduring question: What is faith? To surrender completely to its images in the darkness of a theater is perhaps the only way to truly experience *Angel's Egg*. (SONG Kyung-won)

'저주받은 걸작'이란 시대를 너무 앞서간 작품의 또 다른 이름이다. 1973년 무시프로덕션은 성인용 아방가르드를 표방하며 <슬픔의 벨라돈나>를 선보였다. 미슐레의 '마녀,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첫날밤 영주에게 유령당한 잔느가 악마와 계약을 맺고 마녀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그린다. 움직이지 않는 수채화 위를 카메라가 훑고 지나가는 파격의 연출, 클린트와 비어즐리를 연상시키는 후카이 구니의 관능적인 미술은 애니메이션의 정의 자체를 시험한다. 명배우 나카다히 다쓰야가 악마의 목소리를 연기하고 사이키델릭 록 사운드가 화면을 적시는 것도 매력 포인트다. 데즈카 오사무가 회사를 떠난 뒤 도산 위기의 무시프로덕션이 던진 마지막 승부수였던 흥행에 참패했고 회사는 끝내 문을 닫았다. 하지만 이 상업적 실패작은 당대 베를린영화제에 초청되고 훗날 2016년 4K 복원판으로 부활하며 일본보다 해외에서 먼저 컬트가 됐다. 여성 수난사를 해방의 신화로 뒤집는 문제적 상상력을 큰 스크린으로 목격할 흔치 않은 기회다. (송경원)

A 'cursed masterpiece' is simply another name for a work too far ahead of its time. In 1973, Mushi Production unveiled *Belladonna of Sadness*, an audacious work of avant-garde animation for adults. Based on Michelet's *La Sorcière*, the film follows Jeanne, who, after being violated by a feudal lord on her wedding night, makes a pact with the devil and is reborn as a witch. Its radical visual approach - the camera gliding across static watercolor paintings - and Fukai Kuni's sensual animation, reminiscent of Klimt and Beardsley, challenge the very definition of animation. Adding to its allure, acclaimed actor Nakadai Tatsuya voices the devil, while a psychedelic rock score washes over the images. Conceived as a last gamble by Mushi Production, which was teetering on the brink of bankruptcy after Tezuka Osamu's departure, the film was a box-office disaster, and the studio ultimately shut its doors. Yet this commercial failure was invited to the Berlin Film Festival upon its release and, decades later, was revived with a 4K restoration in 2016, becoming a cult classic abroad before it found recognition in Japan. This is a rare opportunity to experience on the big screen its provocative vision of transforming a history of female suffering into a myth of liberation. (SONG Kyung-won)



ghost – end of night 고스트 - 밤의 끝

Japan | 2026 | 110min | DCP | color
Director **NATSUME Shingo** 나쓰메 신고

077 Oct 12 / 10:20 / L9 **596** Oct 13 / 16:00 / C6
683 Oct 14 / 19:40 / C6

재패니메이션의 다음 이름은 확실히 나쓰메 신고다. 오사이 마모루의 공상, 곤 사토시의 비주얼, 와타나베 신이치로의 느긋한 맛과 음악적 감각까지 고루 계승하면서 자기만의 개성을 잃지 않는다. 이야기의 배경은 근미래. 고도화된 기술로 인간의 노동력은 필요 없어졌다. 사람들은 18살이 되면 올트버스(Altverse)라는 이름의 거대 시스템에 의해 쓸모의 선별을 거친다. 선택받지 못한 쪽은 여생을 특별한 의미 없이 보내야 하지만, 소녀 니케는 일종의 저승 세계인 '별하늘(星空)'의 관리자로 일찍이 선택받았다. 니케는 아름답지만 한 별하늘을 꿈꾸는데, 사람을 잘 모르고 감정에 익숙하지 않아서 '진짜' 아름다움에 근접할 수 없다. 하지만 마스를 만나며 달라진다. 비정한 결정론적 세계에서 인간은 어떻게 '진짜' 삶을 택할 것인가. 이 오래된 질문에 나쓰메 신고는 농밀한 정서를 과잉 없이 쌓아 올리다가 어떠한 빛을 따라간다고 제안한다. 이 권유에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우빈)

The next name to define Japanimation is undoubtedly Natsume Shingo. He inherits Oshii Mamoru's speculative imagination, Kon Satoshi's visual sensibility, and Watanabe Shinichiro's laid-back cool and musical instinct, all while retaining a distinctive voice of his own. The story is set in the near future, where advanced technology has rendered human labor obsolete. Upon turning eighteen, everyone is assessed for their usefulness by a vast system known as Altverse; those who are not chosen must spend the rest of their lives without any particular purpose. A girl named Neekei has already been selected to serve as an administrator of the 'starry Sky,' a realm akin to the afterlife. Neekei dreams of a Starry Sky that is nothing but beautiful, but her limited understanding of people and unfamiliarity with emotion keep her from grasping what 'true' beauty really is. That begins to change when she meets Mars. In a cold, deterministic world, how can human beings choose a 'true' life for themselves? Natsume Shingo responds to this age-old question by building layers of rich emotion without excess, before ultimately inviting us to follow a certain light. It is an invitation difficult to resist. (LEE Woobeen)



Kakurenbo 숨바꼭질

Japan | 2004 | 24min | DCP | color
Director **MORITA Shuhei** 모리타 슈헤이

034 Oct 07 / 12:00 / C5 **122** Oct 08 / 19:50 / L2
590 Oct 13 / 10:40 / C5

* <숨바꼭질>과 <시라누이>는 묶음 상영됩니다.
* *Kakurenbo* and *Shiranui* will be screened in batches

단편 애니메이션의 핵심은 대개 오프닝 시퀀스다. 그 강렬함이 관객의 흥미를 동하게 할지 결정한다는 점에서 <숨바꼭질>은 압도적으로 즐겁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 있는 건물들, 화면은 그 꼭대기를 비추다가 끝이 없는 듯 아래로, 아래로, 끝내 지하까지 이동한다. 이토록 길디긴 움직임의 양상은 실사 영화가 닿기 어려운, 애니메이션만의 고유 영역이다. 무척이나 깊고 축축한 이곳엔 '오토코요년의 유희'라는 도시 괴담이 구전되고 있다. 미로처럼 섬뚱한 지하 골목 속의 숨바꼭질을 통해서 귀신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놀이에 빠져든 아이들은 어딘가로 사라진다고 한다. 그리고 현재, 8명의 아이가 각기 다른 목적으로 골목에 입성한다. 아이들 앞에 무시무시한 오녀들이 등장하고, 액션의 박력이 증폭한다. <숨바꼭질>은 2004년 선보여 컬트적 인기를 끌었던 24분짜리 단편 애니메이션이다. 당대 흔치 않았던 풀 3D 애니메이션과 카툰 렌더링의 조형성이 세월을 머금고 더욱 귀해졌다. 한번 이 숨바꼭질에 참여한다면 24분의 시간이 훌쩍 더 지나갈 것이다. (이우빈)

The opening sequence is often the key to a short animated film: its impact can determine whether it captures the audience's imagination. By that measure, *Kakurenbo* is exhilarating. Buildings soar impossibly high into the sky. The camera begins at their rooftops, then descends seemingly without end - down, down, all the way underground. Such an extended movement belongs to a realm uniquely open to animation, one that live-action cinema can rarely reach. In this deep, damp underworld, an urban legend known as 'Otokooyo's Game' has been passed down: those who play hide-and-seek in its eerie, labyrinthine alleys may encounter demons. But children who lose themselves in the game are said to disappear. Now, eight children enter the alleys, each for a different reason. Terrifying oni emerge before them, and the action surges in intensity. Released in 2004, *Kakurenbo* is a 24-minute animated short that went on to earn a cult following. Its distinctive visual style, combining full 3D animation - still rare at the time - with cel-shaded rendering, has only grown more remarkable with age. Once you enter this game of hide-and-seek, its 24 minutes will slip by as if under a spell. (LEE Woobeen)



The King and the Mockingbird 왕과 새

France | 1952, 1980 | 83min | DCP | color
Director **Paul GRIMAULT** 폴 그리모

155 Oct 08 / 09:00 / SH **524** Oct 12 / 10:00 / L6



MEMORIES 메모리즈

Japan | 1995 | 113min | DCP | color
Director **OTOMO Katsuhiro** 오토모 가쓰히로
MORIMOTO Koji 모리모토 코지
OKAMURA Tensai 오카무라 텐사이

033 Oct 07 / 09:00 / C5 **558** Oct 13 / 19:00 / BH

프랑스 애니메이션의 위대한 개척자 폴 그리모의 작품이다. 거대한 성채에서 살고 있는 사발뜨기 독재자에 관한 이야기. 독창적인 상상력, 풍자적이고 세련된 시각각적 설계, 고도의 정치적 질문과 철학으로 세계 애니메이션 역사상 최고의 걸작으로 꼽힌다. 1952년에 첫 완성, 베니스영화제에서 수상까지 했으나, 그리모는 기존에 존재했던 판본을 전부 회수하여 폐기처분하고, 수십 년간 새로운 장면을 추가 제작하여 마침내 1980년에 새 편집본을 완성한다. 두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와 다카하타 이사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왕과 새>를 보고 나서야 수직적 방식으로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말한 미야자키는 자신의 첫 장편 연출작 <루팡 3세: 칼리오스트로의 성>에서 열정적인 오마주를 바쳤다. 다카하타는 “만약 이 영화를 보지 못했다라면, 애니메이션의 세계로 들어서는 일은 생각도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야자키와 다카하타 세계의 어떤 원형, 봉준호 감독이 사랑하는 역대애니메이션 중 한 편이기도 하다. (장한석)

A work by Paul Grimault, the great pioneer of French animation, *The King and the Mockingbird* tells the story of a cross-eyed dictator who lives in a colossal fortress. With its singular imagination, sophisticated audiovisual design and satire, and profound political and philosophical inquiry, the film is regarded as one of the greatest masterpieces in the history of animation. First completed in 1952 and honored at the Venice Film Festival, the film was later disowned by Grimault, who sought to withdraw and destroy all existing versions before spending decades creating new scenes and finally completing a reedited version in 1980. The film had a profound influence on two masters of Japanese animation, Miyazaki Hayao and Takahata Isao. Miyazaki once said, "It was only after seeing *The King and the Mockingbird* that I came to understand just how essential it is to use space vertically," and paid passionate homage to the film in his feature directorial debut, *Lupin III: The Castle Of Cagliostro*. Takahata, for his part, said, "If I hadn't seen this film, I would never have considered entering the world of animation." *The King and the Mockingbird* can be seen as a kind of origin point for the cinematic worlds of Miyazaki and Takahata. It is also one of director Bong Joon-ho's favorite animated films. (JUNG Hanseok)

1996년 제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국내 관객들에게 첫 선을 보이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메모리즈>의 귀환은 각별하다. <아키라>로 세계를 뒤흔든 오토모 가쓰히로가 총지휘한 세 편의 오피너스는 3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SF 애니메이션의 최전선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우주 쓰레기 처리선 산원들이 오페라 가수의 기억이 만든 환영에 잠식되는 <그의 추억>(모리모토 고지 연출)은 훗날 <퍼펙트 블루>로 이어질 곤 사토시 월드의 원형이고, 실험실 사고로 걸어 다니는 생화학 병기가 된 셀러리맨의 소동극 <취취병기>는 블랙코미디의 탈을 쓴 문명 풍자다. 포격이 일상이 된 도시를 원 컷 스타일로 담아낸 오토모의 <대포의 거리>가 마지막을 묵직하게 봉인한다. 이번 상영은 2025년 공개된 30주년 기념 디지털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기억'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각기 다른 장르와 리듬으로 변주한 세 단편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절호의 기회다. 부산에서 출발한 기억이 30년 만에 다시 부산으로 돌아온, 영화제가 아니면 성사되기 힘든 완벽한 원환이기도 하다. (송경원)

The return of *MEMORIES* holds special significance. This three-part omnibus overseen by Otomoro Katsuhiro was first introduced to Korean audiences at the inaugural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in 1996 where it caused a sensation. *MAGNETIC ROSE* (Morimoto Koji), in which the crew of a space-debris salvage ship are consumed by illusions conjured from an opera singer's memories, offers a blueprint for the world Kon Satoshi would later develop in *Perfect Blue*. *STINK BOMB* (Okamura Tensai), a farce about a salaryman who becomes a walking biochemical weapon after a laboratory accident, is a satire of modern civilization disguised as a black comedy. *CANNON FODDER* (Otomo Katsuhiro), depicting in a one-shot style a city where bombardment has become part of everyday life, brings the film to a weighty close. This screening presents the 30th-anniversary digital remaster released in 2025, offering a rare opportunity to experience together three short films that explore variations on a single theme—memory—through distinctly different genres and rhythms. A memory that began in Busan returns to Busan 30 years later, completing a perfect circle that only a film festival could bring about. (SONG Kyung-won)



Metropolis

메트로폴리스

Japan | 2001 | 107min | DCP | color
Director **Rintaro** 린타로

187 Oct 09 / 18:20 / CX **272** Oct 10 / 20:20 / B1

"<메트로폴리스>는 애니메이션의 새로운 이정표다. 아름다운 그림과 힘과 신비, 무엇보다 마음이 있다." 제임스 카메론의 찬사는 과장이 아니다. 2001년작 <메트로폴리스>는 데즈카 오사무가 1949년에 그린 동영화를 『은하철도 999』의 린타로가 연출하고, <아키라>의 오토모 가쓰히로가 각본을 쓴, 일본 애니메이션 가장 3세대의 합작이다. 인간과 로봇이 계층으로 나뉜 거대 도시에서 소년 켄이치는 기억을 잃은 소녀 로봇 티마와 만난다. 티마가 도시를 지배할 열쇠임이 드러나면서 마천루 지구라트는 파국을 향해 무너져 내린다. 5년의 제작 기간, 당시 일본 애니메이션 최고 수준의 제작비가 투입된 화면 위에서 데즈카 특유의 둥근 캐릭터와 디지털로 구축한 압도적인 도시 풍경이 빛나는 대비는 그 자체로 과거와 현재의 애니메이션적 대화라 할 만하다. 몰락의 스펙터클 위로 레이 찰스의 'I Can't Stop Loving You'가 흐르는 장면은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다. 제임스 카메론의 감탄 그대로 이 영화의 이미지는 영원히 관객 곁에 남는 성질의 체형이 될 것이다. (송경원)

"Metropolis is the new milestone in anime. It has beauty, power, mystery, and above all... heart." James Cameron's praise is no exaggeration. Released in 2001, Metropolis is a collaboration spanning three generations of Japanese animation masters: based on Tezuka Osamu's 1949 manga of the same name, directed by Rintaro of Galaxy Express 999, and written by Otomo Katsuhiro of Akira. In a vast metropolis where humans and robots are divided by class, a boy named Kenichi meets Tima, a robot girl who has lost her memory. As Tima is revealed to hold the key to the city's fate, the towering Ziggurat hurtles toward catastrophic collapse. 5 years in the making and backed by one of the largest budgets in Japanese animation at the time, the film sets Tezuka's signature rounded characters against breathtaking digitally rendered cityscapes, creating a striking dialogue between animation's past and present. The sight of the city collapsing to the sound of Ray Charles's 'I Can't Stop Loving You' is unforgettable. True to Cameron's praise, the film offers a visual experience that will stay with audiences forever. (SONG Kyung-won)



MIND GAME

마인드 게임

Japan | 2004 | 103min | DCP | color
Director **YUASA Masaaki** 유아사 마사아키

054 Oct 07 / 16:00 / L5 **396** Oct 11 / 09:20 / C3
567 Oct 13 / 10:40 / B3

인생은 되감기가 안 되지만 영화는 가능하다. 2004년 유아사 마사아키의 장편 데뷔작 <마인드 게임>은 그 가능성을 극한까지 밀어붙인 과작이자 결작이다. 로빈 니시의 동영화를 원작으로 한 이 작품은 소심한 만화가 지망생 니시가 첫사랑 앞에서 야쿠자의 총에 어이없이 살해당하면서 시작한다. 이후 니시는 신 앞에서 죽음을 거부하고 삶으로 역주행한다. 필사의 도주 끝에 고래 뱃속에 갇힌 니시 일행이 보이는 사토는 실사와 클라주, 유화와 낙서를 넘나드는 화면 속에서 폭죽처럼 터진다. 스타일의 과시처럼 보이는 매 순간이, 실은 다시 살기로 결심한 인간의 생명력 그 자체라는 점이 이 영화의 진정한 발명이다. 일본 문화청 미디어예술제 대상과 오후지 노부로를 휩쓸며 유아사 마사아키는 이름을 세계에 각인시킨 출발점이자 이후 <밤은 짧아 걸어 아가씨야>, <새벽을 알리는 루의 노래>로 이어질 자유의 원형. 질주하는 클라이맥스의 탈출 시퀀스가 안기는 해방감만으로도 극장에 앉을 이유는 충분하다. (송경원)

Life has no rewind button, but film does. Yuasa Masaaki's 2004 feature debut, MIND GAME, is a bizarre masterpiece that pushes that possibility to its absolute limit. Based on the manga of the same name by Robin Nishi, the film begins when Nishi, a timid aspiring manga artist, is abruptly gunned down by a yakuza in front of his first love. But Nishi refuses to accept death before God and races backward into life. After a desperate flight, Nishi and his companions find themselves trapped inside the belly of a whale, where their ensuing escapades explode across the screen like fireworks in a riotous mix of live action, collage, oil painting, and scribbled drawings. The film's true invention lies in how every moment that appears to be a display of stylistic bravado is, in fact, an expression of the sheer life force of someone who has chosen to live again. Winner of the Grand Prize at the Japan Media Arts Festival and the Ofuji Noburo Award, MIND GAME marked the beginning of Yuasa's international recognition and established a vision of freedom that would later flourish in The Night Is Short, Walk on Girl and Lu Over the Wall. The exhilarating sense of liberation delivered by its breathless climactic escape sequence is reason enough to experience the film in a theater. (SONG Kyung-won)



A New Dawn

파리스 그린의 밝은 날에

Japan/France | 2026 | 75min | DCP | color
Director **SHINOMIYA Yoshitoshi** 시노미야 요시토시

164 Oct 09 / 09:20 / BH **337** Oct 10 / 16:40 / L6
381 Oct 11 / 22:10 / B3 **572** Oct 13 / 14:40 / CX

시노미야 요시토시 감독의 장편 데뷔작 <파리스 그린의 밝은 날에>는 독성 탓에 금지된 초록 안료 '화록청' (花緑靑)에서 출발한다. 재개발로 철거를 앞둔 330년 역사의 불꽃 공장, 청년 케이타로는 사라진 아버지를 대신해 4년째 공방에 틀어박혀 전설의 불꽃 '슈하리' (守破離)를 쫓는다. 어느 날 케이타로 앞에 도쿄로 떠났던 소꿉친구 카오루가 돌아오면서 마지막 불꽃을 쏘아 올리까지의 이름이 시작된다. 일본화가로 출발해 신카이 마코토의 <언어의 정원> 포스터와 <너의 이름은.>에 참여했던 시노미야는 자신의 장편 데뷔작에서 원안과 각본, 연출은 물론 캐릭터 디자인과 미술까지 직접 도맡았다. 일분화하의 안료 감각으로 버려진 화면, 이른바 '시노미야 그린'이 스크린을 물들이는 75분은 프랑스 미유 프로덕션과의 합작으로 완성한 수공예품에 가깝다. 사라져가는 장인의 손끝을 바치는 카메라와 배우 하기와라 리쿠, 후루카와 코토네의 첫 목소리 연기, 하스누마 슈타의 음악 속에서 작가의 혼이 뜨겁게 타오른다. 안시국제애니메이션영화제 코르트스부상 심사위원상 수상작. (송경원)

Director Shinomiya Yoshitoshi's feature debut, A New Dawn, takes as its starting point Paris green, a pigment once banned for its toxicity. At a 330-year-old fireworks workshop facing demolition, young Keitaro has spent four years holed up, pursuing the legendary firework 'shuhari' in place of his missing father. When his childhood friend Kaoru returns from Tokyo, the final two days leading up to the launch of the workshop's last firework begin. Shinomiya, who began as a nihonga painter and worked on the poster for Shinkai Makoto's The Garden of Words and on your name, handled the original concept, screenplay, direction, character design, and art himself. For 75 minutes, the screen is awash in traditional Japanese pigments honed into what is known as 'shinomiya green.' Co-produced with France's Miyu Productions, the film feels almost handcrafted. As the camera turns to the hands of artisans whose craft is disappearing, the debut voice performances of actors Hagiwara Riku and Furukawa Kotone and Hasunuma Shuta's music come together to reveal the artist's spirit burning with passion. Winner of the Jury Prize in the Contrechamp section at the Annecy International Animation Film Festival. (SONG Kyung-won)



Phoenix 2772 (Space Firebird)

불새 2772 사랑의 코스모존

Japan | 1980 | 122min | Other | color
Director **TEZUKA Osamu** 데즈카 오사무

459 Oct 11 / 13:00 / SH

일본 만화의 신은 애니메이션에서도 신이고자 했다. <불새 2772 사랑의 코스모존>은 데즈카 오사무가 원안, 각본, 총감독을 맡아 필생의 역작 <불새>를 스크린에 옮긴 1980년작이다. 시험관에서 태어나 컴퓨터가 운명을 결정하는 미래. 우주 파일럿 고도는 로봇 올가의 손에 자라나 죽어가는 지구를 되살릴 불새를 찾아 우주로 떠난다. 대사를 한마디 없이 음악과 이미지만으로 고도의 성장을 압축한 12분의 도입부는 데즈카가 평생 실험해온 애니메이션적 야심의 정수다. 금지된 사랑, 계급 사회의 폭력, 생명의 윤곽까지 필생의 주제들이 스페이스 오페라의 외피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가운데, 화면 가득 펼쳐지는 우주적 스펙터클이 시종 눈을 사로잡는다. 만화의 신이라 불리면서도 자신을 누구보다 애니메이션으로 여겼던 사람, 만화가 데즈카의 명성에 가려 있던 애니메이션의 욕망을 온전히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인간보다 인간적인 로봇 올가의 현신은 AI 시대의 관객에게 오히려 새삼스러운 질문으로 다가온다. (송경원)

The god of manga wanted to be a god of animation, too. Phoenix 2772 (Space Firebird) is a 1980 film conceived, written, and directed by Tezuka Osamu, bringing his life's work, Phoenix, to the screen. In a future where humans are born in test tubes and computers determine their destinies, space pilot Godo, raised by the robot Olga, sets out into space in search of the Phoenix, which holds the power to revive a dying Earth. The twelve-minute opening sequence, which traces Godo's growth through music and imagery without a single line of dialogue, distills the essence of Tezuka's lifelong experimentation and ambition in animation. Forbidden love, the violence of a class-based society, and the cycle of life and rebirth—Tezuka's lifelong themes swirl within the framework of a space opera, while the cosmic spectacle filling the screen holds the viewer's gaze from start to finish. Though celebrated as the god of manga, Tezuka saw himself, above all, as an animator. Here, we can fully glimpse the ambitions of Tezuka the animator, long overshadowed by the fame of Tezuka the manga artist. The devotion of Olga, a robot more human than humans themselves, poses a question that resonates anew with audiences in the age of AI. (SONG Kyung-won)



Shiranui 시라누이

Japan | 2026 | 36min | DCP | color
Director **KATANOSAKA Ryo** 가타노사카 료

IP

034 Oct 07 / 12:00 / C5 **122** Oct 08 / 19:50 / L2
590 Oct 13 / 10:40 / C5

* <숨바꼭질>과 <시라누이>는 묶음 상영됩니다.
* *Kakurenbo* and *Shiranui* will be screened in batches

제목의 시라누이(不知火)는 규슈 야쓰시로 바다의 여름밤 수평선에 울려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정체불명의 불빛. 말 그대로 '알 수 없는 불'이다. 영화가 이 빛에 단 하나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을 입힌다. 1996년 여름 구마모토의 비닷가 마을. 알코올중독 아버지와 단둘이 사는 열 살 소년 미나토에게 유일한 숨구멍은 벤텐지마에서 만나는 소녀 신 '벤짱' 뿐이다. 보호시설로 보내질 날이 다가오자 소년은 바다 위의 불빛을 향해 소원을 빌지만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자라날수록 그 기도는 빠져나올 수 없는 자주로 변해간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오히려 사람을 갈라놓는 잔인함과 상실 끝에서야 발견할 수 있는 용서와 성찰의 시간까지. 36분의 단편 안에 담긴 감정의 낙차는 웬만한 장편보다 깊다. 독학으로 자주 제작 애니메이션을 만들던 무명 감독을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코믹스 웨이브 필름이 발탁해 극장용 오리지널 제작을 지원했고, 가타노사카 료 감독은 이에 화답하듯 러프 원화 325컷 중 3분의 2를 제 손으로 그렸다. 수평선의 불빛이 그렇듯 짧게 명멸하는 것일수록 더 오래 남는 법이다. (송경원)

The title *Shiranui*—literally 'unknown fire'—refers to mysterious lights that appear and vanish along the horizon on summer nights. The film weaves around this phenomenon a legend that it can grant a single wish. It is the summer of 1996 in a coastal town in Kumamoto. For ten-year-old Minato, who lives alone with his alcoholic father, his only refuge is 'Ben-chan,' a young goddess he meets on Benten Island. As the day approaches when he will be sent to a care facility, Minato wishes upon the lights over the sea. But as his resentment toward his father grows, his prayer turns into an inescapable curse. From the cruelty of a longing to be loved that instead drives people apart, to the forgiveness and self-reflection found only in the wake of loss, the emotional depths of this short rival those of many a feature film. CoMix Wave Films, the studio of director Shinkai Makoto, discovered Katanosaka Ryo, then an unknown, self-taught independent animator, and supported his original film for theatrical release. Rising to the occasion, Katanosaka drew two-thirds of its 325 rough key animation cuts himself. Like the lights on the horizon, the things that flicker only briefly are often the ones that linger longest. (SONG Kyung-won)



We Are Aliens 우리는 외계인

Japan/France | 2026 | 117min | DCP | color
Director **KADOWAKI Kohei** 가도와키 고헤이

036 Oct 07 / 19:20 / C5 **128** Oct 08 / 09:00 / L4
658 Oct 14 / 10:00 / CX

<우리는 외계인>은 소년 시절의 낯부끄럽고 조악한 기억의 원천에서 시작한다. 초등학교 3학년 여름, 쓰바사와 교타로가 우정을 나눈다. 로토스코핑 기반의 사실주의적 작품은 천연했던 추억의 시간을 최대한으로 복원한다. 아스팔트에 늘어붙은 막대사탕, 굴다리 아래 숨어드는 햇빛,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공룡 그림. 이러한 서정성에 기대는 듯하던 작품의 분위기는 두 소년이 사춘기를 맞이하며 커다란 전환 국면을 맞는다. 자신과 주변의 모든 것이 급변하는 시기에 관계는 너무나도 쉽게 틀어지고 세계는 변모한다.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이때의 몇몇 기억이 교타로의 삶을 지배하고야 만다. 서사에 맞춰 형식도 적절히 변주된다. 특히 후반부 교타로의 감정이 기이코 세상을 일그러뜨릴 때의 역동감이란 직접 봐야만 전달되는 경험이다. 올해 칸국제영화제 감독 주간, 안시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상영되며 가도와키 고헤이라는 신예의 발견을 알렸다. (이우빈)

We Are Aliens draws from the awkward, unpolished memories of boyhood. In the summer of third grade, Tsubasa and Gyoutarou become friends. Its rotoscope-based realist style recreates the innocence of those remembered days in vivid detail: a lollipop melted onto the asphalt, sunlight filtering beneath an underpass, a dinosaur drawing proudly shown off to friends. Just as the film seems ready to settle into wistful lyricism, its mood takes a dramatic turn as the two boys enter adolescence. At an age when everything about them and around them is changing rapidly, relationships unravel all too easily, and the world itself begins to shift. Even decades later, a handful of memories from those years continue to haunt Gyoutarou and ultimately come to shape his life. The film's form shifts deftly along with its narrative. Particularly in the latter half, when Gyoutarou's emotions finally distort the world itself, the sheer dynamism of the images must be experienced firsthand. Screened this year in the Directors' Fortnight at the Cannes Film Festival and in competition at the Annecy International Animation Film Festival, *We Are Aliens* heralds the arrival of an exciting new talent in Kadowaki Kohei. (LEE Woobeen)



The White Snake Enchantress 백사전

Japan | 1958 | 78min | DCP | color
Director **YABUSHITA Taiji** 야부시타 다이지

063 Oct 07 / 09:30 / KT **568** Oct 13 / 13:30 / B3

한 편의 영화가 소년의 인생을 바꿨고, 그 소년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지도를 다시 그렸다. 1958년 도에이동화가 완성한 <백사전>은 일본 최초의 장편 컬러 애니메이션이다. 중국 설화 속 백사의 화신 파이낭과 청년 쉬센의 이룰질 수 없는 사랑은 '동양의 디즈니'를 꿈꾼 도에이의 야심 아래 야부시타 다이지 감독과 스태프들이 수만 장의 셀을 쌓아 올린 끝에 다시 태어났다. 훗날 미야자키 하야오는 자서전 격인 '출발점'에서 그 3수험생 시절 극장에서 이 영화를 만난 밤을 고백한다. 주인공에게 마음을 빼앗긴 채 눈 내리는 거리를 비틀거리며 걸어 집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다고. 그 순수하고 한결같은 세계 앞에서 스스로가 부끄러웠다는 거장의 고백에는 '싸구려 삼류 멜로드라마'라던 당시 세평을 무색하게 만드는 진심이 묻어있다.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에도 셀 한 장 한 장에 스며든 그 수공예적 정성은 조금도 낡지 않았다. 미야자키를 울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100년을 추동한, 원점이라 할 만하다. (송경원)

A single film changed the life of a boy - and that boy went on to redraw the map of Japanese animation. Completed by Toei Animation in 1958, *The White Snake Enchantress* was Japan's first feature-length color animated film. The impossible love between Bai Niang, the incarnation of the white snake from Chinese legend, and the young man Xu Xian was brought to life by director Yabushita Taiji and his staff, who produced tens of thousands of hand-painted cels in pursuit of Toei's ambition to become the 'Disney of the East.' Years later, in his autobiographical book *Starting Point*, Miyazaki Hayao recalled the night he saw the film in a theater as a high school senior preparing for college entrance exams. Captivated by the heroine, he staggered home through the snowy streets and wept all night. His confession that he felt ashamed of himself in the face of such a pure and unwavering world reveals a sincerity that belies the film's reputation at the time as a 'cheap, third-rate melodrama.' Even now, more than half a century later, the painstaking craftsmanship embedded in every single cel has not aged in the slightest. It is nothing less than a point of origin - a film that moved Miyazaki to tears and helped propel Japanese animation through the century that followed. (SONG Kyung-won)

이희건한일교류재단은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해 영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합니다.

Lee Heui Keon Korea-Japan Exchange Foundation would like to congratulate
the celebration of the 31st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026.
We wish the festival great success.

이희건 한일교류재단
Lee Heui Keon Korea-Japan Exchange Foundation

모든 시간 모든 곳의 양자경

Everything Everywhere All for Michelle

‘단단함’. 양자경에게 느껴지는 단단함은 그녀가 곧잘 휘두르던 양날의 검과 닮았다. 그 어떤 배우에게서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매력이며서도, 풍동 빠지려 하면 왠지 거부당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양날의 검. 어쩌면 이러한 단단함은 나 혼자만의 느낌은 아니었던 듯하다. 양자경은 강인하지만, 그렇기에 늘 혼자였다. 양자경과 작업한 감독들 역시 그녀는 혼자라고 늘 단단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그녀 곁에 남자가 머무는 엔딩을 원하지 않았다. 물론 그 단단함은 액션 배우로서 커리어를 쌓은 배우답게 육체적 강인함에서 시작되었다. ‘원더우먼’이 유일한 여전사였던 시절, <엑스 마담>(1985)의 양자경은 총격 그 자체였다. 등 뒤에서 꼭 안아 힘으로 제압하는 적을 앞차기로 끌어차는 그 신묘의 기술은 ‘액션 스타 양자경’의 트레이드 마크였다. 양자경의 액션은 발레전공자답게 부드러웠지만, 또한 간결하게 끊어치는 힘이 넘쳤다. 은퇴 기간이 있었지만, <폴리스 스토리 3: 초급경찰>(1992), <동방상현>(1993)은 그녀의 명성을 되살리기에 충분했다. 특히 <폴리스 스토리 3: 초급경찰>전속력으로 내달리는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는 기차에 뛰어오르는 장면은 헬기의 사다리에 매달려 하늘을 나는 성룡의 스텝트에 조금도 뒤지지 않았다.

하지만 양자경의 단단함은 육체적인 것에 머물지 않는다. 그 단단함은 <송가황조>(1997), <더 레이디>(2011)에서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도 쉽게 휘둘리지 않는 정신적 기쁨으로 확장되는가 하면, 단단하기 에 그 속내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비밀스러운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게이샤의 추억>(2005), <베니스 유령 살인사건>(2023). 그러나 무엇보다 양자경의 진짜 매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은 단단함 속에 감춰진 부드러운 속살이 슬쩍하고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일 것이다. 더도 덜도 말고 <와호장룡>(2000)의 유수련을 보라.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그 특유의 단단한 기쁨을 잃지 않던 그녀가 무너지는 순간 말이다. 이모백(주윤발)이 자신에게 허락된 마지막 숨으로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유수련의 단단함은 눈물로 녹아내리고 만다. 어쩌면 그 눈물은 단지 유수련이라는 한 인물의 것이 아니라 양자경이라는 배우가 그 단단함을 위해 억눌렀던 모든 감정을 분출하는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2022)에서 에블린이 딸에게 손을 내민다. 그 특유의 단단함과 딸에 대한 진심의 부드러움이 함께 한다. 시종일관 펼쳐지던 농담이 그 순간 진실이 된다. 그것은 차곡차곡 필모그래피를 쌓으며 자신만의 얼굴을 만들어낸 배우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다.

양자경은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2022)를 통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며 인생 최고의 정점을 맞는다. 하지만 그 수상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지금의 양자경이 홍콩 시절의 양자경보다 훨씬 ‘자유롭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자유의 주름이라 해도 좋겠다. 이러한 면에서 이번 특별전에서 꼭 만났으면 하는 영화는 <산디와라>(2026)이다. 이 작품에서 양자경은 진정으로 자유로워 보인다. 마치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난 듯한 자유스러운, 누군가의 미소를 보며 이토록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오랜만이다. (안시환)

‘Strength’ The strength emanating from Michelle Yeoh resembles the double-edged sword she so often wielded in her films - a rare allure not easily seen in another actor, yet somehow accompanied by the feeling that if you tried to fall for her, you might be met with rejection. Perhaps I wasn’t the only one who felt this way. Michelle Yeoh is strong, and possibly because of that she was always alone. Directors who worked with her may have believed that she could remain strong even on her own as they never allowed her to end a film with a man by her side. Of course, that strength originated from her physical power befitting an actor who built a career in action films. At a time when ‘Wonder Woman’ was the only female warrior on screen, Yeoh in *Yes, Madam* (1985) was simply shocking. Her marvelous front kick, with which she subdued an opponent grappling her from behind, became a trademark of the action star Michelle Yeoh. Her movements were as smooth and seamless as those of the ballet dancer she had once been, yet they were also packed with the sharp, controlled force of her strikes. Although she stepped away from acting for several years, *Police Story 3: Supercop* (1992) and *The Heroic Trio* (1993) were enough to revive her fame. In particular, the scene in *Police Story 3: Supercop* (1992) where she rides a motorcycle at full speed and leaps onto a moving train is in no way inferior to Jackie Chan’s stunt of flying through the air while clinging to a ladder suspended from a helicopter.

But Yeoh’s strength does not remain merely physical. In *The Soong Sisters* (1997) and *The Lady* (2011), it expands into a graceful dignity that remains unshaken amid the turbulence of history. In *Memoirs of a Geisha* (2005) and *A Haunting in Venice* (2023), it is transformed into a mysterious quality, where the character’s inner thoughts remain hidden beneath her composed strength.

Yeoh’s true allure, however, shines brightest in the moments when the softness hidden beneath her strong exterior reveals itself in flashes. Look no further than her character Yu Shu Lien in *Crouching Tiger, Hidden Dragon* (2000). I’m talking about the moment this woman, who remains steadfastly graceful and dignified even amid the chaos, finally crumbles. When Li Mu Bai (played by Chow Yun Fat) confesses his love for her with his dying breath, Yu Shu Lien’s composure melts into tears. Perhaps those tears belonged not only to Yu Shu Lien but also to Yeoh herself - it may have been a moment when Michelle Yeoh, the actor, released all the emotions she had kept suppressed in order to maintain that composure. In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2022) Evelyn reaches out to her daughter. Her distinct strength and the tenderness of her sincere affection for her daughter coexist in that gesture. All the jokes that have unfolded throughout the film become truth in that moment. That is the power of an actor who has made a face of her own through a carefully built filmography.

Yeoh won the Academy Award for Best Actress for her performance in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2022), reaching a remarkable peak in her life and career. But what is more important than the award itself is the fact that Yeoh today, with layers upon layers of traces left by time, feels much more ‘liberated’ than she did during her years in Hong Kong. You might even call those traces ‘wrinkles of liberation.’ In that sense, the film I most recommend in this special program dedicated to her is *Sandiwara* (2026). Yeoh seems truly liberated in this work, as though she has freed herself from the compulsion to perform.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watching someone else smile made me feel this happy. (AHN Sihwan)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United States | 2022 | 139min | DCP | color

Director **Daniel KWAN, Daniel SCHEINERT**

다니엘 칸, 다니엘 셰이너트

아카데미대상상 감독상, 작품상, 여우주연상

104 Oct 08 / 19:40 / C3 **258** Oct 09 / 16:20 / SH

* <산디와라>와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는 묶음 상영됩니다.

* *Sandiwara* and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will be screened in batches



It's My Time

우리 할머니는 큐브왕

China | 2026 | 107min | DCP | color

Director **BAI Xue 바이 슈에**

토론토영화제 갈라프레젠테이션

011 Oct 07 / 19:30 / B1 **112** Oct 08 / 20:30 / C5
263 Oct 09 / 18:20 / BCM

허무의 마음은 어떻게 치유되는가? 다니엘스의 충고는 ‘지금 여기의 나’를 미래의 가정으로 여가라는 것이다. 현재의 나를 미래에 존재할 ‘무수한 나’의 잠재적 자아로 간주하기, 그렇게 현재의 자신을 긍정하기. 가수, 요리사, 배우, 쿵후 고수 등이 될 수 있었던 에블린은 자신이 놓친 것들을 후회하기보다 그 멀티버스를 현재와 결합(정합)하며 ‘지금 여기의 나’에게도 미래의 삶을 결정할 힘이 있음을 깨닫는다. 우리가 스스로를 허무의 감옥에 가두는 것은 지금의 삶을 아쩔 수 없는 단일 세계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소시지 손가락’과 ‘발가락 피아노’의 세계가 딱하니 존재하는데, 그 어떤 세계가 불가능하겠는가? 그 무엇이란 가능하다. 자신의 마음에 그 무수한 세계의 썩이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말이다. 설령, 그 가르침이 거짓이라 해도 두 눈 꼭 감고 속아 넘어가고 싶은 영화, 그것이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이다. (안시환)

How can the feeling of futility be healed? The Daniels’ answer is to regard the self here and now as a hypothesis of the future. To see the present self as a potential version among the countless possible selves and, in doing so, affirm who we are in the present. Rather than dwelling on what she might have become, Evelyn, who could have been a singer, chef, actor, or kung fu master, connects the multiverse to her present through ‘jumps’ between worlds and realizes that her present self, too, has the power to change the future. We trap ourselves in futility by defining our present life as a single world and resigning ourselves to it. But when worlds with ‘hot dog fingers’ and ‘piano-playing feet’ can exist, what world could possibly be impossible? Anything is possible, if only we accept that the seeds of countless worlds already exist within our hearts. Even if that were untrue,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is the kind of film that makes you want to close your eyes tight and believe it anyway. (AHN Sihwan)

43.25경. 정육면체의 매직큐브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형상의 수다. <우리 할머니는 큐브왕>은 그 수많은 경우의 수를 뚫고 하나의 형상을 만들어야 하는 매직큐브를 소재로 하는 영화다. 많은 스포츠 영화가 그러하듯이, 자신이 진짜 이기기나 풀어야 하는 문제는 경기장이 아닌 바로 삶 속에, 그리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법이다. 자오(양자경)는 사기 혐의로 집을 잃고 양로원에서 생활한다. 그런 그녀에게 한때 매직큐브 세계 챔피언이었지만 지금은 아자원에서 변변찮은 볼거리를 선보이며 살아가는 청년 유웨이(이강민)가 나타난다. 자오는 그에게서 매직큐브의 모든 것을 하나씩 배워간다. 그녀의 큐브 실력은 일취월장하며 어려운 난제를 하나씩 풀어가지만, 정작 풀어야 할 자신의 문제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다. 매직큐브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난제를 풀아가는 게임이다. 삶의 난제가 풀리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그 어떤 문제도 풀 수 없다. 이 자명하면서도 묵직한 삶의 이치를 건네는 것, 그것이 양자경의 손에 감이 아닌 큐브가 놓인 이유다. (안시환)

43.25 quintillion. That is the number of possible configurations of a Rubik’s Cube. *It’s My Time* is a film about a puzzle where one must find a single configuration among those countless possibilities. As in many sports films, the real game one must win, or the real problem one must solve, is not on the field but in life itself - and within oneself. Zhao (Michelle Yeoh) lives in a nursing home after losing her home over allegations of fraud. There, she meets Youwei, a former Rubik’s Cube world champion who is now reduced to performing modest tricks at night markets. Zhao enlists his help to learn everything about the Rubik’s Cube, and her skills improve by leaps and bounds as she solves one difficult puzzle after another, but the problems in her own life prove far more difficult to resolve. The Rubik’s Cube is a game, in which solving difficult puzzles requires constant adjustment due to continually changing configurations. Life’s problems are much the same. Unless we change ourselves, no problem can be solved. This is the obvious yet weighty truth about life that the film tells us - and why the object in Michelle Yeoh’s hands is a Rubik’s Cube, not a sword. (AHN Sihwan)



Reign of Assassins

검우강호

Taiwan/Hong Kong, China | 2010 | 120min | 35mm | color
Director **SU Chao-Pin, John WOO** 수차오핀, 오우삼

베니스영화제 비경쟁

281 Oct 10 / 18:50 / B3

무협영화들이 '크게, 더 크고 장엄하게'를 향해 치달던 무렵, <검우강호>는 대규모 군중 장면과 CG의 과도함을 배제한 채 인물의 얼굴과 동작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무협영화의 본령을 되살린다. <검우강호>에는 공동 연출자인 오우삼과 수차오핀의 특징이 공존한다. 오우삼의 할리우드 데뷔작이었던 <페이스 오프>의 설정이 있는가 하면, 중반부터 본격화되는 케이퍼 무비의 성격은 수차오핀의 흔적처럼 보인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무협영화를 무협영화답게 만들고 싶었던 듯하다. <검우강호>의 대결 장면은 군더더기 없이 담백하다. 검과 검이 부딪힐 때, 검이 몸을 스쳐 지나갈 때의 아름다운 긴장감과 무림 고수의 상처 입은 몸에서 느껴지는 죽음의 허무까지 무협영화 특유의 고전적인 쾌감을 되살린다. 사족 하나. 혹시 당신은 양자경이 사랑하는 이와 함께 하며 끝맺는 작품을 본 적이 있는가? 그런 면에서 <검우강호>는 양자경에게도, 당신에게도 아주 특별한 영화로 기억될 것이다. (안시환)

At a time when wuxia (martial arts) film was pursuing ever larger, grander, and more spectacular productions, *Reign of Assassins* turns away from the massive crowd scenes and excessive CGI to revive the essence of the wuxia film, focusing instead on the faces of its characters and the details of their every movement. The film bears the signatures of its co-directors, Su Chao-Pin and John Woo - a setup reminiscent of Woo's Hollywood debut *Face/Off*, and the caper-film elements that come to the fore in the second half of the film which seem to bear Su's traces. Yet both directors appear to share a desire to make a wuxia film that is true to the genre. The fight scenes in *Reign of Assassins* are spare and unadorned. From the exquisite tension of swords clashing and blades grazing the body to the futility of death felt through the wounded bodies of martial-arts masters, the film revives the classical pleasures unique to wuxia films. One little aside: have you ever seen a film where Michelle Yeoh ends up with the person she loves? In that respect, *Reign of Assassins* will remain a very special film for Yeoh, and also for you. (AHN Sihwan)



Sandiwara

산디와라

United States/Malaysia | 2026 | 11min | DCP | color
Director **Sean BAKER** 선 베이커

베를린영화제 스페셜토크

104 Oct 08 / 19:40 / C3 **258** Oct 09 / 16:20 / SH

* <산디와라>와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는 묶음 상영됩니다.
* *Sandiwara and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will be screened in batches

Special Screenings | 특별상영

* <버스정류장>과 <플레시 임팩트>는 묶음 상영됩니다.

* *Bus Stop and Flesh Impact* will be screened in batches



Bus Stop

버스정류장

United States | 1956 | 96min | DCP | color
Director **Joshua LOGAN** 조슈아 로건

010 Oct 07 / 15:30 / B1

마릴린 먼로가 '마릴린 먼로'를 꿈꾸는 인물을 연기한다. 언젠가 할리우드에 도착하리라 믿는 솔직 가수 '체리' 앞에 몬태나에서 온 카우보이 '보'가 나타난다. 덜컥 사랑에 빠진 보는 무작정 결혼을 밀어붙이고, 세리를 번번이 '체리'라 잘못 부르면서 그녀를 자신만의 천사라는 이미지에 가두려 한다. <버스정류장> (1956)은 마릴린 먼로가 <7년만의 외출> (1955) 촬영을 마치고 할리우드를 떠나 뉴욕에서 연기를 공부한 뒤, 폭스와 새 계약을 맺고 복귀작으로 선택한 영화다. 여기서 먼로는 얼굴을 창백하게 만들고 노래를 일부러 서툴게 부르며 자신의 외양을 흐트러뜨린다. 스타가 되려는 세리와 이미 스타가 된 먼로가 화면 위에서 겹치는 동안, 여성을 하나의 이미지로 굳히는 시선과 그 틀 안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빚어내는 먼로의 연기가 흥미롭게 맞부딪힌다. (함윤정)

Marilyn Monroe plays a woman who dreams of becoming 'Marilyn Monroe.' Chérie, a saloon singer who believes she will someday make it to Hollywood, meets Bo, a cowboy from Montana. Falling instantly in love, Bo impulsively presses her to marry him, repeatedly calling her 'Cherry' instead of 'Chérie' as he tries to confine her to his own idealized image of an angel. After completing *The Seven Year Itch* (1955), leaving Hollywood to study acting in New York, and signing a new contract with Fox, Monroe chose *Bus Stop* (1956) as her comeback vehicle. Here, Monroe wears deliberately pale makeup and intentionally sings off-key, roughening up her own image. As Chérie, striving to become a star, overlaps onscreen with Monroe, who has already become one, a fascinating tension emerges between a gaze that seeks to fix a woman in a single image and Monroe's own performance, which forges a new image from within that very frame. (HAM Yoonjeong)



Flesh Impact

플레시 임팩트

United States | 2026 | 17min | DCP | color
Director **Maggie GYLLENHAAL** 매기 질렌haal

010 Oct 07 / 15:30 / B1

손을 뻗으면 만질 수 있을 듯한 존재감. 빌리 와일더의 유명한 천사에서 제목을 가져온 <플레시 임팩트>는 하나의 가정에서 출발한다. 탄생 100주년을 맞은 지금, 마릴린 먼로가 살아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 앨런 버스틴과 다코타 존슨이 노년과 젊은 시절의 먼로를 연기한 영화는 오디션이라는 형식으로 그녀의 생애를 재구성한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따라 유년 시절의 촉각적 기억은 훗날 모두가 열망한 스타의 이미지와 연결되고, 그 이미지가 팔려나간 과정을 능청스레 묘사하는 인물의 모습에 우리는 금세 빠져든다. 서로 다른 나이의 먼로가 화면에 포개질 때, 전설이 된 배우의 초상은 세월을 가로질러 생생히 되살아난다. 이미지 뒤의 '진짜 먼로'를 캐내기보다, 그녀가 살아보지 못한 시간을 영화로 돌려주며 스타의 신화를 현재형의 연기로 바꿔 쓴 매기 질렌haal의 연출이 빛난다. (함윤정)

A presence so vivid you feel you could reach out and touch it. *Flesh Impact*, taking its title from Billy Wilder's famous remark, begins with a single premise: Now, a century after her birth, what would Marilyn Monroe be like if she were still alive? With Ellen Burstyn and Dakota Johnson playing Monroe in her later years and her youth, respectively, the film reconstructs her life in the form of an audition. As the story unfolds onstage, tactile memories of childhood become entwined with the image of the star whom everyone would later desire, and we are quickly drawn in as Monroe wryly recounts how that image was packaged and sold. When the Monroes of different ages overlap onscreen, the portrait of the legendary actress comes alive across time. Rather than excavating the 'real Monroe' behind the image, Maggie Gyllenhaal's film gives her the years she never had the chance to live, rewriting the star's myth as a performance in the present tense. (HAM Yoonjeong)



Cold War 1994

콜드 워 1994

Hong Kong, China/China | 2026 | 117min | DCP | color
Director **Longman LEUNG** **형록만**

283 Oct 10 / 09:00 / CX

총격전과 추격전을 기대했다 '심리전'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영화, <콜드 워> 시리즈가 딱 그런 영화다. 랑록만 감독은 장르적 관습을 따르는 척하지만, 진짜 관심은 중심 사건을 맥가핀처럼 활용한 채,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조직 내의 권력 투쟁과 음모, 아슬아슬한 견제와 균형, 법적 제도와 정의 간의 긴장을 통해 권력 구조와 그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것에 있다. 프리퀄 영화인 <콜드 워 1994> 역시 시리즈의 중심이었던 'M.B 리'의 젊은 시절을 중심으로 경찰 조직과 비밀정보국, 삼합회, 재벌, 외국 정보기관까지 다양한 세력이 교차하는 과정을 정신없이 펼쳐낸다. 전작에서 의문으로 남겨뒀던 숨겨진 힘의 뿌리를 홍콩 반환 이전의 정치적 상황과 연결 짓는 것이 무엇보다 흥미롭다. 또한 전작에 비해 정치적 무게를 덜어낸 대신, 그 자리를 아이맥스 화면 위로 펼쳐지는 홍콩 영화 특유의 스펙터클로 채운다. 또 다른 매력이다. (안시환)

A film you expect to be full of gunfights and chases, only to find yourself captivated by the charm of mind games - that is what the *Cold War* series is all about. Leung Longman may appear to follow the conventions of the genre, but his real interest lies elsewhere. Using the central conflict as a MacGuffin, he reveals the power structures and mechanisms through the struggles and conspiracies within the organization, the precarious checks and balances between competing forces, and the tension between the legal system and justice that emerges in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conflict. The prequel *Cold War 1994*, similarly, throws us headlong into the intriguing interests of different forces, from the police and a secret intelligence agency, the triads, giant conglomerates, and foreign intelligence organizations, through the story of a young M.B. Lee, the central figure of the *Cold War* series. A particularly fascinating point is the way the hidden source of power that had been left unexplained in the previous film is connected to the political circumstances surrounding Hong Kong before the handover. At the same time, the film lightens the political weight of the previous work and fills that space with the spectacles characteristic of Hong Kong cinema, a marvelous display that unfolds across the IMAX screen. That, too, is part of this film's appeal. (AHN Sihwan)



Melancholia

멜랑콜리아

Denmark | 2011 | 135min | DCP | color
Director **Lars von TRIER** **라스 폰 트리에**

742 Oct 8 / 14:50 / B1

라스 폰 트리에의 걸작 <멜랑콜리아>(2011)는 브뤼헐의 회화, 『햄릿』의 오페리아 이미지, 그리고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를 변주하며 내밀하면서도 장대한 한 편의 오페라를 펼쳐 보인다. 라스 폰 트리에는 서로 대조적인 두 자매를 그린다. 클레어는 부유한 가정에서 남편, 아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듯 보이는 반면, 깊은 우울증에 사로잡힌 자스틴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모든 것을 스스로 파괴해 버린다. '멜랑콜리아'라는 행성이 지구를 향해 위협하게 다가오면서, 세상의 종말을 앞두고 두 인물은 저마다 뜻밖의 얼굴을 드러낸다. 금발의 커스틴 던스트와 갈색 머리의 샤를로트 갱스부르, 두 뛰어난 배우는 서로의 음화(陰畵)와도 같은 자매를 완벽하게 연기해 낸다. (서승희)

“그럼에도 이 영화가 우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건 이 영화가 지닌 아름다운 때문이다.” — 샤를로트 갱스부르, 『살롱닷컴』 2011년 11월 10일

Melancholia (2011) is regarded as one of Lars von Trier's masterpieces. Weaving together variations on Bruegel's paintings, the image of Ophelia from *Hamlet*, and Wagner's *Tristan and Isolde*, the film unfolds like an intimate yet epic opera. Lars von Trier portrays two contrasting sisters. Claire appears to enjoy a happy, affluent life with her husband and son, while Justine, gripped by deep depression, destroys everything that might make her happy. As the planet 'Melancholia' draws perilously close to Earth and the end of the world looms, the two women reveal unexpected sides of themselves. Blonde Kirsten Dunst and brunette Charlotte Gainsbourg, two brilliant actresses, perfectly embody sisters who seem like negatives of one another. (SEO Seunghee)
“Still, if the film isn't depressing, it's also thanks to its beauty.”
— Charlotte Gainsbourg, Salon.com, Nov 10, 2011



M (4K Remastering)

M (4K 리마스터링)

Korea | 2026 | 109min | DCP | color
Director **LEE Myung-Se** **이명세**

WP

255 Oct 09 / 18:00 / KT **425** Oct 11 / 22:10 / L3

이명세에게 영화는 꿈의 미로를 헤매는 과정이며 뇌라는 스크린에 맺힌 상들을 추적하는 탐정의 보고서이다. <M>(2007)은 달콤한 <첫사랑>(1993)의 판타지와 심신을 병들게 하는 <지독한 사랑>(1996)의 황폐함을 한 몸에 지닌 영화다. 미미(이연희)는 기억-영화의 중핵이다. 이명세가 생각하는 기억-영화는 불면에 시달리고 꿈겨 나간 기억을 떠올리며 몽유병자처럼 자신도 모르게 시·공간을 이탈했다 되돌아오는 과정이다. 창문에 드리운 하얀 커튼과 학교 운동장에 처진 대형 천막은 민우(강동원)의 뇌에 맺힌 이미지가 투사되는 스크린이자 집요하게 민우를 불러내는 유령의 사선이나 다름없다. 전작 <형사 Duelist>(2005)가 평면들의 확장과 변형을 거듭해 운동과 소멸이라는 아름다운 활동에 도달했다면 <M>은 영화의 평면과 깊이가 서로를 쫓으며 민우의 조각난 기억-스크린에 접촉하려는 필사적인 숭배곡절이다. 미미라는 유령과 기억과 사랑이 영화의 열정과 유희하며 도달한 곳은 이명세 자신일 것이다. (박인호)

For Lee Myung-Se, cinema is both a journey through the labyrinth of dreams and a detective's report, taking images from within the brain and projecting them onto the screen. *M* (2007) contains within it both the sweet fantasy of *First Love* (1993) and the desolation of *Their Last Love Affair* (1996), which poisons both body and mind. Mimi (Lee Yeon-hee) is the core of this memory-film. The memory-film, as Lee Myung-Se conceives it, is a process of suffering through insomnia, summoning fragmented memories, and slipping unknowingly in and out of time and space like a sleepwalker. The white curtain over the window and the giant tent pitched in the schoolyard are at once screens onto which images from Minwoo's (Gang Dong-won) brain are projected and the relentless gaze of a ghost summoning him. If his previous work *The Duelist* (2005), through repeated expansions and transformations of planes, arrived at the beautiful interplay of movement and disappearance, *M* is a desperate game of hide-and-seek in which the planes and depths of cinema chase one another, straining to make contact with Minwoo's fractured memory-screen. The ghost named Mimi, memory, and love, play with cinema's passion only to arrive, in the end, at Lee Myung-Se himself. (PARK Inho)



Special Screenings

특별상영

Carte Blanche 카르뜨 블랑슈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국내외의 영화 및 문화계 명사들이 자신들이 사랑하는 영화를 직접 선정하고 관객과의 대화를 나눈다.

배우 판빙빙, 감독 김지운, 촬영감독 홍경표가 참여한다. 영화에 관한 명사들의 소중한 흥미로운 사적 경험과 감상을 듣는 한편,

관객의 소양과 안목 또한 고양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Prominent figures from Korea and the international film and cultural industries each select a film they cherish and engage in conversations with the audience. Participants include actor Fan Bingbing, director Kim Jeewoon and cinematographer Hong Kyung-pyo. Through the personal and engaging reflections of these leading figures, the program offers audiences an opportunity to broaden their cinematic perspective and deepen their appreciation of film.



The Handmaiden 아가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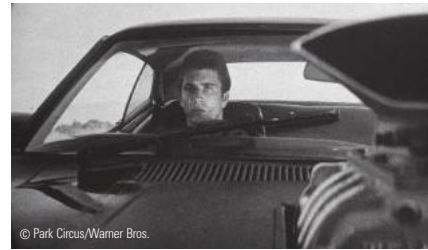
Korea | 2016 | 144min | DCP | color
Director **PARK Chan-wook** 박찬욱

칸영화제 별칸상

082 Oct 08 / 15:30 / B2

The Handmaiden weaves together desire, deception, and power through its exquisite aesthetic, while following two women trapped in their own predicaments as they confront one another, ultimately saving themselves and breaking free from the constraints of fate. The women captured through Director Park Chan-wook's lens are both dangerous and free. I was deeply captivated by its clarity, boldness, and vitality. — Actor FAN Bingbing

Transposing Sarah Waters's *Fingersmith* to 1930s Joseon, *The Handmaiden* traverses Kim Ki-young's housemaid, the Marquis de Sade's boudoir, and Hollywood gothic to arrive in a space Korean cinema had never set foot in before. Entering a hybrid British-style manor grafted onto a Japanese house, maid and pickpocket Sook-hee (Kim Tae-ri) must attend to heiress Hideko (Kim Min-hee) while watching out for both the master who aspires to be Japanese and the swindler count scheming to claim the lady. Taking the erotic readings forced upon Hideko as its point of departure, *The Handmaiden* leads women who willingly hijack their oppressors' camouflage onto a new stage. Passing through sliding doors across the CinemaScope frame over three chapters, the meaning and color of identical gestures, the positions of original and replica, and the faces of love and exploitation are thoroughly transformed. As Park Chan-wook's first queer melodrama, even the journey of liberating occupied beauty from the ledger of possessions is profoundly aesthetic. (KIM So-mi)



그 위대한 전설의 시작이자, 시리즈 중 가장 자극적이고 거칠며 본능적인 작품.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가공할 만한 에너지의 충격과 두려움은 여전히 생생하다. 진정한 '시네마틱 시네마'란 무엇인가를 증명하는 영화. — 감독 김지운

조지 밀러의 데뷔작 <매드 맥스>(1979)는 <매드 맥스: 분노의 도로>(2015)에 이르기까지 황폐한 길을 달려 새 세상을 찾는 반영웅을 탄생시킨 시작이다. 폭주하는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쫓는 경찰의 추격이 큰 축을 이루지만, 질주의 쾌감보다 1970년대 후반 호주의 길과 마을, 들판과 바다 등의 지형을 공들여 묘사한다. 법과 질서가 무너진 세상과 기형적인 욕구에 지배당하는 인물의 난폭함에 가려진 두려움과 허무를 꿰뚫는다. 새롭게 이식된 서부극의 관습, 몬티 펄먼의 목격치 않는 로드 무비, 긴장을 고조시키고 운동을 극대화하는 편집, 서사의 감정과 분위기를 요약한 록 음악, 온갖 하위문화의 집대성인 인물들을 모아 펑크적 세계로 향한다. "더 이상 영웅을 믿지 않는" 세상의 한복판에 거어서라도 복수에 성공한 맥스의 얼굴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하다. 웅장의 화열 대신 무표정한 그림자가 된 욕신이 떠돈다. 저항과 폭동과 파괴와 목시록을 향한 길은 아마도 씨앗을 간직한 여인들에게로 향할 것이다. (박인호)



블 때마다 푸른빛 속에 담긴 상실과 고독이 새롭게 다가오고, 이미지가 얼마나 깊은 감정을 전할 수 있는지 다시금 깨닫게 만드는 작품. — 촬영감독 홍경표

<세 가지 색 : 블루>에서 폴란드 출신의 슬라보미르 이드지악 촬영감독의 카메라는 치갑다. 그것은 사고로 남편과 아이를 잃은 주인공 줄리엣 비노쉬의 내면과 감정을 표현한다. 그렇다고 인물을 마냥 관찰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드지악 촬영감독은 핸드헬드 카메라로 줄리엣 비노쉬의 행동과 감정을 따라가며 담아낸다. 그의 카메라는 마치 줄리엣 비노쉬의 감각기관 같다. 기자가 줄리엣 비노쉬를 찾아와 죽은 남편에 대해 묻는 순간, 강렬한 푸른색 빛이 음악과 함께 화면을 덮치는 명장면은 차가운 그녀의 내면을 고스란히 보여준다(이 명장면조차도 우연히 탄생했다고 한다!). 푸른색 빛은 인물의 심리를 강조하는 동시에 이 영화의 시각적 언어이다. 늘 인물의 감정을 빛으로 표현해 온 홍경표 촬영감독이 이 영화를 끝낸 거, 어쩌면 카메라의 역할과 빛의 살계가 인물을 구축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지도 모른다. (김성훈)

Mad Max

매드 맥스

Australia | 1979 | 93min | DCP | color
Director **George MILLER** 조지 밀러

170 Oct 09 / 11:30 / B1

Mad Max is the beginning of a great legend and the wildest, toughest, and most instinctive film in the entire series. The shock and fear I felt from the sheer force of its energy when I first saw this film are still vivid. It is a film that proves what true 'cinematic cinema' can be. — Director KIM Jeewoon

George Miller's debut feature *Mad Max*(1979) marks the origin of the antihero who travels desolate roads in search of a new world, a lineage extending to *Mad Max: Fury Road* (2015). While police chases after speeding cars and motorcycles form a major axis of the film, it dwells less on the thrill of speed than on the terrain of late-1970s Australia—its roads, towns, fields, and sea. It pierces through to the fear and nihilism beneath the violence of a world where law and order have collapsed and characters are ruled by grotesque desires. Combining newly grafted western conventions, Monte Hellman's directionless road movie, tension-heightening editing, rock music that condenses the narrative's emotions and mood, and characters embodying myriad subcultures, the film hurtles toward a punk world. In a world that "no longer believes in heroes," Max's face is eerily still after he succeeds in his revenge, even if he has to crawl. In place of the thrill of retribution, an expressionless body drifts like a shadow. The road toward resistance, riot, destruction, and apocalypse may ultimately lead to the women who carry the seed. (PARK Inho)

Three Colours: Blue

세 가지 색 : 블루

France/Poland | 1993 | 99min | DCP | color
Director **Krzysztof KIESLOWSKI** 크뤼시토프 키에슬로브스키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110 Oct 08 / 12:50 / C5

Every time I watch *Three Colours: Blue*, the loss and solitude captured in its blue hues feel new, and it reminds me once again of how deeply images can convey emotion. — Cinematographer HONG Kyung-pyo

In *Three Colours: Blue*, the camera of Polish cinematographer Slawomir Idziak remains cold. It reflects the interiority and emotions of the protagonist (Juliette Binoche), who lost her husband and child in an accident. Yet, it does not merely observe the character from a distance. Using a handheld camera, Idziak closely follows and captures Binoche's actions and emotions. His camera functions almost like an extension of Binoche's own sensory organs. When a journalist visits Binoche to ask about her late husband, an iconic scene unfolds where an intense blue light washes over the screen along with the music, revealing her frigid interior world (even this masterpiece of a scene was reportedly born by chance!). The blue light not only underscores the character's psychology but also serves as the visual language of the film. Cinematographer Hong Kyung-pyo, who has always expressed characters' emotions through light, likely chose this film to demonstrate just how crucial the camera's role and the architecture of lighting are in constructing a character. (KIM Seonghoon)

작품별 색인

1982	82	마더 메리	73	셀비	86	자바의 사계절	101
15/18	128	마리가 뭐 어때서	132	소금 전기	144	자빌	115
58번째	152	마이 마더	50	소리그를	150	잔치는 끝났다	145
771일 후	146	마인드 게임	180	소울 위스퍼러	108	장 물령	73
M (4K 리마스터링)	188	마키카린 포	71	수능, 출제의 비밀	116	장미의 사슬	166
zi	81	매드 맥스	191	수호전사: 황제의 마지막 비밀	108	재혼 황후	171
가능한 사람	77	멀리 있는 집	143	숨바꼭질	178	전쟁의 새들	154
가바초 챔피언	119	염취사다	88	스카페이스 캣: 수라도	168	청년네	112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다	64	메리 크리스마스, 엄마	122	스킨타운	131	젠틀 몬스터	123
개	143	메마른 땅 아래	144	스파이럴	163, 169	조용히 귀 기울이면	104
개그맨	174	메모리즈	179	스페이스	94	조의 하루: 페드라 첼터	135
검우강호	186	메트로폴리스	180	솔름의 벨라돈나	177	좋은 남자는 없다	106
검정이	67	멜랑콜리아	189	시골 소년 가병과 함께한 10년	156	지금에 떨어진 남자	143
겨울 이야기	105	멜트다운	138	시라누이	182	지금 여기에도 돼요?	148
고래사냥	175	연도	55	신원미상	142	지민지민지	143
고스트 - 밤의 끝	178	모범 직원 카를라	123	실낙원	61	짐 권	126, 166
교랑의오후	143	메마른 땅 아래	94	실버 익스프레스	56	짐승이 너무 많아	131
구원은 없다	130	무명소녀	102	아가씨	190	처음 만난 외로움	48
굿바이, 이놈의 잔인한 세상	124	미노타우로스	72	아름다운 초차녀달	161	천국으로 가는 아홉 사원	96
권진규: 예술가의 일생	157	미몽	87	아마추어 에너지	143	천사의 알	165, 177
귀발레	91	마친 노인의 일기	99	아버지의 방	104	천세계	117
그 소녀의 기억	59	바다에 새겨진 이름	54	아이언 보이	126	청춘길일	154
그날 밤, 클라리사에게	120	바람불어 좋은날	174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93	초대받지 않은 손님	124
그날의 태주	45	바람을 타고	144	안개 속의 꼬끼리	100	초대받지 않은 이웃	143
그녀가 말했다	144	그녀의 빛깔	158	안녕, 스텔라	153	초원의 아가르	147
그대, 별처럼	109	바이 애니 민즈: 자비는 없다	119	알파	145	최종면접	114
그저 환상일 뿐	162	바이올리니스트	164	아생 참나무의 꿈	148	축제	173
극장에 두고 온 것들	95	백 투 부에노스아이레스	65	악속된 공간	77	춤과 인형	145
긴 겨울	71	백사전	183	어느 날, 아내가 울었다	104	철수와 만수	173
긴긴밤	51	버스정류장	187	아름 속의 새들	83	코리아	105
김윤신은 미술관에 없다	157	버킹 패스타드	66	어크로스: 전쟁은 어떻게 잊혀지는가	147	쿨드 워 1994	188
꿀알바	171	베니마나	118	언노운	80	클럽 카드	120
나기 노트	74	베도프드 파크	134	엄마의 바다	129	타이타닉 오션	139
나무는 태어난 곳에서 죽는다	150	베이비 잭프루츠 베이비 구아바	153	에밀리아, 사랑을 기억하다	65	타인에게 속한 것들	140
나의 사소하고도 큰 일들	97	베일러	89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185	맷줄	84
낮과 밤은 서로에게	43	변종	142	에브리타임	122	텐더 러빙 케어	79
넋장	142	부아	88	에코 제엄바	68	토마토 파스타 레시피	142
내 친구로 남아줄래?	109	불새 2772 사랑의 코스모존	181	여*기의 발가락	143	파더랜드	69
내가 사랑하는 남자	72	불장력	167	여전히 찬란하게	116	파도 위에서 춤추는 여자	151
내가 사랑한 빌 에번스	121	불타는 거인들	98	영웅은 아니지만	107	파리스 그린이 밝는 날에	181
내일은 이름이 있다	58, 160	붉은 바위에 아이들이 있다	78	엘로우 레타스	81	파티마	145
노래가 끝난 후	83	붉은 실	167	옛날 옛적, 미래에	136	패러렐 테일즈: 데칼로그	76
노트르 살튀	137	블랙 볼	137	오늘 밤, 사랑은 일어난다	70	페이퍼 타이거	76
눈 둘 데가 없네	75	블랙처치 베이	135	오래오래 행복하게	103	페터 줌토르 by 빔 벤더스, 3D	70
눈에는 눈	103	붉은 나이트의 연인들	106	오렌지 맛 웨딩	75	평범하기 위하여	57
다마, 홀라강	99	비바 카르멘	132	오아시스	138	푸른길	170
다시 눈이 올 거야	87	비터 크리스마스	66	온 더 로드: 알바스 카이로스타미	149	풀문	92
당신을 위한 것은 아닌	93	비트윈 투 러버스	46	올라와 올레츠: 난 좀처럼 꿈에서 깨어나지 않지	125	프래서	128
다스트	68	빙판 위의 새들	98	와일드 후스 나인	80	플러시 암팩트	187
데드 엔드	85	행과 책	52	워쳐서 고맙다는 거장의 인사	79	피오르	69
도라	59	사라지는 것들	145	왕과 새	179	필라피냐나	100
답 불루	121	사랑의 지평선 너머로	90	우리 할머니는 큐브왕	60, 185	컬러스 오브 화이트 록	175
라 그리디바	127	사적인 일에 관하여	97	우리, 파도처럼	125	호프	115
라 페라	127	사토코는 언제나	53	우리는 외계인	182	혼란 속에서	145
라두 주데의 어느 하녀의 일기	67	사피엔스	113, 168	우주의 흔적	91	호스키: 바다의 끝에서	156
레이 건	77	산디와라	186	헬렌 투 들리 하우스	169	화국사	92
로마 엘라스티카	78	살인의 문	101	유니온 타운: 뉴욕을 달리는 사람들	159	화이트 록의 색깔	155
로즈	129	새	90	이상과 감성	130	환상의 불빛	85
룩백	60, 162	새드 걸즈	139	이야기, 이야기	102	흐르는 세월	159
리아	86	새벽에서 다시 새벽으로	155	이름리스	136	힐를	49
리커버리	149	세 가지 색: 블루	191	인헤릿	161		
리하설 포 레볼루션	158	세대유감	113, 163	일요일 다음날	47		

Index of Films

1982	82	Dhara	99	Just an Illusion	162	Sandiwara	186
58th	152	Diary of a Chambermaid, The	67	Kakurenbo	178	Sapiens	113, 168
771 Days	146	Diary of a Mad Old Man	99	Khoriya	105	Satoko Always	53
9 Temples to Heaven	96	Distant Home, The	143	Kim Yun Shin Punches In	157	Scar-Faced Cat: Way of Asura, The	168
About an Intimate Matter	97	Dora	59	King and the Mockingbird, The	179	Sea Speaks His Name, The	54
ACROSS: Anatomy of the Forgotten War	147	Downwind	144	L'Autre	167	Selvi	86
After the Song	83	Dreams of the Wild Oaks	148	La Bola Negra	137	Sense and Sensibility	130
Afternoon on the Bridge	143	Dust	68	La Gradiva	127	Shaving	55
AGAAR	147	Earbug	91	La Perra	127	She Said	144
All About Corinne	58, 160	Echo Chamber, The	68	Let Us Through, Dear Ancestors	71	Shiranui	182
All of a Sudden	64	Eclipse	136	Life of an Artist: Kwon Jinkyu, A	157	silver express	56
All of Her	143	Elephants in the Fog	100	Long Long Night	51	SINNER	115
Amateur Energy	143	Everybody Digs Bill Evans	121	Long Winter, A	71	Skintown	131
Angel's Egg	165, 177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185	Look Back	60, 162	Slumber	87
Annyeong, Stellar	153	Everytime	122	Lovers in the Blue Night	106	Some Detective	94
Baby Doe	142	Fatherland	69	M (4K Remastering)	188	Sorry Generation, The	113, 163
Baby Jackfruit Baby Guava	153	Fatima	145	Mad Max	191	Soul Whisperer, The	108
Back to Buenos Aires	65	Festival	173	Man I Love, The	72	Soundweave	150
BALER	89	Filipiñana	100	Man of His Time, A	137	Space	94
Beach Fictions	45	Final Interview	114	Melanolia	189	Spiral, The	163, 169
Bedford Park	134	Fine, Windy Day A	174	Meltdown, The	138	Spirit Guardians: The Last Secret Of The First Emperor	108
Belladonna of Sadness	177	Fire within You, The	122	MEMORIES	179	Still Shining	116
Beloved, The	67	First Taste of Loneliness, The	48	Metropolis	180	Table: Day and Night, The	43
Bjrd	69	Middy Meal	52	MIND GAME	180	Tale of Tails	143
Beneath the Barren	144	Flesh Impact	187	MINOTAUR	72	Tender Loving Care	79
Ben'imana	118	Flower, The	92	Minotaur	72	Thanks for Coming	79
Best Days, The	154	Fōa - Once Upon A Future	136	Mother Mary	73	There Will Be Snow	87
Between Two Lovers	46	Four Seasons in Java	101	Moulin	73	Things I Left at the Theater	95
Beyond Love's Horizon	90	From Dawn to Dawn	155	My Wife Cries	74	Things That Vanish, The	145
Big Little Things	97	From Inside Out - The Architecture of Peter Zumthor	70	Nagi Notes	74	Three Colours: Blue	191
Birds in the Dark	83	FULL MOON	92	New Dawn, A	181	Time and Tide	159
Birds of War	154	No Good Men	106	Not a Hero	107	Titanic Ocean	139
Birds on Ice	98	Gabin	156	Not for You	93	To Be Ordinary	57
Birds, The	90	Gagman	174	Nothing Has Happened Yet	93	TOE's	143
Bitter Christmas	66	Gate of Murder, The	101	Nowhere to Lay My Eyes	75	Tomato Pasta Recipe	142
Black Church Bay	135	Gentle Monster	123	Oasis	138	Too Many Beasts	131
Blue Road, The	170	ghost – end of night	178	On the Road with Abbas Kiarostami	149	Ugly Duckling Ms. Maeng	116
Boy Who Fell to Earth, The	143	Girl Unknown, A	102	Orange-Flavoured Wedding	75	Uninvited Neighbor, An	143
Bua	84	Good Little Soldier, A	123	Our Wish, Our Colors	158	Union Town	159
Bucking Fastard	66	Goodbye Cruel World	124	Paper Tiger	76	Unknown, The	80
Burning Giants, The	98	Gu Shi	102	PARADISE LOST	61	Variety, The	142
Bus Stop	187	Guest, The	124	Parallel Tales	76	Violinist, The	164
By Any Means	119	Handmaiden, The	190	Phoenix 2772 (Space Firebird)	181	Viva Carmen	132
Campeón Gabacho	119	Happily Ever After	103	Place to Heal, A	128	We Are Aliens	182
Can I Talk to You?	148	Head to Head	103	Possible Love	77	Welcome to Dolly's House	169
Cattle Run	112	Hearing	104	Pressure	128	Whale Hunting	175
Chain of Roses, The	166	Hilol	49	Promised Spaces	107	What Belongs to Others	140
Chil-su and Man-su	173	Hinotama: Ball of Fire	85	Queen at Sea	129	White Badge	175
Clarissa	120	Homesick	156	Ray Gunn	77	White Snake Enchantress, The	183
Club Kid	120	HOPE	115	Recovery	149	Wild Horse Nine	80
Cold War 1994	188	I Rarely Wake Up Dreaming	125	Red Rocks	78	Wild No More	145
Colors of White Rock	155	IBUKU	50	Red Thread	167	Will You Still Be My Friend	109
Cord, The	84	In My Father's Room	104	Rehearsals for a Revolution	158	Woman Dancing on the Waves, A	151
Cosmic Trace	91	In Our Panic	145	Reign of Assassins	186	Woman Unknown	132
Coward	67	In the Clear Moonlit Dusk	161	Remarried Empress, The	171	World Before, The	117
Day After Sunday, The	47	In Waves	125	Revolving Lanterns	150	Yellow Letters	81
Day In The Life Of Jo: Chapter Phaedra, A	135	In Winter	105	Ria	86	You, Like a Star	109
Dead End	85	Inherit	161	Roma Elastica	78	zi	81
Dead-End Job	171	Iron Boy	126	Rose	129	Zogsool	88
Dear Sunshine	142	It Will Happen Tonight	70	Sad Girlz	139	oLPo	145
Deep Blue	121	It's My Time	60, 185	Salt Electric	144		
		Jim Queen	126, 166	Salvation	130		

Catalogue Acknowledgements

Publisher

JUNG Hanseok

Editors

KIM Ari, JEON Hyeonsu / Homilbooks Publishing Co. (JUNG Jinli JUNG Dong-gyu)

Program Note Writers

JUNG Hanseok, Karen PARK, PARK Sunyoung, PARK Sungho, SEO Seunghee, KANG Sowon, JEONG Jihye, KANG Dong Ho, GU Pengyuan, GOO Hyeong Jun, KIM Seonghoon, KIM Somi, KIM Song-hee, KIM Jihye, NAM Daeun, MOON Juhwa, PARK Inho, BOO Kyunghwan, Jay Hee-jeong SOHN, SONG Kyung-won, AHN Sihwan, LEE Yong Cheol, LEE Woobeen, LEE Juhyun, JO Ji-hoon, CHO Hyunna, CHA Hanbi, CHAE Kyeong Hoon, CHOI Eun, HAM Yoonjeong, HONG Soin, HONG Eunmi

Translation

Joanna Youngae KIM, Stella KIM, CHUNG Joohyun

English Copy Editor

Simon Michael MCENTEGGART

Print & Designers

DESIGN GEULGGOL / T. 051 636 1215 / HAN Jinsoo, WOO Sunjeong, KIM Sujin

Produced by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이 카탈로그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발전기금과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This Catalog is sponsored by the Korean Film Council(KOFIC) and Busan Metropolitan City.



p!tt GROUND 굿즈숍

@영화의전당 두레광장

10/6(화) & 10/15(목)

10:00 - 15:00

10/7(수) - 10/14(수)

10:00 - 18:30

ACFM 굿즈숍

@백스코 제2전시장 네트워킹라운지

10/10(토) - 10/12(월)

9:00 - 19:00

10/13(화)

9:00 - 18:00

상영관 굿즈숍

@CGV 센텀시티 7층

10/7(수) - 10/14(수)

10:00 - 19:00



31st BIFF

2026 CHANEL X BIFF

아시아영화아카데미 수료식 및 단편영화 상영

Asian Film Academy Graduation Ceremony and Short Film Screening

일시 | Date 10월 14일, 19시 | October 14, 19:00 KST

장소 | Venue 영화의전당 소극장 | Busan Cinema Center Cinema 2

선착순 무료입장 | Free admission on a first-come, first-served basis



FORUM BIFF 8-11 October 2026

Co-Host | **DSU** Dongseo University



Sponsored by |



BAFA CHANEL X BIFF
ASIAN FILM ACADEMY



영상자료로 과거와 미래를 잇는 국민의 영상 아카이브



KOFA
기관 홈페이지



KMDb
데이터베이스



koreanfilmarchive
공식 유튜브 채널



KoreanFilm
한국고전영화 채널

CONTACT US

Tel +82 (0)2 3153-2001
kofa@koreafilm.or.kr

주소

본원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한국영상자료원 (우 03925)
파주 |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301 (우 10881)

Korean Film Museum
한국영화박물관

Cinematheque KOFA
시네마테크 KOFA

Film Reference Library
영상도서관



지쳤어?

정답이 정해진 시험지 위에 내 생각을
끼워 맞추는 건 지쳤어요
저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해답을 찾는 진짜 창작을 하고 싶어요
진짜 나만의 목소리를 찾을 거예요

당당한 실력이 만드는 확실한 미래
Be STELLAR



Responsibility. Sustainability.

지속가능한 업을 위한 우리의 책임

대한제강이 걸어온 시간은 철이 우리나라 산업의 토대가 된다는 책임감으로 다져 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철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제강업의 미래 혁신에 도전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AI 스크랩 플랫폼을 구축하고 에너지를 선순환하는 폐열 활용 솔루션을 만들며, 극한의 환경에서도 작업자를 지키는 안전 솔루션 개발로 우리가 하는 일의 역할과 가치를 확장합니다.

업의 경계를 넘는 도전과 틀을 깨는 상상력으로 미래 혁신 기술과 그린 에너지,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대한제강의 새로운 100년을 그립니다.



성우하이텍의 창조적 신기술이 자동차시장의 미래입니다

첨단소재를 활용한 차체경량화
전기차 배터리 팩 개발로 실현하는 미래형 자동차.
성우하이텍의 창조적 신기술이
미래 자동차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꿉니다.

국내최초 3Bay Links Course

DeBeach Golf Club

세인트 앤드류의 철학을 담은 코스미학
바람의 노래도 파도의 선율도 드비치에 머물다.

DOOSAN

뭐?

약 78만m²(23만여평) 공원에
단 1,644세대만을
짓는다고?

미쳤군!

TR || VN 트리브 센텀

COMING SOON

트리브 센텀 모델
안정환



약 78만m² 예술공원 × 약 191만m² 센텀2지구 공원을 가진 새로운 센텀시티
(23만여평) (58만여평)



관심고객등록
바로가기

1644.5344

총 1,644세대 1단지: 852세대 | 2단지: 792세대
[75m² | 84m²A-B-C | 114m²]

1단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1167-3 일원
2단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동 산342-3 일원

건분주택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1522

시행 (주)하나자산신탁 시공 두산에너빌리티(주) 위탁 (주)정상시티파크

※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에 따른 명장공원 및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의 개발계획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부산도시공사 홈페이지, 언론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제작한 것으로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경남 거제시 장목면 거제북로 1573
Tel.055-736-3000 / www.debeach.co.kr



부산국제영화제
참여고객 혜택 바로가기

THE WORLD'S LARGEST DEPARTMENT STORE



SHINSEGAE CENTUM CITY

세계 최대 백화점 신세계 센텀시티



BLUE
MAKINO CHAYA
SEAFOOD FESTIVAL

해운대 엘시티점

051-744-1116

10
NETFLIX



NETFLIX | 곧 공개 예정

NESPRESSO

한 번의 터치로 열리는
새로운 커피의 세계



WHAT ELSE?